



本 『南北對話 年表』는 南北會談 및  
기타 南北關係와 관련한 對內 主要動向  
· 北韓 主要動向 · 周邊情勢動向 등을  
종합정리한 것으로서 南北韓의 統一對  
話 과정에서 研究資料로 활용될 수 있  
도록 작성한 것임.

# 南北對話年表

(1997年 1月～12月)



統 一 院  
南北會談事務局



## 目 次

1月	.....	1
2月	.....	27
3月	.....	55
4月	.....	83
5月	.....	119
6月	.....	152
7月	.....	187
8月	.....	224
9月	.....	250
10月	.....	273
11月	.....	293
12月	.....	312
찾아보기	.....	343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1	<p>김영삼 대통령, 신년사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는 남북관계에서도 화해와 협력의 전기가 오길 진심으로 바랍.</li> <li>○ 민족의 평화적 통일은 7천만 동포가 누려야할 권리이자 의무이며, 우리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있는 힘을 다 해야 할 것임.</li> </ul> <p>권오기 통일부총리, 4자회담 설명회 1월이전 개최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 · 외무당장정책간담회</li> <li>○ 1. 10이전 경수로 의정서 협정조인식 있을 것, 4자회담설명회도 1월내 이뤄질 것으로 기대</li> </ul>	<p>당보 · 군보 · 청년보 「공동사설」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대한 당의 영도따라 내나라, 내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건설해 나가자.』</li> <li>○ 지난해 1996년은 전당, 전군, 전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고난의 행군을 힘차게 벌여 온 준엄한 시련의 한해, 보람된 투쟁과 승리의 한해였음.</li> <li>○ 김정일의 영도밑에 전당, 전군, 전민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기풍을 튼튼히 세워야 함.</li> <li>○ 통일문제는 민족적인 문제인 동시에 유관국들도 책임을 느끼고 적극 협력해야 할 국제적인 문제임.</li> </ul>	
1. 3	<p>김영삼 대통령, 대북 정책 신중 접근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년하례식 인사말</li> <li>○ 남북문제는 새로 시작한다는 생각에서 심각하게 다뤄야할 입장이며 쉽게 감상적으로 판단할 시기는 절대 아님.</li> </ul>	<p>사민당 부위원장 김영호, 천도교 청우당 부위원장 한영수, 잠수함 사건 관련 담화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민군 군인들의 유해가 우리측에 인도된 것은 남조선 당국이 저들의 비인도적인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사죄한 것임.</li> </ul>	<p>미, 북과 식량거래 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잠수함 침투 사과표명에 따라 미 행정부가 곡물회사 카길사에 50만톤 규모의 대북 식량거래를 허가함.</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잠수함 사건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고서도 판문점에서 시체(무장간첩)를 받아 가면서 돌아서서 정반대의 말을 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당국자들은 이번 계기를 통하여 그 어떤 모략도 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동족대결정책을 중지하고 남북폐쇄정책을 지체없이 철회해야함.</li> </ul> <p>김정일, 조선인민군 청년기동선전대원들 집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명득, 김영춘, 박재경, 최용해 참가</li> </ul> <p>로동신문, 김영삼 대통령 신년사 비난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 김○○일당은 저들이 실시해온 사대매국과 파쇼대결과 전쟁책동의 결과로 정치, 경제,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음.</li> <li>○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반공화국 대결전쟁 책동, 남북폐쇄정책을 철회해야 함.</li> </ul>	<p>북 대표단, 방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종 외교부 본부 대사와 북경주재 북한대사관 정무참사관 등을 포함한 북한외교부 관리 3명이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측과 북한경수로 건설을 위한 부지의 정서 및 서비스의 정서 서명, 후속의 정서 협상, 7차 부지조사단 파견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키로 함.</li> </ul>
1. 4		<p>「직총」위원장 주성일 · 「청년동맹」비서 최용해 · 기독교도연맹 위원장 강영섭, 잠수함 사건관련 규탄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통치배들이 배사건을 왜곡, 대결을 고취했으나 끝내 그</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4		<p>들의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사죄하는 결과를 가져왔음.</p>	
1. 5		<p>『농근맹』중앙위 대변인, 안기부법과 노동법 처리 관련 규탄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의 민주노총과 전국연합을 비롯한 재야단체들과 노동자 청년학생 등은 파쇼 악법 조작책동을 반대하여 항거해 나서는 것은 당연함.</li> </ul>	
1. 6			<p>중 연변일보, 북한측 두만강 주변 외국인 대상 관광허용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설의 백두산 관광재 부른다』 제하 기사</li> </ul>
1. 7	<p>김영삼 대통령, 북한에 『4자 회담』 호응 재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두기자회견</li> <li>◦ 북한이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시인, 사과하고 재발방지 노력을 다짐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임.</li> <li>◦ 올해는 4자회담이 성사되어 한반도에 평화정착의</li> </ul>	<p>중방, 근로자들 파업관련 시사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한국당이 『근로자지원법』 추가제정 등 회유와 탄압의 술책에 교묘하게 매달리고 있음.</li> <li>◦ 노동자들은 이에 속지 말고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억세게 싸워야 함.</li> </ul>	<p>日, 한반도 유사시 난민대책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정부는 한반도 분쟁시 매달 2천명정도의 난민 발생을 상정하여 하시모토 총리의 지시로 30개항의 『긴급사태 대응책』을 검토중</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7	<p>기름을 마련하는 해가 되어야 할 것이며, 북한이 4차회담에 호응해 나오기름 거듭 촉구하는 바임.</p> <p>북한선박(철선), 강릉해안에 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7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해안에 북한 철선(길이 9m, 폭3m)이 표류했음.</li> <li>○ 선박내부에는 목재로 만든 선실과 등잔, “김정일 동지의 명령 받들어”라는 문구가 적힌 교양노트가 있었으며 선체에는 “조해”란 글자가 새겨져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일본인 보호와 구조, 대량피난민 대책, 연안주요시설 경비 대미지원조치 등 포함</li> </ul>
1. 8		<p>노동신문, 남한 군수뇌부 전방 시찰 관련 비난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부 장관 등 군수뇌부들이 북침전쟁의 제반준비를 완료하고 새해 벽두부터 우리를 자극하고 긴장을 격화시키고 있음.</li> </ul> <p>비전향 장기수 김인서노인 딸, 국제인권 단체에 송환요청 서한 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전향장기수 김인서 노인의 딸</li> </ul>	<p>KEDO-북한 경수로의 정서 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EDO사무국에서 비공개 진행</li> <li>○ KEDO와 북한은 뉴욕에서 대북경수로 제공을 위한 서비스의정서와 부지의정서에 서명</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8		<p>들이 김인서 노인의 조속한 송환을 위하여 유엔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에게 편지를 보냈음.</p>	<p>○ 서명식은 KEDO의 스티븐 보스워스 사무총장과 북한의 허종 외교부 순회대사가 참석</p>
1. 9	<p>해운업계, 북한 경수로 지원 컨소시엄 구성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선주협회, 수송대책 보고서 경수로기획단 제출</li> <li>○ 최근 한국선주협회는 경수로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인원 수송을 위해 32개 국적선사 보유선박을 활용하는 컨소시엄 구성방안 보고서를 경수로기획단에 제출 했다고 밝힘.</li> </ul>	<p>중방, 남한 3부장관 대국민 담화문 발표관련 비난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된 노동법 반대파업 2단계 투쟁이 세차게 벌어지는 가운데 내무, 법무, 노동부장관을 내세워 합동 대국민담화문 이라는 것을 발표 했음.</li> </ul>	<p>아태의회포럼참가 27개국, 北에 4차회담 수락 및 무장도발 방지 촉구결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태의회포럼 5차 총회</li> <li>○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아태의회포럼 5차총회에서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제안해 채택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결의안」에서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은 명백한 정전협정과 남북기본 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li> </ul>
1. 10	<p>권오기 통일부총리, 4차회담 신중하게 추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일보 인터뷰</li> </ul>	<p>중방, KEDO 경수로 제공협정에 따른 부지의정서와 서비스의정서 조인보도</p>	<p>미 오리건주, 북한과 교류·협력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용근 미 오리건</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2중성과 상황의 복잡성으로 북한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북한이 우리정부를 비방하면서 대화에 응하지 않으므로 올해는 남북관계의 큰 진전은 어려울 것으로 봄.</li> <li>○ 북한은 남한배제전략 때문에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하며 북한이 한·미관계의 큰 줄기는 바꿀 수 없을뿐더러 미국도 한국을 버리고 얻을게 하나도 없으며, 향후 대북지원은 북한의 태도여하에 달려있음.</li> </ul>	<p>노동신문, 김영삼 대통령 연두기자 회견 비난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이 올해 국정목표를 변화와 개혁, 세계화, 경제회복에 두고 경제체제의 개선과 부정부패의 청산에 힘을 넣겠다고 하였으나 그 말을 끝이들을 사람은 어디에도 없음.</li> </ul> <p>북한외교부 대변인, 과거청산 및 조·일관계 개선 촉구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일사이의 과거청산과 관계 개선은 두나라 인민들의 염원이며 공화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임.</li> </ul>	<p>주 상원의원과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송호경간 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오리건주와 북한사이 인적자원과 무역, 문화, 정보 등 부문별 친선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교류·협력 합의</li> </ul>
1. 11			<p>석시제 대만전력공사 총경리(사장), 북한과 핵폐기물 매립 계약 체결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席사장은 1. 11 북한과 핵폐기물 매립계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매립 규모를 20만 배럴까지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북한과 합의했다고 밝혔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13	<p>김태지 주일대사, 남북관계 진전된 후 일·북관계 개선 바람직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야마사키 다쿠 자민당 정 책의장과 회담</li> <li>○ 자민당사로 야마사키 의 장을 방문한 김대사는 북 한이 4자회담에 응하지 않는에도 일본이 북한에 쌀지원 등 수교협상을 위 한 관계개선에 나선다면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 미 칠 것임.</li> </ul>	<p>중방, 노동법관련 비난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한국당 패거리들은 고위당직 자 회의를 벌여놓고 파업사태가 개정된 노동법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에 확산된 것처럼 말을 하 고 있음.</li> </ul> <p>조선학생위·김일성 종합대 학생위 원회, 남한대학에 시위선동 편지 발 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세대 고려대 등</li> <li>○ 우리북녘의 청년학생들은 새해 들어 남녘땅 도처의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힘찬 투쟁의 함성을 들으면서 뜨거운 동포애적 마음 으로 이 편지를 보냄.</li> </ul> <p>남한 노동법 철폐 투쟁지지 평양시 노동자집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채택</li> </ul>	
1. 14		<p>조선종교인협의회, 남한 종교단체 와 종교인에게 편지 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해말 신한국당이 저들끼리 모여 안기부법 개정안과 노동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기습 처리한 것은 초보적인 민주주의마저 유 린하는 파쇼적 전횡이며 일종의</li> </ul>	<p>북·러 외무차관 양 국간 새 우호조약안 협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러 이타르타스 통 신, 그리고러 아파 나세프 러시아 외 무부 아시아 제1국</li> </ul>

■ 1 月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14		쿠테타 임.	<p>장 발언 인용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해 9월 완전 폐기된 북·러 우호조약을 대체할 새로운 양국간 관계조약안을 놓고 다음주중 평양에서 협상할 것임.</li> <li>○ 양측은 이미 상호 교환한 새 조약안에 이견이 없으며, 러시아는 61년 체결된 북·러 우호조약이 한반도 분쟁시 자동군사 개입 조항을 담고 있는 등 시대 상황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조약의 폐기를 95년 8월 북한에 통보한 바 있음.</li> </ul>
1. 15	<p>통일원 대변인, 북한·대만 간 핵폐기물 매립추진 중지 촉구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최근 대만으로부터 핵폐기물 6만배럴을 반입·매립키로 하고 추후 그 규모를 20만 배럴</li> </ul>	<p>김형직사범대 학생위 등 남한 대학들에 노동법 반대투쟁 시위 선동 편지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형직사범대 학생위 : 조선대, 김책공대 학생위 : 전남대, 강원도 금강대학 학생위 : 목포대</li> <li>○ 김형직사범대학을 비롯한 평양</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15	<p>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같은 행위는 한반도를 핵쓰레기장으로 만들어 환경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며, 핵폐기물 매립 추진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li> </ul> <p>통일원, 민협 대북쌀지원 관련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검찰에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民協이 세계교회협의회를 통해 대북쌀지원을 실시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사안이라는 점을 검찰에 통보했음.</li> </ul>	<p>시 학생위원회 소속 대학들과 방학 중에 있는 학생들은 남조선 노동계급의 정당성을 알리는 가두 선전과 대학생집회 및 공장·노동계급들과의 공동집회를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있음.</p> <p>북종교인협의회, 南종교단체에 수해복구문제 논의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종교인협의회(회장 장재철)는 한국종교인 평화회의(KCRP 회장 김몽은 신부)에 서한</li> <li>○ 북한의 수해복구를 논의하기 위해 북경과 같은 곳에서 만나자고 제의.</li> </ul>	
1. 16	<p>외무부, 북·대만간 「핵폐기물 처리」 북한반입 계약 불승인 대만정부에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만전력공사와 북한 국영무역회사가 비밀리에 저준위 핵폐기물 6만 트럼을 북한에 이전 처리하기로 계약체결한 것과 관련, 대만당국에 유감 표</li> </ul>	<p>평방, 조선중앙통신 인터넷 홈페이지(코리안뉴스)개설관련 비난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괴뢰들은 조선중앙통신이 창립50돌을 계기로 동경의 조선통신을 통해 인터넷에 북조선 통로를 개설하고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나라에 체제선전을 하고 있다면서 남조선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파쇼탄압의</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16	<p>명과 함께 계약체결을 승인하지 말 것을 요청 했음.</p> <p>통일원 대변인, 유엔사 비무장지대 「留島 황소」 북한측에 구출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문점 군사 정전위 일직 장교간 전화통지문</li> <li>• 유엔사측 비서장인 매쉬턴 음스 美대령 명의로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부대표 박임수대표에게 오는 17일 선박 4척과 24명의 인원을 유도에 보내 황소를 물으로 구출해 나올 것을 통보했음.</li> </ul> <p>※ 1. 17일 황소구출</p>	<p>마수툼 뺏치고 있음.</p> <p>조선 아·태평화위원회 대변인, 김대통령 방일 관련 비난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이 이달말경 일본을 행차하여 일본·남조선관계와 관련하여 수뇌회담을 한다고 함.</li> </ul>	
1. 17	<p>유종하 외무장관, 올해 김정일 권력승계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YTN 집중조명 프로그램 출연</li> <li>◦ 북한의 권력공백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올해엔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대외적인 유화정책을 펼</li> </ul>	<p>「사민당」중앙위 · 「농근맹」중앙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기자동맹 중앙위, 남한 각단체들에 노동법·안기부법 반대 투쟁 선동 편지발송</li> <li>◦ 김○○정권과 사설정당인 신한국당이 독소조항을 더 첨가하여 안기부법과 노동법을 날치기로 통과한 불법·무법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인권부정, 인권말살의 망동임.</li> </ul>	<p>제임스 레이니 주한 미대사, 북한암시장 존재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워싱턴 포스트지 보도</li> <li>◦ 북한 민간인들은 현재 암 시장에서 각종 물건을 활발히 거래하고 있으며 외국인들에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17	<p>가능성이 예상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의 외교목표는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4자 회담을 실현하여 한반도 긴장완화와 통일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두고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재야단체들과 정치인들은 민주와 파쇼, 진보와 반동사이의 걸판을 내려야 할 오늘의 남조선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임.</li> </ul> <p>김정일, 「청년동맹」 창립 1돌기념 격려서한 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동맹 창립일을 축하하며 사회주의 조국의 번영을 위한 투쟁에 우리의 용감한 청년들은 당과 언제나 함께 힘차게 전진해야 됨.</li> </ul>	<p>는 북한 원화 대신 달러화로 상품값을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음.</p> <p>대만, 핵폐기물 北이 전철회 한국요청 거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만정부는 대북 주재 한국 무역대표부 대표 2명이 대만 경제부를 방문 핵폐기물 북한 이전이 한반도 민족주의에 불을 붙일 수 있다며 계획취소를 요구한데 대해 이 협정은 북한과 체결한 것이어서 한국과는 무관하며 한반도에서 민족주의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없다고 거절 하였음.</li> </ul>
1. 18		<p>조선종교인협의회장 장재철 · 「범민련」 북측본부의장 백인준, 문익환목사부인에게 격려편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사도로서의 사명으로 민족</li> </ul>	<p>日 교도통신,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한 위기대비 필요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북아 각국은 북</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18		<p>대단결과 조국 통일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익환 목사의 유지를 이어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길을 더욱 굳세게 걸어나가리라 믿음.</li> </ul>	<p>한의 식량이 3~4개월안에 바닥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갑작스런 난민대량 발생이나 무력충돌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됨.</p>
1. 19	<p>유종하 외무장관, 4자회담 추진에 신축적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일보 인터뷰</li> <li>○ 4자회담에 북한이 응하면 회담의 격식이나 절차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축성 있게 대응할 방침이며, 북한이 3자설명회에 나오기로 한 것은 어느정도 4자 회담에 전향적 자세가 되있기 때문으로 봄.</li> <li>○ 4자회담은 장·차관급의 본회담과 실무급의 의제별 위원회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4자회담이 어느정도 진행되면 장기적으로는 일본과 러시아도 협조하여 국제적 약속 이행이 보장되도록 할 것임.</li> </ul>	<p>『농근맹·기자동맹』, 남한 농민과 언론인들에게 시위선동 편지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노동자들과 각계 각층 인민들이 항의집회와 농성투쟁을 벌이는 것은 정치적 권리와 자유, 생존권을 찾기위한 의롭고 애국적인 투쟁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20	<p>한·미, 4자회담설명회 개최 논의</p> <p>•참가자 :</p> <p>한국측 : 유명환 외무부 미주국장·이용 준 북미1과장</p> <p>미국측 : 리처드 크리스텐 슨 주한미공사· 마크 민튼 국무 부 한국과장</p> <p>○ 4자회담 설명회는 현재로 서는 29일 하루만 개최되 나 회의진전 상황에 따라 설명회기간의 연장과 미 ·북간의 준고위급회담 등을 개최하되 준고위급 회담은 설명회가 끝나는 다음날로 하며 한국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기로 함.</p>	<p>조선문화예술총동맹, 남한 문예인 들에 시위선동 편지발송</p> <p>○ 파쇼악법을 반대하는 남조선 노 동자들의 투쟁을 폄십양면으로 지지 협조하고 있는 여러분들에 게 동포애적 인사말 보냄.</p> <p>○ 문예인들이 노동자들과 한 대오 에서 애국의 길을 함께 열어가 리라는 것을 굳게 확신하면서 당신들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냄.</p>	
1. 21	<p>박관용 국회통일외무위원장, 선남북대화·후경수로 비용 지원 언급</p> <p>•미 국가정책연구소 주최 세미나 참석</p> <p>○ 북한이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 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p>	<p>외교부대변인, 이스라엘 아랍영토 철수관련 논평</p> <p>•중앙 통신기자회견</p> <p>○ 중동문제는 독립국가창설권을 포함한 팔레스티나인민의 합법 적인 민족적 권리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골란고원과 남부레 바논을 비롯한 아랍영토에서 철</p>	<p>심국방 中외교부대변 인, 대안 핵폐기물 북 한반입 우려 표명</p> <p>•주레 뉴스브리핑</p> <p>○ 핵폐기물의 처리 는 국가간의 관계 가 걸린 매우 중 요하고도 복잡한</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21	<p>의 대북경수로 재원 조달의 국민적 합의도출이 어려워질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이 잠수함사건 사과 이후 보여준 태도는 남북 관계 개선보다는 미, 일 등의 경제지원 확보를 위한 관계개선에만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4자설명회 등에서 한국과는 의례적, 형식적인 대화에 응할 가능성을 한·미양국은 경계해야함.</li> </ul>	<p>수해야함.</p>	<p>문제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은 대만해페기물의 북한 반출에 관한 상황과 보도 등을 주시하고 있음.</li> </ul>
1. 22	<p>권오기 통일부총리, 김수환 추기경 방문 대북정책 협조 당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을 대한적십자사로 창구단 일화하고, 지원품목에서 쌀과 현금을 제외키로한 정부방침에 종교계의 협조를 요청</li> </ul> <p>북한주민 두가족 8명 서해 해상 표류중 구조, 귀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2일 오후 2시쯤 중국어선을 타고 한국으로 향해 하던중 격렬비열도 인근</li> </ul>	<p>일제조선강점피해조사위원회 대변인, 에또 다카미 전일본총무청 장관 발언관련 비난 답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선침략과 군사적 강점이 조약에 의한 것이라느니 정부 통합과 같은 것이라느니 하면서 정당화하고 역사교과서에 서술된 중군위안부 강제연행 사실 등 과거 범죄를 부인하는 망발을 함.</li> </ul>	<p>미 카길사사장, 대북 곡물수출 협상차 평양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의 곡물회사 카길사의 북아시아 담당사장 노웰 코기야 일행이 21일 평양을 방문하여 곡물수출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음.</li> </ul> <p>美, 대북중유비용 매년 3천만불 부담 방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들린 울브라이트 국무장관 미상원</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22	<p>해상에서 우리 해경에 구조되어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혔음.</p>		<p>외교위원회의 서면 답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유제공과 관련 분담금은 워런 크리스토퍼 전장관의 3천만달러 약속을 지난해 의회가 거부했지만 올해 약 5천5백만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감안 3천만 달러정도를 부담할 생각임.</li> </ul>
1. 23	<p>여야 3당, 北-대만 핵폐기물 북한반입 비밀협정 철회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충근 신한국 부대변인, 박홍업 국민회의 부대변인, 김창영 자민련 부대변인 성명발표</li> <li>○ 신한국당 : 북한정권이 대만 핵폐기물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당장 급한끼니 한끼를 해결하기 위해 자손만대로 물려줘야 할 조국강토를 핵찌꺼기 하치장화 함으로써 인도적 민족적 차원에서도</li> </ul>	<p>노동신문, 여야영수회담 관련 비난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은 개약된 안기부법, 노동법과 관련 여야영수회담이라는 것을 벌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랐으므로 무효화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였음.</li> </ul> <p>『중앙인민위』, 매년 1월 28일을 무역절로 제정 공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23 중앙인민위원회 정령</li> <li>○ 김일성이 무역성 당총회를 지도('65. 1. 28)한 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해 무역절을 제정함.</li> </ul>	<p>美비정부단체(NGO), 북한식량 긴급지원 호소 성명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정부단체들은 북한의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중대한 것으로 간주, 미대통령과 국무장관, 의회지도자들에게 인도적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촉구함.</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23	<p>용서받을 수 없는 발상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회의 : 북한은 처리 능력도 없으면서 핵폐기물을 받아들여 한반도가 방사능에 오염되면 그 엄청난 결과에 어떻게 책임지며, 북한은 한반도가 한민족 공동의 생존터임을 잊어선 안됨.</li> <li>○ 자민련 : 북한이 경제가 어려운 점을 알고 있으나 후손에게 물려줄 국토를 담보로 정권수호를 위해 우리 거래의 땅을 핵폐기장화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임.</li> </ul> <p>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원차관주재 16개 유관부처 실·국장 참석</li> <li>○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의 구성·운영방안에 관하여 논의함.</li> <li>○ 동 협의회는 통일원에 설치된 협의체 기구로서, 향후 탈북주민에 관한 제반정책을 협의·조정하고</li> </ul>	<p>용성기계연합총국 「직맹위」, 현대중공업 노조에 시위선동 편지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늘도 파쇼악법을 무효화하고 생존권리와 민주주의를 쟁취하려고 투쟁하는 현대중공업 노조와 노조원들에게 뜨거운 동포애적 지지성원을 보냄.</li> </ul>	<p>윌리엄 코헨 미국방장관지명자, 미군사령 아·태안정 주력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 참석</li> <li>○ 북한의 무력위협에 대처하고 아태지역 정세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한주일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추진할 것임.</li> <li>○ 아태지역은 현재 북한으로부터의 단기적인 위협뿐 아니라 역내 주요 국가간의 군비경쟁으로 지역정세가 불안해 질 가능성이 있음.</li> </ul> <p>獨, 핵폐기물 北에 수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를린 자유대학 서병문교수 주장</li> <li>○ 한스 마르츠키 前 북한주재 동독대</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23	<p>이들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게 됨.</p>		<p>사의 귀뜸으로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품반입의 통과증을 발급하는 독일 환경청을 통해 추적한 결과 사실을 알게되었음.</p>
1. 24	<p>유종하 외무장관, 대만 핵폐기물 北북한 반입 저지에 美 영향력 행사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간담회</li> <li>◦ 한반도 주변지역 환경에 이해관계있는 일·중과 대만에 핵연료를 보급하는 미국에 외교채널을 통해(레이니 미대사) 협조 요청</li> <li>◦ 정부는 해상수송로 봉쇄, 대만 대표부관계 단절 등 극단적 방법은 검토치 않고 있음.</li> </ul> <p>통일원, 남북협력사업 관련 7개사 접촉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 11개 기업중 기간만료 재신청 7개사 승인</li> </ul> <p>대만·북한간 핵폐기물 반</p>	<p>북-러간 "국민들의 호상여행에 관한 협정" 조인</p> <p>외교부장 김영남, 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표단(카라신 차관)과 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인규 (외교부 부부장), 주북러대사 참석</li> </ul> <p>승리자동차 연합기업소, 남한 기아노조에 시위선동 편지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쇼악법의 무효화를 위한 투쟁속에서 당신들이 최후 승리의 그날까지 부담없이 싸우리라 화신함.</li> </ul>	<p>가지아마 日관방장관, 종군위안부 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례 기자회견</li> <li>◦ 공창제도는 당시로서는 당연한 것이었으며 교과서에서 이를 다루는 것은 잘못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24	<p>입협정 규탄 각계인사(31명) 기자회견</p>		
1. 25	<p>한·일정상회담 공동 회견 (벧푸)</p> <p>〈김영삼 대통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4자회담이 조기에 실현되고 KEDO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한·미·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함.</li> <li>○ 일본은 북일관계에 관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도록 남북 대화의 진전과 4자회담 추이 등 한반도의 제반상황을 감안,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음.</li> </ul> <p>〈하시모토 총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자회담 공동설명회가 1. 29 개최되게 된 것을 환영하면서 4자회담 조기실현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함.</li> <li>○ 한·미·일 3국간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며 KEDO</li> </ul>	<p>중방, 북한의 '97『동계U대회(무주·전주)』 불참 통보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대학생체육협회 사무총장 나풍만, 로크 캄파나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사무총장(벨기에)에게 서한 발송(1. 21)</li> <li>○ 남한측이 정치적으로 북한과의 접촉을 금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포츠교류는 다른 목적에 사용될 수 있음.</li> <li>○ 다만 이탈리아에서 열릴 제19회 하계 U대회에는 참가할 것임.</li> </ul> <p>평방, 한미상호방위원조 협정체결 47돌 관련 비난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50. 1. 26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원조 협정은 미제가 원조를 받는 나라들을 예측시키기 위한 침략적인 국내입법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25	에 관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간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음.		
1. 26			<p>대만연합보, 北·대만간 협력강화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정무원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성륙과 대만 경제부 장관방 정무차관과 회담 합의</li> <li>◦ 대만과 북한은 핵폐기물 이전계약을 체결한 것 외에도 식량원조와 직업훈련 지원 등이 포함된 경제·무역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함.</li> </ul>
1. 27	<p>통일외무위 신한국당 소속 의원들, 북한 핵폐기물 반입 강력대처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무부장관 참석 간담회</li> <li>◦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외교적인 파장이 있더라도 관계부처들이 종합대</li> </ul>	<p>전당 당일군회의 개최 &lt;1. 24~27&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를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혁명적 전환의 해로 되게하자” (김정일 서한)</li> <li>◦ 참석: 계웅태, 전병호, 한성룡, 서윤석, 최태복, 연형묵, 김국태, 김기남, 김종린 등</li> <li>◦ 우리당은 올해를 사회주의 경제</li> </ul>	<p>주한독일대사관, “북한 수출산업폐기물은 재활용가능 플라스틱 뿐”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수출 폐기물 중에는 핵폐기물이 없으며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27	<p>처에 나서 해양 오염 방지를 명분으로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핵폐기물 반입을 막아야 함.</p> <p>이수성 국무총리, 통일·외교·안보분야 관계장관회의 주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주민 탈북사태 대비 관계규정 조속히 마련 및 탈북자 수용대책 적극 강구</li> <li>○ 대만핵폐기물 반입문제는 미국 등 우방국가와 긴밀히 협의 대처할 것 지시.</li> </ul>	<p>건설에서 혁명적 전환의 해로 정하고 경제 사업에서 대고조를 일으키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에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서 혁명적 경제전략을 무조건 관철해야 됨.</p> <p>조선천주교인협회 중앙위, 남한 천주교 단체에 시위선동 편지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의와 타협할 줄 모르는 남조선의 천주교 단체들과 교우 형제들은 각계각층 인민들과 굳게 뭉쳐 파쇼악법을 철파하고 김00 일당을 몰아낼 때까지 투쟁을 힘차게 벌여야 함.</li> </ul>	<p>미 국무부,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반입관련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떠한 문제도 미북간 핵동결 합의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될 것임.</li> </ul>
1. 28	<p>권오기 통일부총리, 北서 요청편 검협재개 동의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신문 특별회견</li> <li>○ 4자회담 설명회에서 북한이 남북대화 차원에서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면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겠음.</li> <li>○ 북한이탈 주민들을 위한 '우리사회 적용시설'을 준비하고 있고, 시설이 갖추어지면 북한이탈 주민 전체를 우리사회로 안내하게 될 것임.</li> </ul>		<p>클린턴 미대통령, 한반도 안보문제 중국과 협력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28 집권2기 첫 기자회견</li> <li>○ 한반도 문제와 같은 미국의 국익이 걸려있는 안보문제에 대해 중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li> </ul> <p>중국, 대만 핵폐기물</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28			<p>의 북한 이전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부 심국방대변인 주례 브리핑</li> <li>◦ 대만이 핵폐기물을 어떤국가에 운송하든 이는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는 민감한 문제임.</li> <li>◦ 또한 대만이 이 기회를 이용하여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기고 조국을 분열시키려고 해서 안될 것임.</li> </ul> <p>북한, 4자회담 설명회 일정 연기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니컬러스 번스 미국무부 대변인 브리핑</li> <li>◦ 북한은 미국 뉴욕에서 29일 개최 예정이던 4자 회담 설명회를 2월 5일로 연기할 것을 요청하였음.</li> <li>◦ 북한은 미국 카길사와의 곡물거래</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28			<p>에 관한 협상이 타결되어야 공동 설명회에 응할 수 있다며 미국정부가 카필사에 영향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p>
1. 29	<p>각계원로, 대만핵폐기물 북한반입관련 성명발표(1. 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계원로 37명 시국간담회(프레스 센터)</li> <li>◦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반입 계획은 한반도를 핵쓰레기장으로 만들고 환경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이므로 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이를 저지해야 함.</li> </ul>	<p>외교부 대변인, 4자회담 공동설명회 일정연기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통신 기자회견</li> <li>◦ 작년 12월 미·북협상에서 미국이 공동설명에 앞서 물물교환형식으로 식량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음.</li> <li>◦ 이러한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 미·북사이에 입장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부득불 공동설명을 듣는 것을 연기하지 않을 수 없었음.</li> <li>◦ 앞으로 작년 12월 뉴욕협약의 전반적으로 이행되는데 따라 그와의 연관속에서 미국측과 협의하여 공동설명 청취날짜를 다시 정하게 될 것임.</li> </ul>	<p>中 인민일보, 중국인민군 유골 북한인도 관련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전쟁중 희생된 1구의 중국인민군 유골이 개성시에 위치한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릉에 안장(1. 28)되었음.</li> <li>◦ 1981년 8월 7일에도 미국측은 중국측에 1구의 유골을 인도, 개성시의 중국인민군 열사릉에 안장된 바 있음.</li> </ul>
1. 30		<p>정당, 단체 연합회의 개최(인민문화궁전)</p>	<p>심국방 중국외교부 대변인, 대만 핵폐기</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30		<p>〈북한, 남. 북. 해외의 각 정당·단체 등에 「연대회의」제의(호소문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가 : 양형섭, 김용순, 유미영, 김영호, 최성숙, 백인준, 백남준, 한시해 등</li> <li>◦ 올해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7. 4공동성명이 발표된 25돌이 되는 해로서 북과 남, 해외의 정당·단체들의 연대회의 개최를 제의함.</li> <li>◦ 「연대회의」에는 조국통일 3대원칙, 민족자주실현, 나라의 평화수호 의지를 가진 남조선과 해외의 정당, 단체대표들과 개별적 인사들이 참가할 수 있을 것임.</li> <li>◦ 이와같은 취지에 부합된다면 회의준비를 위하여 시일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쌍무적이던 다무적이던 접촉과 대화를 기대함.</li> </ul> <p>황장엽 당비서 등 사회과학자 대표단, 주체사상 토론회 참가차 방일</p>	<p>물 북한반출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레브리핑</li> <li>◦ 핵폐기물 처리능력이 없는 북한으로의 반출은 주변국에 환경오염을 유발하므로 반대함.</li> <li>◦ 대만의 이같은 행동은 국제무대에서 '두개의 중국' 또는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을 조장하는 구체적 표현으로 중국과 관련국 관계를 파괴시키려는 것임이 명백함.</li> </ul> <p>러시아 하바로프스크주 임업위원회, 북한 벌목권 박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 이즈베스티야지 보도</li> <li>◦ 북한 벌목공이 일하고 있는 벌목회사 '우르갈레스'사의 벌목권을 박탈하는 결정이 북한</li> </ul>

■ 1 月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30			<p>측에 의한 러시아와 체결한 산림법채에 관한 약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내려졌음.</p> <p>미, 한반도비핵화 통일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악관 「개입과 확대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서 언급</li> <li>◦ 향후 대한반도 정책의 목표는 비핵화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며 한반도는 미국안보와 번영에 긴요한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이 되고 있음.</li> </ul>
1. 31	<p>이수성 국무총리, 북 핵폐기물 반입은 경수로지원에 영향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기자 오찬간담회</li> <li>◦ 미국은 핵폐기물의 수송과정, 처리, 저장 등이 완벽하지 않으면 핵폐기</li> </ul>	<p>평방, 노동법·안기부법 국회 재개정 논의관련 여야회담 비난 및 시위선동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이 여야타협에 의한 재개정 의사를 내비친 것은 남조선인민들의 항거정신을 녹갓히기 위한 간교한 술책임.</li> </ul>	<p>니컬러스 번스 미국 무부대변인, 북4자회담 설명회 불참통보 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례 브리핑</li> <li>◦ 우리는 오늘 오후 유엔주재북한대표</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31	<p>물을 내보내지 말도록 대만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폐기물이 북한에 들어간다면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를 통해 북한의 경수로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국민정서상 용납될 수 없고 국회승인도 어려울 것임.</li> </ul>		<p>부로부터 4자회담 설명회에 참가할 북한측 대표단이 평양을 제때에 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음.</p> <p>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대만 핵폐기물 북한이전 비난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와치 그린피스 홍콩지부 대변인</li> <li>○ 대만이 북한을 노골적으로 착취하고 있음.</li> <li>○ 북한은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구입하기 위해 많은 돈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북한땅과 물이 핵폐기물로 오염될 경우 누가 돕겠는가라고 반문하였음.</li> </ul> <p>임추산 대만 입법원 감찰위원, 핵폐기물 이전 북측에서 먼저 제의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 민간대표</li> </ul>

■ 1 月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31			<p>단 항의방문 면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만정부가 핵폐기물 처리를 위해 러시아 등 국내외 후보지와 협상하고 있을 때 북한 인사들이 대만을 방문, 자국내 처리를 재의해와 대만 전력공사와 계약이 성사되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1		<p>『북적』 위원장 대리 이성호, 비전향장기수 김인서 송환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남서한</li> <li>◦ 억류되어 있는 비전향 장기수 김인서노인의 병세악화 소식에 이편지를 보내는 바임.</li> <li>◦ 이제라도 적십자인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돌려보내는데 필요한 긍정적인 조치를 시급히 취하기를 촉구함.</li> </ul> <p>노동신문, 한-일 정상회담 관련 비난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수상 하시모토는 며칠전 벳푸에서 김○○과 회담을 벌이고 남조선 괴로들의 칭탁을 받아들여 우리 공화국을 모해하기 위한 공조체제를 운운함.</li> <li>◦ 김○○이 일본을 행각한 것은 활발한 조미관계의 움직임을 보고 조일관계의 개선에 제동을 걸려는 목적임.</li> </ul> <p>중통, 홍콩 임퍼러그룹 나진·선봉 지구에 특급호텔공사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진·선봉지구에 카지노설비를 갖추게 될 특급호텔의 기공식이 거행됐음.</li> </ul>	<p>정박구 대만외교부대변인, 핵폐기물 북한이전 한국과 협의 용의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만언론 정례브리핑</li> <li>◦ 북한으로의 핵폐기물 수출과 관련하여 한국과의 우호적 협의를 환영하며 한국의 언론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 냉정히 처리하도록 촉구함.</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2	<p>권오기 통일부총리, 북한당국 요청시 대북식량 지원 검토 용의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BS-TV 정책진단 출연</li> <li>◦ 북한의 구체적인 요청이 있고, 95년 대북 쌀지원시 발생했던 불상사에 대한 재발방지보장이 있을 경우 지원에 나설 용의가 있음.</li> <li>◦ 대만해폐기물을 반입하는 것은 한반도의 환경오염에 관계되는 일이며 이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임.</li> </ul>		
2. 3		<p>북한 큰물피해대책위원회, 수재에 의한 식량지원문제 관련 대남비난 담화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단체들은 조선인민에 대해 이념, 사회제도에 관계없이 식량 등 구호품을 보내주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었음.</li> <li>◦ 그러나 남조선 당국자들은 의도적으로 방해해왔으며 북의 겨레들의 고통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며 시대흐름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3		<p>「사민당」 중앙위 부위원장 김영호, 정당·단체연합회의의 연대회의 제의 지지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민당」은 올해를 “북·남·해외의 연대의 해”로 정함.</li> <li>○ 「연대회의」를 소집하기 위해 남조선과 해외의 여러 정당·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과 접촉하고 대화를 나눌 것임.</li> </ul> <p>UNDP-북간 “공업 환경부문 협조문건”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 개발계획은 북한의 일부 화학공장들과 도시 경영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통제하는데 필요한 기술협조를 제공기로 결정함.</li> </ul>	
2. 4	<p>이승곤 주 오스트리아대사, 대만 핵폐기물 북한반입 IAEA에 공식조사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스 블릭스 IAEA사무총장 면담</li> <li>○ 대만핵폐기물의 북한 반입이 동일생태계인 한반도 전체환경에 큰 위해요소인 만큼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북</li> </ul>	<p>평방, 비무장지대 말라리아 모기서식 보도 관련 대남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비무장지대에서의 말라리아 모기서식 여론을 내돌리면서 모략보도를 날리고 있음.</li> <li>○ 말라리아 모기서식이니 생플무기서식이니 하는 여론을 내돌리는 것은 생플무기시험의 장본인으로서의 범죄적인 정체를 가리</li> </ul>	<p>북한, 김정일 공식승계 축하금 80억엔 조총련에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日산케이신문 보도</li> <li>○ 김정일비서의 정식취임에 맞추어 80억엔의 축하금을 바치도록 비밀지령을 내렸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4	<p>한국의 핵폐기물 관리·저장능력에 대한 IAEA차원의 조사를 요청하였음.</p> <p>해군, 표류 북한선박 예인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동쪽 30마일 해상에서 표류 중인 8톤급 북한어선을 해군함정이 발견하여 거진항으로 예인한 철선은 길이 10.3m, 폭 3m의 동력선으로 탑승자는 없었음.</li> <li>○ 어선 내부에서는 취사 도구, 항해 및 선박일지, 선원증, 어망 등이 발견된 점으로 보아 북한항구에 정박해 있던 중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온 것으로 보고 표류 경위와 대공용의점을 조사중임.</li> </ul> <p>정근모 원자력 대사, 대만핵폐기물 북반입 국제협약 차원서 처리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원자력회의 참석</li> </ul>	<p>우기 위한 비열한 수작임.</p> <p>『여맹』 중앙위, 제25차 전원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가: 한계옥 등</li> </ul>	<p>빌 클린턴 미대통령, 대북 평화협상 추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해 국정연설(상하원 합동회의)</li> <li>○ 한국과 함께 우리는 4자회담 등 북한과의 평화협상을 추진해야 함.</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원자력기구는 대만 핵폐기물 북한반입문제를 핵폐기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국제적 규범에 관한 문제로 보고 이를 IAEA 차원에서 대처키로 했음.</li> </ul>		
2. 5	<p>한적, 대북구호품 북한 도착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1차 대북구호품(밀가루 7백톤)을 실은 온두라스 선적의 화물선이 4일 밤 인천항을 출발 5일 오후 북한 남포항에 도착하여 평양에 상주중인 국제적십자사연맹 관계자를 통해 북한적십자사에 전달되었음.</li> </ul> <p>윤서성 환경부 차관, 대만핵 북한반입 유엔 국제기구에 가입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환경계획(UNEP) 집행이사회 기조연설 (케냐 나이로비)</li> <li>○ 대만과 북한과의 핵폐기물 거래가 즉각 철회될 수 있도록 국제적 환경보전 문제를 논의하는 핵심</li> </ul>	<p>당비서 황장엽, 김정일 체제 가을 출범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신문(아사히, 요미우리)회견</li> <li>○ 김정일은 30년이상 김일성과 함께 국가와 당을 지도해온 만큼 주석이나 총비서직을 계승하지 않더라도 아무 지장이 없음.</li> <li>○ 하지만 김일성의 3년상 후에 최고지도기관의 선거가 있을 것으로 추측됨.</li> </ul>	<p>니컬러스 번스 미국 부 대변인, 북한의 설명회참가와 식량원조는 별개문제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레브리핑</li> <li>○ 미국은 한반도 4자회담 설명회 참석을 대가로 북한에 대해 식량원조나 상업적 선적을 결코 보장한 바 없음.</li> </ul> <p>조지 테넬트 CIA국장 직무대행, 북한의 경제난과 막강한 군사력이 미안보의 위협 요인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원정보위원회 증언</li> <li>○ 북한의 장래사태 진전과 관련 우려를 특별히 걱정스</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5	기구인 UNEP와 이 기구의 회원국들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함.		럽게 하는 것은 군사력이며 1백 10만병력의 북한군은 3만 7천명의 주한미군을 포함한 연합군에 막대한 피해를 줄수 있음.
2. 6		<p>외교부 대변인, 미 연례 인권보고서 발표내용 관련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무성은 연례인권보고서에서 우리들 비롯한 193개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곁고들었으나, 이는 미국내의 인권상황을 외면한 펜펜스러우며 인권문제에서 이중 기준을 제창하는 정치적 모략임.</li> </ul>	<p>패트릭 휴즈 미국방정보국(DIA)국장, 북한원조식량 군사용전용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증언</li> <li>○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된 식량원조가 일부사례에서 군용으로 전용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믿고 있음.</li> </ul>
2. 8		<p>『조평통』, LA 개최 김정일 사진전 시회장 피습 남한사주 비난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괴로도당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조종밑에 있는 한인회 등 반공화국 패당들을 동원</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8		<p>하여 사진전시회장을 습격하고 전시물을 파괴하는 정치테러를 감행하였음.</p>	
2. 9		<p>『직총』 중앙위, 노동법·안기부법 개정관련 시위선동 성명</p> <p>김정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87호 하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에 군사 칭호를 올려줄데 대하여”</li> <li>◦ 김격식, 주상성, 김성규, 박재경 (이상대장), 이창환, 박영하(이상중장)</li> </ul>	
2. 10		<p>『직총』·『청년동맹』·『농근맹』, LA 개최 김정일 생일기념 사진전시회장 피습관련 남한정부 규탄성명</p> <p>〈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사건은 3년전 7월 김일성 서거 애도기간에 김○○이 저지른 만고 큰 죄위에 새로 참가한 죄악으로 이번사태를 용서치 않을 것이며 도발자들에게 천백배의 보복과 징벌을 가할 것임.</li> </ul> <p>〈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일당은 조선청년들의 김</li> </ul>	<p>독 알게마네지, 북한 마약 밀거래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군대를 동원해 대형 양귀비농장 10곳을 운영, 청진의 화학공장 등에서 가공된 양귀비가 조직밀매단을 통해 모스크바를 거쳐 동유럽에서까지 판매되고 있음.</li> </ul> <p>니컬러스 번스 미국 무부 대변인, 대북식</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10		<p>정일장군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위신에 털끝만한 훼손이라도 가할 때에는 범죄자들을 끝까지 단호히 징벌하는 혁명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함.</p> <p>〈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사건은 법치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에도 책임이 있으며, 미국은 범죄행위를 한 남조선의 깡패 북한당들을 엄격하게 법적 처리해야 할 것임.</li> </ul> <p>평방, 일본인 소녀 북한납치 관련 비난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케이 신문과 마이니찌신문을 비롯한 어용보도 매체들이 1977년 11월 15일에 니가다 시내에서 행방불명된 처녀가 북에 납치당했다는 보도를 날렸음.</li> <li>○ 남조선 괴뢰들과 일본반동들이 공동 조작한 모략극이며, 우리는 납치나 테러와 같은 인권유린과는 애당초 인연이 없는 나라이며, 인권불모지인 남조선이나 일본같은데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임.</li> </ul>	<p>량원조 호소에 동참 고려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FP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식량 지원을 호소할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려할 것임.</li> </ul>
2. 11	반기문 청와대 외교안보수	노동신문, 조-일 관계개선 방해책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11	<p>석, 미와 대만핵폐기물 등 한반도 현안문제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윌리엄 코언 미국방장관, 샌디 비거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 면담</li> <li>◦ 대북 식량지원, 4자회담 개최, 대만핵폐기물 북한 이전 등의 공동 대응전략을 논의함.</li> <li>◦ 공동설명회 참석에 관한 북한의 약속파기에도 불구하고 4자회담 개최를 위해 대북 설득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데 미국측과 견해를 같이함.</li> </ul> <p>유종하 외무장관,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지원은 용인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외무 당정회의</li> <li>◦ 정부는 유엔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을 추진하는데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임.</li> </ul>	<p>동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괴뢰 대사라는 자가 일본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을 만나 일본이 우리와의 관계문제를 신중하게 대응해 줄것을 애걸하고, 김○○역도가 일본을 행각하여 모의를 벌이는 등 일본이 우리와의 관계개선에 나오지 못하도록 뒷다리를 잡아당기기 위해 비굴하게 책동하고 있음.</li> </ul> <p>조선천도교·조선불교도 연맹·조선천주교인 협회, LA·김정일 사진 전시회장 피습관련 규탄성명</p>	<p>국무장관, 제네바 기본합의 이행 예산 전액통과의회의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출석</li> <li>◦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의 분담액은 미·북합의 이행을 위해 중요하므로 행정부가 요청한 예산을 미 의회가 삭감없이 전액 승인해 줄 것을 촉구함.</li> </ul> <p>유엔, 북한 등 3개국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서명거부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까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에 5대 핵보유국과 한국을 비롯 141개국이 서명했음.</li> <li>◦ 그러나 이 조약의 발효에 필수적인 44개 의무서명국</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11			(원전보유국) 가운데 북한, 인도, 파키스탄 등 3개국이 서명을 거부하고 있음.
2. 12	<p>유광석 외무부 아태국장, 북노동당 국제 담당비서 황장엽의 한국망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황비서가 2월 12일 오전 10시 5분께 김덕홍(59) 조선여광무역회사 사장과 함께 베이징 주재 한국총영사관으로 찾아와 한국으로의 망명을 요청했으며, 이들은 현재 한국총영사관에 머무르고 있음.</li> <li>○ 주중한국대사관은 이 사실을 중국측에 통보했으며, 정부는 중국정부와 협조해 황비서의 회망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음.</li> <li>○ 황비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일본을 방문해 도쿄에서 지난 7일부터 열린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주최 세미나에 참석한 뒤 11일 귀국하기위하여 베이징에</li> </ul>	<p>북한 외교부, 노동당 국제담당비서 황장엽 납치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당국자들은 오늘 일본을 방문하고 귀국하던 조선노동당 중앙위 황장엽비서가 북경에 있는 저들의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했다고 대대적인 보도를 내들리고 있음.</li> <li>○ 이것은 상상할수도 없는 일이며, 황장엽비서가 북경에 있는 남조선대사관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명백히 적들에 의하여 납치된것 이외에 다른것일수 없으며, 해당한 경로를 통해 중국측에 알아보고 있는중임.</li> <li>○ 만약 남조선 당국자들이 황장엽비서를 납치해놓고 그것을 망명이라고 떠든다면 우리는 지금껏 있어보지 못한 중대사건으로 간주하고 응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며 중국측에서도 이와 관련한 해당한 조치를 취해 주리라 기대함.</li> </ul>	<p>니컬러스 번스 미국무부 대변인, 황장엽 망명사건은 통상적인 국제망명 따라 처리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정부는 12일 황장엽 북한노동당 비서등 2명의 북한관리가 망명한 사건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의했으며 미국정부는 이번사건이 통상적인 국제망명 절차에 따라 처리되기를 희망함.</li> <li>○ 한국은 이들이 망명자들이라고 밝혔으며 미국은 한국정부의 설명에 의문을 제기할 이유를 갖고 있지 않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12	<p>들렀다가 12일 삼리분 의 교단지에 있는 한국총영 사관에 망명을 신청했음.</p>	<p>중방, 조선사회과학대표단 황장엽 등 일본 체류중 활동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일과 6일 일본 조선문제간사회 종합연구개발기구성원, 주체사상연구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음.</li> <li>○ 황장엽비서는 3일부터 6일까지 마이니찌신문, 아사히뉴스타, 요미우리신문, 교포통신, NHK방송기자 등과 각각 기자회견 했음.</li> </ul> <p>조선기자동맹 · 조선문화예술동맹 ·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 · 조선기독교도연맹, LA개최 김정일 사진전시회장 시위관련 규탄성명</p> <p>UNDP-북한간 협조계획에 따른 공업소유권 현대화 대상 완공 조업식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 : 이성록 (대외경제위 부위원장), 크리스티앙 로메르 (유엔 개발계획 대표)</li> </ul>	<p>마이크 매크리 백악관 대변인, 황장엽 북한노동당 비서, 망명 문제는 국제규범따라 처리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황의 망명요구와 관련 현재 한국정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망명사건은 처리절차 등에 관한 국제규범과 관례가 이번 상황에 적용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현실점에서 황장엽의 망명동기는 알지 못하고 있음.</li> </ul> <p>코언 미국방장관, 북군사력 휴전선 전진 배치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하원 국가안보위원회 출석</li> <li>○ 북한이 휴전선 부근에 병력을 전진 배치, 심각한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미국은 북한의 군</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12			<p>사적 동향을 예의 주시 중이며, 오늘날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국가는 북한과 이라크임.</p>
2. 13	<p>유엔방문 한국의원단(5명), 대만 핵폐기물 문제협의          &lt;서상목의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대만핵폐기물 수입을 강행한다면 한국은 북한 경수로 건설 지원을 철회할 것</li> <li>○ 북이 강행시 한국 국민들 사이에 나쁜 여론이 형성돼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막대한 경수로 건설 자금부담을 말하기가 어려울 것임.</li> </ul> <p>&lt;니틴 대사위 유엔사무차장&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만핵폐기물 북한반입을 저지하는데 유엔 차원에서 적극 협조할 것임.</li> <li>○ 원칙적으로 IAEA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핵폐기물의 안전한</li> </ul>	<p>중방, 남한 동계훈련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괴뢰들이 북침 전쟁의 불집을 터치려고 악을 쓰고 있음.</li> <li>○ 김00일당은 괴뢰 육군의 한 부대를 끌어내서 군사분계선 대밀에까지 이동시켜 전쟁연습을 벌였고, 괴뢰공군 16전투비행단 반공포대에서도 적응훈련을 하는가 하면, 괴뢰해군도 신형 상륙함과 공격용 어뢰음향 대항체제를 실전배치하였음.</li> </ul>	<p>미·북 실무접촉(뉴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번스 미국무부 대변인 브리핑</li> <li>○ 이번 접촉은 통상적인 정례접촉의 일환으로 4자회담 설명회와 북한 식량상황 등 미·북간 다양한 현안들 논의</li> </ul> <p>대만, 핵폐기물 북반출 설명위해 IAEA에 대표단 파견</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13	<p>관리와 처리, 동북아정세의 안정을 위해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에 최대한 협조하겠음.</p>		
2. 14	<p>한·중 외무장관, 황장엽 비서 망명 문제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아-유럽정상회의(싱가포르) 외무장관회의 참석 별도회담</li> <li>〈유종하 외무장관〉</li> <li>○ 황비서의 망명신청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자유의사에 의한 것임으로 난민지위에 관한 제네바 협약 등 관련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본인이 희망하는 한국행이 허용돼야 함.</li> <li>〈전기침 중외교부장〉</li> <li>○ 시간이 필요하며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냉철하고 신중한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함.</li> </ul> <p>유광석 외무부 아태국장, 황장엽 망명동기 자술서 중국 정부 전달 언급</p>	<p>손성필 주러 북한대사, 황장엽 한국에서 납치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 이타르타스통신 기자회견</li> <li>○ 이는 남북조선관계에서 가장 심각한 사건이며, 중국이 우리의 처지를 모든 책임을 갖고 검토하길 바람.</li> </ul> <p>외교부대변인, 일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관련 비난 답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은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과거죄행을 청산하지 않고 국가적 책임을 회피하는 유일한 전범국임.</li> <li>○ 따라서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에 올려앉힌다면 과거의 범죄를 묵인해주고 범죄를 되풀이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되므로 세계평화와 안전을 고려하여 일본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될 수 없음.</li> </ul> <p>LA 김정일 사진전시회장 피습관련 방북해외동포축하단·대표단 단장</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황장엽 비서의 자술서가 13일 오후 우리언론에 공개되기 전 적절한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당국에 전달됐음.</li> <li>○ 중국외교부는 이미 우리 정부가 황비서 망명과 관련해 제공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북한측의 주장도 들어보는 자체조사를 거쳐 어느쪽 의견이 맞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음.</li> </ul>	<p>듣, 긴급연합모임 진행 및 규탄성명 채택</p>	
2. 15		<p>조선중앙방송위, 교육문화TV 방송 2. 16부터 방영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문화텔레비죤방송이 창설됨으로써 사회주의 교육문화분야의 종목들을 전문적으로 방영하는 대용로를 가지게 되었음.</li> <li>○ 방송은 오후 7시부터 10시 까지하며, 일요일과 명절날에는 낮 12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게 됨.</li> </ul> <p>김정일 생일경축 중앙 보고대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석 : 이종욱, 박성철, 김병식, 김영남, 계웅태 등</li> <li>○ 우리당의 붉은기 사상은 김정일 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이</li> </ul>	<p>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한반도 항구평화구축」 관련 성명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싱가포르 ASEM 관계 25개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li> <li>○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어야하며 그 이전까지는 현행 정전협정이 유지되어야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남북한간에 대화이뤄져야 함.</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15		<p>며, 무철한 수령 겐사옹위정신 임.</p> <p>『조평통』 서기국, 정당, 단체 연합 회의 호소문 남한의 정당, 단체, 개별적 인사들에 발송</p>	
2. 16	<p>국무총리 주재 안보·치안 관계 장관회의 및 통일부총리 주재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황장엽 망명 및 이한영 (귀순자) 피습사건 관련 대응방안 논의</li> <li>◦ 중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황장엽의 조기송환에 노력하기로 하고,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기로 함.</li> <li>◦ 북한의 테러 등 보복행위 기도에 대비함과 해외교민에 대한 신변안전을 강화하기로 함.</li> <li>◦ 경수로사업은 최근사태를 고려해 신변안전문제를 재확인하면서 추진함.</li> <li>◦ 대북식량지원문제는 국제기구의 인도적인 대북지</li> </ul>		<p>일 아사히신문, 중국 황장엽비서 망명 의사 공식확인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당국자가 지난 15일 남북한 협상단과 연쇄 접촉을 가진 뒤 황비서와 접촉하여 이들의 자유의사를 확인하였음</li> </ul> <p>중국외교부 대변인, 황비서 망명 남북직접해결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사건으로 야기된 위기상황이 해결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것임.</li> <li>◦ 황비서가 한국대사관에 머물고 있어 사실상 한국에 있</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16	<p>원 계획에 참여한다는 기본원칙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시기 및 규모는 미·일 등과 긴밀히 협의하기로 결정함.</p>		<p>는 것이지만 사건 발생장소가 북경이기 때문에 3개국이 연관되어있는 상태이나, 이 사건의 직접당사자는 남북한이라는 점을 강조함.</p>
2. 17	<p>반기문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국제기구 추진 대북식량 지원에 정부 언급</p> <p>○ 정부차원의 대규모 대북 지원은 현재 분위기상 어렵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지원은 긍정적으로 옹호한다는게 정부의 기본 원칙임.</p>	<p>외교부대변인, 황장엽 망명 관련언급</p> <p>• 중앙통신 기자회견</p> <p>○ 우리는 지난 2월 12일 중국의 베이징에서 황장엽이 실종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중국측에 사태의 진상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p> <p>○ 이번 사건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은 단순하고 명백함.</p> <p>○ 황장엽이 납치되었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 참을 수 없으며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p> <p>○ 그러나 그가 망명을 추구했다면 그것은 변절을 의미하므로 변절자는 갈태면 가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임.</p>	<p>일본 산케이신문, 야마사키 다쿠 일본자민당 정조회장, 황장엽 비서 통하여 김정일에 친서전달 요청 보도</p> <p>○ 황장엽 노동당 비서의 방일기간중 김정일에게 보내는 친서를 황비서에게 전달했음.</p> <p>○ 야마사키 정조회장이 황과 회담을 갖지 않은 이유 등을 설명한 것으로 일본 외무성이 작성, 황이 지난 11일 북경으로 출국하기 전에 간접 전달됐음.</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17		<p>정무원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우, 황장엽 비서 망명관련 북경 도착 임무수행</p> <p>•주중북한대사관 회의주제</p>	<p>그리고리 카리신 러 시아 외무부 아·태 담당 차관, 황비서 망 명은 평화적 해결 회 망</p> <p>◦ 러시아 정부는 이 번 사건이 한반도 의 긴장을 고조시 키지 않기를 희망 하며 남북한이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임.</p>
2. 18	<p>이수성 국무총리, 황장엽 조 기귀순 심사에 총력</p> <p>•입시국회 국정 보고</p> <p>◦ 정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그의 귀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이번 사건이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미 칠 영향도 검토해서 신중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대 처할 것임.</p>	<p>평방, 조·미간 잠정합정체결 주장</p> <p>◦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 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p> <p>◦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최 근 조선반도에서 무장출동과 전 쟁위험을 제거하고 정전상태를 평화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미 사이의 잠정합정의 체결을 제안 함.</p> <p>평방, 노동법 개정안 비난보도</p> <p>◦ 김○○은 노동법 개정안이 경제 를 살리느니, 기업가나 노동자 어느 한쪽에도 기울지 않는 공 평한 법인것처럼 광고하고 있음.</p>	<p>당국강 중국외교부 대변인, 황장엽망명 남북간 대화로 해결 희망</p> <p>•북경국제구락부 정 례뉴스브리핑.</p> <p>◦ 우리는 관련 당사 국들이 한반도 평 화안정 유지라는 대국적 차원에서 이번 사태를 냉정 하게 대처하고 합 리적 방법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길 희망함.</p> <p>◦ 중국정부는 황비</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18			<p>서의 북경경유 사실에 대해 북한측으로부터 아무런 사전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황비서가 중국체류시에도 중국내 숙소에서 머물지 않아 (북한대사관 체류) 자세한 상황을 파악치 못했으며 중국과 북한은 비자면제협정을 맺고 있어 그가 중국에 오는데 비자가 필요없음.</p> <p>글린 데이비스 미국 무부대변인, 황장엽 망명관련 북한외교부 성명은 중요사태 진전논평</p> <p>• 뉴스브리핑</p> <p>◦ 미국은 황비서 망명사건과 관련 한국 및 중국 정부와 접촉을 갖고 있으며, 북한외교부의 북한노동당 비서</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18			<p>망명을 용인하는 의사를 내비친 최근 성명은 중요한 사태발전으로 생각함.</p>
2. 19	<p>이흥구 신한국당 대표, 새로운 상황에 맞는 통일정책 정립 필요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본회의 당대표연설</li> <li>◦ 북한의 급격한 궤도이탈과 추락을 감안, 남북한의 대등관계를 전제로한 통일정책은 근본적인 재고와 수정이 필요함.</li> <li>◦ 남북관계는 더 이상 냉전시대의 균형의 관계가 아니며 이제 불균형을 전제로 한 새 틀을 짜야 함.</li> </ul>	<p>중방, 군 동계훈련을 북침전쟁 준비라고 비난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성을 잃고 대결과 전쟁의 길로 줄달음치며 분별없이 날뛰다가는 비싼 대가를 치를 것임.</li> </ul> <p>평방, 북과 남 해외의 정당단체 대표들에 대한 연대회의 제의 관련 남한비난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에 북과 남, 해외의 정당단체 대표들의 연대회의 소집발기를 내놓고 민족자주와 평화수호를 위한 온거리의 염원은 더욱 강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은 올해 정초부터 괴뢰군 우두머리들을 내몰아 최전연 괴뢰군 부대들을 싸다니며 전쟁열을 고취하고 있음.</li> </ul>	<p>중국지도자 등소평 사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7년 2월 19일 밤 9시 8분(한국 시간 밤 10시 8분) 북경에서 93세를 일기로 사망.</li> </ul> <p>니컬러스 번스 미국 무부 대변인, 북한에 1천만불 원조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유엔 세계식량 계획의 대북 식량난 지원호수에 부응코자 1천만달러의 인도적 원조를 제공키로 결정했으며, 한국 및 일본 정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 것임.</li> <li>◦ 식량 전달창구는 북한내 식량배급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19			<p>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WFP 로 선택했음.</p> <p>중국관영언론매체, 황장엽 비서 망명 사실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화통신 · 중앙 TV, 중국 외교부 관리발인 인용</li> <li>◦ 황장엽비서가 2월 11일 밤 북경주재 북한대사관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12일 오전 한국총영사관에 들어갔음.</li> </ul>
2. 20	<p>김영삼 대통령, 등소평 사망 관련 특별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선생은 통찰력을 가지고 개혁, 개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국의 발전을 이끌어 냈으며 아시아 및 세계 평화에도 귀중한 기여를 했음.</li> <li>◦ 우리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우호협력관계가 계속 강화될</li> </ul>	<p>김정일, 등소평 사망 관련 강택민 중국 주석에게 조전 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등소평 동지께서 서거하였다는 슬픈 소식에 접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형제적 중국인민과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함.</li> </ul> <p>정무원 총리대리 홍성남, 등소평 사망관련 이붕 중국 국무원총리에게 조전 발송</p>	<p>일본 아사히신문, 일본 외무성 한국에 한 ·일수교문서 비공개 요청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대북수교 협상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교섭과정을 담은 외교문서를 공개하지 말도록 한</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20	<p>것을 희망함.</p> <p>통일원 대변인,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대북식량 지원 참여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WFP가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3차 대북지원계획을 발표하고 국제사회의 참여를 요청한 것과 관련,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인도적 차원에서 WFP의 대북 지원에 동참할 방침임.</li> <li>○ 지원규모는 600만불 상당의 식량이 될 것이며, 구체적 지원품목과 지원시기는 유엔기구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될 것임.</li> </ul>	<p>노동신문, 북·일국교정상화 교섭 재개 관련 일본태도 비난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시기 일본은 조·일 국교정상화 교섭재개에 전제조건 없이 나설 것이라고 하면서 붙은 우리측에 와 있다고 하였음.</li> <li>○ 우리는 조·일 관계정상화가 이룩되기를 바라지만 그것을 구걸하지는 않을 것이며, 일본이 회담교섭재개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존엄을 흔들어 놓으려 하는 데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음.</li> </ul>	<p>국측에 요청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외무성은 한국측이 부분공개시에 북·일협상과 한·일신뢰 관계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하고 있음.</li> </ul> <p>잠비아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관 장명식, 상아 밀수혐의로 짐바브웨에서 추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라레 AFP 연합</li> <li>○ 장명식은 3주전 짐바브웨에서 유럽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중 서류가방에 숨겨둔 상아가 적발되어 짐바브웨 주재 북한대사관에 억류되었다가 지난주 추방되었음.</li> </ul>
2. 21		<p>외교부 대변인, 뉴욕서 4자회담 공동선명회 이어 북미간 고위급회담 개최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량제공문제 등 지난해 12월 조미협상에서 합의된 동시행동 조치들을 취해나가는 과정에 우리와 미국사이에 입장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므로 부득불 공동설명회와 고위급회담을 연기하지 않을 수 없었음.</li> </ul>	
2. 22	<p>유종하 외무부장관, 매들린 울브라이트 미 국무장관과 북한 4자회담 등 현안문제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 외무장관회담</li> <li>○ 4자회담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수는 없으며, 정부차원의 대규모 식량지원은 4자회담이 개최된 뒤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음.</li> <li>○ 황장엽 망명사건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본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서 국제법과 관례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함.</li> <li>○ 황장엽 망명, 북한식량난 심화, 김정일 공식 권력</li> </ul>	<p>인민무력부장 최 광 사망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인 인민무력부장 조선인민군 원수 최광은 1997년 2월 21일 8시 30분에 78살을 일기로 사망.(국장장례식)</li> <li>○ 장의위원 : 김정일, 이종욱, 박성철, 김영주, 김영남, 이을실, 조명득, 김영춘, 계용태, 전병호, 한성룡, 김철만, 최태복, 양형섭, 전문섭, 홍성남, 홍석형, 김국태, 김기남, 김중린, 김용순, 윤기복, 김광진, 백학립, 김의현, 이두익, 최인덕, 황순화 등</li> </ul>	<p>일 교도통신, 북체제 위기 관련, 미국 일에 행동지침 요청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북한체제 위기시 예상되는 난민유출 등의 대응책과 관련 미·일간에 진행되고 있는 방위협력지침 개정 작업과는 별도로 북한 선박의 일본 영해침범 저지를 포함한 미·일 공동행동 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일본측에 요청하였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22	<p>승계 문제 등 북한정세가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북한 정세의 긴밀한 논의를 위해 대북정세평가 협의회를 수시로 갖기로 하고, 대북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함.</p>		
2. 23			<p>알렉산더 다우너 호주 외무장관, 대북식량원조 190만달러 제공 언급</p>
2. 24	<p>이수성 국무총리, 북한 급변 사태 대비 다각적인 대책강구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시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li> <li>• 북한은 식량난 등으로 위기상황에 놓여 있지만 주민통제는 유지하고 있어 단시일내에 붕괴될 것으로는 보지 않으며, 다만 북한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에 대해 다각적인 대책을 준비중임.</li> <li>• 북한 황장엽비서는 공작에 의해 망명할 위치에</li> </ul>	<p>중방, 남한군 동계훈련을 북침위한 전쟁연습이라고 비난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에서는 지상과 공중 합동훈련과 동계작전적응훈련, 대규모 전술훈련 등 각종 간판을 단 전쟁연습들이 도처에서 연일 벌어져서 긴장이 한층 격화되고 있음.</li> </ul> <p>『조평통』서기국, 남한정부비판 백서 발표</p> <p>평방, 미국의 행정책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이 조. 미기본합의문의 정신에 배치되게 남조선에 수많은 핵무기를 배치하고 일본과 남조선에 대한 핵우산 보호를 계속</li> </ul>	<p>대만 핵폐기물 북한 이전 IAEA서 불개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만 중앙통신</li> <li>◦ 국제원자력기구는 대만이 북한에 핵폐기물을 이전하는데 개입하거나 반대하지 않기로 약속했음.</li> </ul> <p>미, 중국에 황장엽망명 인도적 해결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중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과 중국측 수뇌부</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24	<p>있지 않으며 황비서 망명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국민의식이나 국가위신을 생각할 때 결코 있을 수 없음.</p>	<p>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들이 핵우산보호의 구실로 내들었던 이전 소련의 핵공격위협도 사라졌고, 우리의 핵 활동도 동결되었으므로 미국은 남조선과 일본에 핵우산을 계속 제공할 아무런 명분도 타당성도 없음.</li> </ul>	<p>연쇄회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황장엽비서 문제에 대해 중국측에 보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매끄럽게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음.</li> </ul> <p>러시아 일간 모스코 프스키 콤스몰레츠지, 북한 외화벌이 위해 카지노 개업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화벌이 사업의 일환으로 3년전부터 자본주의 관광객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북한이 마침내 주체이념도 팽개치고 카지노까지 도입하였음.</li> </ul>
2. 25	<p>대우그룹 기술진 4명 방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경경유 고려항공편</li> <li>○ 북한 남포공단내 남북한 최초의 합명회사인 민족산업총회사를 설립 운영중인 대우그룹의 직원 4명이 사업관계로 입북했음.</li> </ul>	<p>조선문화예술총동맹 중앙위·조선 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북과 남, 해외의 정당·단체 대표들의 연대회의 소집을 위한 확대회의 개최</p> <p>인민무력부장 최광 장례식(대성산 혁명열사능)</p>	<p>러 이즈베스티야지, 북한 상층부 권력변동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권력 서열 상층부 30위권에 든 인사중 3분의 1가량이 교체됐으며,</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들은 최장 2개월동안 현지에 머물며 북한측 경영진들과 이사회를 개최, 지난해 9월이후 경영실태를 확인하는 한편 기술교육 및 지도를 실시할 계획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석 : 이종욱, 박성철, 김영남, 계웅태, 한성룡, 이윤설, 조명목, 김영춘, 양형섭, 김철만, 홍성남, 김중린, 전문섭, 윤기복, 백학림, 김익현</li> </ul>	<p>권력상층부에서 탈락한 인사는 전문관료출신의 개혁파이며 권력서열 30위권에는 군출신 및 현직 군고위 인사가 11명이나 포진하고 있음.</p>
2. 26		<p>평방, 김영삼대통령 취임 4주년 즈음 담화발표 관련 비난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은 취임 4년동안 공직자 재산공개니, 금융실명제니 하는 어릿광대놀음을 연일 벌이고, 이제는 노동법을 보다 악랄하게 개악하여 매판재벌들이 노동자들에게서 출혈적인 수탈을 강요하도록 하였음.</li> </ul>	<p>찰스 카트만 미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 보대행, 대북경제 제재 해제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선행되어야 가능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하원 아·태소위원회 청문회중인 출석</li> <li>미국과 북한은 현재 법적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으며 적성국 교역법상의 대북제재 해제 문제는 평화회담의 맥락에서 다루지게 될 것임.</li> <li>우리는 제재 해제가 단지 북한의 합</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26			<p>의이행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단편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테러지원이나 미사일 수출과 관련된 제재 조치에 관해서는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일 경우 제재 해제를 고려하게 될 것임.</li> </ul> <p>일본 간사이대학 이영화 교수, 북한 해외서 불량채권 발행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간지 「사피오」 기고문</li> <li>○ 북한의 무역은행과 고려은행이 지난 9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해외에서 발행한 지불보증서(채권)는 총액 2백20억 달러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27	<p>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 규정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오기 통일부총리 주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 의결</li> <li>◦ 남북사회문화 협력사업 유형으로 공동조사 연구·저작·편찬과 그 보급, 영화·연극·음악·무용·기타 예술적 또는 오락물 관람물의 공동 제작·상영 및공연, 음반 및 영상물·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국내외 체육행사 단일팀 출전 및 공동개최, 학술·문화 연구단체·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의 공동추진 등으로 지정함.</li> </ul> <p>국방부, 북한여자 1명 귀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7일 오전 10시18분께 강원도 고성군 육군 모부대를 통해 26세 가량의 여자 1명이 귀순하였음.</li> </ul> <p>함명철 유엔주재 차석대사, 대만핵폐기물의 북한이전 철회 촉구</p>	<p>김광진(차수,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사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의위원 : 이을설, 조명록, 김영춘, 백학림, 김익현, 이두익, 최인덕, 김용연, 이종산, 김경각, 오룡방, 이병욱, 정창열, 이영수, 김하규, 현철해, 원용희, 박재경, 이명수, 김대식, 박기서, 김일철, 오금철, 김두남(국장장례식)</li> </ul>	<p>중국, 북한 국경지대에 난민수용소 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시사통신 미 정부소식통 인용 위성탄발 보도</li> <li>◦ 연변 조선족 자치주 등에 최고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난민 수용시설을 몇 군데 건설하고 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 지속개발위원회 실무회의</li> <li>◦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은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환경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li> <li>◦ 대만이 핵폐기물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기술과 자본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국내서 처리하지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북한으로 이전시키려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임.</li> </ul>		
2. 28		<p>3. 1절 78돌 기념 평양시 보고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남준(조국전선 서기국장) 기념보고</li> <li>◦ 3. 1인민봉기는 김형직이 키운 청년학생과 인민들이 주동이되어 대규모적인 반일시위투쟁을 전개하였음.</li> <li>◦ 모든 근로자들과 당원들은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는 붉은기름 지킨다”라는 투쟁의 노래를 더 높이 부르며 우리식 사회주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 것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2		<p>『조평통』대변인, 김일성 사망원인 보도관련 규탄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27일 남조선의 중앙일보가 '94년 7월에 있는 우리의 유고와 관련하여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헐뜯는 날조품을 광고하는 반북 모략 책동을 벌이었음.</li> <li>○ 우리는 이번 도발을 우리체제에 대한 전면공격으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노골적인 선전포고로 인정함.</li> <li>○ 우리는 우리 혁명의 수뇌부의 권위를 훼손시키려는자는 그가 주범이건 배후 조종자이건 관계없이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임.</li> </ul>	
3. 3	<p>이수성 국무총리, 탈북자 등 북한 급변사태 대비 만반 대책강구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시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li> <li>○ 김정일이 당·정·군을 장악하고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축출 가능성은 희박함.</li> <li>○ 경제상황이 어려우나 아직 사회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단기간내 붕괴할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으나, 북한주민의 대량</li> </ul>	<p>김영삼 대통령 취임 4주년 담화발표 문중 안보태세언급 관련 비난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엇을 노린 안보태세 강화인가</li> <li>○ 괴뢰역도는 평화가 유린된다느니 안보에 위협이 증대된다느니 뭐니 하면서 안보를 해치는 언행은 용납치 않겠다고 제쳤음.</li> <li>○ 이것은 안보를 코에 걸고 통일민주세력에 대한 탄압과 반공화국 대결전쟁소동을 강화할 범죄적 기도를 드러내 놓은 것임.</li> </ul> <p>노동신문,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정 반대 시한부 파업관련 지지논평</p>	<p>일본 산케이신문, 미국의 테러 방지문제 등 일·북 직접접촉 갖도록 북에 요청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7일 개최되는 미·북간의 준고위급회담 접촉에서 테러방지 문제 등과 관련, 일본과 직접 협의하도록 북한에 요청할 방침임.</li> <li>○ 북한이 이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니가타 여중생 납치사건 등</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3	<p>탈출사태를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대비 관계부처간 세부적인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검토중임.</p>	<p>•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투쟁</p> <p>김정일, 서해안 최전방 제212군부대 시찰</p> <p>•참석: 조명룡, 김영춘, 현철해, 박재경 이명수</p> <p>◦ 김정일은 이 부대의 '50. 2고지'에 올라가 3km떨어진 한국측지역인 교동도와 강화도를 관측하고 서해안 최전방일대를 방어하고 있는 연합부대의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전투력 강화를 위한 지침을 제시했음.</p>	<p>의 해결에 진전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의 이러한 방침은 일본이 북한의 테러위협을 이유로 대북지원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한·미·일 공조체제가 흐트러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임.</p> <p>북한조선국제여행사 대만사무소장 양지방, 6개 대만 여행사에 대북 비자업무 허용 언급</p> <p>◦ 오늘부터 대만인은 우리에게 직접 비자를 신청하는 대신 6개 대만 여행사를 통해 입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비자는 조선국제 여행사의 홍콩지사에서 발급됨.</p>
3. 4	<p>한미 4자회담 설명회 대표단, 공동대응방안 사전협의</p> <p>〈참석자〉</p> <p>- 한국측: 송영식 외무부 제1차관보 등 4명</p> <p>- 미국측: 찰스 카트만 미국무</p>	<p>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만핵폐기물 북한반입에 따른 한반도 생태계 파괴 우려에 대한 한국측 주장 비난 성명</p> <p>• 유엔본부 프레스센터</p> <p>◦ 핵폐기물은 국제법과 관례에 따</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4	<p>부 동아태차관보 등 4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자회담 제의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체제의 수립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며 여기에 나오면 모든 당사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을 진지하게 설명하기로 의견을 모았음.</li> <li>◦ 그러나 북한이 4자회담에 응하는 조건으로 식량지원 등의 대가를 준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했음.</li> </ul>	<p>른 처리가 인정되는데도 한국정부가 지나치게 이문제를 부각시켜 유엔상정을 기도하고 있음.</p> <p>노동신문,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 중단 촉구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아 인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자유아세아방송을 일부 나라들의 민족어로 정식 개시하였음.</li> <li>◦ 미국이 자유아세아방송을 붙여대는 목적은 힘의 정책과 퇴폐적인 미국식 생활양식과 사상문화를 유포시켜 이 나라들의 민족문화를 말살하여 제놈들의 지배를 실현해 보려는 도적으로 용납될 수 없음.</li> </ul> <p>김정일, 인민군 전람회 및 인민무력부 혁명시적관 관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 석 : 조명륙, 김영춘, 현철해, 김하규, 박재경, 이명수, 김대식, 최태복,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최용해, 이용철, 장성택</li> <li>◦ 김정일은 인민군 군인들이 산과 들에 서식하는 60종의 희귀한 동식물들을 채집하여 만든 박제품과 표본들을 교육부문에 보내어 이용하게하여 새 세대들을 인민군 군인들의 애국심을 따라 배워 조국과 인민의 참된 북무자로 키워야 한다고 하였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5	<p>4자회담 공동설명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욕 힐튼호텔 2층회의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참석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 송영식 외무부 1차관보 등 5명</li> <li>• 미국 : 찰스 카트만 미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 대행 등 5명</li> <li>• 북한 : 김계관 외교부 부부장 등 5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측은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감안할 때 항구적인 평화체제는 남·북한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음.</li> <li>○ 우리측은 4자회담에서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의 일환으로 식량문제를 포함한 남·북경협 추진문제도 함께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북측이 구체적인 제의를 해올 경우 이를 진지하게 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음.</li> <li>○ 우리측은 공동설명 종료 후 가급적 조속히 4자회담 본회담을 상호 합의하</li> </ul>	<p>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4자회담설명회 결과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늘 우리는 오래전에 미국측에 요구했던 4자 회담 제안에 대한 공동설명을 들었음.</li> <li>○ 설명회는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됐으며, 조선반도의 안정을 보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안이라면 다 들을 용의가 있음.</li> </ul>	<p>존 홀립 美군비관리 군축국장, 북한의 핵폭탄 제조능력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증언</li> <li>○ 북한의 핵보유 여부는 미지수이나 1-2개의 핵폭탄을 제조하는데 충분한 물질을 비축한 것으로 보이며 과거 소련의 핵무기 설계기술자들이 북한, 이라크 등에서 일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은 우려하고 있음.</li> <li>○ 북한 핵동결의 시행은 협상만큼이나 복잡하지만 폐연료봉 봉인작업이 계속되고 있고, 국제원자력 기구는 원자로와 재처리장의 폐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접근을 보장받고 있음.</li> </ul> <p>니컬러스 번스 미국무 부대변인, 4자회담 공동설명회 결과 전향적 발전기대 언급</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5	<p>는 장소에서 개최할 것과 회담대표는 장관급을 수석대표로 하고 차관급을 교체수석 대표로 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회담 의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문제와 남·북한간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문제를 양대 의제로 하되 필요시 의제를 세분화하여 토의를 진행할 것을 제의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측은 한반도의 평화정착 문제는 미·북한이 별도로 협상할 문제가 아니며 어디까지나 직접관계 당사자인 남·북한간에 논의되어야 하며 바로 4자 회담은 이러한 틀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음.</li> <li>○ 북한측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와 관련, 남·북한간에는 불가침 합의가 있으므로, 미·북한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였으나, 현재의 한반도 정세로 미루어 볼 때 공동설명회에 참석한 것은 큰 용단이라고 말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담결과 논평</li> <li>○ 회의분위기가 신중하고 진지했으며 매우 사무적으로 진행됐으며 돌파구를 여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미국은 오늘의 회담을 통해 북한이 4자회담 참여를 수락하게 될 것으로 희망함.</li> </ul> <p>당국감 중국외교부대변인, 3자설명회 4자회담으로 연계희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례뉴스 브리핑</li> <li>○ 3자설명회의 진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으나, 4자회담설명회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체제가 수립되어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는 것을 일관되게 지지함.</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6	<p>국방부, 97년도 한·미 틱스 피리트 훈련 취소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 양국 정부는 1997년도 틱스피리트 연습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li> <li>○ 한·미 양국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한반도 긴장완화에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신뢰증진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임.</li> </ul> <p>유증하 외무부장관, 4자회담 성사위한 식량지원은 배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통일·외무위 현안보고</li> <li>○ 4자회담이 성사되면 식량지원문제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차원에서 남북경협문제와 함께 논의될 수 있지만 4자회담 성사 자체를 위해 식량지원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임</li> <li>○ 황장엽비서 망명문제와 관련, 중국은 “변절자는 갈테면 가라”는 북한의 태도가 반드시 황의 한국귀순을 용인하는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않으며, 북</li> </ul>	<p>중방, 3월 5일 개각관련 비난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이 대국민담화에서 남조선경제를 일신시킬 것처럼 역설하고, 개각에서 새경제팀을 구성한 것은 승산없는 작전이고 한갓 비난의 목소리를 피하기 위한 연극임.</li> </ul>	<p>틸랄리 주한미군사령관, 북한 외부 지원 없으면 붕괴 필연적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상원 국가안보위 참석 증언</li> <li>○ 북한에는 붕괴를 막기 위한 본질적 변화를 이끌어 나가려는 지도부가 없어 북한체제의 불확실성과 잠재적 폭발성에 대한 우려는 당연</li> <li>○ 북한은 내부로부터의 근본적 변화 또는 외부의 대규모 지원이 없으면 필연적으로 붕괴할 것</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7	<p>한측의 확실한 태도를 타진하기 위해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p> <p>권오기 통일부총리, 통일비용 조성검토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통일외무위 답변</li> <li>◦ 통일비용문제를 언제까지 미룰수 없다는 인식아래 재경당국과 구체적인 협의를 해나갈 생각임.</li> </ul> <p>국회 통일외무위, 대만의 핵폐기물 북한반출 철회촉구 결의안 채택·본회의 회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만당국은 핵폐기물 북한수출을 즉각 중단할 것</li> <li>◦ 북한당국은 대만은 물론 어떤 곳으로부터도 핵폐기물을 수입하지말것 등 촉구</li> </ul>	<p>북한, 김일성 생일 85주년 즈음 외국관광객 유치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관광공사 타이페이, 북경, 런던 지사 보고</li> <li>◦ 최근 대만관광객들을 길림성 등 중국 동북3성을 경유해 북한 관광 명소를 둘러보는 관광상품을 판촉하고 있음</li> <li>◦ 또한 런던에 있는 리젠트 홀리데이스 여행사를 앞세워 북경을 경유, 평양과 묘향산, 개성, 판문점을 경유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였음.</li> </ul>	<p>미·북 준고위급회담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성명</li> <li>◦ 쌍무관계에서 제기되는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 쌍방은 논의된 문제들에 대해 새로운 진전을 추구하기 위해 계속 접촉하고 노력하기로 했음.</li> <li>◦ 마크 민튼 미외무부 한국과장브리핑</li> <li>◦ 양국은 쌍무문제 해결의 진전을 위해 준고위급회담을 정기화하기로 했음. 오늘 회답에서는 양국 연락사무소 개설과 미군 유해발굴 및 송환, 핵확산 금지를 비롯한 문제를 논의</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계관 부부장 내 주중 워싱턴 방문 계획 확인</li>   <li>진기침 중국외교부장, 황비서사건 중국의 관할권 언급</li>   <li>◦ 황비서사건은 본질적으로 한반도 남·북쌍방간의 사건이나 북경서 발생해 중국은 관할권을 갖고 있음. 현재 조사중이며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고려 해결할 것</li>   <li>마크 민튼 미국무부 한국과장, 미-북간 정기회담 개최 합의 발표</li>   <li>◦ 미국과 북한은 미-북회담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연락사무소개설, 경제제재완화 등 구체적 협의를 위해</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8	<p>권오기 통일부총리 주재 통일안보정책조정 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자회담 공동설명회 결과 및 황장엽 비서 망명사건의 대책을 협의함.</li> <li>○ 황장엽 망명사건은 국제법 및 국제관례에 따라 조속히 해결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li> </ul>		<p>수주내 추가회담을 가질예정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측은 핵확산금지, 실종미군유해 공동발굴, 미사일 기술 등을 포함해 광범위한 문제를 논의했음.</li> </ul>
3. 9		<p>외교부 대변인,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 비난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아시아 각국의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중어, 옌남어 등 여러나라 말로 자유아시아 방송을 개시한데 이어 며칠전부터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조선말 방송을 시작하였음.</li> <li>○ 미국은 조선말 방송을 통하여 미국식 가치관과 퇴폐적인 사상문화로 우리인민의 자주적인 사상</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9		<p>의식을 마비시킴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 진지함을 내부로부터 부식와 해시키려 하고있음.</p>	<p>일본 산케이 신문, 북한 전총리 강성산 거액착복으로 해임설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교소식통 인용</li> <li>◦ 지도부내 노선대립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실각한 것으로 알려진 강성산 북한 전 총리는 지난해 4월 2백만달러를 착복한 사실이 밝혀져 전격 해임됐음.</li> </ul>
3. 10	<p>김영삼 대통령, 북한지도부 급변행동 가능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사 졸업 및 임관식 참석</li> <li>◦ 북한은 위기를 타개하고 대남적화를 달성하기 위해 언제 어떠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지 예측하기 어려움.</li> <li>◦ 지금 북한 권력층에는 심상치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만일 그들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해 온다면 그들에게는 파멸이 있을뿐임을 엄중히 경고함.</li> </ul>	<p>중방, 노동법 여야합의 타결안 비난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야협상 끝에 타결된 이번의 노동법은 지난해 12월에 신한국당 일당독재로 기습통과시킨 노동법개정안에 박아놓았던 독소조항들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었음.</li> </ul> <p>북한 정당·단체와 사회, 각계인사들의 협의회의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대와 단합을 위한 회 결성 &lt;회장 : 장재철, 부회장 : 여원구 · 김철식, 위원 : 18명&gt;</li> <li>◦ 공화국의 정당단체들과 각계인</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10	<p>합동참모본부, 북한군 군사분계선 1시간동안 침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일 오전 5시 30분쯤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육군 열쇠부대 전방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 5명이 일시적으로 군사분계선을 4백m가량 침입한후 1시간여만에 되돌아가 군이 한때 경계조치를 발령했음.</li> </ul> <p>국회「2002년 월드컵 등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위」북한의 '97동아시아경기대회 참가 축구결의안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당국은 순수한 스포츠 제전인 동아시아경기대회에 참여하여 남북대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갈 것을 촉구함.</li> </ul>	<p>사들이 북남사이의 접촉, 대화와 연대운동을 적극 벌여나갈 일념에서 사회 각계인사들로 연대와 단합을 위한 회를 내오기로 하였음.</p> <p>조선사회민주당 부위원장 김영호, 남한의 야당 사무총장 앞으로 정당, 단체 대표들의 접촉관련 편지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새정치국민회의, 통합민주당, 자유민주연합</li> <li>지난 1월 30일 공화국 정당, 단체 연합회의에서 올해를 민족자주, 평화수호를 위한 북과남, 해외의 정당·단체 대표들의 연대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제안을 상기시키고자함.</li> </ul>	
3. 11		<p>노동신문, 노동법 개정안 비난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일당이 야당들과의 정치적 흥정놀음을 벌여 또 다시 노동악법 개악안을 만들어 내었음</li> </ul>	<p>니컬러스 번스 미국 무부 대변인,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를 4자회담 진전과 연계 시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락사무소 개설함의는 4자회담의 진전 등 광범위한 한반도 구도의 일부</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11			<p>가 될 것이며, 미·북관계는 전적으로 남북한관계의 진전여부에 달려있음.</p> <p>크리스티안 슈미트 독일 의회외교문제대변인, 북한이 독일에 식량원조요청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일을 방문중인 북한외교부부부장 김창용이 독일정부에 긴급 식량원조를 요청했음.</li> </ul>
3. 12	<p>김영삼대통령, 북한의 무모한 도발가능성에 적극대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사 졸업 및 임관식 치사</li> <li>막다른 골목에 몰린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해올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li> <li>민·관·군이 하나가 되어 총력안보체제를 구축해야하며 이를 뒷받침하</li> </ul>	<p>노동신문, 김영삼대통령 육사졸업 및 임관식 치사 비난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은 괴뢰육군사관학교 졸업식과 임관식이라는 관제행사를 벌여놓고 북의 오판과 모험이요, 적화전략이요 하고 판에 박은 남침설을 늘어놓으며 총력안보태세확립이니 하면서 우리와의 힘의 대결을 부르짖었음.</li> </ul> <p>중통, 일본국회의원들의 일본인 북한납치설 규명위원회 발족움직임 비난</p>	<p>체코 노바TV, 북한기업의 체코은행 위조지폐입금 미수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코정보기관 BIS 보고서 인용</li> <li>BIS가 최근 체코 무역 은행에 북한 정보기관의 전위대인 한 기업이 위조지폐를 만들어 입금시키려 한다고 통보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12	<p>는 굳건한 사회안정이 이뤄져야함.</p> <p>울진원전, 북한경수로 원전 모델인 원전 3호기 성공적 기기실험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진원전은 12일 원전3호기에 대한 구조물과 기기 설치 공사를 완료한 뒤 핵연료가 없는 상태에서 상온 수압시험방법을 통해 기기와 배관, 집합부의 강도와 내압성을 확인하는 등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케이신문 보도에 의하면 일본 신진당의 일부불순세력들이 70년대 초부터 있었다는 일본인 행방불명사건을 두고 북조선 공작원에 의한 납치운운하며 무슨 「국회의원의회」 라는 초당파의 원연맹을 발족시킬 방침이라는 것을 세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기업이 정교한 솜씨로 제작도니 90만달러 상당의 1백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입금시키려 했으나 이를 사전에 알고 있던 은행 측에 의해 입금이 거부됐음.</li> </ul> <p>아더 흄 UNDP 중국주재대표, 김일성대서 오는 9월부터 자본주의강좌 개설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브리핑</li> <li>○ 북한의 자본주의 강의는 북한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우리는 하버드대학에서 전문가들을 불러올 것이며, 북한주재 UNDP가 강의내용과 재정지원을 할것임</li> </ul>
3. 13	<p>권오기 통일부총리 주재 통일 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을</li> </ul>	<p>중방,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 개시 관련 비난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모략선전에</li> </ul>	<p>유엔 인도지원국, 북한 식량 조사단 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교도통신</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13	<p>지원하고 북한의 4자회담 참여유도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달초 실시 될 유엔인도지원국의 대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키 로 했음.</p>	<p>계속 매어달릴수록 반미감정은 더욱 커질 것이고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인민들의 믿음은 더욱 굳세어질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 인도지원국은 북한에 대한 식량 등의 원조를 실시 하기 위해 18일부터 북한에 실무대 표단을 파견할 계 획임.</li> <li>○ 대표단은 세계보건 기구 직원을 포함 한 3명으로 구성되 며 식량부족 실태 등에 관해 북한측 과 협의를 벌인 뒤 회원국에 대한 식 량원조 호소문을 작성할 계획임.</li> </ul> <p>존 홀럼 미군비관리 군축국장, 북한 등 3개 국 포괄핵금조약 가입 필요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상원 외교위원회 국제활동 소위원회 중언 출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포괄핵실험금 지 조약에는 발효를 위해 필요한 44개 국가 중 인도, 파키 스탄, 북한 등 3개 국이 서명하지 않았</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13			<p>으나, 북한은 핵실험금지조약 시행을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국가중의 하나이며 미북핵동결협정의 체결에 따라 북한은 현재 핵금지조약 가입의 이행기에 있음.</p>
3. 14	<p>김영삼대통령, 국민화합으로 국가안보 대비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 졸업 및 임관식 치사</li> <li>◦ 국민모두가 안정의 바탕 위에서 일치단결하여 국력을 키워나가야하며, 우리군은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으로써 국가안보에 한치의 빈틈도 보여서는 안될 것임.</li> </ul> <p>권영해 국가안전기획부장, 북한 대남적화정책 고수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회정보위 현황보고</li> <li>◦ 북한이 지난해 한총련 사태 이후 위축된 남한내 친북좌경세력의 복원을 위</li> </ul>	<p>노동신문, 김영삼대통령 해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 치사 비난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은 지난 12일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치사라는 데서 우리를 약탈하게 비방증상하면서 남침위협 타령을 뽑아냈음.</li> </ul> <p>평방, 김영삼대통령 개정노동법 서명관련 비난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은 12일 사회여론을 무시하면서 기만적인 재개정 노름으로 개악이 확정된 노동법에 서명하고 그것을 정식 공포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했음.</li> </ul>	<p>중국, 탈북방조범 처벌 새형법 공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회의의 심의를 거쳐 14일 통과된후 강태민 국가주석이 공포한 새 형법은 사회질서관리방해죄의 하나로 국(변)경관리방해죄를 신설, 탈북자 등 다른사람들의 밀출입국을 조직하거나 이들을 다른곳으로 이동시켜준 사람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음.</li> </ul>

■ 3 月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15	<p>해 학원, 노동계, 종교계 등에 지하지도부 구축을 획책하고 있음.</p> <p>○ 북한은 또한 공군조종사 요원을 예년에 비해 2, 3 배 집중양성하는 등 전쟁 준비 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p>		<p>캐더린 버티니 WFP 사무국장, 북한식량문제 논의차 방북</p>
3. 16		<p>평방, 김영삼 대통령 공군사관학교 졸업 및 입관식 치사 비난보도</p> <p>○ 김○○은 14일 공군사관학교 입관식에서 또다시 우리를 걸고 모험적인 군사도발을 행할 가능성이란니,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전쟁열을 고취하였음.</p> <p>북한근로단체들, 7. 4공동성명 발표 25돌 즈음 북과남 해외의 정당, 단체대표들의 연대회의 소집관련 남한내 직능단체별 편지발송</p> <p>• 「직총」 위원장 주성일, 민노총·한국노총 위원장</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16		<p>『청년동맹』 1비서 최용해, 한국 민주청년단체협의회 회장</p> <p>『농근맹』 위원장 최성숙, 전국농민회 총연맹 의장·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우리농업지키기 범국민 운동본부 사무총장</p> <p>『여맹』 서기장 강관선,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들과 한국부인회 앞으로 각각 편지</p> <p>○ 단체들과의 접촉에서 신앙과 이념차이를 초월하여 북과남, 해외의 정당, 단체대표들의 소집을 비롯한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이루는 문제를 쌍방향의하에 정할 수 있음.</p> <p>『조평통 서기국』 국군동계방어 훈련 규탄보도문 발표</p> <p>•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p> <p>○ 정초부터 북침전쟁 소동을 벌여온 남조선 괴뢰들은 2월에 이어 3월에도 엄청난 군사적 도발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고 있음.</p>	
3. 17	<p>국회, 동아시아대회 북한참가 촉구 결의안 채택</p> <p>• 국회본회의</p> <p>○ 북한당국은 순수한 스포</p>	<p>북한-세계식량계획, 이해각서 조인</p> <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수해에 따른 긴급식량 지원을 위한 유엔식량계획간 이해각서</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17	<p>츠제전인 동아시아경기대회에 참여해 남북화해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갈 것을 촉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일본 등은 북한의 대회참여가 동아시아지역의 올림픽운동 및 이념종진이라는 대회창설 목적에 부응함을 깊이 인식하고 북한 참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해 줄 것을 호소하며, 국회는 북한의 대회참여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임.</li> </ul>	<p>가 3.17일 평양서 조인되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부 부부장 최수현과 세계식량계획 집행국장 캐더린 버티나가 각각 서명하였음.</li> </ul>	
3. 18	<p>외무부 대변인, 황장엽 비서 일행 제3국 출국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앙국은 황장엽씨의 망명사건과 관련, 국제법과 국제관계가 존중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는 원칙하에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여왔음.</li> <li>○ 그 결과 황장엽씨는 양국의 협의하에 오늘 제3국으로 떠났으며, 행선지 및 급후의 관련동향은 관</li> </ul>	<p>『조국전선』 등 단체별로 남한내 사회단체에 북과남, 해외의 정당, 단체 대표들의 연대회의 개최 촉구 대남서한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 : 『조국전선』 중앙위의장 정두환, 『문예총』 중앙위의장 백인준, 『기자동맹』 중앙위제1부위원장 최영삼, 조국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부위원장 김철식, 조선학생위원회 위원장 박명철, 조선교육문화일군직업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남순희 등 명의로</li> <li>남측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통일문제연구소, 경제정의실천연</li> </ul>	<p>캐더린 버티니 WFP 사무국장, 북한식량문제 방북결과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경기자회견</li> <li>○ 북한정부 스스로 3월말이나 4월초면 주민들에게 배급할 식량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18	<p>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당 분간 밝히지 않을 것임.</p>	<p>합시민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민족문학작가회의, 민족미술협의회, 민주언론운동협의회, 한국민주언론노동조합연맹, 한국기자협회,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회의, 반핵평화운동연합, 전대협 등에 발송</p>	
3. 19		<p>중방,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추진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미 준고위급 회담결과 설명</li> <li>◦ 북·미대표단 회담이 지난 3일부터 18일까지 미국의 워싱턴과 뉴욕에서 진행되었으며, 1994년 10월 21일에 채택된 조·미기본합의문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는 토대위에 조·미관계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데 나서는 제반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했음.</li> <li>◦ 쌍방은 이러한 급의 조·미회담을 정상화하며, 미군유골의 공동발굴과 조·미사이의 미사일회담을 재개하기로 했으며, 미국측은 대조선경제제재의 전면해제 문제에 유의하면서 미국은행들의 우리자금에 대한 동결해제, 미국 민항기들의 우리나라 영공 통과 허용과 관련한 조치들을</li> </ul>	<p>러 이타르타스통신, 러주재 북한대사 손성필 황장엽비서 망명관련발언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북한간 경제, 문화협정체결 48주년 기념행사 참석</li> <li>◦ 만약 그가 정말로 망명처를 찾고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둘것임.</li> </ul> <p>니컬러스 번스 미국우부 대변인, 4자회담 성사전제로 미국내 북한자산동결 해제검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징레브리핑</li> <li>◦ 미국내 북한자산은 현재 동결상태에</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19		<p>취하기로 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편, 뉴욕체류시 대표단은 지난해 4월 미국과 남조선측이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그리고 남조선이 참가하는 4자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 그 제안의 설명을 청취했음.</li> </ul> <p>『범청화련』 북측본부, 남한 일부대학총학생회의 한총련탈퇴관련 비난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괴뢰안기부에 의한 한총련 분열와해책동이 최근에 이르러 악랄하게 강행되고 있음.</li> </ul>	<p>있으며 우리는 4자회담 제의에 대한 북한의 응답을 받지못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응답을 때까지 그러한 사전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임.</li> </ul>
3. 20		<p>『조평통』서기국, 경찰청 직제개정 관련 규탄보도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li> <li>○ 얼마전 안보의 구실밑에 대공수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파쇼폭압기구를 대폭늘린 것은 파쇼정국을 조성하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섰던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물론 정치적 반대파 세력까지 탄압 제거하려는 속셈임.</li> </ul> <p>조선학생위원회, 남한 일부대학총학생회의 한총련 탈퇴는 안기부의</p>	<p>중국, 한반도 전쟁시 자동개입조항 사문화 시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가선 중국 외교부 부부장, 한국국제관계 연구소 대표단(최종기) 면담시 언급 전언</li> <li>○ 자동개입은 냉전적 사고로서 그러한 상황은 생각할 수도 없음.</li> <li>○ 중·조우호조약은 형식적인 것으로</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20		<p>모략이라고 비난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의 한총련 씨말리기 작전을 실현하는데서 괴뢰안기부는 8. 15통일축전을 계기로 이 단체를 친북용공세력, 좌경폭력 세력으로 몰아부치며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면, 이번에는 한총련 제 5기 출범을 앞두고 조직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킬 흉계밑에 탈퇴 사건을 조작하였음.</li> </ul>	<p>이젠 친선의 의미만 남아 있음.</p> <p>당가선 중국외교부 부부장, 북한의 대만 핵폐기물반입 반대입장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세기 국회 문공위원장 접견</li> <li>◦ 교종회 북한주재 중국대사가 귀임 직전에 북한 당국자들과 만나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을 반대한다는 중국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음.</li> <li>◦ 대만의 핵폐기물 수출은 민간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간여해야 하는 문제이며 중국은 대만당국이 핵폐기물 수출을 통해 북한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것은 결코 허용치 않을 것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21	<p>한국무역협회, 북한 작년 중국에서 제분공업제품 9,650만 달러어치 수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무역통계자료 인용 발표</li> <li>◦ 이는 '95년 1,960만 달러 대비 5배 증가액수입.</li> <li>◦ 쌀, 옥수수 등 곡물수입도 증가 (3천만 달러), 원유수입은 소폭 감소</li> </ul>	<p>중방, 미국의 한국내 장비현대화 및 군사훈련 관련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이 조선반도 정세안화를 위해 올해에 틱스피리트 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도 북의 핵 및 미사일위협에 대해 떠들면서 주한미군이 괴뢰군을 현대적 장비로 계속 증강하는 한편 전쟁도발연습을 수시로 벌이고 있음.</li> </ul> <p>노동신문, 한·미 군사훈련을 틱스피리트훈련의 복사판이라고 비난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이 올해에 틱스피리트합동 군사연습을 하지않기로 하였다 고 발표를 하고서도 우리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해 떠들면서 남조선 괴뢰들과 함께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도발책동을 계속 벌이고 있음.</li> </ul>	<p>니컬러스 번스 美국 무부 대변인, 대북 구호식량 5월 인도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만 7천톤의 구호식량을 수송할 미국선박 포함 배두척이 5월중 입북할 예정</li> </ul> <p>뉴트 김리치 美하원 의장, 대만에 핵폐기물북한이전 우려전달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번 대만 방문시 이같은 우려를 전달할 것</li> </ul>
3. 22		<p>조선국민회 결성 80돌 중앙보고대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석 : 이종옥, 박성철, 김병식, 계용태, 한성룡, 조명록, 최태복, 양형섭, 홍성남, 홍성형, 김국태, 김기남, 김종린, 김용순, 김복신, 장철, 공진태, 전문섭, 백학립, 류미영</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형직이 조직지도한 조선국민회는 국내외를 포괄하는 가장 큰 규모의 반일지하조직이며, 반일 민족해방을 이끈 중추적 혁명 조직이었음.</li> </ul>	
3. 24		<p>중방, 남한 검찰청 산하기관 공안부 집회의개최 관련 비난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검찰청이 지방검찰 공안담당 부장검사들을 모아놓고 오는 12월의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할 데 대한 지령을 내렸음.</li> </ul> <p>노동신문, 남한 국회의원 군부대시찰 관련 비난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보를 걱정하는 모임에 들어있다는 국회의원 10여명이 전선서부 최전방의 부대에 찾아가 괴뢰군 복장을 하고 1박 2일동안 참호속에 틀어박혀 그 무슨 안보의지를 다지면서 전쟁열을 고취하였음.</li> </ul>	<p>뉴트 김리치 미 하원 의장, 한반도정세 논의차 내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군용기편 오산 공군기지 도착</li> </ul>
3. 25	<p>유종하 외무장관, 방한중인 뉴트 김리치 미하원의장과 한반도 정세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해</li> </ul>		<p>캐롤 벨라미 유엔아동기금 사무총장, 북한 아동용유유 지원 촉구</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25	<p>오는 것이 필요하고 한미 간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가 필요하며, 특히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에 대한 미 의회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요청했음.</p> <p>권오기 통일부총리 주재 통일관계장관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정세의 불안전성이 중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모든사태 발생가능성에 대한 대비태세를 구축키로 하였음.</li> <li>○ 앞으로 통일관계장관회의는 회의운영의 내실화·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통일·대화」, 「사회·문화」, 「경제협력」, 「인도지원」, 「경수로」 등 5개 분과위를 구성·운영하고 사안발생시 수시로 분과위원회를 개최, 현안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제를 갖추기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북한의 식량배급기관으로부터 5~6월에 배급할 식량이 바닥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통보를 받았음.</li> <li>○ 국제아동기금은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상태가 심각하다는 각종보고에 따라 우선 고에너지 우유 1차 공급분을 다음주 평양에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26	<p>권오기 통일부총리, 대북정책의 근본기조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북한의 완만한 변화유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아사히신문 회견</li> <li>◦ 한국과 미국이 제안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4자회담 성사전망은 낙관도 비판도 하지 않으며, 장래 유럽안보협력회의의 아시아판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음.</li> <li>◦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북한 체제가 잘 움직이지 않고 있으며 군비를 제외한 모든 지표가 악화되고 있음.</li> </ul>	<p>『조평통』 서기국, 한총련의 노동법 철폐 시위관련 규탄보도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일당은 3월에 들어서도 한양대학교에서 한총련의 주최로 열렸던 노동악법 철폐를 위한 백만학도 궐기대회와 반정부 시위에 참가하였던 애국적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에 대한 폭압소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음.</li> </ul>	<p>피델 라모스 필리핀 대통령, 황장엽 비서 체류단축 요청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례 기자회견</li> <li>◦ 우리는 두 나라의 관련 당국이 황비서의 필리핀 체류기간을 최대한 짧게하도록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음.</li> <li>◦ 이 문제는 고려되어야 하며, 이에대한 양국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중임.</li> </ul>
3. 27	<p>김영삼 대통령, 방북예정인 미상원의원단과 북한 정세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테드 스티븐슨 미국 상원 세출위원장 등 미 상원의원 일행 접견</li> <li>◦ 최근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과 고위인사의 망명 등에 따른 사회 내부의 동요로 체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28	<p>고건 국무총리, 앨 고어 미 부통령에 대만핵폐기물 북한이전 저지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총리-고어회담</li> <li>◦ 대만핵폐기물이 북한에 이전될 경우 한반도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사태가 발생할것이므로 고어부통령이 이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요청했음</li> </ul> <p>손순룡 건설교통부 항공국장, 남북한 항공회담 의견차이로 합의서 미합의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은 26-28일간 태국 방콕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 중재로 상호 FIR 통과노선을 개설하기 위한 회담을 열었음.</li> <li>◦ 상대방 민간항공기에 대한 상호 무차별 항로 개방과 운항항공기의 안전보장문제 등 양해각서안의 나머지 문제는 서로 합의했으나 관제직통통신망 구성방식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나중에 다시 협의 하기로 했음.</li> </ul>	<p>중방, 한·미 군사훈련 비난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3월초부터 180여회의 대북한 공중정탐행위를 감행했음.</li> <li>◦ 미국과 한국이 25일 약 650대의 전투기를 동원해 안면도, 격렬비열도, 춘천 등지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음.</li> </ul> <p>노동신문, 남한 전국버스노조 파업 관련 투쟁선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임금에 얽매어 비참하게 사는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권리행사이므로 더욱 완강히 투쟁해야함.</li> </ul>	<p>테드 스티븐스 미상원세출위원장 등 미상원대표단 방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단 : 테드 스티븐스(위원장), 대니얼 이노우에(민주, 하와이), 피트 도미니치(공화, 뉴멕시코), 테드 코크란(공화, 미시시피), 패트 로버츠(공화, 캔자스), 에릭 존 미국무부 북한담당관</li> </ul> <p>중국, 북한주재 중국대사에 만영상 외교부관리 임명</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29			<p>앨 고어 미부통령, 북 한붕괴 도래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무장지대(판문 집) 방문</li> <li>◦ 한반도에 냉전이 남 아있으나 북한체제 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 래 가지않을것임.</li> </ul> <p>앨 고어 미부통령, 국 내 저명인사들과 한 반도정세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 : 강영훈, 김 경원, 한승주, 남덕 우, 선우중호, 최중 현, 박권상</li> </ul> <p>미국회 상원대표단(단 장 : 테드 스티븐스), 평양방문(3. 28~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부부부장 김계 관 영접</li> <li>• 최고인민회의 외교 위원회 부위원장인 외교부 제1부부장 강석주와 담화(3. 28, 만수대의사당)</li> <li>◦ 우리가 도착했을 때 북한은 총동원 령속에 있는 것으</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29			<p>로 보였으며 북한이 주민들을 지하터널이나 방공호로 대피시키는 훈련을 끝마쳤다고 들었으며, 이는 주민들을 동원하기 위한 행동임이 분명해 보였으며, 전무준비태세속에 있었음.</p>
3. 31	<p>김석우 통일원차관, 민간차원 대북지원 확대조치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병용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과 대북지원 논의</li> <li>◦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이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각계의 참여와 협조속에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감사하며, 쌀을 포함한 곡물지원과 경제단체를 통한 기업체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li> </ul>	<p>중앙인민위원회, 열병식기념 메달 제정 정령 공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체혁명위업을 무장으로 보위한 전투적 위력을 떨치는 영웅적 조선인민군 열병식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병식 기념메달을 제정함</li> <li>· 열병식 기념메달 수여에 관한 규정과 그림틀이틀 승인함</li> </ul> </li> </ul> <p>노동신문, 대만 핵폐기물 반입관련 남한의 핵정책 비난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괴뢰들은 그 무슨 핵폐기물 반입이요 필요하며 언동을 하고있으나, 남조선에는 몇십만 년이 지나도 방사능이 사라지지 않는 핵폐기물이 핵발전소안에 저장되어 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1		<p>3월하순 전지역에서 군·민합동 군사훈련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HK-TV 뉴스 및 국방부 자료</li> <li>◦ 북한군은 3월하순경 군·민을 대상으로 전지역에서 합동군사 훈련을 실시하였음.</li> <li>◦ 주요훈련내용은 당·정 주요직위자 비상소집, 주민방공 및 대피훈련, 정규전부대는 동계훈련을 실시하면서 강도진입투입 위장활동 등을 실시하였음.</li> <li>◦ 이같은 훈련은 95-96년에는 일부지역에 제한적으로 실시하였으나 금년에는 이례적으로 전지역에서 실시하였음.</li> </ul> <p>남조선의 비전향장기수 구원대책 조선위원회 고발장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에서는 박해와 탄압속에 수많은 전쟁포로들이 감옥 안팎에서 고통을 겪고 있음.</li> <li>◦ 그들은 조선정전협정과 포로대우에 관한 국제법에 따라 정전직후 공화국 북반부로 송환되어야함.</li> </ul> <p>유엔식량농업기구와 북한유엔식량 및 농업기구위원회 사이에 농업부문 큰물피해 협조대상문건 합의</p>	<p>뉴트 킨리치 미하원 의장, 북한붕괴 대비 필요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내셔널프레스 클럽 연설</li> <li>◦ 북한이 매우 괴로워하고 있으며 위협상황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됨.</li> <li>◦ 북한이 군사적으로 무슨일을 저지르지 모르므로, 미국의 안보이익을 보호하고 동북아시아지역 동맹국들을 방위하기 위해 미사일방어물 배치를 추진하는 등의 북한결말에 대비해야함.</li> </ul> <p>케네스 베이컨 미국방부 대변인, 북한군 중국국경집결은 통상적인 훈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스브리핑</li> <li>◦ 북한군의 중국국경집결과 평양시내</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1			<p>동화관계 실시등 은 북한군 동계훈 련의 일환이며 특 별히 이상한 움직 임은 없음.</p> <p>캐서린 버티니 세계 식량계획 사무국장, 북한식량부족 심각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교도통신 기자 회견(3. 15-18간 북 한식량실태 조사방 문)</li> <li>◦북한에서는 식량 이 고갈되고 있으 며, 북한당국은 파 르면 이달초 식량 이 바닥것이라 고 이례적으로 밝 혔지만, 6월말 식 량이 떨어질것으 로 보고 있음.</li> <li>◦이번 방북에서 식 량부족으로 극소 수의 학생들만이 출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빨간 머리카락이</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1			<p>나 영양실조로 배가 볼록해진 어린이들이 눈에 띄었으며, 1일 식량으로 지난해 2백g에서 1백g만을 배급 받고 있음.</p>
4. 2	<p>권오기 통일부총리,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한의 안정·변화를 위한 유관국들의 협력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일·중 국제심포지움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한반도 통일” 주제 연설</li> <li>◦ 새로운 세기, 동북아의 밝은 장래를 기약하기 위해서는 공고한 평화가 확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국가간의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추구해 나가는 「지역안보협력체제」의 구성이 긴요함.</li> <li>◦ 4자회담의 성공은 북한으로 하여금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지원 그리고 군사적 신뢰를 확고하게 해줄 것임. 이것이 동북아 전</li> </ul>	<p>북한종교단체, 남한의 종교단체들에 서한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종교인협의회 장재철 회장은 남조선의 민족종교협의회 회장, 종교협의회 회장,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 공동의장, 천주교 중앙협의회 의장, 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천주교 평신도사조직진국협의회 회장에게, 조선기독교도연맹중앙위원회 강영섭 위원장은 남조선의 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과 여러 교단의 인사들에게, 조선불교도연맹중앙위원회 박태호 위원장은 전국불교운동연합 상임의장, 조국평화통일추진 불교인협의회 회장, 불교종단협의회 회장에게,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류미영 위원장은 남조선의 대종교총본사총전교, 천도교 중앙총부 교령등 여러 종</li> </ul>	<p>피델 라모스 필리핀 대통령, 황장엽비서 체류기간 연장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라카낭궁 주례기 자회견</li> <li>◦ 필리핀정부가 두 우호국인 중국과 한국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외무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달 18일 이후 필리핀에 머물고 있는 황비서의 체류기간을 연장기로 허용했음.</li> <li>◦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한 국민들간의 화해에 기여하고 역내 평화</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2	<p>체의 안정과 번영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믿음에서 4자의 일원인 중국, 동북아의 동반자인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의 문제일 뿐 아니라 동북아의 장래와 연관된 문제임. 이런점에서 한반도 평화정착, 그리고 북한의 안정과 변화를 위한 유관국들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의 보조를 요청함.</li> </ul> <p>대한적십자사, 대북지원 활동 보고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레스센터 외신기자 클럽</li> </ul>	<p>교 단체들에 각각 서한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 4공동성명 발표 25돌이 되는 올해에 북과남, 해외정당 단체대표들의 연대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의함.</li> </ul>	<p>와 안보를 위한 우리의 역할을 다 하려는 취지이며, 시안의 민감성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 이상 이에 대해 말할수 없음.</p> <p>미 전략문제연구소(CSIS) 북한의 극적 붕괴 조짐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시아 위치” 자료</li> <li>○ 북한의 장래는 여전히 불확실 하며, 황장엽 망명사건, 고위지도부 대폭 개편, 식량부족 등 경제위기, 탈북자 증가 현상들은 북한이 곧 붕괴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음.</li> </ul>
4. 3		<p>중방, 남한의 외채증가 비난논평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채가 전년보다 30%증가한 1,444억 달러에 달한 것(현대경제사회연구원 발표)은 김○○</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2		<p>일당의 사대매국적이고 반민족적인 정책이 가져온 필연적 결과임.</p>	
4. 3		<p>북-에디오피아, 건설 및 관개사업 협력에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디오피아 외무부 대변인 발표</li> <li>◦ 김영남 북한 부총리겸 외교부장 과 세음 메스핀 에디오피아 외무장관 회담에서 합의</li> </ul>	
4. 4	<p>권오기 통일부총리, 북당국의 기아해결 자구노력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외신기자클럽 연설</li> <li>◦ 북한의 식량난은 아프리카의 절대적 기아와는 성격이 다르며, 군사비나 체제 선전비용의 절감을 통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는 정책의 우선목표와 연관된 문제임.</li> </ul> <p>장선섭 경수로기획단장, K-EDO실무협상단 4·8일 해로 통해 입북 예정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 9~15 신포에서 실무협상을 위해 한·미·일 당국자 및 한전관계자 등 54</li> </ul>	<p>조선중군위안부 및 태평양 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일본인 소녀 납치의혹사건은 한국공안당국의 모략선전이라고 담화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일본에서는 그 무슨 소녀 납치의혹사건이라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바, 이것은 우리나라의 대외적 영상을 흐리게하기 위하여 남조선 안전기획부가 고안해낸 반공화국 모략극임.</li> </ul>	<p>일지, 북한군 이하일 차수 구테타 음모관련 체포설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도쿄신문 블라디보스톡발 보도</li> <li>◦ 작년 봄 함흥의 제7군단 장병의 구테타 모의와 관련 이차수가 이윤실 원수가 지휘하는 정보기관에 의해 체포됨.</li> </ul> <p>북한 아시아산악연맹(UAAA)에 가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산악연맹은 지난달 28일부터 파</li> </ul>

■ 4 月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4	<p>명으로 구성된 KEDO 협상단이 8일 동해항을 출발 양화항에 도착 예정</p>		<p>키스탄 이슬라마 바드에서 열린 UAAA이사국회 의에서 북한가입 결정 사실 발표</p> <p>러 이즈베스티아지, 북 한 군사훈련 비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굶주린 국 민들의 시선을 돌 리기 위해 대대적 인 군사훈련을 실 시했음.</li> <li>◦ 방공훈련을 실시 한 까닭은 땅에 떨어진 주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 고 북한의 노선에 대한 의구심을 다 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임.</li> </ul>
4. 5			<p>일본 라디오 프레스, 황장엽 망명 관련 현 준극 당국제부장 경 질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양라디오방송 청 취</li> <li>◦ 황장엽 노동당비서</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5			<p>의 망명과 관련, 노동당 중앙위원회 현준극 국제 부장이 경질되고 김양건 부부장이 부장으로 승진했음.</p> <p>○ 시리아의 사회당 창당기념 리셉션 참석자명단에 김양건이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국제부장으로 기재됐음.</p>
4. 6	<p>강경식 경제부총리, 북한의 아시아개발은행 가입지지 언급</p> <p>• 제4차 아·태경제협력체 (APEC) 재무장관회의 참석</p> <p>○ 북한의 ADB가입을 환영하며 아무전제조건 없이 지지한다는 우리정부의 공식입장을 사토 마쓰오 ADB총재에게 전달했음.</p>	<p>부총리겸 외교부장 김영남, 인도 뉴델리에서 진행되는 비동맹 외무상회의 참가차 뉴델리도착</p> <p>조선학생위원회, 『한총련』 집회관련 비난 성명</p> <p>○ 광주지방법원이 4월4일 전남대학교에서 『한총련』 대의원 대회가 열리게된 것과 관련하여 『한총련』 임시의장 및 『남총련』 임시의장과 총학생회 사무실들에 대한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음.</p>	
4. 7		<p>북·카자흐스탄과 민사 및 형사사건에 관한 상호방조조약 체결</p>	
4. 8	<p>북한행 KEDO실무단 동해항</p>	<p>조국통일연구원, 남한노동 백서 발표</p>	<p>니컬러스 번스 미국</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8	<p><b>출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선섭 경수로 기획단장 환송사</li> <li>○ 이번 실무진의 방북은 항공로를 통해 그동안 7차례에 걸쳐 있었던 조사와는 달리 고위 실무진들이 해로를 이용 비자없이 처음으로 북한에 간다는 큰 의미가 있음.</li> <li>○ 이번 방북에서 실무진은 경수로 착공을 전제로한 통신 우편의 연결문제를 비롯해 북한 인력과 물자 사용조건, 입·출국과 해·공로 이용절차, 금융서비스, 비상시 대책 등을 협의하며 전기·용수 등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게 됨.</li> <li>○ 동해항을 출항한 한나라호는 공해상으로 빠져나갔다가 9일 오전 6시 북한군사수역을 통과해 갈으날 오후 1시 북한 도선구역에 도착, 북한의 안내를 받아 신포에서 12km 정도 떨어진 양화항에 입항할 계획이며 북한측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노동백서</li> <li>○ 조국통일연구원은 괴뢰도당의 반인민적인 노동운동에 대한 야수적 탄압행위를 만천하에 고발하기 위해 이 노동백서를 발표함.</li> <li>• 가장 반인민적인 노동정책</li> <li>• 최악의 노동생활 처지</li> <li>• 노동운동에 대한 야수적 탄압</li> </ul> <p>중방, 『한총련』 조직결성과 투쟁방향 선동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한총련』 제5기 정기대의원 대회가 열려, 집행부를 새로 구성하고 조직의 활동방향과 투쟁 목표를 명백히 밝히고, 19일에는 남조선 전지역에서 연합집회를 가지기로 했음.</li> </ul>	<p>무부 대변인, 미·북간 제2차 미사일협상 개최계획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례브리핑</li> <li>○ 북한이 미국과 제2차 미사일 협상을 곧 가질 용의가 있음을 통보해옴에 따라 양측간에 미사일협상의 개최 시기와 장소 등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임.</li> </ul> <p>아에르파시 소투루IPU 집행위원장, 대만 핵폐기물 북한반입 반대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수한 국회의장, 피에르 콘리언 IPUSA사무총장 공동 기자회견</li> </ul> <p>한스 올센 유엔아동기금(UNICEF)대변인, 북한당국 어린이 1백34명 영양실조로 사망 인정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보건부는 8</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8	<p>도선지점까지 태극기를 달고 가며, 이후부터는 아무런 깃발도 게양하지 않기로 양측이 합의했음.</p> <p>대한탁구협회, 남·북한 통일복식조 구성 무산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맨체스터 제44회세계 탁구 선수권대회</li> <li>◦ 세계탁구연맹(ITTF)이 지난 2일 공개한 여자복식 예비엔트리에 북한선수가 포함돼 있지 않아 남·북한 복식조 편성 시도는 불가능하게 됐음.</li> </ul> <p>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사무총장 (최성철 한양대학교수) 등 한국 비정부기구 대표단, 북한 인권실태 조사 특별보고관 임명을 유엔에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로슬라 소몰 유엔 인권 위원회의장, 모트네르 마르호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직무대리 집견</li> <li>◦ 북한의 인권실태를 유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조사해 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특별보고관을 조</li> </ul>		<p>인 평양주재 유엔 기관들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영양 실조에 의한 어린이 사망사실을 공개했으나, 숨진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며, 북한의 전체어린이 7명중 거의 1명꼴인 15.3%가 영양 실조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음.</p> <p>북한, 미 카길사와 미국산 밀 3만톤 반입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길사는 지난 1월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 북한 정부 및 무역회사 관계자들과 협상을 벌인 결과 지난 5일 중국 북경에서 이같이 합의</li> </ul> <p>EU 의장국 네덜란드 대표, 제53차 유엔인권위서 북한인권문제 개선 촉구</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8	<p>속히 임명해 줄 것을 공식 요청 했음.</p>		<p>○ 제네바에서 개최중인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97. 3. 10~4. 18)는 4. 8 국별 인권상황 토의를 개시한 바, 네덜란드대표는 EU의장국 자격으로 주요 인권침해국을 언급하는 가운데 북한 인권상황을 지적하였음.</p>
4. 9		<p>김정일 국방위원장 취임 4돌 중앙보고대회 개최</p> <p>•참 석 : 이종욱, 박성철, 김병식, 계용태, 최태복, 양형섭, 홍성남, 김국태, 김기남, 김중린, 김용순, 조명록, 김영춘, 백학림, 장 철, 류미영 등</p> <p>중·평방, 혁명송가 「김정일의 노래」 새로 제정 보도</p>	<p>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 대만핵폐기물 북한반출계획 철회촉구 한국국회 결의문 회원국들에 배포</p> <p>•오스트리아 주재 한국대사관</p>
4. 10	<p>김영삼 대통령, 북한에 4자회담 수용 촉구</p> <p>•제97차 국제의원연맹 (IPU) 총회 개최식 연설</p> <p>○ 한국은 한반도 평화와 남</p>	<p>중·평방, KEDO 고위급 전문가 협상 대표단, 북한 신포시 양화항 도착 보도</p> <p>○ 경수로 대상 건설부지에서 진행되는 이번 협상에서는 우리나라와 조선반도에너지기 개발기구 사이</p>	<p>일본경제신문, 북한 베트남간 쌀수입문제 협의 보도</p> <p>•하노이발 베트남 정부 소식통 인용</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10	<p>북협력을 위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과 경수로사업 지원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공존공영을 위해 북한은 성실한 자세로 4자회담에 호응해 줄 것을 촉구함.</p> <p>군사분계선 침입 북한군 경고사격으로 격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부 배경설명</li> <li>◦ 10일 오전 9시 30분경 강원도 철원읍 원정리 북방 비무장지역의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북한군 5~6명이 활동중인 것을 아군이 발견, 우리측의 경고방송과 쌍방간의 대공경고사격이 있은후 철수하였음.</li> </ul> <p>대만핵폐기물 북한반입 반대 결의문안 IPU서울총회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97차 국제의회연맹 서울총회가 세종문화회관에서 개막식을 갖고 6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음.</li> <li>◦ 각국 대표단은 15일까지 제1위원회(정치, 국제안보)</li> </ul>	<p>에 이미 체결된 경수로 제공 협정과 의정서들의 이행을 위한 세부절차문제들과 경수로 대상 건설착공과 관련 기술 실무적 문제들을 토의하게 됨.</p> <p>북한-UNDP간 협조계획에 따른 축전지 생산시설 완공 조업식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 : 김정우, 배달준, 주북 UN DP대표</li> </ul> <p>「직총」, 「청년동맹」, 「농근맹」 등 10개 사회단체 명의 「남조선인민들에 보내는 호소문」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각계각층 인민들은 김○○문민패당의 죄악을 결산하고 그와 단호히 결별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쌀 확보를 위해 베트남에 무기를 수출하는 대신 쌀을 수입하는 구상무역을 추진 중임.</li> </ul> <p>비동맹 외무장관회의, 한반도문제 평화적 해결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 뉴델리, 박수길 주유엔대사 참석</li> <li>◦ 비동맹 외무장관회의는 최종문서에서 한반도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고, 북한핵문제가 당사국간의 대화와 협상 및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해결돼야 함.</li> </ul> <p>EU, 대북 식량자금 57만달러 지원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자금은 영국적십자사를 통해 기아에 허덕이는 13만 9천명의 북한</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10	<p>와 제4위원회 (교육, 과학, 문화)에서 국제정치, 군사안보, 환경, 여성문제를 주제로 토론을 벌이며, 우리측은 대만핵폐기물의 북한 반입을 반대하는 결의문안을 제4위원회에 제출했음.</p>		<p>주민들에게 쌀을 보내는데 쓰여지게 될 것임.</p> <p>일본 신케이신문, 북한 노동1호 미사일 10기 동해안 배치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년 가을 중장거리 미사일 로동1호를 동해안에 배치하는 작업을 중단했으나, 최근 3기를 다시 배치해 언제든지 발사실험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음.</li> <li>○ 미국 정찰위성이 북한군 동향을 감시한 결과 북한의 미사일 재배치가 밝혀졌음.</li> </ul>
4. 11		<p>외교부 대변인, 동남아 비핵지대화 창설에 관한 조약 발효 관련 중립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동조약의 발효를 환영하며, 핵보유국들은 이 조약의 제반원칙들을 받아들이고 안전담보제공을 공약해야함.</li> </ul>	<p>방북 비상원의원단 (테드 스티븐슨일행), 대북지원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회견 (위싱턴)</li> <li>○ 북한은 현재 체제 붕괴위기를 맞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11		<p>중방, 남측군인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무장도발했다고 비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괴뢰들은 10일 강원도 철원군 혜산리 앞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엄중한 무장도발 행위를 감행했음.</li> </ul>	<p>정도로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으며, 미국은 대북경제제재를 완화, 북한이 국제사회와 상업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p> <p>미 합참의장, 북한 군사력 관련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식량 및 전력난에도 불구하고 동계훈련을 완료하고 공군이 지난 2-3년간 보다 많은 비행을 한 점으로 보아, 식량·전력위기가 북한군사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임.</li> </ul>
4. 12		<p>외교부 대변인, 4자회담 개최와 식량지원은 별개 문제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주의적인 식량지원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문제를 논의하는 4자회담은 별개이며, 우리의 당면한 식량형편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쌀문제 때문에 4자회담</li> </ul>	<p>중국 신화통신, 북한에 식량 7만톤 무상원조 평양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영상 북한주재 중국대사가 북한부총리 겸 외교부장 김영남에게 풍보</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12		<p>을 하고 안하는 결과값 내리게 되리라고 기대한다면 커다란 오산임.</p> <p>○ 우리의 식량난은 자연재해와 적대세력들의 경제제재와 봉쇄로 관련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극도의 원한을 품고 있음.</p>	<p>○ 중국정부는 양국간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더 공고 발전시키는 한편 북한의 현실정을 고려해 수일내로 다시 북한에 7만톤의 식량을 무상 원조키로 결정했음.</p>
4. 13	<p>유증하 외무장관, 북한개혁지원용의 언급</p> <p>• 제97차 국제의회연맹 서울총회 연설</p> <p>○ 북한이 살아남기 위해 경제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한국은 이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제공할 용의가 있으며, 만일 북한이 현재처럼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계속한다면 파탄을 면할 수 없을것임.</p> <p>○ 한국은 4자회담의 테두리 안에서 한반도의 신뢰구축과 긴장완화조치의 일환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문제를 토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바 있음</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13	<p>며,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에는 북한주민을 먹일 식량과 농업생산성 향상 계획도 포함될 것임.</p>		
4. 14	<p>권오기 통일부총리, 민간부문의 대북지원은 청구단일화로 지원 당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경제인연합회 남북경협 위원회 초청강연</li> <li>• 지난달 31일 민간지원의 품목과 참여범위를 확대한것은 민간차원 지원활성화와 북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취지이므로 민간차원 지원은 적십자 창구를 통한 일관성 유지로 필요한 곳에 전달 가능토록 하고, 개별기업의 독자적 움직임은 과열경쟁을 초래 본래 취지가 퇴색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제단체를 통해 질서있게 이뤄져야 함.</li> </ul>	<p>「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 0088호」,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에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하여” 공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일성 생일 85돐과 조선인민군 창건 65돐에 즈음하여 군사칭호를 올릴 것을 명령함. 〈차수: 김일철·전재선·박기서·이종산, 대장: 정창렬, 상장: 김용운 등 8명, 중장: 최상여 등 37명, 소장: 김성락 등 73명〉</li> </ul> <p>김일철(해군사령관),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에 임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정일의 인민군 제6기 대연합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시 참석자명단 확인</li> </ul> <p>러·북한 과학기술협조 상설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의정서를 모스크바에서 10일 조인</p>	<p>니컬러스 번스 미국무부 대변인, 북한과 미사일회담 재개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과 북한은 지난해 4월 베를린에서 한차례 개최한 미사일회담을 내달 12-13일간 뉴욕에서 재개하기로 합의했음.</li> </ul> <p>IPU 서울총회, 대만해북한이전 반대결의안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97차 국제의회연맹 서울총회 〈한국대표단이 제안한 결의안〉</li> <li>◦ 대만의 경우와 같이 방사능 폐기물의 개도국 이전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14			<p>각국 정부에 촉구함.</p>
4. 15	<p>유종하 외무장관,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총리와 대북정책 공조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시모토 총리 예방</li> <li>○ 16일 뉴욕에서 열리는 남·북한, 미국간의 4자회담 설명회 후속협의회가 상반기중 예비회담 및 본 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과 향후 대북 식량지원 등에서 일본측과 계속적인 협의필요성을 강조함.</li> <li>○ 하시모토 총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4자회담과 남북대화 진전 등 한반도 정세를 고려하면서 신중히 대처해 나갈것이라고 언급하고, 핵폐기물의 북한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측의 우려를 이해하며 일본 정부도 가능한 협조를 계속하겠다고 하였음.</li> </ul>	<p>김정일, 동부전선 1211고지(비무장지대)주둔 군부대 시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명록, 김영춘, 전재선, 현철해, 김하규, 박재경 동행</li> </ul> <p>KEDO-북한간 고위급전문가협상 경수로 대상부지에서 개최(4. 10~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EDO대표단 15일 배편으로 떠났다고 설명</li> </ul> <p>김정일, 4. 15즈음 『총련』에 1억 2천만엔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전달</p> <p>원산-금강산 철길공사 완공, “금강산 청년선 철길개통 모임” 개최(원산역)</p>	<p>니컬러스 번스 미국 무부 대변인, 북한군 감축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혜브리핑</li> <li>○ 북한은 세계 최대규모의 군병력을 보유한 세력중의 하나로 많은 군대를 보유할 이유가 없으며, 자원을 군사적 목적보다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배분해야하며, 한반도에서 병력규모를 줄일수록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쉬워질 것임.</li> </ul> <p>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지원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해군사관학교 방문연설</li> <li>○ 우리는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억지정책을 확고히</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15			<p>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에 협력의 수혜를 분명히 제공해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미국은 미·북 기본합의에 따라 북한의 핵동결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서 장·단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도모해 나갈것임.</p> <p>이고르 로디오노프 러 국방장관, 한반도 전쟁발발시 개입개연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군사과학원 방 문연설</li> <li>○ 러시아는 아·태 지역의 세력균형의 변경을 시도하지 않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중국과 미국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을것이며, 전면전이 발생한다면 러시아는</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15			<p>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임.</p>
4. 16	<p>한·미·북, 3자 설명회 후속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석자 : 한국측 송영식 외무부1차관보, 북한측 김계관외교부부부장, 미국측 찰스 카트만 미국무부 동·아태담당부차관보</li> </ul> <p>〈언론 발표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과 미측대표단은 이날 후속회의에서 진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그 결과 고무적인 진전을 보게 됐으며, 오늘회의를 기초로 오는 18일 후속회의를 계속하기로 했음.</li> </ul> <p>KEDO 고위급협상단 귀환</p> <p>〈최영진 KEDO사무차장, 사업성과 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두 14개 항목의 협의안을 가지고 북한측과 협상한 결과 상당부분에서 진척이 있었음.</li> <li>◦ 양측은 일체의 정치문제 개입없이 실무적인 문제만 논</li> </ul>		<p>아케다 유키히코 일본 외상, 실종자 유괴해명 대북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회 위원회</li> <li>◦ 북한이 70년대말 80년대초 일본인들을 유괴했다는 주장에 대해 만약 북한이 협의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일본과의 관계를 용이하게 하기위해서 분명하고 성실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좋을 것임.</li> </ul> <p>북한, 미에 국교수립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li> <li>◦ 북한은 뉴욕에서 열린 한·미 준고위급 회담에서 4자회담 수용을 위해 식량지원과 함께 미국에 국교수립을 정식 요청하였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16	<p>의했으며, KEDO사무국에서 발행하는 여행증명서만 있으면 경수로건설과 관련해 북한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누구나 비자없이 공·해로를 통해 입국이 허용되도록 합의했음.</p>		<p>○ 미국은 이에 대해 국교수립문제는 4차회담이 아닌 양국간 문제로서 검토돼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음.</p>
4. 17	<p>박인국 경수로기획단 국제협력부장, 경수로 착공식 이전 남북직통전화개통 합의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북결과 설명 기자간담회</li> <li>○ 남북직통전화·우편교환 문제에 대해 북한측과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원칙적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졌음.</li> </ul>	<p>중방, 동해상의 한·미합동해군훈련을 북침전쟁연습이라고 비난논평</p>	<p>찰스 카트만 미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 미·북간 연락사무소 설치 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상원 세출위원회 외교활동소위 청문회 증언</li> <li>○ 워싱턴·평양연락사무소 개설은 서로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될 것이며, 평양에 미연락사무소가 상주할 경우 영사보호와 지원이 가능해지며 북한의 상황파악에 도움이 될 것임.</li> </ul>
4. 18	<p>강영훈 한적총재, 북측에 식량 지원 및 물품제공 절차 합의위한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제의</p>	<p>중방, 미국의 대북 5만톤 식량지원 결정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정부가 세계식량계획의 호소</li> </ul>	<p>윌리엄 코언 미국방장관, 북한 생화학무기 사용가능성 언급</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전화통지문</li> <li>◦ 최근 여러 국제기관 단체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귀측의 어려운 식량사정을 접하면서, 나는 같은 민족으로서 깊은 우려를 표하며, 대한적십자사는 그동안 인도주의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귀측의 식량난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는 일에 국제적십자연맹과 협력하여 왔음.</li> <li>◦ 이에 나는 귀측에 대한 구호식량 및 물품제공에 따른 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간 대표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함.</li> <li>◦ 대표접촉은 쌍방 적십자 사무총장(서기장)급을 수석대표로하여 각기 3명씩의 대표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판문점에서 갖기를 바라며 귀측의 호응을 기대함.</li> </ul>	<p>에 호응해서 15일 우리나라에 약 1,500만달러에 해당되는 5만톤의 식량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BC 방송 출연</li> <li>◦ 최근 한국방문 기간중 존틸렐리 주한미군사령관으로부터 북한의 생화학무기 사용을 우려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음.</li> <li>◦ 앞으로 수년내에 미국내 1백 20개 도시가 화학무기 공격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며, 이제 개인이나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도 자행될 수 있는 생화학무기 공격에 적극 대비해야 함.</li> </ul>
4. 19		<p>북한적십자회 위원장대리 이성호, 강영훈 한적총재의 남북적십자대표 접촉 제외관련 수정제의</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19		<p>• 대남전화통지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남적십자 단체들사이에는 오래전부터 호상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좋은 선례를 가지고 있으며 귀측에서 민간급의 지원을 원할히 하기위해 적십자 대표접촉을 가지자고 한 것은 이러한 선례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간주함.</li> <li>○ 나는 이 같은 입장에서 북남적십자사 단체들사이에 접촉을 가지되 쌍방은 각기 서기장급을 단장으로 하여 3명씩으로 하고, 장소는 서로 부담없이 만날 수 있는 중국 베이징으로 하며, 시일은 5월 3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함.</li> </ul> <p>중방, 12. 12 쿠테타와 5. 18 광주사태 및 비자금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은 기만극에 불과하다고 비난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법원의 공판내용은 12. 12사태와 광주사태가 공정히 처리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것임.</li> </ul> <p>『직총』 중앙위위원장 주성일, 남한 정권타도투쟁선동 담화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노동악법에 의하여 남조선 노동자들은 노동3권을 완전히 박탈당하고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19		도모또 아끼꼬 일본신당 사끼가께 당수, 큰물피해상황 조사차 방북	
4. 20	<p>외무부 대변인,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비서 한국도착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황비서가 지난 12일 북경에서 망명을 신청한 이래 67일만인 오늘 무사히 서울에 도착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함.</li> <li>○ 정부는 황비서의 망명문제를 국제법과 국제관계에 따라 처리한 중국정부의 조치를 높이 평가하며, 황비서의 체류를 허용하고 편의를 제공해준 필리핀정부 및 국민의 우의와 협조에 심심한 사의를 표명함.</li> </ul> <p>〈황장엽 도착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조선은 사회주의와 헌대판 봉건주의, 군국주의가 뒤섞인 기형적 체제로 변질되었으며, 경제는 전반적으로 마비상태에 들어있음.</li> <li>○ 북조선 당국이 인민들을 굶어죽는 상태에 두고서</li> </ul>		<p>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총리, 황장엽 망명불구 한반도정세 불변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시사통신 기자 회견</li> <li>○ 아직까지 북한이 조용한 것으로 보이며,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고, 한국도 이번 사건을 선전에 활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황씨의 망명이 한반도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20	<p>도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전쟁준비에 몰두하고 있는 의도는 수십년동안 전력을 다하여 키운 막강한 무력을 사용하는 길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북조선당국이 남조선 혁명노선을 버리고 헐벗고 굶주리는 주민들을 기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 줄 것을 진심으로 호소함.</li> </ul>		
4. 21	<p>4자회담 관련 3자 설명회 후속회의 종료(4.16-21, 뉴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단 관계자 브리핑</li> <li>◦ 3국은 이날 실무접촉을 갖고 뉴욕 3자후속회의를 마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3국은 앞으로 필요한 경우 외교채널을 통해 실무접촉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음.</li> <li>◦ 우리측은 북한이 4자회담을 수락하도록 최선을 다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데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나, 이 회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li> </ul>		<p>마이클 매커리 미 백악관 대변인, 4자회담제의 계속 유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례브리핑</li> <li>◦ 한반도의 장래와 북한내부의 환경 등에 관한 우려들을 고려할때 한반도 4자회담은 매우 유용한 회담이며, 우리는 뉴욕 3자 후속회의의 결과에 상관없이 4자회담 개최를 지속시켜 나갈 것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21	4자회담을 위한 협상과정의 일부였음.		<p>미 디펜스뉴스지,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배치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위산업 전문잡지</li> <li>◦ 우리가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북한은 이동식 전술탄도미사일을 이미 실전배치 했거나 계획중이며, 자체개발한 사정거리 1천키로의 노동1호와 스킨드미사일 수십기를 이동식 차량에 탑재, 한국과의 접경 및 동해안일대에 배치능력을 갖고 있음.</li> </ul>
4. 22	<p>권오기 통일부총리, 북한내 분배투명성 보장전제 직접 지원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통일외무위 보고</li> <li>◦ 적십자회담이 성사될 경우 북한내 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남북간 직접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처할 방침이</li> </ul>	<p>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공동설명회 후속협의 개최 위한 지속적인 접촉용의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4자회담을 하자는 입장이며, 그에 앞서 우리와 미국, 남조선측이 참가하는 3자협상을 더 한 다음 4자회담에 들어갈데 대하여 제기하였음.</li> <li>◦ 현재 조미사이에는 4자회담을</li> </ul>	<p>일본 마이니치 신문, 일본경찰의 북한 밀수선박서 난수표 발견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선박 지송2호가 각성제 70kg을 밀수한 것과 관련해 선장을 이미 구속한 일본 경찰은 선박을 수색한</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22	<p>며, 북한이 엄청난 돈을 들여 김일성 생일 잔치를 하고 연간 60억달러라는 막대한 군사비를 사용하고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함.</p> <p>유종하 외무장관, 북한식량지원과 4자회담 개최는 별개문제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통일외무위 업무보고</li> <li>◦ 북한은 4자회담 참여의 조건으로 사실상 식량지원을 연계시키고 있으며, 이는 4자회담 수락과 회담개시를 분리하면서 식량지원을 획득하려는 전술로 분석됨.</li> <li>◦ 대규모 식량이 4자회담전에 제공될 경우 북측이 실제로 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실질문제 협의에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한·미양국은 4자회담을 수락하는 대가로 사전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은 절대 수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갈 것임.</li> </ul>	<p>위한 신뢰가 조성되지 못하고 또한 4자회담에 참가하는 우리의 지위도 평등하지 못한 것이 문제임.</p> <p>『한민전』대변인, 황장엽 망명관련 비난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일당은 20일 반역자 황장엽을 서울에 끌어들여 도착성명을 외위대는 정치광대극을 연출하였음.</li> <li>◦ 한민전은 전국민이 각성하여 우환당이 황역적을 이땅에서 추방하기 위한 투쟁에 결연히 분기하며 이 반역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김○○일당을 타도하기 위한 전민중적 투쟁에 과감히 떨쳐 일어날 것을 호소함.</li> </ul>	<p>결과 난수표를 압수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5일 남포항을 출항한 지송 2호는 9일 미야자키 호소시마 항에 목재를 하역하면서 끌봉 12개에 각성제를 넣어 화주인 조총련 교포 2명에게 넘기려다 경찰에 적발됐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24	<p>강영훈 한적총재, 남북적십자 요원 판문점 접촉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전화통지문</li> <li>○ 나는 지난 14일 우리측이 남북적십자간 대표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한데 대해, 귀측이 호응해온 것을 환영함.</li> <li>○ 귀측이 쌍방 적십자 사무총장급을 수석대표로하여 각기 3명씩의 대표가 5월 3일 중국 북경에서 만나기를 희망해온 데 대하여 나는 남북적십자인들이 모처럼 만나는 장소를 굳이 남의 나라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함.</li> <li>○ 그러나 나는 남북적십자간 대표접촉이 원만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만나는 장소문제를 포함하여 회의진행에 관한 실무문제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li> <li>○ 이러한 견지에서 나는 쌍방 각기 3명씩의 적십자 실무요원이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이</li> </ul>	<p>조선인민군 창건기념 집회, 육·해·공군 부대별 각각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자들은 김정일의 영도하에 주체의 혁명위업과 조국통일을 달성하기위해 붉은기를 높이 들고 계속 전진하는 전투의욕에 대해 강조하였음.</li> </ul> <p>『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4. 23-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차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 결의문 채택</li> <li>○ 우리는 남쪽에서 미군과 핵무기 철수를 기본목표로, 한미행정협정개정운동, 미군기지반환운동, 미군기지 임대료 징수요구운동과 일제식민지통치 피해보상운동 등 반외세 자주화투쟁을 전개할 것임.</li> </ul> <p>김정일, 제969군부대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 석 : 이을설,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전재선, 박기서, 현철해, 김하규, 박재경,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이용철, 장성택</li> <li>○ 이 부대는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다섯차례에 걸치는 현지 지도를 받는 영광을 지닌 자랑 높은 부대임.</li> </ul>	<p>미공화당 하원의원들, 미·러의 북한 등의 미사일 개발에 공동대처 협력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연구 개발담당 국가안보 소위원회 기자회견</li> <li>○ 냉전시대 종식 이후 제3세계 국가들로 부터의 전략무기 개발위협이 점점增高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은 현재 노동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으며, 중국도 장거리 대륙간탄도탄 개발을 추진중이며 제3세계 국가들의 위협에 미·러시아 양국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함.</li> </ul> <p>이스라엘 하레츠 신문, 북한의 이란미사일 제조지원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스라엘 관리인용</li> <li>○ 북한은 이란의 지대지 미사일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24	<p>나 귀족지역 「통일각」에서 4월 29일 오전 10시에 만날 것을 희망함.</p>	<p>CNN TV 취재단 (이슨 조르단), 인민군 창건 65돌 행사 취재차 평양 도착</p> <p>외교부 대변인, 한국의 러시아제 무기도입관련 비난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당국자들이 남조선땅을 세계무기시장 쟁탈장으로 만들면서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것은 새 전쟁준비를 하려는 목적이 있음.</li> </ul>	<p>최근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공급했으며 그 사거리는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임.</p>
4. 25		<p>조선인민군 창건 65돌 경축열병식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참모장 김영춘 연설</li> <li>◦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수령경사 용위정신,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을 안고 혁명의 제1선에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할 것임.</li> </ul> <p>중통, 한·미의 인도주의적 지원의 정치무기화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즘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식량지원 문제를 가지고 군사행동 중지, 군축 등의 소리를 내고 있음.</li> <li>◦ 이러한 언동은 국제적 규범에 따른 인도주의적 지원에 제동을 걸고, 식량문제를 정치무기화하여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우리</li> </ul>	<p>미·일 양국정상, 북한의 4자회담 호응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일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li> <li>◦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두나라의 이익에 부합되며, 북한에도 이익이 되는 만큼 북한이 가능한 속히 4자회담에 응하기를 기대함.</li> <li>◦ 북한이 4자회담에 응할 경우 긴급 식량지원 뿐만아니라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해 협력할 것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25		<p>사회주의체제를 엿보려는 자들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려는 저열한 속심을 드러낸 것임.</p> <p>조선 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용순, 미국 CNN TV취재단(집행부 총사장, 이스 조르단)집견</p> <p>•동취재단 26일 귀국</p>	<p>등소평, 생존시 북한의 개혁·개방 촉구</p> <p>•중국 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 임혜문 저서 「중국지도부의 권력교체내막」</p> <p>◦ 등소평은 92년 5월 30일 김일성을 대신해 중국을 방문한 강성산 총리에게 “북한이 조속히 개혁·개방을 하지 않을 경우 7·8년내에 남한에 흡수·통일 될것”이라고 하면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강력히 권고했음.</p>
4. 26			<p>윌리엄 코언 미국방장관, 북한의 군사훈련과 식량난호소 병행은 부당하다고 지적</p> <p>◦ 북한이 비용이 많이드는 군사훈련을 계속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그들 주민을 먹여 살리</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26			<p>라고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며, 우리는 북한이 4자회담 협상태이름으로 돌아와 북한의 식량난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게 되길 바랍.</p>
4. 27	<p>국방부, 북한주민 장영관(38세)귀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민간인 남자 1명이 '97. 4. 27, 04:00경 강원도 고성군 동부전선 아군초소를 통해 귀순했음.</li> <li>◦ 귀순자 장영관은 당시 철책근무중이던 경계병에 의해 안전하게 아군지역으로 유도되었으며, 국방색 상의, 검정색 하의에 황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음.</li> <li>◦ 군당국은 현재 장씨의 자세한 귀순동기와 경위를 조사중임.</li> </ul>	<p>노동신문, 한·일간 안보협력관련 접촉비난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얼마전 일본수상은 통일원 장관과 만나 조선반도정책에서의 한·일간 협력과 신뢰관계 구축을 역설하는가하면, 일본방위청장관은 남조선을 행각하여 군사적 걸탁관계를 강화하려하고 있음.</li> </ul>	<p>일본 마이니찌 신문, UN북한대표부 공사한성렬, 군부서 4자회담 반대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이 미·중과 수교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미국과 국교관계가 없는 불평등한 상황에서는 회담을 수용할 수 없으며, 미국과 양자협의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군부로부터 제기됐음.</li> </ul>
4. 28		<p>외교부 대변인, 일본인 납치 의혹사건 관련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인 소녀 납치 의혹사건은 남조</li> </ul>	<p>니컬러스 번스 미국무부 대변인, 미·중, 4자회담 개최협력 합의</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28		<p>선으로부터 일본공안당국에 전달된 비공식적인 통보에 의한 것이며 그 내용은 이튿날도 정체를 알수 없는, 우리의 이른바 망명공작원이 언젠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몇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일본에서 중학생 소녀를 납치하였다는 말을 얻어들은 적이 있다고 하는 증언에 근거하여, 그 소녀가 20년전 일본 니가다에서 행방불명된 소녀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임.</p> <p>○ 사건의 내역은 사리에 맞지않는荒唐한 억척과 가정으로 일관되어 있으며, 남조선 안기부에 의하여 발단되었다는 것만 보더라도 그 성격과 전모를 짐작할 수 있음.</p> <p>북한적십자회 위원장 대리 이성호 남북적십자 대표 접촉관련 수정제의</p> <p>• 대남전화통문</p> <p>○ 우리는 서로 전화통지문을 통해 쌍방 사이에 접촉의제와 형식, 대표단 구성 등 기본문제에서 합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봄.</p> <p>○ 다만 장소문제에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으나 이것도 진실로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한다면 구태여 문제를 복잡하게 중간협의를 하지 않아도 될것이</p>	<p>언급</p> <p>• 양국외무회담 결과 기자회견</p> <p>○ 양국 외무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두나라 모두에게 중요한 핵심사안이므로 미·중 두나라와 한국간에 자세한 협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음.</p> <p>니컬러스 번스 미국무부 대변인, 북한에 군사비 민간전용 촉구</p> <p>• 정례 브리핑</p> <p>○ 우리는 지난주말 북한이 대규모 군사퍼레이드를 벌이는 것을 TV를 통해 시청한 바, 북한은 세계 최대 규모의 정규군을 위해 지출하고 있는 비용의 일부를 굶주리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사용</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28		<p>라고 생각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이징으로 말하면 지난 시기 북과 남이 접촉하여 좋은 결실을 가져온 전례도 있고 현시기 쌍방이 만나는데도 부담없이 마주 앉을수 있는 장소이므로 거기서 만나 합의하면 시간이 걸릴 것도 없으리라고 간주함.</li> <li>○ 나는 귀측이 다른 목적이 없다면 직십자 실무대표 접촉장소를 베이징으로 할 데 대한 우리측의 제의를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서 오늘 5월 3일 베이징에서 만나는데 동의하리라는 기대를 표시함.</li> </ul>	<p>해야 할 것임.</p>
4. 29	<p>정종욱 주중대사, 중국의 탈북자정책 불변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무부기자간담회</li> <li>○ 황장엽망명사건이 해결됐다고 해서 중국이 고수해온 북한이탈주민의 망명처리에 관한 입장이나 정책이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황씨사건은 특수한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건이었음.</li> <li>○ 중국과 북한은 범법자의</li> </ul>	<p>『문예총』 위원장 백인준, 남한의 문학예술인들에게 대중투쟁가담 선동 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의 문학예술인들은 한편의 글, 한편의 노래까지도 인민들을 대중적 항쟁으로 고무 추동하는 정의와 애국의 노래를 불러야 함.</li> </ul> <p>UN 아태경제이사회에 나진·선봉 경제특구 투자지원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태경제사회이사회 제53차 총회 북한수석대표(태국주재대사 이삼로) 기조연설</li> </ul>	<p>장정연 주한중국대사, 대만핵폐기물의 북한이전 불가 입장 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세기시민연합 (이사장 서석재 신한국당 의원)주최 조찬토론회</li> <li>○ 6월에 수송될 예정이었던 대만핵폐기물의 북한반입에 애로가 발생,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29	<p>인도에 관한 협약을 맺고 있지만, 정부는 인도적 측면의 고려를 요구하고 있고 중국도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음.</p> <p>○ 북한이나 중국은 사건처리와 관련 반대급부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다만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및 국제관계에 따른 원칙을 견지했고 우리도 이에 대해 교감을 갖고 있었음.</p>		<p>는 못할 것임.</p> <p>○ 중국은 대만이 핵 폐기물 이전문제를 이용해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훼손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반입에 반대함.</p> <p>니컬러스 번스 미국 무부 대변인, 중국의 대북 곡물원조 언급</p> <p>• 정페브리핑</p> <p>○ 전기침 중국외교부장이 울브라이트 미국무장관에게 최근 북한에 상당한 양의 옥수수를 무상원조로 제공한 사실을 밝혔으며, 미·중양국은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는데 견해를 같이했음.</p> <p>○ 미국은 중국의 이 같은 대북원조를 환영하며 다른국가</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29			<p>들도 이러한 인도적 원조에 동참할 의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브라이트 장관과 전부장은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 4자 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음.</li> </ul>
4. 30	<p>강영훈 한적총재,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북경개최 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전화통지문</li> <li>○ 나는 북경 현지에서 만날 장소와 시간을 판문점 적십자 상설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를 통해 협의하면 될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귀측의 의견을 조속히 알려주기 바람.</li> <li>○ 나는 최근 남북적십자간에 모처럼 오가고 있는 의사소통이 쌍방간의 만남으로 이어짐으로써 귀측에 대한 지원질차문제 토의가 원만히 이루어지</li> </ul>	<p>외교부 대변인, 한국의 이스라엘 군사장비도입관련 비난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당국이 미국 등 서방국가와 러시아로부터 현대적 군사장비를 대량반입하는 것도 성차지 않아 이스라엘로부터 무인항공기 등 군사장비를 도입하여 전쟁준비에 치중하고 있음.</li> </ul> <p>조선기자동맹중앙위 위원장 김철명, 한국언론계에 시위선동 참여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의 기자 언론인들은 정의의 필봉으로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야 함.</li> </ul> <p>이락빈(당중앙검사위원장), 병환으로 사망</p>	<p>독일 경제주간지 블트샤프트 보헤지, 한반도 통일비용 25년간 2,112조원 소요부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원싱턴 국제경제연구소 마커스 노랜드 연구원의 「한반도 통일비용」 논문 인용</li> <li>○ 2000년에 한반도 통일이 이뤄지는 경우, 이후 25년간 총 2조 4천억달러의 외국자본이 통일비용으로 투입되어야 할 것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30	<p>게 되기를 기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적십자간에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수 많은 접촉을 해온 바 있고 재해를 당했을 때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은 일도 있는 만큼 남북적십자인들의 접촉을 굳이 남의나라에서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는 우리측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li> <li>◦ 그러나 나는 접촉장소 문제로 더이상 시일을 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과 함께 귀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예외적 조치로 오는 5월 3일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하는 3명의 대표와 3명의 수행원으로 구성된 우리측 대표단을 중국 북경에 보내기로 하였음.</li> </ul> <p>한적, 제18차 북한 수재민 구호물자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불교 조계종 기탁분으로 옥수수 50kg들이 2만 7천6백포(1억 8천만원 상당)를 4월 30일 기</li> </ul>	<p>평방, 김정일의 판문점 방문시('96. 11.24) 안개가 끼는 신기한 자연현상이 일어났다고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문점의 신기한 안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의 경우 서독 인구 4분의 1에 불과한 동독의 1인당 국민소득이 통일전 서독의 25%에 이를 정도로 조건이 좋았으며, 때문에 동독재건을 위한 막대한 재원에 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1%이하를 기록하고 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30	<p>차편으로 중국 단둥에서 북한의 신의주로 보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까지 17차에 걸쳐 총 33억 3천여만원 상당의 구호물자를 국제적십자연맹을 통해 전달</li> </ul> <p>한·미 21세기위원회 제4차 회의 개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 정책·통일문제토론(워싱턴)</li> </ul> <p>〈유종하 외무장관 연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회의는 북한정세의 불확실성 속에 열려 더욱 의미가 크며, 한·미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화해증진을 위해 4자회담 개최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li> </ul> <p>〈토니 홀 미하원의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북한방문에서 주민들이 초근목피로 생활하는 것을 보고 식량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실감했으며, 어린이와 노약자의 기아와 영양실조는 우려할만한 상태였으며, 한국의 참여를 촉구함.</li> </ul>		

■ 4 月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30	<p>〈참석자〉</p> <p>한국측 : 이흥구, 정재문, 정몽준, 손주환 (서울신문사장), 구평희(무역협회회장), 김경원 (사회과학원장)</p> <p>미국측 : 찰스 카트만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대행, 커트 캠벨 국방부 부차관보, 샌드라 크리스토프 국가안보위원회 아·태담당관, 도널드 그레그 진주한대사</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1			<p>미, 대북쌀지원에 5개항의 조건 명시 법안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관계소위원회 「외교정책 개혁법안」</li> <li>◦ 더글라스 뷰라이터 하원 아·태 소위원회장이 발의해 통과, 미국 행정부가 5개 전제조건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대북 식량지원을 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5개 전제조건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대북한 식량지원에 한국의 반대가 없을 것</li> <li>- 지원식량이 군용으로 전용되지 않을 것</li> <li>- 북한 군량미가 식량난 해소에 사용될 것</li> <li>-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된 식량은 지정 수혜자에게만 제공될 것</li> </ul> </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1			<p>- 미국정부와 국제 농업기구는 북한 당국이 근본적인 농업개혁정책을 취하도록 촉구할 것 등</p> <p>미 CNN방송, 북한 국경초소 경비강화 보도</p> <p>◦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탈주와 식량을 구하기 위한 원경행위를 막기 위해 중국과의 국경지역에 1백50미터마다 보초를 세우는 등 국경지역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p>
5. 2		<p>『북적』 위원장 대리 이성호,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대표단 명단 통보</p> <p>• 대남전화통지문</p> <p>◦ 나는 오는 5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북남적십자 실무대표 접촉에 참가할 우리측 대표단 명단을 다음과 같이 알림.</p> <p>- 단장 : 백용호(조선적십자회 중</p>	<p>KEDO-북한간 「채무 불이행시 조치 의정서」협상 타결</p> <p>◦ '97. 3. 18~'97. 5. 2간 뉴욕에서 협상을 개최하여 실무적 문안함에 이르러, 일단</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2		<p>양위원회 서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원 : 정영춘(조선적십자회 큰 물피해 복구위원회 위원)</li> <li>- 단원 : 김성립(조선적십자회 큰 물피해 복구위원회 위원)</li> </ul>	<p>양측 실무대표간 에 가서명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EDO 측은 M. Reiss보좌관을 수석대표로 KEDO 사무국 직원과 한·미·일 3국 정부대표가 참석하였으며 북한측에서는 장창천 외교부 연구원을 단장으로 7명이 참석</li> </ul> <p>찰스 카트만 미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 북한의 근본적 식량해결 방법은 경제개혁뿐이라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 21세기위원회 제4차 연례회의 참석시</li> <li>○ 북한식량난은 1회적 지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북한의 식량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체제변화,</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2			특히 경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밖에 없음.
5. 3	<p>제1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북경)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원 대변인 발표문</li> <li>◦ 우리측은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지원물품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남북적십자간에 직접전달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절차문제에 대한 우리측의 의견을 개진하였음.</li> <li>◦ 이에 대해 북측은 지원물품을 전달받아 분배하는데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음.</li> <li>◦ 양측은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의견을 진지하게 교환하고 다시만나 토의를 갖기로하고 2일차 접촉은 5. 5(월) 10:00 갖기로 하였음.</li> </ul>	<p>외교부 대변인, 4자회담 실현위한 협의의 계속추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li> <li>◦ 지난 4월중순 뉴욕에서 있던 4자회담 제안에 대한 우리의 대담설명회 이후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은 우리가 4자회담을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되는 것처럼 그릇된 여론을 내들리고 있음.</li> <li>◦ 4자회담에 참가하게 될 각측사이의 호상관계가 평등한 형편에 있지 못하며, 더우기 공화국 북반부에는 그 어떤 외국군대도 없는데 반해 남조선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사실들은 우리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li> <li>◦ 4자회담의 기본취지에 비추어, 우리가 내놓은 「3+1」방식의 회담제안은 4자회담을 성사시켜 결실있는 것으로 되도록 하려는 입장에서 출발한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는 건설적 방도이며, 어떤 전제조건이나 4자회담을 반대하기 위한것은 아님.</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4			<p>당가선 중국 외교부 부부장, 북한 전쟁능력 상실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중 중·일 우호 의원연맹 대표단 집견</li> <li>◦ 북한은 전쟁할 기력도, 힘도 없음.</li> </ul>
5. 5	<p>제1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북경) 종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측은 첫날회의에서 우리측이 제기한 바 있는 대북지원 절차문제에 대해 우리측 의견을 북측에게 설명</li> <li>◦ 우리측은 동포애 차원에서 지원하는 물품은 남북간의 직접전달의 타당성과 전달경로 및 북한내에서의 분배지역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음.</li> <li>◦ 아울러 우리측 지원물품이 북한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는 문제와 우리측 민간단체들이 요청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제기하였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지원물품을 전달하는 것과 관련된 남북간의 연락은 적십자 남북직통 전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우리측이 제기한 절차문제에 대한 북측의 의견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음.</li> <li>○ 이에 대해 북측은 남측이 제기한 절차문제에 대해서는 이해하나 지원규모와 시기를 먼저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음.</li> <li>○ 쌍방은 상호간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시 만나 협의를 갖기로 하고, 다음접촉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라 적십자 남북직통전화를 통해 연락하기로 하였음.</li> </ul>		
5. 6	<p>유종하 외무장관, 북한의 화학무기 5천톤 보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통일외무위 출석</li> <li>○ 귀순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은 아오지</li> </ul>	<p>『북적』중앙위 대변인, 지원조건 구체적 제시하면 적십자회담 재개용의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5월 3일과 5일 두차례에 걸쳐 중국 북경에서는 민간급의</li> </ul>	<p>존 딩어 미국무부 대변인, 미-북간 미사일회담 연기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는 5. 12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이</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6	<p>등 8개 공장에서 화학무기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약 5천톤의 화학무기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약 5천톤의 화학무기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총회 등 각종 국제회의에서 북한의 화학무기 금지협약(CWC) 가입을 촉구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 화학전 방호태세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등 북한의 화학무기 위협에 대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강구하겠음.</li> </ul>	<p>식량과 물품제공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북남적십자 실무대표들의 접촉이 진행되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러나 남측의 상식에 어긋나고 이해할 수 없는 태도로하여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으며, 남측은 우리에게 주겠다던 지원물자의 양과 품목도 그 시기도 밝히지 않고 덮어놓고 물자전달 절차와 방법을 논의하자고 했음.</li> <li>○ 남측의 입장이 이처럼 불투명한 상태에서 그 무슨 물품의 전달 절차를 논하고 방법을 협의하는 것은 공담이고 시간낭비나 될 뿐임.</li> <li>○ 남측 적십자사가 진심으로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그 무엇을 하려 한다면, 남측이 지원물자를 책임적으로 마련한 다음 접촉시일을 알려온다면 어느 때든지 마주앉을 것임.</li> </ul>	<p>던 미사일협상이 북한 기술적인 이유포 들어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러나 북한은 회담을 완전 취소한 것이 아니라, 이번 회담에 관심이 있음을 표명하면서 회담일자를 늦춰 줄 것을 요청했으며, 미국은 새로운 회담일자를 제시할 예정이며 회담이 곧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함.</li> </ul>
5. 7	<p>유명한 외무부 북미국장, 한·미·일 3국 대북감시체제 강화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일 정책협의회</li> <li>○ 전면전은 아니지만 휴전선 등에서의 국지전 발발 가능성은 항상 남아 있음</li> </ul>	<p>중방, 김영삼 대통령 노동자의 날 수상자 시상관련 비난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이 노동자의 날 수상자들을 청와대에 불러놓고, 새 노사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노·사·정간에 대화합 선언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하였음.</li> </ul>	<p>조지 테넷 미중앙정보국(CIA)국장지명자, 북한의 내부붕괴 가능성 우려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상원 정보위원회 인준청문회 참석</li> <li>○ 북한체제의 내부</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7	<p>므로 24시간 대북 감시체제를 강화하기로 하였음.</p> <p>한·미·일 정책협의회, 4자 회담 수락해야 북식량지원 재확인</p> <p>〈참석자〉</p> <p>한국측 : 유명환 외무부 북미국장,</p> <p>미국측 : 찰스 카트먼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p> <p>일본측 : 가토 료조 외무성 아주국장</p>	<p>「범민련」 북측본부 의장단 확대회의의 평양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석 : 백인준(의장)</li> <li>◦ 제5차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북경개최)에서 채택된 결의문 집행방안 협의</li> </ul> <p>북-베트남간 협조에 관한 합의서 조인(만수대의사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석 : 외교부장 김영남과 웬마잉 겸 베트남 외무상</li> </ul>	<p>붕괴가능성은 현재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중의 하나임.</p> <p>일본 NHK방송, 미국의 대북 원조식량 남포항 도착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 식량원조 1차분을 실은 미국 화물선 1척이 7일 오전 북한의 남포항에 도착했음.</li> </ul> <p>미 워싱턴 타임스지, 북한군 식량배급 민간인의 7배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캐서린 버티니 WFP 사무국장 발언인용</li> <li>◦ 현재 북한의 식량배급 기준이 1인당 하루 한컵정도의 1백g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군인들에 대해서는 7백g이 유지되고 있음.</li> </ul> <p>미하원 외교위, 남북</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7			<p>한 직접대화 권고 결의안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스팅스 의원 언급</li> <li>◦ 남북한간 분쟁을 평화적으로, 영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반도 4자 회담 지지를 상하 양원에 촉구</li> </ul>
5. 8		<p>부총리 김윤혁과 웬마잉겁 베트남 외무장관간 회담(만수대의사당)</p> <p>외교부 부부장 박길연, 아프리카 순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고수상 예방</li> </ul> <p>잠비아 주재 북한 특명정권 대사에 박병정 임명</p>	
5. 9	<p>권영해 국가안전기획부장, 김정일의 한반도 전쟁계획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회 황장희 진술 관련 정보위원회 보고</li> <li>◦ 전북한 노동당 비서 황장업씨는 김정일이 김일성의 사망 2년전, 3일만에 부산까지 점령하는 전쟁</li> </ul>	<p>최고인민회의-스웨덴 국회대표단간 회담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형섭의장 친선담화</li> </ul> <p>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 대변인, 남한불교인권위 박진관 공동의장 구속관련 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화국북반구의 전체 불교도들의 이름으로 남조선의 불교인권</li> </ul>	<p>일본, 북한의 ADB가입에 부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li> <li>◦ ADB회원국 중 최대 출자비율('96년말 약16%)을 유지하고 있는 일</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9	<p>시나리오를 작성해 이를 시도코자 했으나 김일성이 경제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해 유보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 김정일이 권력핵심부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지난 74년부터 모든부서가 전쟁준비에 주력하도록 지시했으며 특히 91년 12월 최고사령관이 된 이후에 전쟁분위기가 압도하고 있음.</li> <li>○ 북한은 전쟁발발시에는 첫째, 인간어뢰·항공기 등 자살특공대로 미 항공모함을 격추시켜 미국내에 반전여론을 조성하고 둘째, 장거리 미사일로 일본초토화를 위협하는 등의 계획을 수립했음.</li> <li>○ 황씨는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해, 핵무기의 경우 IAEA의 핵사찰을 거부하면서, 지난 93년 3월 NPT를 탈퇴한 것을 보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게 됐다고 말했으며, 화학무기는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li> </ul>	<p>위원회 공동의장 박진관 스님에게 구형을 연도한 김○○일당의 악행을 참교성직자의 손발을 묶어, 우리민족의 단합과 통일의를 말살하려는 중대한 죄악으로 낙인하면서 이를 준엄히 규탄함.</p>	<p>본정부가 북한의 ADB가입에 신중한 방침을 세운 것은 대외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등 국제금융기구를 이용하는 데 아직 북한의 신용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북한공작원에 의한 일본인 납치의혹, 일본인 처 인권문제, 마약 밀수 등도 북한의 ADB가입을 반대하는 이유임.</li> </ul> <p>일본 요미우리신문, 식량 30만톤 암시장 통해 중국서 북한유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당국의 내부자료 인용보도</li> </ul> <p>중 강택민 주석, 북한문제 제3자 개입 경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내부문제에 제3국이 개입</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9	<p>높은 수준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으며, 생물무기의 경우 북한 상층부에서는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지도부는 현상황에서 전쟁만이 출로라는 인식아래 사병들의 군복무기간을 종전 7년에서 13년으로 연장하고 총폭탄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있음.</li> <li>○ 북한은 지난해 10월 당창건 행사기념의 일환으로 함북도 소재 대포동 미사일 시험장에서 장거리 미사일시험발사를 계획했으나 당시 대미관계와 잠수함 사건 등을 고려해 중단했음.</li> </ul>		<p>해서는 안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공헌해오고 있으며, 중국과 북한은 현재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li> </ul> <p>미·북 미군유해송환 협상 진행&lt;5. 4-9, 뉴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래리 기어 미국방부 대변인 언급</li> <li>○ 양측은 협상이 끝나면 합의사항이 발표될 수 있을 것임.</li> <li>○ 합의문에는 ▲미군유해발굴 및 송환, 보상문제 ▲미군실종 및 사망에 관한 북한 당국의 기록 조사에 대한 접근 ▲유해발굴장소의 선정 ▲미군유해 공동발굴조사단 구성 등을 담게 될것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10		<p>『북적』중앙위 대변인, 대북 지원관련 남한비난 담화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대검찰청은 8일 민간단체들이 통일원이나 적십자사를 거치지 않는 지원활동은 불법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하면서 자제와 시정을 요구했음.</li> <li>◦ 남조선 당국은 어제는 민간급 지원을 허용한다고 하고 오늘에 와서는 불법으로 뒤집는 어리석은 책동을 무조건 견어치워야 함.</li> </ul>	<p>이봉서 ADB부총재, 북한의 ADB공식가입 신청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후쿠오카 제30차 ADB 연차총회</li> <li>◦ 북한이 지난달 김정우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명의로 ADB에 가입하기를 희망한다는 편지를 사토미쓰오 ADB총재에게 보내왔음.</li> </ul>
5. 12	<p>강경식 경제부총리, 북한의 ADB가입지지 재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0차 ADB 연차총회 기조연설</li> <li>◦ 북한의 아시아개발은행 가입을 지지하며, 북한의 ADB가입은 고질적인 식량과 물자부족을 타개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줄 것임.</li> </ul> <p>북한주민 2가족 14명 귀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월12일 16:30분경 북한 주민 2가족(안국선, 김원</li> </ul>	<p>평방, 김영삼대통령의 고비용 정치 구조 개선발언 비난</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12	<p>형) 14명이 백령도 서남 방 5.7마일 해상에서 북한선박 1척을 이용하여 귀순해 왔음.</p> <p>이병웅 한적 사무총장, 남북 적십자대표 북경 접촉결과 설명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본부 등 20개 주요민간 단체인사초청</li> <li>◦ 동 접촉에서 남북한은 적십자란 창구로 한 직접 전담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육로 및 해로등 추가경로 확보, 분배지역 확대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나 북측측이 사전에 지원규모와 시기등을 화약해 줄 것을 요청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음.</li> </ul> <p>한적, 제19차 북한수재민 구호물자 전달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수재민을 위한 제19차 구호물자로 옥수수 50kg들이 7만 2천포 3천 6백톤 4억 7천여만원 상</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12	<p>당을 5월 17일부터 세차레에 걸쳐 기차를 이용해 중국 단둥에서 북한의 신의주로 보내 북한 적십자사에 전달됨.</p>		
5. 13		<p>쿠바, 북한큰물피해 관련 설당 1만톤 지원결정</p> <p>조선종교인협의회 대변인, 민간의 대북지원관련 남한 비난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7일 남조선 당국은 적십자 베이징집속대책회의라는 것을 벌여놓고 민간단체들이 통일원이나 적십자사를 거치지 않고 벌이는 지원활동은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공언하면서 민간단체들에 그 무슨 자제와 시정을 요구해 나섰음.</li> <li>◦ 우리는 남조선 당국이 종교인들과 민간단체, 개별적 기업인들의 대북지원사업을 막는 늘음을 할 것이 아니라 제 할일이나 똑똑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li> <li>◦ 우리는 이 기회에 남조선 종교단체들과 민간단체들이 당국과 적십자사의 부당한 간섭을 견결히 반대 배격하고 이미 시작한 지원활동을 중단없이 계속하리라</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13		고 기대함.	
5. 14		<p>남조선의 비전향장기수 구원대책 조선위원회 위원장 정준기, 비전향 장기수 송환촉구서한 강영훈 한적 총재 앞으로 발송</p> <p>평방, 석탄질 북남 동시법회 개최 보도</p> <p>○ 설교자와 연설자들은 조국통일 3대원칙과 7.4공동성명 발표 25 등을 맞는 뜻깊은 올해를 북남 불교도들의 합의에 따라 북과 남의 모든 사찰들에서 동시법회 를 가지고 공동발원문을 발표하 게 된것은 조국통일 실현을 위 하여 보조를 같이하는데서 큰걸 음을 내디딘 것으로 된다고 하 면서, 민족자주·평화수호를 위 한 북남해외 불교도들의 3자연 대를 강조하였음.</p> <p>인민배우 김진명(83세, 평양음악무 용대학교수 겸 배우) 사망</p> <p>• '90년 서울송년통일음악제 참가</p>	<p>독일 프랑크푸르트 문트사우지, 북한주 민 하루에 30-40명 중국탈출 보도</p> <p>• 중국 내부자료 인 용(길림성 도문발 특집기사)</p> <p>○ 매일같이 30-40명 의 북한 주민들이 중국으로 숨어 들 어오고 있으며, 중 국국경수비대원들 은 동정심에서 탈 출을 묵인했으나 이를 방지할 경우 수십만명이 몰려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최근에는 이들을 무조건 되돌려 보내고 있 음.</p>
5. 15		<p>중앙통신, 미·북간 미군유해 공동 발굴 재개합의 보도</p> <p>○ 조선전쟁당시 조선이북지역에서</p>	<p>케네스 베이컨 미국 방부 대변인, 미·북 간 미군유해 공동발 굴 언급</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15		<p>전사한 미군병사 유해 공동발굴을 협의하기 위한 미국과의 대표회담이 지난 5.4일부터 13일 까지 뉴욕에서 개최됐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년내 공동발굴을 3차례 진행하며 미국측에서는 사전답사 및 공동발굴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시설을 제공하기로 한다는데 동의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과 북한은 지난주 유해송환 회담에서 을해안에 세차례 유해공동발굴 작업을 벌이기로 합의하고 14일 공식문서를 교환했음.</li> <li>○ 이같은 합의가 미·북관계에 긍정적 기여를 하게될 것이나 60년대 이후 북한에 넘어간 미군 탈영장병 6명중 4명의 생존자에 대한 인터뷰는 북한측이 수락하지 않아 미합의</li> <li>○ 발굴작업 경비는 공동발굴 때마다 10만 5천 5백 달러씩, 총 31만 6천 5백달러를 지급키로 했으며, 발굴작업은 한국전에서 실종된 8천 1백여명의 미군중 약 3천5백~4천명의 미군병사 유해가 매장된 묘지와 항공기</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15			<p>추락 지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p> <p>헨리 키신저 전 미국 무장관, 대북 과잉원조는 연착륙보다는 체제연장에 도움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포포럼(회장, 이경식 한은총재) 초청 조찬토론</li> <li>◦ 북한에 대한 식량 원조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너무많은 원조는 연착륙보다는 체제연장에 도움이 될 뿐임.</li> </ul>
5. 16	<p>강영훈 한적총재, 남북적십자대표 접촉 판문점 또는 서울·평양 개최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 전화통지문</li> <li>◦ 지난 5월 3일과 5일 남북 쌍방 적십자인들은 귀축에 대한 구호식량 및 물품을 직접 전달하기 위한</li> </ul>		<p>가지야마 세이로쿠 일본정부 대변인, 북한의 북송 일본인처고향방문 가능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회견</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16	<p>철차문제를 협의한 바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지난번 접촉에서 우리가 비록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근 5년만에 남북적십자인들이 다시 만나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현재 우리 민간단체들이 기탁해 오고 있는 구호식량 및 물품들을 귀측에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철차문제에 대한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li> <li>○ 이러한 견지에서 나는 제 2차 대표접촉을 오는 5월 23일(금)에 서로 편리한 관문점이나 서울 또는 평양에서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이번 접촉에서는 지원규모에 대해서도 밝힐수 있을 것임.</li> </ul>		
5. 17		<p>「북적」위원장 대리 이성호, 남북 적십자 대표접촉관련 수정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남전화통지문</li> </ul>	<p>일본 산케이신문, 북한화물선 마약밀수에 인민무력부 관련 가능성 보도</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하의 16일부 전화통지문에서 지정된 장소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로서는 쌍방 실무대표들이 이미 만났던 베이징으로 해도 협의에 지장될 것도 없고, 양측에 부담될 것도 없으므로 번거롭게 장소를 옮기느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봄.</li> <li>○ 문제는 협의의 내용이 기본이므로 귀측이 이번에 지원물자의 품목과 수량, 시기를 똑똑히 정해가지고 나오면 지난번과 같이 접촉이 공진되는 것과 같은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인정함.</li> <li>○ 따라서 우리는 접촉장소로는 지난번과 같이 베이징으로 하며 날짜는 5월 23일로 하는데 동의하는 바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화물선 지성 2호의 각성제 밀수사건에 북한인민 무력부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음.</li> <li>○ 북한에서 각성제를 보낸 「능라 888 무역상사」는 인민무력부 공병국(제6국)의 지시를 받아 아시아 지역과 거래했음.</li> </ul>
5. 18		<p>노동신문, 광주항쟁 정신으로 정권 타도에 나서라고 선동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웅적 광주인민봉기 17돌이 되는 오늘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광주의 투쟁정신을 살려 김○○정권을 타도하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여야 함.</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19	<p>유종하 외무장관, 전기침 중국외교부장과 4자회담 및 대만핵 폐기물 문제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 외무 베이징 회담</li> <li>◦ 유외무장관은 지난달 뉴욕에서 열린 남·북·미 간 4자회담 후속설명회에서 북한이 '3+1'형식을 제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서 중국을 사실상 배제시키려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중국이 정진협정 당사국으로서 4자회담의 성사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음.</li> <li>◦ 이에 대해 전부장은 당사국간에 의견이 일치되면 정진협정체결 당사국으로서 4자회담에 참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음.</li> <li>◦ 중국정부는 대만이 2개의 중국을 고착화하기 위한 슬책의 하나로 핵폐기물 반입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이</li> </ul>	<p>부주석 이종옥, 말레이시아 정부대표단과 친선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레이시아 대표단에 훈장수여 (만수대의사당)</li> </ul>	<p>미 백악관, 클린턴 대통령 집권2기 북한의 생화학무기·탄도탄 개발 저지에 역점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세기를 위한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li> <li>◦ 한반도의 긴장은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남아있으며, 비핵화된 한반도에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전략적 이익과 일치하며, 한반도에서 북한의 화학·생물학무기의 위협을 제거해야 함.</li> </ul> <p>샐리 캐슈빌리 미합참의장, 미·중 군수뇌간 북한정세 판단에 이견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주 5일간 중국방문동안 중국 군지도부와의 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19	<p>의 제지에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음.</p>		<p>답에서 북한 문제가 논의된 바 있으나 북한의 현상화에 대한 견해차를 보였음.</p>
5. 20	<p>한적 김영훈 총재, 남북적십자대표 접촉관련 수락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진화통지문</li> <li>◦ 나는 귀측이 접촉장소로 쌍방이 서로 편리한 우리나라 땅이 아닌 북경을 다시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그 진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유감으로 생각한다.</li> <li>◦ 그러나 나는 현재 북녘 동포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주기 위해 절차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대표단을 북경에 보내기로 하였음.</li> <li>◦ 나는 우리측 대표단이 오는 5월 23일(금) 오전 10시 북경 「차이나월드」 호텔에서 귀측 대표들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함.</li> </ul>	<p>『조평통』 대변인, 『한총련』 관련 남한당국 규탄 담화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평통은 한총련을 말살하기 위한 김○○일당의 탄압책동을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로 인정하면서 준렬히 규탄함.</li> </ul>	<p>윌리엄 코언 미국방장관, 북한의 대남공격은 북한의 피멸 초래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상원 군사위원회 출석(4개년 국방전략 보고서)</li> <li>◦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북한은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어 공격을 감행할 경우 한국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나, 그러한 공격은 궁극적으로 한 국가로서 완전히 파괴되는 자살행위가 될 것임.</li> </ul> <p>압둘라 말레이지아 외무장관, 북한의 말</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20			<p>련과의 경제협력 증 대 희망 언급</p> <p>○ 북한은 통신, 관 광, 건설, 농업, 항로개설 등의 분 야에서 말레이시 아와의 협력이 증 대되기를 바라고 있음.</p>
5. 21		<p>『조평통』대변인, 북한농구선수 이 명훈 캐나다 망명설 관련 비난담화 발표</p> <p>○ 우리의 농구선수 이명훈이 직업 훈련을 위하여 캐나다에 간 것 을 가지고 남조선 안기부가 그 의 캐나다 망명설을 퍼뜨리는 모략보도를 내들리고 있음.</p>	<p>조지프 프뤼어 미태 평양 사령관, 통일전 남·북한 화해추구 언급</p> <p>• 마닐라 태평양 연 안경제위원회 연설</p> <p>○ 한반도 통일에 앞 서 북한의 실체와 남한의 실체가 화 해해 평화로운 국 경을 맞대고 있는 상태가 우리가 기 대하는 것이며, 우 리의 모든 노력도 이 방향으로 이뤄 지고 있음.</p> <p>북한-러시아연방간 항공로에 관한 협정</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21			<p>조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용항공국장 김요 웅과 러시아 항공 국장 겐나지 서명</li> </ul> <p>니컬러스 번스 미국무 부 대변인, 북한 이명 훈 NBA에서 원할때 입국허가 용의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레브리핑</li> <li>◦ 북한이 테러지원 국으로 분류돼 미 국의 경제 제재조 치를 받고 있기때 문에 북한선수가 미 NBA프로농구 에 진출하려면 미 재무부 외국자산 통제국의 특별허 가를 받아야 함.</li> <li>◦ 우리는 만일 NBA 소속 특정팀이 그 를 원한다면 재무 부 외국자산통제 국의 특별허가에 따라 국무부가 입 국을 허가할 수 있을 것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22	<p>유종하 외무장관, 4자회담서 대북식량지원량 논의가능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리아 소사이어티 초청 연설</li> <li>◦ 4자회담이 성사되면 북한의 식량부족량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량과 방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임.</li> <li>◦ 북한의 식량부족문제는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만성적인 문제이며 년50~60억달러를 군사비에 투입하는 등 북한당국의 정책 우선순위 오류에 기인하며, 특히 한국이 대규모 식량지원을 할 경우 군량미로 전용되거나 최소한 비축된 자원이 군사비로 전용될 가능성도 있음.</li> </ul>	<p>『법청학련』 제6차 공동의장단 회의 14~16간 평양, 광주, 도교에서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7년도 운동전망 및 사업계획 합의문 채택</li> <li>◦ 국가보안법은 민주사회, 조국통일의 기본적인 환경을 파괴하는 파쇼악법의 근원이며, 공안탄압 분쇄, 국가보안법을 위시한 악법 철폐, 안기부·기무사 등 폭압 기구의 해체는 청년학생들이 틀어쥐고 나가야할 당면과제임.</li> </ul> <p>외교부대변인, 식량난에 따른 전쟁 발발 보도관련 담화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량난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일으킬수 있다는 전쟁분위기를 고취하는 심상치 않은 캄빠니아가 벌어지고 있음.</li> <li>◦ 우리의 일시적 식량난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쟁은 결코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님.</li> <li>◦ 우리의 일시적 곤란이 호전세력들의 침략을 위한 근거로 악용되고 있는 오늘의 사태는 우리의 각성과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고있음.</li> </ul>	<p>KEDO-EU간 EU의 KEDO 집행이사 가입 합의 가서명</p> <p>미, 북한 등 5개국에 화학무기협정 가입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헤이그 제1차 CWC 가입국회의 참석 미 대표단</li> </ul> <p>일본 요미우리 신문, 북한의 일본인처 귀국조건으로 쌀 50만 톤 요구 보도</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23			<p>일본 산케이신문, 북한 탈출 청년들 북경서 반정부조직 결성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을 탈출한 청년들이 올 2월 북경에서 북한인민의 생존과 민주주의를 돕는 탈출자 연합전선(북민전)을 결성하고 “북조선인권투쟁선언문”을 발표한 사실이 밝혀졌음.</li> </ul>
5. 24			<p>독일 프랑크푸르트 압게마이너지, 독일 대북식량지원 참여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터 슈프랑어 경제협력 개발부 장관, 세계식량계획 앞으로 식량지원 참여 서한 발송</li> </ul>
5. 25		<p>중통, 일본 불순세력들의 일본인 소녀 납치극 조작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케이 신문보도 관련, 일본 외무성이 납치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정보수집에 나섰다 하는데,</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25		<p>이것은 최근 일본의 불순세력들이 남조선 안기부의 각본에 따라 이에 대한 정부적 인정이니 뭐니하는 늪음에 신빙성을 부여하려는 무분별한 반공화국 모략책동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당국은 남치의혹사건을 조작하여 모략책동을 벌릴것이 아니라 조선인들에게 40여년간 저지른 반인류적범죄에 대한 과거 청산문제해결에 나서야 함.</li> </ul> <p>북한외교관, “북, 전시배급체제구축으로 식량난 극복”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베를린 북한이익대표부 이상유 정무담당참사관은 노이에스도이칠란트와의 인터뷰에서 “식량배급량이 다음 수확기까지 100g으로 식량문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서방언론의 보도와는 다르다”고 주장하고</li> <li>○ 북한은 “과거 전시에 가동했던 것과 같은 배급체제를 구축했다”고 강조</li> </ul>	
5. 26	제2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남북적십자간 대북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 채택		북한, 북송일본인처수심명 「귀국훈련」 보도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26	<p>• 5.23~5.26, 베이징</p> <p>◦ 쌍방은 구호물자를 신속 · 원활히 전달하기 위하 여 국제적십자의 협조하 에 남북간에 직접 인도· 인수하기로 하고 그와 관 련한 실무절차들을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음.</p> <p>〈합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호물자의 수량과 품종 및 인도시기</li> <li>2. 물자수송 및 인도인수 지점</li> <li>3. 물자 전달방법</li> <li>4. 지정전달 및 분배과정 입회</li> <li>5. 편의포장 및 기록협조</li> <li>6. 신변안전 및 안전운행 보장</li> <li>7. 수송차량 및 선박의 표시</li> <li>8. 물자포장 및 검수 및 검역</li> <li>9. 수송계획에 대한 사전 통보</li> <li>10. 수송조건 및 분쟁해결</li> <li>11. 수정 및 보충</li> <li>12. 발효 등</li> </ol> <p>통일원 대변인, 남북적십자 간의 구호물자 전달 절차 합 의에 따른 논평</p>		<p>◦ 산케이는 북한관 계자료를 인용, 북한 은 올봄부터 평양 근교에서 일본인 치 수십명을 모아 「귀국여행훈련」에 들어갔다고 전언</p> <p>◦ 훈련대상자는 김 정일에 대한 충성 심이 높은 일본인 치로서, 이들은 북 한이 제작한 「모 범적일본인치」비 디오에 등장하고 일본언론 방북시 동원되는 사람들 이라고 보도</p> <p>미 비즈니스 위크지, 중국이 북한의 개방 유도 최적임국 보도</p> <p>• 26일자 최신후(편 집장, 세리 프라스 기자 기고)</p> <p>◦ 중국은 지금까지 한반도사태에 북 한이 선호하는 자 세인 초연함을 보 여왔으나, 미국이</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남북적십자간에 대북지원 구호물자의 직접 전달절차가 타결된 것을 환영함.</li> <li>○ 이번 합의로 대북지원 물품이 북한내 넓은 지역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되게 되었으며, 특히 전달경로, 분배지역, 지정기탁, 포장문제 등의 사항이 타결됨으로써 북측 수혜자들이 우리의 정성을 보다 확실히 인식하게 됨.</li> <li>○ 향후 대한적십자사를 창구로 하여 민간단체와 개인의 대북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함.</li> </ul>		<p>중국을 끌어들이 수만 있다면 중국은 북한이 절실히 필요로하고 있는 경제개혁과 한반도 평화를 획득할 수 있는 보다 좋은 기회를 갖고 있으며, 중국은 유일하게 북한을 고립에서 탈출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위치에 서있음.</p>
5. 27		<p>『북적』 대변인, 한적의 북경접촉 합의내용 성실이행 기대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5월 23일부터 26일 사이에 중국 베이징에서는 민간급의 식량과 물품제공 문제를 협의하는 북남적십자 실무대표들의 접촉이 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접촉에서는 큰물피해를 입은 우리측에 식량 등 물자제공문제와</li> </ul>	<p>존 딩어 미국무부 대변인, 미-북간 미사일회담 재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북한과 실무접촉을 통해 한 차례 연기됐던 미사일회담을 6월 11일~13일간 뉴욕에서 개최하기</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27		<p>관련한 합의서가 채택되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의서에서는 한적이 1차분으로 강냉이류 비롯한 식량 5만톤을 7월중순까지 북측에 전달하고, 새롭게 확보되는 물자를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계속 제공하고 그 밖의 물자의 수송방법과 인도·인수, 장소 문제등 실무적인 문제들이 명기되었음.</li> <li>○ 끝으로 한적이 합의내용을 신의 있게 이행하리라는 기대를 표시함.</li> </ul> <p>막스 보커스 미 상원의원 일행, 평양 도착</p>	<p>로 합의했음.</p> <p>페리스 장 대만 민진당 의원, 북한방문결과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FP통신 전화인터뷰</li> <li>○ 북한이 식량부족 사태를 해결키위해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남한 친공을 위해 준비중이라는 증거는 없음.</li> <li>○ 북한정권이 붕괴되어 한반도에 불안정이 조성되는 경우, 중국이 북한에 군대를 파견, 북쪽에는 친중 괴뢰정권이 수립될 것임.</li> </ul> <p>EU, 4자회담 수용측 구 대북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번의장국 네델란드 명의성명</li> <li>○ 북한이 협상태이블에 참석하는 것</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27			<p>을 보는 것이 유 럽연합의 간절한 바람임.</p>
5. 28	<p>국방부 군비통제관, 북한의 류 국군포로 송환 추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설명회</li> <li>◦ 4자회담이 성사되고 남북 한 신뢰가 회복되면 북한 에 한국전쟁당시의 국군 포로 송환을 적극 제의할 방침임.</li> <li>◦ 지난해 7월 3일 구성된 「실종자 송환촉구대책 추 진위원회」를 통해 국군포 로의 명단을 파악중이며, 국군포로 송환문제에 대 한 국제사회 여론조성 작 업도 활발히 벌어나갈 방 침임.</li> </ul> <p>한·독, 한반도 현안문제 협 력강화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종하 - 클라우스 킨켈간 양국외무장관 회담</li> </ul>	<p>평방, 큰물 피해관련 국제적 지원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여러나라와 국제기구 및 단 체들이 세계 식량계획을 통하여 제공하는 식량 5만 9천여톤이 도착했음.</li> <li>◦ 이번 식량제공에는 미국, 스위 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나 라들과 구라파 동맹, 카리타스, 아그라 등 국제기구 및 단체들 이 참가했으며, 한편 독일, 카나 다, 노르웨이, 뉴질랜드, 오지리 정부도 제공하기로 하였음.</li> </ul> <p>외교부부부장 박길연, 아프리카 방 문(4.19~5.28)후 귀국</p>	<p>KEDO-북한간 2차 실 무협상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수로 부지준비공 사 착공과 관련한 KEDO-북한간 제2 차 실무협상이 5. 31-6.7간 북한 묘향 산의 향산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임.</li> </ul> <p>윌리엄 코언 미국방 장관, 한반도 유사시 즉각개입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콜로라도 스프링스 공군사관학교 기자 회견</li> <li>◦ 미국은 제한된 국 방예산의 범위내 에서 전세계 안보 를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한 반도에서 요청을 받을 경우 우리의 역할을 다하기 위 해 싸울준비가 돼</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28			<p>있음.</p> <p>일본 산케이 신문, 북한 곡물 20%군용비축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 의회조사국 보고서 인용보도</li> <li>◦북한의 예비역을 포함한 약 2백만 명의 군사요원이 일반국민의 7배나 되는 쌀을 배급받고 있음.</li> </ul>
5. 29	<p>합동참모본부, 북한고속경비정 1척 북방한계선 침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고속경비정 1척이 오늘 14:05경 서해 백령도 서북쪽 4.8Km 해상에서 북방한계선을 5.6Km정도 원경한 뒤 우리 영해에서 55분간 머물다 북쪽으로 되돌아 갔음.</li> </ul> <p>북한탈북자 가족 등 5명 귀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년 1월 귀순했던 재일 북송교포 2세 홍진희(29,</li> </ul>		<p>미 워싱턴 포스트지, 구조적 경제개혁만이 북한의 생존보장 가능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의 식량난은 지난 91년 소련의 붕괴이후 원조중단으로 경제가 악화되었는데도 중국식 경제개방을 거부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함.</li> <li>◦북한은 구조를 별로 원하지도 않고</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29	<p>고려대 1년)의 가족 3명 등 5명이 북한을 탈출 중국을 거쳐 29일 오후 4시 45분 서울에 도착했음.</p>		<p>다른 사람을 끌고 들어갈지도 모르는 물에 빠진 사람 같으며, 어떤 인도적 원조도 북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한국측의 주장은 매우 타당함.</p>
5. 30	<p>권오기 통일부총리, 북한 올해 식량위기 극복가능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평통 운영위원회 합동회의 국정보고</li> <li>◦ 지난해 곡물생산량과 작년 11월이후 외부도입량 및 향후 도입예정량을 종합하면, 하곡수확이 이뤄지는 8월까지 지탱가능한 양을 확보할 수 있음.</li> </ul> <p>신한국당 대변인, 북한에 미송환포로 송환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당직자 회의</li> <li>◦ 국방부에 행방불명으로 기록된 미송환포로 2만명의 명단을 공개, 그 가족들로 하여금 행방불명 여부를 확인케 한뒤 이를</li> </ul>	<p>중방, 미국이 한국과 해외주둔 각종 장비를 동원하여 북에 대한 공중정탐행위를 15차례 감행했다고 보도</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30	<p>토대로 미송환 포로의 송환을 북한에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음.</p>		
5. 31		<p>평방, 비전향장기수들의 송환요구는 정당하다고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에 억류되어 있는 북반부 출신 비전향 장기수들은 전에 벌써 송환됐어야 할 사람들로서, 우리와 미국사이에 조인된 정전협정과 포로교환에 관한 제네바협정이나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옹당한 것임.</li> <li>◦ 김○○일당은 김인서·함세환·김영태 노인이 전쟁포로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우기면서 송환을 거부하고 있음.</li> </ul>	<p>미셀 타이히데스 국제적십자연맹 의료조사팀 담당자, 북한의료체계 완전마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14개시 조사결과 기자회견(북경)</li> <li>◦ 북한의 병원등 의료시설을 돌아본 결과 간단한 의약품과 기초치료 장비가 구비돼 있지 않고 의료기기는 거의 작동할 수 없었으며 의료체계가 완전히 마비되고 무너진 상태였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2	<p>강영훈 한적총재, 대북지원 (지정기탁)제1차 구호물자 수송계획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북전화통지문</li> <li>○ 나는 지난 5월 26일 귀측 과 합의한 「남북적십자 사이의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귀측에 전달될 우리측 구호물자 5만톤중 제1차 구호물자 수송계획을 통보하며, 귀측의 준비상태와 하역에 필요한 자료를 조속히 알려주기 바랍.</li> <li>○ 오늘 12일부터 19일사이 중국화차로 신의주에서 4천 2백톤, 만포 3천톤 남양 4천톤 등 모두 1만 1천 2백톤의 옥수수 및 옥수수가루를 1차분으로 전달하겠음.</li> <li>○ 우리측 인도인원은 방문기간중 실제로 물자수송이 이루어지는 날짜에 귀측 지역을 방문하게 될 것이며 신변안전보장과 인도인수 지점 방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기바랍.</li> </ul>	<p>보천보전루 60돌 즈음 중앙 연구로 문화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석 : 박성철, 양형섭, 최태복, 이종산(차수), 강석송</li> </ul> <p>조·중 수력발전회사 이사회 제50차회의 참가차 북한대표단 중국향 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장 : 전력공업부 부부장 박윤영</li> </ul>	<p>제럴드 포드 전미대통령, 북한 핵 포기않는 한 식량원조 반대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 간담회</li> <li>○ 북한이 한·미·일 3국과 협력하면서 그들이 핵무기 개발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해 어떤 형태의 원조도 제공해서는 안됨.</li> </ul> <p>일본 산케이신문, 한국 통일후 북한인구 75% 남한이동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에서 단일통화로 통합돼 북의 1인당 소득이 남한의 60% 수준이 될 때까지는 남에서 북으로 자본이 이동할 것임.</li> <li>○ 한반도가 통일되면 북한인구의 75%가 통일직후 남한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큼.</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3	<p>유종하 외무장관, 기아·국제 고립 불구 북정권 안정유지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 마이네지 회견</li> <li>◦ 북한이 극심한 기아와 국제적 고립에도 불구하고 정권안정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고 있음.</li> <li>◦ 그러나 망명한 황장엽 전 노동당비서로부터 북한의 도발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이 파악된만큼 국제사회는 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될 것임.</li> <li>◦ 또한 대만이 북한에 핵폐기물을 반출하는 것은 북한의 절망적인 경제상황을 이용하는 비도덕적인 행위이므로 국제사회가 대만에 압력을 행사해야 됨.</li> </ul>	<p>보천보전투승리 60돌 중앙보고대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자 : 당비서 최태복</li> </ul>	<p>심국방 중국외교부대변인, 북한 정치적 안정유지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일중 일본TV회견</li> <li>◦ 우리가 아는 북한의 정치적 상황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식량난도 중국을 비롯한 세계각국의 원조로 차츰 해결되고 있음.</li> <li>◦ 중국의 정책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지원하는 것이며, 이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이해와도 부합되는 것임.</li> </ul> <p>러시아, 4자회담 지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라소프 러외무부대변인, 언론브리핑</li> <li>◦ 러시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환영하며 남북한</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3			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의 성공을 기원함.
6. 4		<p>조선학생위원회, 남한 한총련 탄압 관련 남한당국 규탄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의 전체 대학생을 망라하는 합법적 대중조직인 전대협과 한총련의 출범식은 10년간 대해 진행해온 연례적인 행사로서 대학생들의 자치권에 속하는 활동임.</li> <li>◦ 그럼에도 김○○일당이 지난 3월 한총련의 대의원대회에 이어 오늘 그출범식마저 이적성 운운하면서 2만여명의 경찰을 내몰아 탄압하고 있는데는 음흉한 목적이 있음.</li> </ul>	<p>유엔산하 FAO·WFP, 북한 식량배급체계 붕괴위기 직면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 17~24간 북한 방문결과 보고서</li> <li>◦ 북한의 식량배급 체계는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아무런 대체방법을 찾지 못해 붕괴 위기를 맞고 있으며, 긴급구제 조치가 없을 경우 아사사태가 일어날 것임.</li> </ul> <p>미 워싱턴 타임스지, 북 영변 원자로 해체 작업 차질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변 핵시설 청소 용역회사(미) 「뉴클리어 어슈어런스」사 인용</li> <li>◦ 당초 95년 11월까지 끝나기로 돼</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4			<p>있던 폐연료봉의 봉인작업이 계속 늦어져 올 여름에 나 완료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천여개의 사용후 핵연료봉 가운데 현재까지 6천5백 개만이 안전하게 봉인됐으며, 나머지 1천 5백개가 남아있는 상태이며, 이중 8백여개는 심각하게 부식되어 작업이 늦어지고 있음.</li> <li>○ 봉인작업이 늦어진 이유는 북한의 식량원조 요구 등 미·북간 정치문제, 지난해 발생한 북한 잠수함 침투 사건, 북한이 미속련공들을 봉인작업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는데 따른 것임.</li> </ul>
6. 5		<p>평방, 남측이 북측영해를 불법침입 포사력 실시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측 영해 깊</li> </ul>	<p>미하원, 대만핵폐기물 북한이전 재고 촉구 법안 채택</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5		<p>이 전투함선들을 불법침입시켜 우리의 평화적 어선들을 납치할 기도됨에, 5일 13시 33분경 불의에 대연평도로부터 황해남도 강령군 쌍교리 남쪽 영해깊이 불법침입한 괴뢰군 전투함선 3척이 우리의 어선들을 포위하면서 달려들었으나, 조선인민군 해군경비정의 긴급 진출로, 평화적 어선들에 포사격을 가하고 남쪽으로 돌아났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계 김창준하원의원이 발의하여 미외교정책 개혁법안의 수정안형태로 제출되어 하원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li> <li>니컬러스 번스 미국 국무 대변인, 중국은 4자회담의 주요 당사국 언급</li> <li>• 뉴스 브리핑</li> <li>◦ 중국은 4자회담의 한 당사국으로서 중국이 참여하지 않고는 4자회담이 진행될 수 없을 것임.</li> <li>일본 산케이신문, 북한의 일본인 납치의혹 사건 규명 관계부처 회의 신설 보도</li> <li>◦ 지난 77년의 니가타 중학생 납치 의혹사건 등을 규명하기 위해 외무성, 경찰청, 법무성, 대장성 관계자로 구성된 회의를</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5			<p>신설키로 하고, 관계부처회의는 정기적으로 열리지 않으나 북한에 대한 조총련의 송금문제를 비롯해 무역문제를 검토 작업을 벌일 것임.</p>
6. 6		<p>김정일, 모내기에 참여한 농업근로자들에 격려하신 하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전신명령 제003호</li> <li>◦ 나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만풍년의 노적가리를 쌓을 수 있는 들파구를 마련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명령함.</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우리당의 농업제일주의 방침을 높이받들고 사회주의 농촌들에서 올해 모내기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는데 크게 기여한 전국의 농업근로자들과 인민군, 농촌지도자들에게 감사함을 준다.</li> <li>2. 전체 농업근로자들과 인민군, 지원자들은 모내기 전투를 제철에 끝낸 승리자의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김매기</li> </o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6		<p>전투와 농작물에 대한 영농공정별 지대관리를 잘하여 뜻깊은 올해에 전례없는 대풍을 이룩하도록 할 것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전당·전군·전민이 총동원되어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짓기 위한 올해의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li> </ul>	
6. 7	<p>김영삼 대통령, 북한의 무력도발대비 안보태세강화 지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와대 주요군지휘관 오찬</li> <li>○ 북한은 그들의 체제위기가 막바지에 이를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자포자기식 무력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북한의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철저히 대비함으로써 그들의 전쟁도발을 억지해야 할 것임.</li> </ul> <p>강영훈 한적총재, 대북지원 제1차 구호물자 인도요원 인적사항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북전화통지문</li> <li>○ 나는 금일 귀측이 보낸 전물문을 잘 받았으며,</li> </ul>	<p>「북적」위원장 대리 이성호, 대북 구호물품 인수계획 및 한적 인도요원 인적사항 통보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남전화통지문</li> <li>○ 나는 귀측이 우리에게 1차로 전달할 지원물자를 예정대로 오는 6월 12일부터 인수하기 위하여 우리측 적십자 인원들을 인도·인수지점인 신의주·만포·남양에 각각 파견할 것임을 알리는 바임.</li> <li>○ 우리측 인수장소의 하역능력을 고려하여 신의주와 남양으로는 2일 간격으로 각각 1,000톤씩, 만포로는 2일 간격으로 800톤씩 받으려고 함.</li> <li>○ 우리측 지역에 오는 귀측 인원들의 「신변안전담보각서」는 오는 6월 9일 오후 3시 판문점에서</li> </ul>	<p>일본 산케이신문, 중국군 3개사단 지난 4~5 월중 북한 국경 부근 이동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민해방군은 4월 2개사단을 이동시킨데 이어 5월 1개사단을 북한국경선부근에 옮겼으나 이유는 일체 밝혀지지 않고 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7	<p>오는 6월 12일부터 19일 까지 첫번째 구호물자 전달을 위해 귀측지역을 방문하는 우리측 인도요원들의 인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함.</p> <p>○ 우리측 인도요원들은 6월 9일 오후 북경주재 귀측 대사관에서 귀측지역 방문사중 발급 절차를 밟게 될것임.</p> <p>〈인도지점별 인도요원〉</p> <p>신의주 : 고영기, 이용현, 최종재</p> <p>만 포 : 임용훈, 전승호, 성길영</p> <p>남 양 : 이계복, 김창모, 남영한</p>	<p>우리측 적십자 연락 대표가 귀측 적십자 연락관에게 전달할 것이며, 입국사증은 베이징 주재 우리대표부 영사부에서 발부하도록 할 것임.</p> <p>○ 이와관련 사증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속히 보내주시기를 희망함.</p>	
6. 8		<p>북한-KEDO간 제2차 고위급 전문가협상이 6월 1일부터 6일까지 향산에서 진행</p>	
6. 9	<p>유명한 외무부 북미국장, 대북정책공조를 위한 한·미·일 3자협의회 개최 결과 설명</p> <p>•참석자(수석대표)</p> <p>한국 : 유명한 외무부 북미국장</p>	<p>『북적』위원장 대리 이성호, 구호물자 지원관련 한국측 인도요원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각서통보</p> <p>•강영훈 한적총재 앞으로 북측연락관 접촉 통보(중감위 사무실)</p> <p>〈신변안전 담보 각서〉</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9	<p>미국 : 찰스 카트만 미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 직 무대행</p> <p>일본 : 가토 료조 일본의무성 아주국장</p> <p>○ 북한 식량문제는 각국이나 국제기구의 통계상 차이가 있으나 150~250만 톤이 부족하다고 보며, 외부의 지원으로 100여만 톤이 들어가므로 전반적 기근이 발생하리라고는 보지않으나 계속적 지원이 필요하며 식량문제의 해결은 4자회담틀 내의 평화체제 논의속에서 이뤄져야 함.</p> <p>○ 4자회담문제는 최근 러시아도 지지 입장을 표명했고 중국도 그런 입장이며 북한도 원칙적으로 수락했다고 보며, 전반적이며 북한도 원칙적으로 수락했다고 보며, 전반적 분위기는 개최하는 방향이나 구체적 일시는 예측 안됨.</p>	<p>식량을 비롯한 물자인도를 위하여 우리측 지역에 오는 귀족의 적십자 인원들에 대하여 1차로 전달할 지원물자 납입이 끝날 때까지 체류기간중 신변안전을 담보하며 모든 편의를 보장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1997년 6월 9일</p> <p style="text-align: center;">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안전부장 백학립</p> <p>노동신문, 북침전쟁열을 고취하려고 주요군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비난논평</p> <p>○ 김○○은 군부 우두머리들을 청와대에 불러들여 있지도 않는 누구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떠벌이며 북침전쟁열을 고취했음</p>	
6. 10	<p>권오기 통일부총리, 국가안보태세 강화 언급</p>	<p>인민군 친선참관단(단장 : 이봉죽 중장), 중국방문차 평양출발</p>	<p>일본 산케이 신문, 중국이 북한난민 유입</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기초자치단체장 대상 통일안보상황 설명회</li> <li>◦ 식량난 등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체제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은 위기상황속에서도 내부통제하기 위해 대남적대전략을 지속하고 있어 한반도 안보상황에 위협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li> </ul>	<p>반일 6.10만세운동 71돌 기념 평양 시보고회 개최</p> <p>김정일, 서부전선 최전방 조선인군 대연합부대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 : 조명록, 김영춘</li> <li>◦ 김정일 동지는 영웅적 인민군이 일당백싸움꾼들로 자라난데 대하여, 기대와 신임이 담겨진 기관총과 자동보총, 쌍안경을 기념으로 주셨음.</li> </ul>	<p>저지위해 군동원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군이 동원된 지역은 북한북부 양강도 해산 등 압록강과 인접한 두 곳으로 심양에 주둔하고 있던 인민해방군 부대가 4월에 2개사단, 5월 1개사단이 각각 압록강지역에 파견됐음.</li> <li>◦ 국경부근에 다수의 북한주민이 식량을 요구하며 2~3백명씩 강을 건너려는 움직임을 보여 사단규모의 인민해방군을 파견해 7~8백명의 무장병력이 중국측 쪽을 경계했음.</li> </ul>
6. 11	<p>김영삼대통령, 북한식량난은 구조적 문제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협중앙회 주최 제5차</li> </ul>	<p>중·평방, 남한이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계획적인 도발행위를 감행했다고 보도</p>	<p>미 뉴욕타임스지, 북한 군량미 방출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구호단체 월드</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11	<p>농정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식량난은 수해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북한사회가 공산주의를 버리지 않는 한 식량난은 해결되지 않을 것임.</li> </ul> <p>권오기 통일부총리, 북한이 탈주민 수용시설 건립 내년 말까지 완공예정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차 안보정책회의</li> <li>○ 최근 급증하고 있는 탈북자 수용시설 건립을 서두르고 있으며, 경기도내 한 지역을 선정하여 1차로 1백명, 2차로 5백명 수용 규모의 시설을 내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임.</li> </ul> <p>강영훈 한적총재, 제1차 대북지원물자 수송계획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전화통지문</li> <li>○ 나는 지난번 귀측과 합의한 「남북적십자사이의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귀측에 전달될 우리측 구호물자 옥수수 기준 5만톤중 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일 우리 인민군은 전선 서부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330호부터 제0340호 사이에서 정상적인 순찰근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괴뢰들은 11시 05분경부터 35분경까지의 사이에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031호, 제0025호, 제0038호, 제0050호 근처에 설치된 전연방송을 통하여 순찰을 계속하면 대응조치를 취하고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12시 30분경에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211호 대밀에서 또다시 보복하겠다고 전쟁폭언 망동을 부렸음.</li> </ul> <p>조선학생위원회, 남한당국의 「한총련」 탄압 관련 학생선동 공개서한 발표</p> <p>외교부 대표단(단장, 부부장 이인규), 러시아 방문차 평양출발</p>	<p>비전 책임자 나치 오스 인터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심각한 기근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군비축미를 풀기 시작했으며, 북한은 군대가 기근으로 정권에 불만을 갖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li> </ul> <p>윌리엄 코언 미국방 장관, 남북통일뿐 수개월내 군통합 가능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세미나</li> <li>○ 미국은 남북한이 통일된 이후에도 한국정부의 반대가 없는한 아시아 지역안보의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을 계속 한반도에 주둔시킬 방침이며, 남북한 군사력의 통합은 몇개월 안에 달성될 수</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11	<p>번째 구호물자 수송계획을 통보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물품은 전경련이 기증한 옥수수가루 4천 2백톤, 천주교 한마음 운동본부가 기증한 옥수수 6천 4백톤, 정주영씨가 기증한 밀가루 1천톤, 북한 동포돕기 후원연합회가 기증한 라면 15만상자로 인도지점인 신의주 만포, 남양, 홍남항을 통해 6월 20일부터 27일까지 중국 측 화차편 및 한국직선으로 수송할 예정임.</li> <li>○ 신변안전보장과 관련 1차 인도요원에 대한 지난 6월 9일자 귀측 사회안전부장명의 신변안전보장각서의 유효기간을 알려주기바라며, 두번째 물자 인도요원과 승무원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각서를 보내주기 바랍.</li> <li>○ 인도인원은 1차때와 마찬가지로 북경주재 귀측 영사부에서 방문사증을 발급받되, 배편으로 방문하는 인원은 한적총재의 위임장으로써 방문사증을 대</li> </ul>		있을 것임.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11	<p>신하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생각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귀족이 이들 구호물자를 우리측 기증단체가 지정한 지역 및 대상자에게 전달하여 주기기를 기대함.</li> </ul>		
6. 12	<p>한적, 제1차 대북곡물지원 인도지점별 인도·인수 개시</p> <p>〈단동-신의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영기 지원과장 인터뷰</li> <li>○ 12일 2차례에 나눠 신의주로 1천2백톤을 수송하였음.</li> <li>○ 북적 홍보과장격인 이호림 부부장등 3명과 신의주 역사에서 인도·인수증서에 서명했으며, 신의주역에는 검수원 4~5명, 중국측 화물담당자 2명등 15명 가량이 업무를 담당</li> <li>○ 중국에서 곡물수송용 화차가 없어 이용하기가 어려우며, 그런만큼 제3국 경유가 아닌 판문점을 통한 직접 전달이 절실함.</li> </ul> <p>〈집안-만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표단 인터뷰</li> </ul>	<p>외교부 대변인, 미·일 방위협력지침 재검토 중간보고서는 조선반도 전쟁 시나리오라고 성명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다음아닌 우리공화국을 첫번째 목표로 선제 타결하기 위한 침략전쟁 시나리오이며, 미국의 언론들은 미·일간의 협력지침이 조선반도를 겨냥한 것이라고 여론화하고 있음.</li> <li>○ 그것이 사실이라면,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의 틀이라며 4차 회담을 실현시키려는데 극성인 미국이 대화상대방을 목표로 군사적 공격준비를 다그치는 진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오늘 의 사태는 우리로 하여금 대화에도 전쟁에도 다같이 준비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li> <li>○ 우리는 미국의 양면진술에 대처하여 대화에 높은 각성을 가지고 임하는 것과 함께, 만반의 군사적 태세를 갖추어 나갈 것임.</li> </ul>	<p>니컬러스 번스 미국 무부 대변인, 미·북 미사일협상에서 북한 생화학무기 규제 추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뉴스 브리핑</li> <li>○ 이번 회담은 대량 파괴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것으로, 미북 제네바 협정이 준수되고 있고, 북한의 핵활동이 동결되기는 했지만 핵분열물질이나 다른 비확산활동에 관련이 있는 사안들이 논의될 것임.</li> <li>○ 북한의 핵동결을 지속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를 완전히 해체하는 한편 한반도에서 북</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일 4백 80톤의 곡물을 만포로 들여보내고 13일 오전 만포에서 집안으로 귀환</li> <li>○ 집안과 만포간의 거리는 25Km밖에 안되나 산악 지형이어서 수송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림  〈도문-남양〉</li> <li>• 이계복 지원과장 인터뷰</li> <li>○ 12일 북측관계자들과 만나 13일부터는 매일 1천 톤안팎씩 보내기로 협의</li> <li>○ 지정기타곡물은 남측에서 지정한대로 국제적십자사 연맹요원의 입회하에 지정지역으로 분배하겠다고 약속했음.</li> </ul> <p>APEC환경회의, 대만핵폐기물 북한이전관련 한국입장 지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칠기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회의결과 브리핑</li> <li>○ 노창희 외무부분부대사는 연설에서 대만핵폐기물의 북한이전은 한반도와 동북아지역 환경에 피해를</li> </ul>		<p>한의 화학-생물학 무기의 위협을 제거해야 함.</p> <p>IAEA, 북한의 핵안정 협정 준수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 보도자료</li> <li>○ 북한의 핵동결 선언을 IAEA가 아직도 검증할 수 없으며 북한이 핵안전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li> </ul>

■ 6 月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12	<p>끼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핵폐기물의 이동을 규제할 역내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대표는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큰 만큼 핵폐기물 이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미국대표는 이 문제는 심각한 사안으로 여러국가의 우려에 동감을 표시하였음.</li> <li>○ 이에 대해 대만대표는 핵폐기물의 이동과 저장 및 보관등에 관한 국제적 안전기준을 준수토록 할 방침이며 안전규정을 준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 계획을 재고할 수도 있다고 밝혔음.</li> </ul>		
6. 14		<p>『북적』중앙위 위원장 대리 이성호, 제 1차분 두번째 수송계획 통보에 대한 회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남전화통지문</li> <li>○ 우리는 귀측의 두번째 전달물자를 6.20부터 인수하기 위한 적십자 인원들을 신의주·만포·남양과 홍남항에 각각 파견, 2일</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14		<p>간격으로 1,000톤 범위안에서 받으려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로로 오는 귀축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담보 각서는 6.17오후 3시 판문점에서 귀축 적십자 연락관에게 전달하게 될 것이며, 아울러 육로인도요원의 신변안전 담보각서는 5만톤에 대한 식량제공이 끝날때까지 유효함.</li> <li>○ 이 기회에 흥남항으로 보내려는 라면 15만상자는 쌍방향의서에 따라 1만상자로 줄이고, 강냉이나 밀가루로 대신해 줄것을 희망함.</li> <li>○ 입항하려는 귀축 선박의 제원, 승무원 명단, 입항날짜, 시간 등 필요한 자료와 육로로 오는 인도요원들의 사증신청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보내주기 바람.</li> </ul> <p>비전향장기수 구원 재중조선인본부 중남지구대책위, 미 대통령에 비전향장기수 송환요구 서한발송</p>	
6. 16	<p>유종하 외무장관, 대만해페기를 북한반출 포기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케이ابل 방송 출연</li> <li>○ 대만은 지금까지 북한만</li> </ul>	<p>평방, 김석우 통일원차관의 대북식량문제 발언 관련 비난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일 남조선 통일원차관 김석우는 우리가 더 많은 식량원조를 얻기 위해 자료를 조작하고 있</li> </ul>	<p>니컬러스 번스 미국 무부 대변인, 북한과 미사일회담 정례화 추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스 브리핑</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16	<p>이 해폐기물 수입의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중국이 반입 용의를 표명한 만큼 당연히 이를 받아들여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함.</p> <p>강영훈 한직총재, 대북물자 지원 인도요원 명단 및 선박 제원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전화통지문</li> <li>○ 두번째 구호물자 인도를 위해 귀족 지역을 방문하는 우리측 인도인원 12명 인적사항과 선박의 제원 및 승무원 13명의 인적사항을 통보함.</li> <li>○ 우리측 인원들은 6월 17일 오후 북경주재 귀족대사관에서 귀족지역 방문사증 발급절차를 밟게 된 것임.</li> <li>○ 만포로 보내려 했던 옥수수 3천톤은 집안의 수송여건이 여의치 않아 만포로는 2천톤만을 보내고 나머지 1천톤은 도문으로 보내어 남양에서 인도하게 되며, 따라서 남양으</li> </ul>	<p>다스니, 국방비를 5%만 줄여도 식량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며, 북조선의 자구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지원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문제를 다루는 통일원에서 대결과 반동만을 조장시키고 있는 현실은 남조선 통일원의 반민족적 정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li> </ul> <p>평방, 김정일이 수재로 남녘등포가 겪는 고통을 염려하여 84년 9월 28일 구호물자를 보내어 구제하였다고 보도</p> <p>『북적』 중앙위 위원장 대리 이성호, 대북지원물자 관련 항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남전화통지문</li> <li>○ 6월 12일부터 진행되는 식량 인도·인수과정에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이 통지문을 보내는 바, 육로로 들어오는 양곡들이 대체로 정량보다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 강냉이가투 속에 불순물 등이 발견되어 물의를 빚어내게 되었음.</li> <li>○ 우리는 쌍방합의에 의한 인도주의 사업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측과 미사일 비확산 문제에 관한 정례적인 회담을 갖기를 원하며, 이번 뉴욕 미사일 회담은 실무적인 회담이었으며, 우리는 앞으로도 북한측과 미사일 문제에 관해 진지하게 협의해 나갈 것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16	<p>로 들어가는 두번째 구호 물품의 양은 당초 3천 4 백톤에서 4천 4백톤으로 늘어나게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호물자탑 수송하는 우리측 선박은 6월 22일 부산항을 출항하여 6월 24일 홍남항에 입항하게 된 것이며, 우리측 인도요원들이 홍남항에 체류하는 동안 쌍방의 합의에 따라 남북직통전화 또는 국제전화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li> <li>○ 라면 15만상자의 지원문제는 이미 제품회사가 기중단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변경하기는 어려운 실정임.</li> <li>○ 나는 귀측이 성의를 가지고 구호물자탑 마련한 우리측 단체의 노력을 감안하여 선박을 통해 인도되는 이번 물품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지원품목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귀측의 희망을 고려할 것임.</li> </ul>	<p>되지 않도록 귀측의 조치를 기대함.</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17	<p>KEDO-북한간 3차 실무협상 개최 예정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수로기획단</li> <li>○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뉴욕 KEDO사무국에서 경수로 부지준비공사 착공을 위한 실무협상을 벌일 예정이다.</li> <li>○ 이번 협상에서는 지난 1~2차 협상에서 합의할 이루지 못했던 잔여통신 문제, 북측인력 및 물자 등 서비스 이용 실포부지의 진입도로 정비문제, 해상수송절차, 응급환자 발생시 처리방안 등을 포함하여 부지 준비공사 착공에 필요한 제반 선결사항들을 협의할 예정이다.</li> </ul>	<p>인민무력부 대변인, 북한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적들의 기도가 실행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비난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동해상과 서해상의 상륙훈련, 군사분계선의 불바다 위협설 등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기도는 명백히 우리를 공격목표로 정한 전투훈련의 일환임.</li> <li>○ 저들은 자연재해로 우리무력의 많은 부분이 사회주의 농업건설에 동원된 지금이야말로 저들의 선제공격에 가장 유리한 기회로 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음.</li> </ul> <p>남한 6월인민항쟁 10돌기념 평양시 보고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 : 장철, 류미영, 엄태준, 김영호, 백남준, 한시해, 신안방</li> </ul>	<p>일 교도통신, 북한의 원산·남포에 준경제특구 지정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외자도입을 통한 경제난 극복방안의 일환으로 동해안의 원산과 서해안의 남포를 각각 경제특구에 준하는 「보세가공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며, 북한 정무원은 이를 위해 곧 보세가공지역 지정에 관한 법률을 발표할 것임.</li> </ul> <p>국제사면위원회, 북한의 인권탄압실태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7년 연례인권보고서</li> <li>○ 북한은 양심범들에 대한 처형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으며, 처형보다 사회적 교화를 목적으로 형법이</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17			<p>개정된 이후에도 재판없이 개인에 대한 징벌이 행해지고 있음.</p> <p>○ 탄압의 주대상은 러시아에서 탈출한 빈목공들로 발목을 쇠사슬로 묶인채 본국에 송환되고 있으며, 인권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정기보고서를 북한측에 요구했으나, 보고서 제출만료 시한을 10년이나 넘기고 있음.</p> <p>일본NHK방송, 북반입 대만 핵폐기물 황해도 폐광지역 저장 보도</p> <p>○ 대만 원자력위원회는 17일 인터넷을 통해 북한내 핵폐기물의 저장 장소가 평양에서 남쪽으로 1백20킬로미터,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95킬로미터 떨어진 구</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17			<p>릉지대의 지하 2백 미터 폐광지역이라고 밝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에따라 북한내 저장소는 황해도 일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은 이미 이 폐광에 북한에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하고 있음.</li> </ul> <p>마이클 더블데이 미국방부 대변인, 북한 위협대비 한반도 지뢰사용 불가피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스 브리핑</li> <li>○ 한국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당분간 한반도에서 지뢰사용이 불가피함.</li> </ul>
6. 18	<p>한·미·북, 뉴욕 실무접촉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li> <li>- 한국 : 이수혁 주미한국대사관 정무참사관</li> </ul>	<p>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서기장 김정기, 미 카길사에 계약불이행 책임 비난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미국 카길사와 곡물과 아연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18	- 미국 : 마크민튼 미국무부 한국과장 - 북한 : 주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이근	구상무역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 며, 이행과정의 일부 의견차이로 아직 협의과정에 있음에도, 카길사는 국제사 회로부터 충분한 식량을 제공받게 된 조 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폐기하였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음.	
6. 19		김정일, "주체성과 민족성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 문제"라는 논문 발표  ○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 위업수행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원칙임. ○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구현하 여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치고 조국의 통일과 부강발전을 이룩해 나가야 하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부동 한 신념이며 의지임. ○ 제국주의 대한 환상과 공포를 없애 야 하며, 남조선 당국자들의 국제화, 세계화 소동은 민족적인 사상을 말살 하는 매국배족 행위임. ○ 제국주의의에 침략적 약탈성향을 깨닫지 못하고, 제국주의자의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19		<p>'원조'에 기대를 거는 것과 같은 어리석고 위협한 일은 없음.</p> <p>『농근맹』중앙위, 남한당국에 한총 련 해체 중단 촉구 비난 성명</p>	
6. 22		<p>조선사회민주당중앙위 · 조선기자동 맹중앙위, 남한당국의 『한총련』 탄 압과 해체관련 비난담화 발표</p>	<p>G-8 정상회담, 북한 에 미사일개발중지 및 4자회담 수락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성명(미 클린 턴 대통령 발표)</li> <li>◦ 북한은 탄도미사 일의 개발, 배치, 수출을 즉각 중단 하고 한반도 4자 회담과 남북한 대 화에 응해야 함.</li> </ul> <p>중국 신화통신, 유산 재 중국 대외무역경 제 협작부 부부장의 20억원 규모 대북지 원 언급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북한에 7만톤 의 식량을 무상원 조한 중국정부는 또다시 인민폐 2천 만위안 상당의 구 호물자를 무상 제</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22			<p>공기로 걸정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정부 초청으로 13명의 경제무역대표단을 인솔하고 21일 평양에 도착한 유부부장은 이날 홍성남 북한 정무원 총리 대행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정부의 걸정을 진탄했음.</li> </ul> <p>일본 니혼게이지아신문, 북한 1인당 국민소득 239달러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제출 95년도 1인당 국민소득 보고서</li> </ul>
6. 23	<p>강영훈 「한적」총재, 해로 통한 대북 구호물자 수송계획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전화통지문</li> <li>◦ 해로를 이용한 구호물자의 수송은 6월 23일 11:00 부산항을 출항하여 홍남항 묘박지에는 6월 25일 09:00경 도착할 예정임.</li> </ul>	<p>「북적」위원장 대리 이성호, 대북식량지원 제1차 지정기탁분 분배결과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남전화통지문</li> <li>◦ 나는 귀측의 1차분 식량제공 사업이 6월 19일까지 완료되지 못하고 품질면에서 일부 불량한 점들이 있었지만, 기증자들의 희망대로 해당 지역들에 정확히 분배되었음을 알리는 바임.</li> </ul>	<p>북한, 유엔분담금 감액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중앙통계국 경제지표 유엔에 제출</li> <li>◦ 북한은 최근 경제침체와 홍수피해 등으로 유엔분담금 규모를 낮춰 줄 것을 유엔에</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23	<p>○ 선박운항에 필요한 우리측 선박이 AHREN-KIEL 홍콩을 통해 귀측의 KOSA항과 연락할 수 있도록 협조바라며, 이번 해로 수송으로 귀측에 전달할 물자는 우리측의 선적 사정에 따라 당초 귀측에 통보한 것에서 일부 조정되 밀가루 1천 톤과 라면 10만상자가 될 것임을 알리는 바임.</p> <p>김영훈 『한적』총재, 제1차 세번째 구호물자 인도요원 인적사항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전화통지문</li> <li>○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세번째 구호물자 전달을 위해 귀측지역을 방문하는 우리측 인도인원들의 인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며, 우리측 인도인원들은 6월 26일 오후 북경주재 귀측대사관에서 귀측지역 방문시증 발급절차를 밟게 될 것임.</li> </ul> <p>&lt;인도지점별 인도요원&gt;</p>	<p>○ 나는 앞으로도 식량제공사업이 쌍방향의대로 1차분 제공과정에 나타난 결함들을 극복하면서 잘 되어 나가리라는 기대를 표시하며, 아울러 세번째 인도인원들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속히 보내 주기를 기대함.</p> <p>중통, 『북적』 중앙위 대변인이 남한단체들의 대북식량지원에 대하여 시의를 표명했다고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 대변인의 말에 의하면 북남적십자 단체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5만톤의 식량 가운데서 1차분에 해당하는 식량인도인수사업이 지난 6월 12일부터 19일까지의 사이에 진행되었다고 함.</li> <li>○ 이와 관련 적십자회 평안남도 위원회, 자강도위원회들에서는 우리측에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식량을 보내준 남조선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여러단체들에 사의를 표시했음.</li> <li>○ 우리측이 접수한 식량은 기증자들의 희망대로 해당 지역들에 모두 정확히 분배되었음.</li> </ul> <p>김정일, 제1106군부대의 섬 방어대</p>	<p>요청하면서 경제 관련 통계를 제시했으며, 북한은 그동안 총유엔 분담금의 0.05%인 연 60만달러를 유엔에 제공해왔음.</p> <p>&lt;북한의 경제관련 통계 지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외부채 : 95년 76억 5천만 달러 (88년 39억 3천만 달러)</li> <li>- 국민총생산 : 95년 52억 1천만 달러 (89년 1백 77억 달러)</li> <li>- 1인당 지엔피 : 95년 2백 39달러 (89년 9백 11달러)</li> <li>- 인구 : 95년 2천 1백 81만명 (88년 1천 8백 58만명)</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23	<p>- 신의주 : 천만석, 김상권, 광시영</p> <p>- 만 포 : 심건식, 최병일, 김계중</p> <p>- 남 양 : 송인범, 주기섭, 정상식</p> <p>김영삼 대통령, DMZ보존 남북합력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환경총회 연설</li> <li>◦ 한반도의 분단현장인 비무장지대의 자연생태계를 한반도 평화와 환경생명의 모범지역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남북한 협력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함.</li> <li>◦ 최근 동북아에서 막대한 양의 방사성 폐기물을 국경을 넘어 이동하려는 계획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가 합의한 「리우」 정신에 배치되는 처사임.</li> </ul> <p>김영삼 대통령,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총리와 대북 현안 문제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 환경총회 참석</li> <li>◦ 양국정상은 대북식량지원과 4자회담 실행문제와</li> </ul>	<p>방문</p> <p>비전향 장기수 김영태, 김인서, 함세환 등의 북한 가족들, 국제인권단체에 송환협조요청 편지 발송</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23	<p>관련, 한·미·일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대통령은 북한 식량난이 인도적 지원차원을 넘는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일본의 대북식량지원은 한·미·일 3국간 사전 협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시했음.</li> </ul> <p>국방부, 북한군 1명 이군 전방초소로 귀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월 23일 09시 17분경 북한군 하진사 1명이 경기도 서부전선 임진강 상류 지역을 통해 전방초소로 귀순해 왔음.</li> </ul> <p>대북지원물자 선적선박 부산항 출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일 오전 11시 밀가루 1천톤, 라면 10만상자를 실은 장영해운(주) 소속 제8 장영호가 부산항 제7 부두를 출항, 북한 흥남항으로 출발하였으며, 선원 13명과 적십자직원 3명 등 16명이 승선한 이 배는 25일 오후 흥남항에</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23	<p>도착 하역한 후 오는 29~30일께 부산항에 귀항예정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영호는 지난번 쌀 지원 때 문제가 된 인공기계양 사건과 관련, 이번에는 우리 영해에서는 태극기를 달고 북방한계선을 넘어서면서부터 적십자기계를 양하기로 합의하였음.</li> </ul>		
6. 24	<p>KEDO-북한, 채무불이행시 조치의정서 서명·발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수로 기획단</li> <li>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와 북한은 뉴욕에서 채무불이행시 조치의정서에 공식 서명하였음.</li> <li>동 의정서는 한·미·일 3국 정부대표를 포함한 KEDO대표단과 북한대표단이 40여일간의 협상을 통해 지난 5월 2일 합의한 문안에 대하여 관련 정부당국의 최종 검토를 거쳐 스테판 보스위스 KEDO사무총장과 히종복한 외교부 대사가 양측을 대표하여 서명함으로써</li> </ul>	<p>중통, 남한 언론의 남포해안 움막 정치범수용소 보도관련 남한당국의 중상모략이라면서 보복선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조선 동아일보는 6월 19일 북조선 남포부근 해안에 움막같은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한다고 안기부가 제공한 거짓기사를 보도했으며, 일본의 아사히 신문도 이런 거짓 기사를 보도했음.</li> <li>인덕정치를 펼치는 공화국에서는 정치범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정치범수용소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li> <li>우리는 남조선이 약물사건, 위조지폐사건, 암 달러화 거래사건, 움막집같은 정치범수용소 사건을 날조한데 대해 반드시 옹당한 값을 치루게 할 것임.</li> </ul>	<p>일본 요미우리신문, 북한의 부분적 시장 경제 도입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이 최근 나진·선봉 자유경제특구에서 북한 원화를 90분의 1로 평가절하하고 사기업을 허용하는 등의 본격적인 경제개혁조치를 취했음.</li> </ul> <p>독일 슈피겔지, 북한의 지난 4월 한국에 금매각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은 사망한 김일성의 85회 생일</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24	<p>써 정식 발효하게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무불이행시 조치의정서는 북한이 경수로 완공후 3년거치 17년 무이자 분할 상환토록 하는 내용의 경수로 비용을 제때 상환하지 않을 경우의 벌칙 내용임.</li> </ul> <p>조선일보, 김정일 퇴진촉구 사설 발표</p>	<p>중방, 남한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한총련」 지도부 검거 방침 결정 비난논평</p>	<p>을 호화롭게 치르기 위해 한국측에 1천9백80만달러어치의 금을 판았음.</p> <p>미 워싱턴 타임스지, 북한 외교부관리 6명의 미 핵무기시설 견학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외교부 미주국장 이형철을 단장으로 하는 6명의 외교부 관리들이 미 에너지부의 주선으로 뉴멕시코주에 있는 샌디어 무기관리센터의 핵무기 실험실을 견학했으며, 이들은 이달초 뉴욕에서 열린 미·북한 미사일 회담에 참석했던 북한대표단의 일원임.</li> </ul>
6. 25	<p>김영삼 대통령, 남북평화 토대위 통일추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합회 연설</li> <li>○ 우리는 남북이 평화의 토</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25	<p>대위에서 함께 번영하고 궁극적으로 통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녘의 동포들이 심각한 식량난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데도 군사력을 앞세운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은 조금도 변함이 없음.</li> </ul>		
6. 26	<p>외무부 대변인, 한·미·북 차관보급 3자협의회 개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 및 미국은 지난 4월 개최된 차관보급 4자 회담 공동선명 후속협의(4.16~21, 뉴욕)이후 3자간 실무협의 채널을 통해 상호관심사에 관해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 오는 6.30(월)뉴욕에서 3자간 차관보급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음.</li> </ul>	<p>중방, 남한의 공중경보기 구입보도 관련 결전을 마다하지 않을것이라고 위협</p>	
6. 27	<p>강영훈 『한적』총재, 대북지원 구호물자 4번째 수송계획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전화봉지문</li> <li>• 나는 5월 26일 「남북적십</li> </ul>	<p>평방, 조선일보 사설(6.24)관련 북의 존엄높은 정치체제를 모독했다고 비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남조선에서 언론재벌로서 보수우익의 선두주자인 조선일</li> </ul>	<p>중국, 북한에 대한 2백 40만달러 무상원조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은 27일 북한에 2백 40만달러</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27	<p>자 사이의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귀측에 전달될 우리측 구호물자 옥수수 기준 5만 톤중 네번째 구호물자 수송계획을 통보하며, 지난 6월 12일부터 시작된 구호물자 전달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육로를 통한 수송은 이번 네번째 수송을 끝으로 마무리하고자 함.</p> <p style="text-align: center;">〈수송계획〉</p> <p>1. 수량 : 옥수수 12,000톤</p> <p>1. 일자 : '97.7.6-7.15</p> <p>1. 인도인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의주 : 김봉우, 서동훈, 문일현</li> <li>- 만 포 : 김석우, 변만근, 이태원</li> <li>- 남 양 : 전원균, 이병원, 조영택</li> </ul> <p>○ 우리측 인도인원의 귀측 방문과 사증발급절차는 전례에 따를 것이며, 사증은 7월 3일 받기를 희망함.</p> <p>대북 구호물자 수송선 제8 장영호 부산항 귀항</p>	<p>보의 6월 24일자 반공, 반북 사설을 게재하여 우리의 참음성에 중지부를 찍는 도발적인 사실이 발생했음.</p> <p>○ 우리는 조선일보사를 더이상 남조선의 언론기관으로서가 아니라 민족내부에 대결의 불을 지른 간악한 범죄집단으로 인정하고 무자비한 보복타격을 가할 것임.</p>	<p>를 무상원조하기로 협정을 체결했음.</p> <p>○ 협정은 평양에서 유산재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부장과 김문성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간에 조인됐음.</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배는 당초 29~30개 귀항할 예정이었으나 북한측에서 밤샘작업을 요청해 19시간 30분만에 작업을 끝내 예정보다 빨리 귀항했음.</li> </ul>		
6. 28		<p>『북적』 중앙위 위원장대리 이성호, 대북 구호물자 제4차 인도분 인도 시기 변경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남진화통지문</li> <li>○ 귀하의 6월 27일부 진화통지문을 받았으며, 우리는 귀측에서 7월 6일부터 예견하고 있는 4차분 식량수송을 우리측 사정을 고려하여 7월 9일부터 하는 것으로 날짜를 조절하여 줄 것을 희망함.</li> <li>○ 귀측인원들의 우리측 지역 방문과 관련한 필요한 인적사항은 7월초에 넘겨주어 입국사증을 7월 6일경에 베이징주재 우리대사관 영사부에 가서 발급받으면 될 것임.</li> </ul> <p>『조평통』 대변인, 조선일보 사실 비난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안기부의 배후조종에 의하여 감행된 조선일보의 도발을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로 인정하</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28		<p>면서, 민족의 이름으로 규탄함.</p> <p>노동신문, 김영삼 대통령의 UN환경 특별총회 연설중 비무장지대의 세계적인 환경보존 모범화지역 지정 제안 거부 논평</p> <p>◦ 남조선은 콘크리트장벽 등 인공적인 장애물부터 허물어야하며, 분열을 영구고착시키려는 자들과 협력할 생각은 없음.</p>	
6. 29		<p>『조국전선』·『사민당』중앙위 대변인, 조선일보 사실관련 각각 규탄성명 발표</p> <p>김정일, 제671군부대를 방문</p> <p>•참석 : 조명록, 김영춘</p>	
6. 30	<p>한·미·북, 차관보급 3자협의에서 4자회담 예비회담 개최합의(뉴욕)</p> <p>•공동언론 발표문</p> <p>◦ 송영식 외무부 차관보, 찰스 카트만 미국무부 차관보 대리, 북한외교부 부부장 김계관은 1996년 6월 30일 뉴욕에서 3자회담 의를 갖고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p>	<p>4자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개최합의 공동언론 발표문</p> <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김계관 부부장과 미합중국 국무성 찰스 카트만 차관보대리, 대한민국 외무부 송영식 차관보는 1997년 6월 30일 뉴욕에서 3자회담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p> <p>〈합의사항〉</p> <p>-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한</p>	<p>요한 프리츠 IP사무총장, 북한의 조선일보 위협은 표현의 자유침해라고 비난</p> <p>◦ 조선중앙통신사의 보도는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전례 없는 행위이며 용납될 수 없으며, 언론사의 존재와 직원들의 생명을</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30	<p>〈합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합중국 및 중화인민공화국간 4자회담을 위한 차관보급 예비회담을 1997년 8월 5일 뉴욕에서 개최함.</li> <li>- 예비회담에서는 합의가 능한 가장 빠른 본회담 개최시기, 장소 및 의제 를 포함한 4자회담 본 회담에 관한 절차문제들을 협의 결정함.</li> </ul> <p>강영훈 한적총재, 대북구호 물자 인도인원 인적사항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 전화통지문</li> <li>• 나는 6월 28일 귀축이 보낸 전통문을 잘 받았으며 7월 9일부터 7월 18일까지 네번째 구호물자 전달을 위해 귀축지역을 방문하는 우리측 인도인원들의 인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함.</li> </ul> <p>〈인도지점별 인도인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의주 : 김봉우, 서동훈,</li> </ul>	<p>민국, 미합중국 및 중화인민공화국간 4자회담을 위한 부부장급 예비회담을 1997년 8월 5일 뉴욕에서 개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회담에서는 4자본회담을 위한 합의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 장소, 의제 등 절차적 문제 들을 토의 결정함.</li> </ul> <p>외교부 대변인, G-8 정상들의 북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사일 문제제기 비난</li> <li>◦ 우리는 미국 덴버의 8개국 수뇌자 회담의 공동코뮤니케에서 참가국들이 핵문제·미사일문제등에서 우리를 걸고든 데 대하여 주의를 돌리고 있으며, 참가국들이 조선반도의 평화안정을 바란다면 용당 조선문제를 공정한 주견을 가지고 대하여야 할 것 임.</li> </ul> <p>금수산기념궁전 성역화 완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일성 주석을 생전의 모습으로 안치한 금수산기념궁전과 그에 잇닿은 1천미터에 달하는 외랑, 근 10만평방미터의 규모로 펼쳐진 광장, 도로, 풍치림, 수목원 등은 주석의 영생을 기원하는 김정일 동지의 발기와 독창적인 명안에 의해 완성됐음.</li> </ul>	<p>위협하는 북한당국의 논평은 무시 무시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비난 받아야 함.</p> <p>미 워싱턴 타임스지, 북한의 크루즈미사일 시험발사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정찰기가 지난달 23일 북한 동북해안 안골 기지 인근에서 AG-1 대함미사일의 발사모습을 탐지했으며, 이 신형 미사일은 사정거리와 레이더 유도 형태가 중국제 CSS-2실크웜 미사일과 유사함.</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30	<p>문일현</p> <p>- 만 포 : 김석우, 변만근, 이태원</p> <p>- 남 양 : 전원균, 이병원, 조영택</p> <p>○ 우리측 인도인원들은 귀측 요청대로 7월 6일 오후 북경주재 귀측 대사관에서 입국사증을 받고자 하나 일요일인 관계로 발급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여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외무부 대변인, 일가족 등 탈북자 4명 서울도착 발표</p> <p>○ 독립국가연합(CIS)지역에 온거하다 우리나라로의 귀순을 희망해온 탈북자 4명(민문식, 한희숙, 민순영 등 가족 3명과 이성호)이 유엔난민 고등판무관의 도움으로 6.30(월) 서울에 도착하였음.</p>	<p>유엔환경특별총회 참가 북한대표단, 김영삼대통령의 비무장지대의 환경보전 모범화지역 지정제안 관련 비난담화</p> <p>노동신문, 제20 전투비행단 창설관련 북침을 위한 실동단계로 이행하는 증거라고 비난논평</p> <p>『중앙인민위』, 홍콩 반환 관련 강택민 중국주석에게 축전발송</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1	<p>외무부 대변인, 북한의 4자 회담 예비회담 합의 환영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4자회담을 수락하고 예비회담 개최에 합의해온 것을 환영하며, 4자회담에서 북한식량문제를 포함한 남북간 경제협력 문제도 긴장완화와 신뢰 구축 조치 차원에서 폭넓게 논의될 수 있을 것임.</li> </ul>	<p>『천도교 청우당중앙위』대변인, 조선일보 사설관련 규탄담화</p> <p>『한민전중앙위』, 조선일보 사설관련 규탄성명</p>	<p>존 딩어 미국무부 대변인, 미-북간 뉴욕서 양자협상개최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과 북한은 2일 뉴욕의 유엔주재 미대표부에서 양자협상을 갖으며, 이번 미-북회담은 4자회담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양자간 현안이 다뤄질 것이며, 북한측이 식량원조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임.</li> <li>○ 미 적성국 교역법에 따른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도 현재로서는 재검토될 단계에 있지 않음.</li> </ul>
7. 2	<p>KEDO-북한간 실무협상 타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수로 기뢰단 브리핑</li> <li>○ KEDO와 북한은 6.23부터 뉴욕에서 개최된 제3차 실무협상에서 통신,</li> </ul>	<p>외교부, 7.4공동성명 발표 25돌 관련 비망록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국통일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3대원칙에 따라야 함.</li> <li>○ 연방제 통일방안은 하나의 민족,</li> </ul>	<p>당국강 중국외교부 대변인, 중국 4자회담 적극참여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 평화안정</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2	<p>의료, 해상수송절차 및 북측 근로자의 임금수준 등 쟁점사항을 타결짓고, 보스위스 KEDO사무총장과 허종 북한 순회대사가 합의서에 서명함.</p> <p>〈합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측 인원·물자의 북한 출입 및 북한내 이동과 관련된 제반절차</li> <li>○ 북측이 제공할 서비스(용역), 노동력 등에 관한 사항</li> <li>○ 경수로공사 관련 기술·행정적 사항 등 총 19개 사안</li> </ul> <p>공보처 대변인, 북한의 언론보복위협 중단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북한이 연일 보복위협을 공언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국내외 언론이 벌이고 있는 항의와 이에 따른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음.</li> <li>○ 우리는 언론의 자유와 비판정신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반론의 대상이어</li> </ul>	<p>하나의 국가, 두개제도, 두개정부의 원칙에 기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자주적, 평화적, 중립적인 범민적 통일국가 창립을 목표로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을 단결의 이념기초로, 공존, 공영, 공리률 도모하고 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것을 단결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함.</li> <li>○ 통일을 위한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선반도 냉전의 산물인 정진체제를 대신하는 평화보장체제가 수립됨으로써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질서 유지에 전환적 국면이 마련될 것임.</li> <li>○ 조국통일 3대원칙은 북남대화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게 됨.</li> </ul> <p>『범민련』 북측본부·『한민진』평양 대표부 7.4공동성명발표 25돌 즈음 기자회견</p> <p>부총리 공진태, 방북국제농업개발기금 총재(파우지 하마드)일행과 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석 : 최수헌(외교부 부부장), 김영숙(농업위 부위원장), 주북 UNDP대표 참가</li> </ul>	<p>유지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는 일관된 기본 원칙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한반도내 새로운 평화보장체제 수립을 찬성할 뿐만아니라 4자회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한국진 정진협정 당사국이자 주변국가로서 4자회담에의 참여에 동의하며, 앞으로 회담 당사국들과 협력, 새로운 평화보장체제 수립과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li> </ul> <p>이카시 야스시 유엔 구호담당 사무차장, 북한의 유엔원조관련 투명성 요구 수용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경 기자회견</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2	<p>야 하며 어떤 형태의 폭력에 의해 침해되거나 탄압받을 수 없는 언론 고유의 영역임을 확인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는 북한의 일부정치, 사회단체 및 방송 등이 즉각 보복위협을 중단하고 이성을 되찾아 줄 것을 촉구함.</li> </ul>	<p>북한종교단체(조선기독교연맹·조선천도교회·조선불교도연맹·조선천주교인협회), 조선일보 보복경고 담화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선일보에 대한 우리인민의 보복의지는 단호하게 계속될 것이며, 북과 남의 종교인들은 조선일보 어용매문가들에게 준엄한 철퇴를 내리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 같이 떨쳐나서야 하며, 남을 건드리면 화를 입기 마련이며, 조선일보사는 즉시 사죄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에 요원들을 파견한 FAO, WFP, UNICEF, UNDP 등은 북한에 주민의 영양상태에 대한 광범한 조사 및 식량배포 확인을 위한 감시원 투입 등을 요구했음.</li> <li>북한이 유엔의 지원화대를 조건으로 9주에 걸쳐 2천개 가정에서 영양실태를 조사토록 허용하고, 유엔 요원이 어디든 방문할 수 있도록하고 20명의 감시원을 수용한다는데 동의했음.</li> </ul>
7. 4	<p>통일원 대변인, 「7.4남북공동성명」발표 25주년 즈음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4공동성명은 남북한이 대화를 통한 신뢰회복과 교류화대를 바탕으로 평화정책과 조국통일을</li> </ul>		<p>미 뉴스위크지, 중국의 한국전 남한의 북침주장 철회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뉴스위크 14일자</li> <li>중국공산당은 지난 반세기동안 견지해온 남한이 북</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4	<p>촉진시켜 나갈 것을 은 거레와 세계앞에 약속한 최초의 공동합의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4공동성명 발표이후 25년이 지나오면서 여러형태의 대화와 접촉이 성립, 단절, 재개되면서도 그 기본정신은 모든 회담 과정에 반영되었음.</li> <li>○ 특히 1992년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는 7.4공동성명의 정신과 내용의 구체적 이행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북한측이 「남북기본합의서」의 성실한 준수·이행을 통해 남북간의 화해, 협력시대를 개막하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해 나가기를 기대함.</li> <li>○ 아울러 이미 합의된 4자 회담에비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본회담을 개최함으로써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가 하루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임.</li> </ul>		<p>침했다는 주장을 포기하고 모택동의 참전결정을 비판하기 시작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공산당 기관지 「백년조류」는 모택동이 북한 김일성에게 전쟁을 승인하지 않았더라면 미국과의 전쟁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음.</li> <li>○ 모택동은 지난 50년 5월 베이징을 방문한 김일성에게 미국이 참전, 38선을 넘는다면 중국은 군대를 보내 북한을 도울 것이라며 전쟁을 최종 승인했음.</li> </ul> <p>유엔사령부, 현존의 대북 대화채널 유지 입장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군 사령부는 '94년 4월 북한군이 「군사정전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4			<p>에서 철수를 발표한 이래 유엔사령부와 북한군간의 장성급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여러 방도를 강구해 왔으며, 군사대화 채널의 목적은 기사와 같이 「잠정적 군사채널」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현존의 대화채널」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임.</p> <p>○ 유엔사령부 구성하는 모든 동맹국들은 군사정전위의 기능을 회복시키려는 유엔군 사령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으며, 또한 유엔사령부와 북한군간의 장성급 대화가 판문점에서 재개된다면 이는 각국의 대표성도 적절히 행사되는 것을 의미함.</p>

■ 7 月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군사령부는 남북간의 항구적 평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정전협정상의 감독기능을 계속 수행해 나갈 것임.</li> </ul>
7. 5		<p>중방, 북한내 이상고온현상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14~19간, 6.24~28간 전반적 지방들에서 낮 최고30~35도까지 올라갔음.</li> <li>○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해당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li> </ul>	
7. 6			<p>러 센터 텔레비전, 북한정권의 범죄성 방영관련 북한의 협박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일성사망 3주년을 계기로 김일성, 김정일 부자틀 비판하는 2회 특집 프로그램을 기획, 방영한 러시아의 전국망 방송인 센타 텔레비전은 6</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6			<p>일 오후 최종희 「김정일 왕조」 방송에 앞선 특별공고를 통해 “북한 대사관이 프로그램 진행자에게 위협을 했으며 이는 북한정권의 범죄적 성격을 입증해주는 것”이라고 보도했음.</p> <p>○ 센타 텔레비전은 아나운서멘트를 통해 김일성의 행태를 분석한 제1회 “붉은 김일성”이 방영된 직후 북한대사관이 프로그램 진행자인 레오니트 물레친 해설위원에게 전화로 그의 가족에게 위협을 가하겠다고 협박했음을 전했다.</p>
7. 7		<p>금수산기념궁전지구에 건립한 김일성「영생탑」준공식 개최</p> <p>•보고 ; 한성룡</p>	<p>수 치에 타오 대만 행정원 노동위 부위원장, 북한 노동력 수입방침언급</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만 7천평방미터의 부지면적과 680평방미터의 건축면적에 560여개의 천연화강석으로 총높이 92.52미터로 세워진 영생탑은 수령의 한생을 반영하여 탑신의 높이가 82미터로 되어 있으며 탑신의 양옆에는 82층이의 진달래가 부각되어 있음.</li> </ul> <p>금수산기념궁전지구에 건설된 아이산 금봉동굴 준공식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만연합보</li> <li>○ 대만은 동남아 4개국에 이어 북한과 베트남·남미 등에서 노동력을 수입키로 했음.</li> <li>○ 우리는 외국인근로자 정책을 수정 정부의 외교·경제정책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북한·베트남·남미의 노동자를 고용할 것임.</li> </ul>
7. 8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p>김일성사망 3주기 중앙추모대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모사 : 김영남</li> </ul> <p>연 설 : 최태복, 조명록, 최용해</p> <p>김정일, 금수산 기념궁전 참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 : 이종욱, 박성철, 김영주, 김병식, 강성산, 김영남, 계용태, 전병호, 이읍설, 조명록, 김영춘, 한성룡, 양형섭, 최태복, 김철만, 홍성남, 최영립, 홍석형, 김국태, 김기남, 김중린, 김용순, 백학립, 전문섭, 김복신, 김윤희, 장 철, 공진태, 윤기복, 이하일, 김일철,</li> </ul>	<p>유니세프 대변인, 북한어린이 영양부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보건당국 자료 인용</li> <li>○ 북한 보건부의 최신자료에 따르면 5세 미만 약 80만 명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으며 이들 중 10%는 심각한 상태임.</li> </ul> <p>중국신화통신, 중국</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8		<p>김익현, 전재선, 박기서, 이종산, 류미영, 김성애 등</p> <p>교석 중국 「전인대」위원장, 김일성 3년상 관련 주중 북한대사관 방문 조의</p> <p>• 중국공산당 명의 조화 헌정</p> <p>김정일, 조총련 의장 한덕수 접견</p> <p>중방, 중국의 8만톤식량 무상원조 보도</p>	<p>의 대북식량 8만톤 추기원조 보도</p> <p>○ 중국정부는 전통적인 우호 및 인도주의 차원에서 식량난을 겪고있는 북한에 식량 8만톤을 무상으로 원조키로 결정했음.</p> <p>○ 이같은 결정을 8일 북한정부에 통보했으며 이에 대해 북한측은 사의를 표했음.</p> <p>세계체육기자연맹-아시아 체육기자연맹, 북한의 조선일보 협박 중지 촉구 성명 발표</p> <p>스리랑카 타밀반군, 북한선박 납치</p> <p>• 스리랑카 군 소식통 인용</p> <p>○ 38명의 북한인이 탑승한 모란봉호(화물수송선)가</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8			<p>스리랑카 북부 해안에서 타밀 분리주의 게릴라들에게 반군거점인 동북지역으로 납치되었음.</p> <p>쿠르트 갬벨 미국방부 동·아태담당부차관보, 한·미간 북한난민사태 대비계획추진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상원 동·아태소위원회 북한청문회</li> <li>◦ 한·미양국은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한 대규모 난민사태 발생 등 위기상황에 대한 대책들을 강구하게 될 것임.</li> </ul>
7. 9	<p>김영삼 대통령, 북한에 대남 적화노선 포기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통자문회의 8기 출범식</li> <li>◦ 한반도에서 다시한번 무력충돌이 발생한다면 우</li> </ul>	<p>북한, 「주체 연호」 사용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중앙위·당중앙군사위·국방위·중앙인민위·정무원 결정서」</li> </ul> <p>〈결정서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중앙</li> </ul>	<p>세계신문협회, 북한의 조선일보 협박중단 요구서한 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세계 1만5천명의 신문 편집인들</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9	<p>리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며, 북한은 민족의 장래는 물론 자신들의 앞날을 위해서도 하루 속히 대남 적화노선을 포기해야 할 것임.</p>	<p>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무원은 "김일성 동지의 혁명역사와 불멸의 업적을 빛내 일대 대하여"라는 제목의 결정서를 채택하였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을 원년으로 하여 "주체의 연호"를 사용한다.</li> <li>2. 김일성이 탄생한 415을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로 한다.</li> </ol> <p>김정일, 김일성사망 3돌즈음 인민군 협주단의 추모공연 관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 석 : 김영춘, 현철해, 박재경, 계용태, 최태복,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최용해, 정하철, 이용철, 문성섭, 박송봉, 장성태</li> </ul> <p>「범청학련」북측본부, 한총련 간부 구속관련 규탄성명 발표</p> <p>조선기자동맹 중앙위, 조선일보 규탄성명</p>	<p>이 가입한 세계신문협회(FIEJ·회장 제이미 시로츠키)는 북한의 조선일보에 대한 협박을 중단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서한을 지난 9일 발송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공식 언론매체가 최근 한국 조선일보에 가하는 위협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표함.</li> </ul> <p>스리랑카 타밀반군, 피납북한선원 시신 인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적십자위원회(ICRC)</li> <li>◦ 스리랑카 북부 해안에서 북한 화물선 모란봉호를 납치했던 타밀반군이 9일 납치과정에서 사살한 북한선원의 시신 1구를 인도했음.</li> </ul>

■ 7 月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9			<p>니컬러스 번스 미국무부 대변인, 3차 대북 식량원조계획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그동안 WFP의 인도적 지원호소에 항상 부응해왔으며, 북한의 식량사정이 심각한 점을 감안 이번 호소들 긴급사안으로 다루어 결정을 내릴 것임.</li> <li>◦ 우리는 WFP의 대북지원요청을 접수했으며 이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매들린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이 곧 결정을 내릴것임.</li> </ul>
7. 10		<p>중·평방, 주체연호·태양절 지정 관련 인민들이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할 불같은 흥분에 휩싸여 있다고 보도</p> <p>「민민전」 방송, 황장엽기자회견 비난 및 4자회담 무산경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일보의 사실사태로 남북관</li> </ul>	<p>니컬러스 번스 미국무부 대변인, 4자회담 성사와 대북식량 지원 불연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미-북접촉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예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10		<p>계가 일촉즉발의 전쟁위협 상태에 들어간 이때 남조선 정부가 황가까지 내세워 이복을 자극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제 무슨 참사가 벌어질지 모르며 모처럼 빛을 보기 시작한 4자회담이 공중분해될 수 있음.</li> </ul> <p>「범민련」 해외 각지역 본부대표단, 남측당국에 북에 대한 지원금문제, 한총련 출범식 문제 관련 체포한 인사들을 석방하라고 규탄성명</p>	<p>회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며, 예비회담에서는 지난해 4월 한·미 양국정상 4자회담을 공식 제의한 이래 처음으로 중국이 참여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식량원조를 4자회담과 연계시키지 않았으며, 향후 4자회담이 열리더라도 미국이 정치적 이유로 북한에 대규모 식량원조를 제공하는 일은 없을 것임.</li> </ul> <p>미 워싱턴 타임스지, 중국핵미사일 한국겨냥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방부 비밀보고서 인용</li> <li>○ 중국은 한국, 대만, 일본, 러시아 인도 등 동아시아 지역일대를 겨냥,</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10			<p>핵탄두를 장착한 중거리 이동미사일을 배치중임.</p> <p>러시아 방송, 평양-블라디보스토크간 직항로 개설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 8월에 블라디보스토크와 평양사이에 직항로가 개설될 것이며 오늘(10일) 연해주 행정국 대표 겐나디 네소프와 조선민용항공총국 대표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음.</li> <li>○ 북한 유일의 국제항공사인 "고려항공"이 1주일에 한 번씩 비행할 것임.</li> </ul>
7. 11	<p>통일원 대변인, 황장엽 기자회견 관련 북한에 전쟁준비 중단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주민의 극심한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li> </ul>	<p>『한민전』대변인, 황장엽 기자회견 관련 대북선전포고라고 규탄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황이 기자회견에서 북의 전쟁준비와 무력납침에 대해서 목청을 높여 발설하였는데 이것은 피해</li> </ul>	<p>니키퍼스 번스 미국 무부 대변인, 내주초 대북 식량원조계획 발표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 세계식량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11	<p>국은 오로지 군사력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음이 황장엽씨의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의 증언에서 나타난 대로 북한당국의 이러한 무력추구 행위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극도로 위협하는 처사로서 우리는 온 국민과 더불어 우려를 금할 수 없음.</li> <li>○ 우리는 북한당국이 전쟁준비를 즉각 중단하고,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민족번영의 길로 함께 나갈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현재 협의중인 4자회담에 적극 참여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긴장완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되기를 기대함.</li> </ul>	<p>망상병자의 뉘드리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늘 전면도전에 나선 무모한 행위는 조선일보의 모략사설건이온 또하나의 위험천만한 대북 선전포고로서 의심할 바 없이 이것은 파멸의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li> </ul>	<p>회의 지원호소에 따른 대북 식량원조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으나 상황의 긴박성을 감안 곧 결정이 내려질 것임.</p>
7. 12	<p>권오기 통일부총리 주재 통일안보정책조정 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5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인 4자회담 예비회담과</li> </ul>	<p>북적 위원장대리 이성호, 강영훈 한적총재 앞으로 범민련 남측본부의 지원금 150만엔 수해지역에 전달사실 통보</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12	<p>관련 북한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과정에 동참하도록 관련 국가들과의 협의하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키로 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편 황장엽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전쟁준비 실태를 밝힌것과 관련하여 국방부에서 북한의 전쟁도발에 대비한 「종합점검반」을 설치 운영하는 등 범국민적인 안보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li> </ul> <p>강영훈 한적총재, 북적 위원장대리 이성호 앞으로 대북 물자지원계획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전화통지문</li> <li>○ 나는 5.26일 합의에 따라 귀측에 전달될 우리측 구호물자 옥수수 기준 5만톤중 최종분 수송계획을 통보하며, 이번 해로를 통한 수송으로 옥수수 기준 5만톤을 모두 전달하게 됨.</li> <li>○ 아울러 1차 지원분으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남전화통지문</li> <li>○ 귀측의 적십자사를 비롯하여 민간급 단체들이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우리측에 식량을 비롯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얼마전 남조선의 민간급 통일운동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가 공동사무국을 통하여 우리 적십자회에 강냉이 90톤분에 해당하는 일본돈 150만엔을 기증해 왔으며, 적십자회는 이를 우리 수해지역 인민들의 피해를 가시는데 쓰도록 정확히 전달하였음을 알림.</li> <li>○ 나는 귀 단체가 이사실을 범민련 남측본부에 알려 주기 바람.</li> </ul> <p>평방, 조선일보사에 보복 위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남한당국의 사주로 반공화국 모략선전에 앞장선 조선일보사와 그 패당들을 신성한 언론계의 이름을 더럽히는 집단으로 낙인하고 조선일보사가 폭파될 때까지 타격을 가할 것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12	<p>합의한 옥수수 기준 5만                      톤과 별도로 우리측 기준                      단체가 기탁한 비료 2천                      톤을 추가로 이번 해로편                      에 보내고자 함.</p> <p>· 〈수송계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송일자 : 7.21~7.28</li> <li>2. 수 송 편 : 우리측 선박</li> <li>3. 인도인수 지점 : 남포</li> <li>4. 인도인원명단 : 김길선, 김호성, 임해근</li> </ol> <p>○ 우리측 인도인원의 구체                      적인 인적사항과 물자수                      송을 위해 귀측지역에 들                      어가는 선박의 제원, 승                     무원의 인적사항 및 수송                      일정은 추후 통보할 예정                      임.</p> <p>강영훈 한적총재, 복적 중앙                      위 위원장 대리 이성호 앞으                      로 제3차 남북적십자 대표                      접촉 제의</p> <p>• 대북전화통지문</p> <p>○ 나는 제1차분 5만톤 지원                      의 전달에 대한 평가와                      제2차분 지원문제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고 오는 7.22일 판문점</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12	<p>이나 다른 편리한 장소에서 대표접촉을 가질것을 제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단은 쌍방적십자 사무총장(서기장)급을 수석대표로 각기 3명의 대표들로 하면 될 것임.</li> </ul>		
7. 13		<p>노동신문, 남한중부전선 실시 한·미연합대화력전훈련(7.9~11) 비난 논평</p> <p>비전향장기수 김인서 딸(김화심, 김정심)들, 클린턴 미대통령 부부에게 송환요구 편지 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와 인권옹호 환동에 명망이 높으신 힐러리 클린턴 여사께서 저희 아버지의 송환문제에 웅당 깊은 관심을 돌려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음.</li> </ul> <p>김인서 딸들, 뉴트 김리치 미국회하원의장에게 김인서 송환을 국회문제로 의제상정 요구 편지 발송</p>	<p>재일 조총련산하 상공단체 전간부들, 반북단체 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총련산하 상공단체의 전간부들이 최근 북한정부를 비판하는 단체인 「북한의 민주화와 재일교포의 내일을 생각하는 모임-민주무궁화」를 결성했음.</li> <li>○ 「민주무궁화」는 지난 7일 조총련 탈퇴자를 중심으로 한 51명으로 결성됐으며, 조총련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온 상공인들의 행동이라는 점에서 주목됨.</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13			<p>대만 연합보, 대만당국의 핵폐기물 북한 이전 첫승인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만 핵에너지위원회(AEC)가 현재 북한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저장시설의 설계와 환경영향 평가에 높은 점수를 주었으며, 대만당국은 실질적인 추가점검과 북한의 부지 사용승인을 받은 후 핵폐기물 이전 계획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li> </ul>
7. 14	<p>경수로 바지선 항로 시험운항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수로 기획단 브리핑</li> <li>○ KEDO는 경수로 사업에 투입되는 중장비와 물자 수송용 바지선 항로 시험운항을 15일부터 20일까지 울산과 북한 신포지역 양화항간에 실시함.</li> <li>○ 시험운항에는 11명의 선원이외에 KEDO사무국</li> </ul>	<p>민주조선사·평양신문사의 기자 및 편집원, 조선일보 사설관련 동아일보사와 서울신문사에 편지 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조선사와 평양신문사 기자 편집원들은 동아일보사와 서울신문사 기자·편집원들이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하여 남한당국의 시너로 전락된 반공모략지이고 탐욕적인 언론제벌인 조선일보의 반민족적 행위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애국애족의</li> </ul>	<p>중국-북한간 쌀 8만톤 지원문서 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북 중국대사 만영상과 북한대외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김문성간 서명(평양)</li> </ul> <p>니컬러스 번스 미국무부 대변인, 북한에 곡물 10만톤 추가원</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14	<p>경수로기획단, 한전, 한국중공업 관계자가 각각 1명씩 동승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운항 선박은 북측 해양 진입시부터 양화항 도착시까지 북한선박의 안내를 받으며 도선구역 도착시까지 태극기와 KEDO깃발을 함께 게양하되 도선구역에서 양화항까지는 아무 깃발도 게양하지 않게 됨.</li> </ul> <p>강영훈 「한적」총재, 「북적」위원장 대리 이성호 앞 북한 주민 사체인양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전화통지문</li> <li>○ 우리측 당국에 의하면 지난달 20일 오전 7시경 서해 소연평도 남서쪽 1.5마일 해상에서 귀측 지역으로부터 떠내려온 남자 사체 1구를 인양하였다고 함.</li> <li>○ 우리측 관계기관에서 사체를 병원으로 옮겨 안치한 후 사체 발견 지점 및 유류품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체</li> </ul>	<p>필봉을 추켜들리라는 기대를 확신함.</p> <p>「범민련」북측본부 대변인, 「범민련」남측본부 탄압관련 비난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민련 남측본부가 우리측 수해지역 인민들에게 지원금을 보내준 것은 뜨거운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만사람을 감동시키는 소행임.</li> <li>○ 이번에 김○○은 동포애에 기초한 인도주의적 활동을 탄압해 나섬으로써 그들이야말로 민족도 인도주의도 모르는 후안무치한 패륜아들이며 민족반역자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 주었음</li> </ul>	<p>조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정부는 유엔 세계식량계획의 지난 9일 대북 긴급지원 호소를 존중하여 이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북한에 지원되는 곡물은 미공법 480조에 따른 무상원조 형태로 제공될 것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14	<p>는 귀족지역 거주 민간인으로서 사망시점은 인양시점으로부터 한달정도 경과한 것으로 추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적십자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견지에서 이 사체를 귀족에 넘겨주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전례에 따라 판문점 적십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인도인수 절차를 협의토록 할 것을 제의함.</li> </ul>		
7. 15	<p>김석우 통일원 차관 주재 제1차 탈북자대책 협의회 개최 및 후원회장 임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에서는 새로운 정착금, 주거지원금의 지급기준과 대책협의회의 운영세칙을 정하고, 제1차 사회적응교육 실시 방안 등 정착지원시설 건립전(98. 11 완공 예정)시행대책을 논의하였음.</li> <li>○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영위에 필요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청사진 마련과 주거지원 대책 학력·자</li> </ul>	<p>북적 위원장 대리 이성호, 강영훈 한적총재의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제의에 대한 회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남전화통지문</li> <li>○ 귀하의 7월 12일부 전화통지문을 받았으며 나는 북남사이에 서기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쌍방 적십자 실무대표접촉을 가지되 이번 접촉이 지난번 접촉의 연속으로 되는 것인 만큼 접촉장소를 중국 베이징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봄.</li> <li>○ 접촉날짜는 7월 23일(수)로 하는 것이 좋겠으며 귀하의 답변을 기대함.</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15	<p>격·인정대책 취학대상자 보충교육 대책 등 향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도 점검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7.7.14 발효된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강성모 후원회 회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와 설립위원(강성모, 이병용, 최창근 등 후원회 이사3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였음.</li> <li>○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사회·종교·언론·경제계 등 민간 각계 지도급 인사 총 29명(4년 임기 이사 28명 및 3년 임기 감사1명 등)으로 구성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 및 심리상담, 생활지원, 직업지도, 취업 및 재취업 지원, 한가족 결연, 해외 탈북자 지원 등 민간지원사업과 필요한 모금사업(수익사업 포함)을 추진할 예정임.</li> </ul>		
7. 17		<p>조선아태평화위 대변인, 일본인처 고향방문 허용 결정 담화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조일본인 여성들의 일본방문</li> </ul>	<p>콕스 미 하원의원, '대북원조 금지법안' 제출</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17		<p>위한 실무문제 토의의견 표명</p> <p>중방, DMZ무장충돌은 계획적 도발 행위라고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침전쟁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남측의 무장도발 행위로 비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법통과시 美國 무부가 제공하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원조 전면 금지</li> </ul> <p>WFP 대변인, 각국에 대북식량원조 호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읊들어 원조한 식량은 4천6백만 달러어치 30만톤으로, 70만톤의 식량이 아직도 부족한 실정임.</li> <li>◦ 이는 읊 부족식량분 100 만 톤의 30%에 불과함.</li> </ul> <p>번스 미국무부 대변인, 북한의 옥수수 수출설 와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의 옥수수는 북한이 수출한 것이 아니고 단지 중국산을 북한항구에서 옮겨실은데 불과한 것으로 와전 보도되고 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18	<p>강영훈 한적총재, 구호물자인도인원 및 선박제원, 승무원 인적사항 등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전화통지문</li> <li>◦ 우리측 선박은 7.23, 11:00 부산항 출항, 남포항에는 7.25, 07:00도착 예정</li> </ul>	<p>북한, 의거 입북자 관련한 「군사위원회 결정」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거 입북해 오는 남조선 군인, 경찰, 공무원에게 공화국 공민으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표창, 장학금, 유학 등 생활상 편의 제공</li> </ul> <p>조선중앙통신사 등 기자 언론인, 조선일보 사설관련 「연통」 KBS 등 언론인에 편지 발송</p> <p>DMZ무장충돌관련, 외교부 대변인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이 합동조사도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정면에 나서서 무턱대고 남조선 당국자들과 합장을 벌여놓은 것은 4자회담과 관련한 미국의 진의에 대한 우리의 의구심과 경계심을 다시금 증폭시키고 있음.</li> </ul> <p>DMZ무장충돌 관련,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측이 우리의 잠정협정체결 제의와 조미군부간 장령급회담 제의를 무시하고, 남조선에 비무장지대 관리를 일임하지 않았던들 이번과 같은 극적인 사태를</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18		피할 수 있었을 것임.	
7. 19		<p>『북적』, 적십자 대표접촉 수락 대 남전통문</p> <p>『북적』, 서해발견 시체 관련 대남 전통문</p> <p>◦ 해당기관에 알아본 결과 우리의 경내에는 실종된 사람이 없음.</p> <p>미하원의 『테러국가와의 거래규제 강화법안』 가결 비난</p>	
7. 20	경수로 바지선항로 시험운 항선(코렉스챔프호) 귀환		<p>레이니 전 주한미국 대사 일행, 평양 도착</p> <p>• 김계관 외교부 부 부장 영접</p> <p>◦ 샘 년 전상원 군사 위원장, 스트라우 브 한국과 부과장, 리차드 핀 국방부 한반도담당관, 재 미교포 김석한 변 호사 동행</p>
7. 21	경수로사업관련 남북한 우 편물교환 시행  * 정보통신부 발표	<p>중방, 북한내 이상고온 및 가뭄에 의한 농작물 피해상황 보도</p> <p>◦ 지난 6-7월간 이상고온현상과 왕</p>	<p>코언 미국방장관, 북 한 전쟁도발시 파멸 언급</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간 우편물 교환이 오는 24일부터 국제우편으로 추진되며, 북한내 취급대상지역은 함남 금호지역내로 제한</li> </ul>	<p>가뭄이 계속되어 19일 현재 피해가 초보적 조사에 의하더라도 수십만정보에 이르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함남, 평남, 평북, 황해북도, 함북 농촌에 많은 피해를 입었음.</li> </ul> <p>방북중인 레이니 일행 동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과 담화</li> <li>○ 판문점대표부 이찬복 중장과 담화 및 최고인민회의 외교위 주관 연회 참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세계문제위원회 초청 연설(샌프란시스코)</li> <li>○ 북한이 한국을 공격한다면 단기간에 가공할 피해를 입힐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북한은 완전히 파괴될 것임.</li> </ul> <p>중국, 한국에 북한 특허정보 제공키로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특허청장회의(7.21, 북경)에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특허정보 및 자료의 제공에 합의</li> </ul>
7. 22		<p>북한이 위조달러를 인쇄·유통시켜 왔다는 보도 관련 한국의 안기부와 일본의 산케이신문이 짜고 꾸며낸 조작극이라고 보도</p> <p>방북 레이니 일행 평양출발</p> <p>북한주재 UNDP대 로메르·WFP대표 캅크렌·UNICEF대표 슐레젤 등,</p>	<p>미 국무부, 북한의 종교단체 설립배경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별 「종교의 자유」에 관한 평가 보고서</li> <li>○ 북한은 정권이익에 봉사하는 경우</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22		북한의 가뭄실태 파악하기 위해 평양시 시찰	<p>를 제외하고는 조직화된 종교활동을 억압하고 있으며, 최근 국제원조기구나 외국 교회단체들과의 교섭 등을 통해 정부의 후원하에 몇몇 종교단체들을 설립했음.</p>
7. 23	<p>제3차 남북적십자대표접촉 개최(북경)</p> <p>「한적」, 대북 1차지원 5만톤 중 최종지원분 북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5월 남북적십자 북경접촉에 따라 한적이 이달말까지 북적에 제공키로 한 옥수수 기준 5만톤의 식량 중 최종지원분이 23일 오전 동진상선(주) 소속 동진 나고야호에 실려 부산항을 출발했음.</li> <li>○ 최종지원분은 밀가루 1천톤, 라면 5만상자, 비료 2천톤으로 이틀뒤인 25일 평남 남포항에 도착해 북적측에 전달될 예정임.</li> </ul>		<p>미 뉴욕타임지, 북한의 일본인 처 고국방문 허용은 식량획득 전략이라고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당국의 일본인 처 귀국허용은 식량지원을 얻기 위한 전략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24	<p>김영삼 대통령, 북한의 대내외정책에 러시아의 역할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한중인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러외무장관 접견</li> <li>◦ 러-북간 신조약교섭을 통해 북한의 대내외정책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러시아의 역할을 기대함.</li> </ul> <p>김동진 국방장관, 미발견 땅굴 20여개 존재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통일·안보분야 정부답변</li> <li>◦ 군은 지금까지 4개의 북한군 땅굴을 발견했지만 각종 정보를 분석한 결과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땅굴도 20여개가 더 있는 것으로 판단됨.</li> </ul>	<p>콩고주재 북한 대사에 한봉춘 임명</p>	<p>미하원, 대북식량원조법안 통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원조를 WFP와 미국내 비정부단체로만 국한시키는 내용임.</li> <li>◦ 농업예산안에 첨부된 이 법안은 대북원조의 전면금지를 촉구한 크리스토퍼 록스 하원의원(캘리포니아주)과 인도적 차원의 원조는 예외로 하자는 내용의 토니 홀 하원의원(오하이오주, 지난3월 방북)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절충한 형태로 통과됐음.</li> </ul>
7. 25	<p>제3차 남북직접자 대표접촉 (7.23-25, 북경), 제2차 구호물자 전달관련 합의서 타결</p> <p>〈대표단〉</p>	<p>중방, 6-7월 가뭄피해 현황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해안 농촌들에서도 왕가뭄을 이겨내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6-7월 대부분 지방에서 가뭄이 계속되고 있으며, 평균기</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25	<p>남측 : 이병웅(수석대표), 조명균, 김장균                      북측 : 최경린(대표단장), 정영춘, 김성립                      &lt;합의내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적십자 쌍방은 7. 23-25 북경접촉에서 지난 1차 전달에 대해 평가하고 제2차분의 직접전달절차에 대해 합의.</li> <li>◦ 제2차분 구호물자는 옥수수 기준 5만톤, 품종은 옥수수 등 식량위주, 시기는 9월말까지로 합의.</li> <li>◦ 이번 합의에서는 국적 현지대표들이 우리측 구호물자 전달지역에 대해 분배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북측이 물자의 구체적 분배결과를 구호물자 전달후 20일 이내 문건으로 우리측에 통보하기로 함.</li> </ul>	<p>온이 예년보다 3-5도이상 높은 고온현상이 지속되고 있음.</p> <p>중통, 이상기후현상으로 인민경제 여러분야에 피해를 입고있다고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여일간 지속되고 있는 30도 이상의 무더위가 연속 무강수로 수원지들의 저수율이 10~20%에 이르고 저수지 620여개는 이미 바닥이 드러났음.</li> <li>◦ 피해현장은 29만여 정보에 달하여 알곡손실은 70만여톤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수확을 예측할 수 없게 되었으며 4만 6천여 정보의 산림이 산불피해를 보았음.</li> </ul>	
7. 26		<p>조국해방전쟁 승리 44돌 경축중앙 보고대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민무력부 1부부장 김일철 보고</li> </ul>	<p>북한주재 UNDP소조 대표 헤어스톤·UNICEF임시대리대표 슐레겔 등, 북한의 기뭇퍼해현장(황해도) 답사</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26			<p>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기구 일군과 대표단 성원들이 가뭄 피해가 극심한데 일치되게 인정했음.</li> </ul> <p>조선학생대표단 500여명 제14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차 쿠바도착</p>
7. 27		<p>비무장지대 무장충돌 관련, 외교부 대변인 담화 및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담화내용이 공식문건 S-5066호로 유엔안보리에 배포</p>	<p>예브게니 프리마코프 러 외무장관, 북한의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F)포함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 상황이 이 지역의 가장 긴급한 문제이며, 지역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에 북한을 포함시켜야 함.</li> </ul> <p>아세안지역 안보포럼 (ARF), 한반도 정전 협정 계속유지 성명 채택</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차 외무장관회의 의장성명(21개국)</li> <li>◦ 한반도내 영구적 인 평화체제가 수립되기 전까지는 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이 유지돼야 함.</li> <li>◦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수립하기 위한 4자회담의 최근 진전을 환영하며, 지역내 핵폐기물의 국가간 이전이 기존의 국제 안전기준과 규범에 부합돼야 하며 적절한 처리 및 저장시설이 없는 나라로의 이전을 금지토록 국제사회가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함.</li> </ul>
7. 28	<p>통일원 대변인, 남북인사 송환촉구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승운씨가 '95.7.9 중국 연길시에서 납치된 사건과 관련 중국정부는 유죄</li> </ul>	<p>범민련, 제8차 범민족대회 개최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국통일범민족대회 공동사무국은 7월 26일 범민족대회를 8월 14일에서 15일 사이에 판문점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음.</li> </ul>	<p>미의회부설 미평화연구소, 한반도 재래식 무기 감축 필요성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문제 전문가</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28	<p>판결을 받은 이경춘이 형기가 만료됨에 따라 '97.7.28 북한으로 강제추방될 예정임을 우리정부에 알려왔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안승운씨가 북한 당국에 의해 강제로 납치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해 졌음에도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안승운씨의 즉각 송환과 책임있는 북한당국자의 사과 및 재발방지 조치를 촉구함.</li> <li>○ 고상문씨와 동진호 선원 등을 비롯하여 그동안 북측의 불법행위에 의해 강제납북된 대한민국 국민들의 즉각 송환을 촉구함.</li> </ul> <p>KEDO 현장사무소 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수로 기획단 브리핑</li> <li>○ 7.28(월) KEDO는 함경남도 금호지구에서 KEDO 사무소를 개설하였음.</li> <li>○ KEDO 금호사무소에는 한·미·일 3국에서 각</li> </ul>	<p>『조선아·태위』, 미·일안보 협력 지침 개정관련 비난 담화 발표</p> <p>부주석 이종옥, 덴마크 공산당 막스 레닌주의 중앙위원장 일행 집견</p> <p>농업위원장 한익현(59세)사망</p>	<p>정책실무협의 보고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향후 한반도 4자회담을 통해 남북한간의 재래식무기 감축협상을 주도해야 함.</li> <li>○ 식량난과 북한내 정치적 불안정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있음.</li> </ul> <p>북한, 이집트에 스킨드 B미사일 부품 및 기술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군사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li> </ul> <p>일본 요미우리 신문, 일본인 처 고향방문 진전되면 북-일간 국교정상화 회담 재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정부는 일본인 처 고향방문 문제를 협의할 북-일 외무부 심의관급</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28	<p>각 2명씩의 대표가 근무하게 되며, (단 일본은 당분간 1명 근무) 우리측에서는 외무부 이현주 서기관(정대표)과 서훈 서기관(부대표)이 근무하게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호사무소는 경수로사업 추진과 관련 KEDO와 북한과의 연락업무와 북한에 체재하게 되는 KEDO인원에 대한 영사 보호업무 등을 수행하게 될 것임.</li> </ul> <p>외무부 대변인, 북한인에 의한 안승운 목사 납치사건 관련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5.7.9 중국 연길시에서 발생한 안승운씨 납치사건 관련, 중국정부는 중국사법당국에 의해 “불법감금 및 불법출경죄”로 “유기징역 2년과 강제추방”의 유죄판결을 받은 북한인 리경춘이 형기가 만료됨에 따라 97.7.28 북한으로 강제추방될 예정임을 우리측</li> </ul>		<p>집측에서 진전이 있을 경우 국교정상화 협상재개를 제안한다는 방침을 정했음.</p> <p>미 하원, 4자회담 지지 결의안 통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안정에 봉사하여 온 미국을 지지하며, 분쟁해결에 성실한 노력을 기울인 한국을 지지함.</li> <li>○ 한반도 분쟁의 해결을 위한 4자회담을 지지함.</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28	<p>에 알려왔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정부는 안승운씨의 원상회복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동 사건의 주모자가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는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다시한번 중국정부에 대해 안승운씨의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음.</li> <li>○ 정부는 앞으로 유엔인권위원회 등에 본건을 제기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안승운씨의 원상회복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임.</li> </ul>		
7. 29		<p>『범민련』북측본부 의장단 회의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차 범민족대회 북측준비 위원회 구성(위원장, 백인준)</li> </ul> <p>『조평통』서기국, 남한당국이 한총련을 탄압하고 있다고 규탄 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1부터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방침은 8.15를 계기로 남조선에서 예상되는 청년학생들의 대중적 통일행사를 차단해 보려는</li> </ul>	<p>일본 나가노시, IOC에 북한 특별참가 요청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년 2월 동계 올림픽을 주최할 예정인 일본 나가노시는 국제 올림픽 위원회에 북한의 특별참가를 허용토록 요청할 계획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29		악랄한 책동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쓰카다 다스쿠 나가노시장이 북한을 방문했던 일본인으로부터 북한의 특별참가 희망을 전달받고 오는 9월 IOC총회에 북한의 희망을 보고하겠다고 말했음.</li> </ul>
7. 30			<p>미의회, 대만핵폐기를 북이전 반대법안 작성(홍콩 성도일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상·하양원은 대외관계 일괄법안에 포함된 한 법안에서 북한이 대만 핵 폐기물 이전 대가로 지금 받기로 계약한 2억 2천만 달러를 군사력 확장에 전용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하고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 대만에 대해 그 같은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31	<p>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북의 조선일보 테러위협 펜총회 보고</p> <p>◦ 이 문제를 오는 5일부터 영국 에딘버러에서 열리는 국제 펜(PEN)세계대회 총회에 정식 보고하고 북한의 테러리즘을 총회 이름으로 규탄할 것임.</p>	<p>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북측본부 대변인, 재야단체들에 범민련 남측본부 및 한총련과 8.15행사 공동개최 촉구 담화</p> <p>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이근, 4자 예비회담서 평화협정과 주한미군문제 의제 거론 예정 언급</p> <p>◦ 오는 5일부터 뉴욕에서 열리는 4자회담 예비회담에서 평화협정 체결문제와 주한미군 처리문제를 기본의제로 삼을 것임.</p> <p>조선학생위원회 대변인, 8.15통일행사를 남조선의 모든 단체가 단합하여 개최할 것을 촉구</p>	<p>독일기업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유한회사(DKR), 북한에 페플라스틱 수출</p> <p>◦ 4만 5천톤의 고체 플라스틱 쓰레기와 8천톤의 플라스틱 포장지를 북한에 수출하기 위해 최근 독일 니더 작센주에 수출허가 신청을 했으나 환경단체들은 북한과 독일기업을 비판하고 있음.</p> <p>캐서린 버티니 세계식량계획 사무국장, 북한 가뭄피해 상황 언급</p> <p>◦ 올 여름의 가뭄으로 북한의 식량수확중 70~100만톤의 감산이 예상되며, 식량수확량에 대한 식량농업기구와의 공동 평가결과 이같은 결론을 얻었으며 이는</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31			<p>전체 수확량의 20~25%에 해당된.</p> <p>어니 미세크 카길사 회장, 세계각국의 무상식량원조 이유로 대북바터무역 계약 파기 언급</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1		<p>김일성대 학생위원회, 남한당국이 한총련을 와해시키려하고 있다고 규탄성명</p> <p>◦ 남한당국은 한총련 산하 각 대학 총학생회들에 마수를 뻗치고 있으며 비열하고 파렴치한 수법으로 한총련을 와해말살 하기 위한 공작을 벌이고 있음.</p>	
8. 2		<p>『조선학생위』·범청학련 북측본부, 한총련 탄압 저지위한 비상확대회의 개최</p>	
8. 4	<p>대북 경수로관련 남북간 통신 개통</p> <p>•경수로기획단 브리핑</p> <p>◦ 대북 경수로 원전건설 현장인 북한의 함경남도 금호지역과 남한간 통신서비스가 '97.8.4(월)부터 전용회선 8회선으로 개시됨.</p> <p>◦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은 7.2 뉴욕 실무협상에서 북한의 건설현장과 남한과의 국제전화(IDD)는 부지정 지공사 완료 또는 공사착공 후 14개월 시점중선</p>	<p>평방, 인기부의 황장엽리스트는 반공화국 대결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비열한 정치모략극이라고 보도</p> <p>한총련 관련 평양시 청년학생집회</p> <p>•참석 : 최취(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중앙위 비서), 박관오(김일성종합대학 총장)</p> <p>◦ 남조선 인민들과 재야단체들은 김○○일당의 한총련 파괴책동을 묵인하지 말고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한총련을 끝까지 고수하기를 열렬히 호소함.</p> <p>평양-블라디보스톡간 정기항로 개설</p>	<p>KEDO 금호사무소에 일본 외무성직원 상주 예정</p> <p>◦ 일본정부는 지난 7월말 북한 함경남도 금호에 개설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현지사무소에 외무성직원을 1개월 단위로 교대근무케 할 예정으로 이번주 중 현지에 파견할 것임.</p> <p>독일 슈피겔지, 북한</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4	<p>도래시기에 개설키로 합의한 바 있으며, 부지착공 후 24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KEDO는 독자적인 위성통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최선부족에 따른 통신상의 불편함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p> <p>○ 이러한 통신연결을 위해 KEDO-북한간 『통신의 정서』('96.7 발효)에 기초하여 한국통신-KEDO간 “통신지원에 관한 협정서”(‘97.5) 및 한국통신-일본KDD간 “통신중계에 관한 양해각서”(‘97.6)를 체결하였고, 지난 7.2에는 KEDO와 북한간에 “통신에 관한 양해각서”를 채택한 바 있음.</p> <p>미군유해 4구 판문점 통해 송환</p> <p>○ 한국전 당시 북한지역에서 사망한 미군유해(4구)가 판문점을 통해 송환되었음.</p>	<p>○ 북·러 민항기관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평양-클라디보스톡 사이에 정기항로가 개설됐으며 이 정기항로의 비행기는 평양에서 매주 일요일 10시 50분에 출발했다가 같은날 17시 30분에 돌아 오게됨.</p> <p>카를 빌라미 UNICEF 집행국장 일행, 방북</p>	<p>의 수입페프리스틱 중국에 매각 보도</p> <p>○ 지난 95~96년 독일이 북한에 수출한 플라스틱 폐기물중 상당부분이 북한에 의해 경화틀 받고 홍콩을 통해 중국 구매자에게 곧바로 인계됐음.</p> <p>유엔기구, 북한의 가뭄으로 옥수수 수확 70%감소 전망</p> <p>• 공동발표문</p> <p>○ 유엔개발계획, 식량농업기구, 유엔아동기금, 세계식량계획 등 유엔산하기구들과 스위스 재난구호는 북한이 61년만의 한발로 올해 전체 옥수수 수확량의 약 70%인 1백 50만톤 가량이 줄어 식량부족이 극심해질 것임.</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4	<p>○ 이와관련 미국방성 유해 담당 부과장 리오따 중령은 브리핑에서 송환 유해는 '50.10 사망한 8기갑 연대 장병으로 보인다고 하였음.</p> <p>정원식 한적총재, 제2차 대북지원계획 통보</p> <p>• 대북전화통지문</p> <p>○ 지난 7월 25일 대표접촉에서 합의한 대로 귀축에 전달된 2차분 구호물자 옥수수기준 5만톤중 첫째 물자 수송계획을 통보함.</p> <p style="text-align: center;">〈육로수송〉</p> <p>- 품명 : 옥수수 6천톤                      - 일자 : 97.8.13~19                      - 수송차량 : 중국화차                      - 인도지점 및 인도인원                      신의주 : 한규석, 서명용, 김길수                      만 포 : 김상유, 김의도, 정성태                      남 양 : 서정태, 최창순, 서일선</p> <p style="text-align: center;">〈해로수송〉</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명 : 밀가루, 식용유, 분유(옥수수기준6친분)</li> <li>- 일자 : '97.8.12~18</li> <li>- 수송방법 : 우리측 선박</li> <li>- 인도지점 및 인도인원 남포 : 박병대, 이상무, 최재영</li> <li>○ 세부적 수송일자와 물량, 선박의 제원 등은 수송전에 문건으로 귀측에 다시 통보할 것이며, 우리측 인도인원·승무원·선박에 대한 무사귀환 및 신변안전 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li> <li>○ 우리측 인도인원은 쌍방 합의에 따라 심양주재 귀측 총영사관에서 방문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며, 국제적십자사연맹 대표들이 지정분배지역, 분배결과를 확인할수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과 구체적인 분배내역을 우리측에 통보해 주길 희망함.</li> </ul>		
8. 5			러시아방송, 북-러간 북영공 통과 서울 비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5		<p>중방, 을지포커스랜즈 합동훈련(8. 18~29)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실상 간판을 바꾼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의 위장임.</li> </ul>	<p>행 논의 보도</p>
8. 6		<p>외교부 대변인, 정전협정 준수용의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차 아세안지역 연단회의의 의장 성명에서 현 정전협정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음.</li> <li>◦ 이것은 우리의 입장과 유사하다고 보며, 우리가 내놓은 평화보장체계 수립 제안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관리, 무장충돌과 돌발사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여기에서 기본 당사자는 우리공화국과 미국임.</li> <li>◦ 미국측에 의하여 정전체계가 마비된 지금조건에서 군부장령급 회담을 대치하여 정전기구를 대신하는 구속력있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우리는 상대방과의 협상에서 융통성을 보일 준비가 되어있음.</li> <li>◦ 물론 새로운 제도적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조선정전협정은 유지</li> </ul>	<p>일본 산케이 신문, 북한의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곡물 50톤 지원요청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 무상 곡물지원을 요청했음.</li> <li>◦ 지난달 초순 탄자니아 정부에 옥수수와 감자 등 곡물 50톤을 무상 원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탄자니아는 북한측의 진의를 몰라 회담을 보류하고 있음.</li> </ul> <p>미 뉴욕타임스지, 북한의 식량난 해결위해 4자에비회담 참석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린턴 행정부 관리들은 북한이 4</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6		<p>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며, 우리는 실제로 조선정전 협정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계속 인내성 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임.</p> <p>외교부 대변인, 을지 포커스렌즈 비난 성명</p> <p>○ 뉴욕에서 진행되는 4자 예비회담 개최를 앞두고 을지 포커스렌즈 합동군사연습에 관한 발표는 대화 상대방에 대한 도발이며 우통임.</p> <p>『조평통』대변인, 을지포커스렌즈 합동군사훈련 실시관련 규탄성명 발표</p> <p>북한주재 UNICEF대표부 개설</p>	<p>4자 예비회담에 참가하는 것은 관계 개선에 대한 순수한 관심보다는 심각한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음.</p> <p>알렉산더 디우너 호주 외무장관, 대북 식량지원금 2백60만달러 추가제공 언급</p>
8. 7	<p>4자회담 제1차 예비회담 개최(8. 5~8. 7, 뉴욕)</p> <p>〈각국 기조발언 요지〉</p> <p>- 한국(송영식 외무부 제1차관보) : 본회담은 예비회담에서 절차문제에 합의한 후 늦어도 4주 이내 열리, 회담장소는 4국 윤번제로하고, 대표단의 수</p>	<p>북-인도정부간 「'97-'99년도 문화교류계획서」조인</p> <p>신상군 당 중앙위 부장겸 중앙위원(85세) 사망</p> <p>중방, 문민정부의 8.5 개각은 궁여지책의 산물이라고 비난논평(8.7)</p>	<p>독일 한델스블라트지, 북한주민 기아위기 보도</p> <p>• 세계기아원조기구 발표인용</p> <p>○ 지난달 3주간 북한을 방문했던 「세계기아원조기구」의 후베르투스</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7	<p>준은 장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되, 교체수석대표는 차관급으로 할 것.</p> <p>-북한(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 한반도 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평화협정은 미국과 북한간에 체결되어야 하며, 주한미군 문제도 4자회담에서 논의되어야 함.</p> <p>-중국(진 진 외교부 부장 조리) : 한반도에는 대결 구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법률적,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므로 중국은 남북간 화해, 미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및 통일을 지지함.</p> <p>-미국(찰스 카트만 국무부 부차관보) : 4개국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해 지난 44년간 지속돼온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바꾸는 대화를 시작한 것은 큰 정치적 용단이며, 미국은 4자회담의 성공을 위해 모든 과정에서</p>		<p>뒤피씨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저장식량이 수주일 내에 바닥날 것이며, 전체주민 2천만명중 5백70만명이 위기에 빠져 있다고 전언</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7	<p>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p>		
8. 8	<p>강영훈 한직총재, 제2차 대북 지원 첫번째 수송계획 통보</p> <p>•대북서한</p> <p>○ 나는 지난 8월 4일 구호 물자 지원과 관련, 귀측 지역을 방문하는 우리측 인도인원의 인적사항과 선박의 제원 및 승무원 인적사항을 통보함.</p> <p>〈육로수송〉</p> <p>- 인도지점 : 신의주, 만포, 남양</p> <p>- 인도인원 : 한규석 등 9명</p> <p>〈해로수송〉</p> <p>- 인도지점 : 남포</p> <p>- 인도인원 : 박병대 등 3명</p> <p>- 선박제원 및 승무원 선박명 : 동진나고야</p> <p>국 적 : 대한민국</p> <p>선 주 : 동진상선(주)</p> <p>등록항 : 부산</p> <p>승무원 : 선장 이승우 등 15명(필리핀인 5명포함)</p> <p>○ 육로로 귀측을 방문하는</p>	<p>북적위 위원장대리 이성호, 대북지원물자 인수계획 통보</p> <p>•대남전화통지문</p> <p>○ 귀측이 우리에게 2단계로 전달할 식량을 예정대로 8월 12일부터 인수하기로 우리측 적십자인들을 인도·인수 지점인 신의주·만포·남양과 남포항에 파견할 것임을 알리는 바임.</p> <p>○ 우리측 지역에 오는 귀측인원들의 신변안전보장 각서는 8월 11일 오전 11시 판문점에서 우리측 적십자 연락대표가 귀측 적십자 연락원에게 전달할 것이며, 입국사증은 심양주재 우리 총영사관에서 발급하도록 할 것임.</p> <p>○ 위와 관련 사증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속히 보내주기를 희망함.</p> <p>외교부 대변인, 「4자회담 예비회담」결과 소극적 평가</p> <p>○ 지난 5-7일 예비회담 결과는 기대에 못미치고 있음.</p> <p>○ 예비회담에서는 의제문제를 비롯한 핵심사항에 이견이 제기됨.</p>	<p>독일 협력개발부, 대북 추가식량지원 발표</p> <p>○ 지난 5월 WFP에 공여키로 합의한 4백만 마르크에 이어 「독일재해원조」에 1백만 마르크를 기증, 이 기관을 활용 추가 식량 지원 방안 강구 발표</p> <p>美 국무부 대변인, 주한미군 문제를 4자회담 포괄의제 채택 가능 입장 발표</p> <p>○ 제임스 루빈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주한미군 문제를 단독의제로 정하는 것은 바라지 않지만 미국이 한국에 군대를 파견한 이유를 본회담에서 다룰수 있다는 입</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4			<p>에서 철수를 발표한 이래 유엔사령부와 북한군간의 장성급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여러 방도를 강구해 왔으며, 군사대화 채널의 목적은 기사와 같이 「잠정적 군사채널」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현존의 대화채널」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임.</p> <p>○ 유엔사령부 구성하는 모든 동맹국들은 군사정전위의 기능을 회복시키려는 유엔군 사령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으며, 또한 유엔사령부와 북한군간의 장성급 대화가 판문점에서 재개된다면 이는 각국의 대표성도 적절히 행사되는 것을 의미함.</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8	<p>우리측 인원들은 8월 11일 오전 심양주재 귀측 총영사관에서 방문사증 발급절차를 밟게 될 것이며, 해로로 방문하는 인원은 한적총재의 위임장으로 방문사증을 대신할 것임.</p> <p>○ 우리측 구호선박은 8월 12일 오전 인천항을 출항, 8월 13일 오전에 남포항 묘박지에 도착예정임.</p> <p>○ 아울러 우리측 인도인원 승무원·선박에 대한 귀측의 무사귀환 및 신변 안전보장서류를 조속히 보내주기 바라며 쌍방향의에 따라 육지에서의 숙식 등 편의제공과 남북직통전화 또는 국제전화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바람.</p>	<p>○ 의제로 제기한 조.미 평화협정 체결과 미군 철수문제는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한 열쇠이며 북남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p>	장 표명
8. 10	<p>정부, 신포 금호지구를 국내 사업장으로 규정</p> <p>○ 헌법3조(영토조항)에 의거 경수로 사업장을 국내</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10	<p>사업장으로 유권해석함에 따라, 국내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관련법(산업재해 의료보험법 등)적용</p>		
8. 11		<p>북적위원장 대리 이성호, 한국의 제 1차 대북식량지원 분배내역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남전화통지문</li> <li>◦ 제1단계 구호물자로 옥수수, 밀 가루, 라면, 비료 등을 접수하여 자강도, 양강도, 강원도, 황해남북도, 조선기독교연맹 평안북도 농업위원회에 각각 전달했음.</li> </ul> <p>미하원정보위 대표단 (단장 포터 고스) 평양 출발</p>	<p>로이드 엑스워드 캐나다 외무장관, 북한에 식량 3백2십만 달러 추가지원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캐나다 정부는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에 추가식량원조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북한이 계속 대외개방을 하지 않고 있지만 심각한 인도적 상황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음.</li> </ul>
8. 12	<p>김영삼대통령, 북도발 첩자 대비 지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7 읍지연습 보고회의</li> <li>◦ 북한이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민족의 파멸을 가져올 전쟁을 반드시 막아야 함.</li> </ul>	<p>북한 외교부 대표단과 스위스 외무성대표단간 회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축산분야의 중·장기협조 방안, 경제무역관계 발전에 관한 문제들을 토의하였음.</li> </ul> <p>조선아·태평화위 위원장 김용순, CNN국제담당사장 이슨 조르단과</p>	<p>러 연해주 이민당국, 북한인 입국통제(이즈베스티야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취업으로 망생을 빚고 있는 북한주민의 입국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 국민이 투철한 안보의 식으로 혼연일체가 되어야 국가의 총력대비태세를 극대화할 수 있음.</li> <li>권오기 통일부총리 주재, 통일관계 장관회의 개최</li> <li>○ 지난 8.5~7, 뉴욕에서 개최된 「4자회담 예비회담」결과를 종합 검토하고, 관련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조아래 4자회담을 장기적 구도위에서 차분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li> <li>○ 「대북 경수로 사업」과 관련 경수로 부지준비공사 착공에 필요한 실무준비를 가급적 조기에 마무리하여 빠른 시일내에 착공기로 하였음.</li> <li>○ 대북식량지원 관련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은 4자회담을 통해 북한 식량문제의 구조적 해결 차원에서 접근하는 한편, UN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li> </ul>	<p>담화</p> <p>조선기독교도연맹중앙위·조선천도교도 중앙지도위·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조선천주교인협회중앙위, 한총련 탄압 규탄성명 발표</p>	<p>아부바크드 압두살당 나이지리아 국방장관, 북한과 군사협정 체결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방문 결과 기자회견</li> <li>○ 나이지리아가 서방 우방국들로부터 버림받은 현 상황에서 북한, 중국 등과의 군사협정 체결은 불가피함.</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12	<p>정원식 한적총재,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추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26주년 및 취임기념 기자간담회</li> <li>◦ 이산가족 1세대 대부분이 고령화돼서 죽기전에 북한에 두고온 가족을 한번이라도 보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 됨.</li> <li>◦ 이산가족 면회소는 판문점 등 남북한이 합의하는 장소이면 어디든지 무방함.</li> <li>◦ 지난 92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당시에도 판문점에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하려고 했던만큼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봄.</li> </ul>		
8. 13		<p>「범민련」 공동사무국 사무총장 임민식, 범민족대회 진행관련 기자회견</p> <p>중방, 김정일 「8.4 노작」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일성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자”</li> <li>◦ 미국은 우리공화국에 대한 적대정책을 내리고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함.</li> </ul>	<p>마이크 메커리 백악관 대변인, 대북원조 곡물 군전용 우려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조곡물이 군부 등 일부 계층만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전용된다면 국제사회의 열망</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당국이 전쟁정책 포기, 국가보안법 철폐 등 반북대결정책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민족의 운명문제를 놓고는 아무때나 만나 협상할 것임.</li> </ul>	과 원조계획 자체에 배치되며, 미하원 정보위원들의 방문결과를 자세히 알아볼 것임.
8. 14	<p>통일원 대변인, 대북지원 식량 투명성의혹 관련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하원 정보위 소속위원들의 대북지원식량 분배 투명성에 대한 의혹제기와 관련하여 북한당국이 우리와 국제 사회의 인도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임.</li> <li>○ 아울러, 정부는 대북지원 식량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WFP, IFRC 등 국제기구와도 협조를 강화해 갈 것임.</li> </ul>	<p>제8차 범민족대회 개최(판문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일성의 조국통일 유훈관철 결의대회</li> <li>- 사진전시회</li> </ul> </li> </ul>	
8. 15	<p>김영삼 대통령, 한반도 평화 정착 4대방향 등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복절 경축사</li> <li>○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4대방향으로 무력포기, 상호존중, 신뢰구축, 상호협</li> </ul>	<p>오익제 천도교 중앙교구회 전 교령, 입북</p> <p>97범민족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 결의문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체성과 민족성 고수</li> </ul> </li> </ul>	이케다 일외상, 일·북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관련 심의관급 예비회담 개최합의 발표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15	<p>력을 제시하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지원의 기본철학으로</li> <li>①북한 식량난의 구조적 해결위한 실질협력 ②남북 대화를 통한 협의 추진 ③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지원의지 재천명 ④북한당국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수호</li> <li>- 민족대단결</li> <li>- 해내외 통일운동단체간 연대</li> <li>- 연방제</li> <li>- 통일방안지지 등</li> </ul>	
8. 16		<p>중방, 김영삼대통령 8.15경축사 비난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와 통일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대결과 전쟁만을 추구하며 떠벌이는 평화타령임.</li> <li>○ 무슨 지원이요 하고 나발을 밝어대면서 국제적 지원문제에 끼어들어 낯을 내려하는 파렴치의 극치</li> </ul> <p>노동신문, 「자예비회담」이 결실 없이 끝난 책임을 미국측에 전가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반도에 평화가 보장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음.</li> <li>○ 조·미사이에 평화협정 체결과 남조선 주둔 미군철수라는 제안을 미측이 접수 해야함.</li> </ul>	<p>새뮤얼 버거 백악관 안보 담당보좌관, 북한의 식량난은 경제 체제·농업체제 파괴의 문제라고 언급</p>
8. 18	<p>대북 경수로 지원사업 착공식(8.19) 참석자, 방북 출항(동해항)</p>		<p>베트남, 북한에 쌀 1만톤 제공결정</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선섭 경수로기획단장, 이종훈 한국진력공사 사장 등</li> <li>정원식 한적총재, 2차분 대북 구호물자 수송및 신의주지역 인도인원 파견 보류 통보</li> <li>• 대북전화 통지문</li> <li>◦ 2차분 중국산 옥수수전달이 중국업체의 가격인상 요구로 당초 통보한 수송 일정보다 지연됨을 통보</li> <li>◦ 가격협약이 마무리되는 데 따라 조정된 수송계획을 다시 통보</li> </ul>		
8. 19	<p>경수로 부지공사 착공식 개최(금호지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스워스 KEDO사무총장 연설</li> <li>◦ 경수로부지공사를 위한 발파식은 지난 2년간에 걸친 한국, 일본, 미국의 약속이행을 의미하는 것임.</li> <li>• 장선섭 경수로기획단장 연설</li> <li>◦ 경수로건설사업은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구축해나가고 우리민족의 번영을 증진시켜 나가는 과정임.</li> </ul>	<p>북한, 외자도입 37건 유엔기관에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대외경제위에서 마련한 37건중 31건은 합작생산이며, 총 투자액은 17억1천4백만 달러임.</li> </ul> <p>북한-이집트간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이집트 북한대사와 이집트 계획 및 국제협조담당 국무상 자피를 쌀람 알바샤리 간 서명</li> </ul> <p>대북구호물자 지원 8.18자 대북전통문 관련 북측 연락관 문의</p>	<p>폴 클리브랜드 미경수로 대표, 대북 경수로 지원금 추가지원 난색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수로 착공식 기자회견</li> <li>◦ 미국은 경수로 건설사업의 준비단계에서 주로 지원을 하였으나, 본격적인 경수로사업이 시작되면서 기본계획상 실질적 지원금은 미국이</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건설인력간의 노 력을 통해 하나의 민족으 로서 화해와 협력의 장이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li> <li>• 클린턴 미대통령 메세지 (클리블랜드 미대표 대 독)</li> <li>◦ 경수로건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기 여를 할 것임.</li> </ul> <p>대북구호물자 지원 관련 북 측 연락관 문의 답신 및 아 측 인도요원들의 입국사증 발급 촉구 연락관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포와 남양지역에는 인 도요원이 파견되며, 중 국업체와의 가격협상은 마무리단계에 있고, 신 의주 등 각 인도인수 지 점에는 2차분 기간중에 도 인도요원이 매번 교 체됨.</li> <li>◦ 두 번째 인도요원들의 입 국 사증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의주 지점 인도 인원 파견보류 와 더불어 만포, 남양의 파견여 부,</li> <li>◦ 남측과 중국 무역업체간 가격협 의 진행 상황,</li> <li>◦ 두번째 전달기간중 신의주 지점 에 파견하는 인도인원의 교체여 부.</li> </ul>	<p>아니라 한국과 일 본에서 나오도록 요구되고 있음.</p>
8. 20		<p>중통, 경수로 부지착공식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 총국장 이제선 등 참석</li> </ul>	<p>이집트 관영 MENA 통신, 북한-이집트간</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미 기본합의문에 따라 미국이 제공하게 되는 경수로 대상 건설 착공식이 8.19일 금호지구에서 진행</li> <li>『중앙인민위』, 이인모에 영웅칭호 수여</li> <li>○ 이인모 동지에게 생일80돌에 즈음하여 공화국 영웅칭호와 함께 금별메달인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함.</li> </ul> <p>북-리오스간 「투자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 20일 평양에서 체결</p> <p>공군절 50돌 기념보고회 각부대별로 개최</p>	<p>투자보장협정 체결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승길 이집트 북한대사와 자페르 엘베시리 이집트 기획·국제협력장관은 양국간 쌍무 투자를 촉진, 보장하기 위한 협정에 조인했음.</li> </ul>
8. 21		<p>천도교 청우당 위원장 유미영, 밀입북 오익제 면담</p>	<p>미, 대북 미사일 제재 조치 단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정부 관보</li> <li>○ 북한의 용각산 수출회사와 조선부강무역 등 2개 업체가 미사일 수출 활동에 관련 됐음을 적발, 북한정부에 대해 2년간 포</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21			<p>괄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음.</p> <p>유엔 「인권소위」, 북한주민 출입국자유 등 촉구 결의안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네바</li> <li>○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주민들의 출입국 자유보장, 유엔인권기구에 대한 북한정부의 보고서 제출, 유엔관련기구와의 협력 등을 촉구</li> <li>○ 「인권소위」는 세계 인권선언 규정에 기초해 북한주민들이 자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를 떠나거나 자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에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21			12조)”을 준수 할 것을 촉구
8. 22	<p>통일원 대변인, 유엔 「인권 소위」 대북 결의안 채택 관련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 「인권소위」의 8. 21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환영함.</li> <li>◦ 국제기구들 통한 대북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실태가 국제사회의 구체적 공동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는데 의미가 있음.</li> <li>◦ 인류 보편적 가치추구 차원에서 북한이 자국내 인권상황 개선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함.</li> </ul> <p>정원식 한적총재, 대북 구호 물자 수송계획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전화통지문</li> <li>◦ 지난 7월25일 합의한 바에 따라, 2차분 구호물자 옥수수 기준 5만톤중 세 번째 물자의 수송계획을 통보하며, 이를 대상지역</li> </ul>		<p>북·일 수교 본회담 조속개최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중 일본대사관 브리핑</li> <li>◦ 북한과 일본은 수교를 전제로한 대사급 본회담을 조속한 시일내에 갖기로 합의했음.</li> <li>◦ 양국은 수교의 전제조건이 돼온 일본인처 귀국을 1개월 이내에 1차로 실현시키기로 합의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22	<p>주민과 단체들에 정확히 전달하여 주기 바람.</p> <p>〈옥수수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명 : 옥수수 5천5백톤</li> <li>- 일자 : '97.8.29-9.4</li> <li>- 방법 : 중국 화차</li> <li>- 인도지점 및 인도인원</li> <li>신의를주 : 김영남, 김성근, 권영일</li> <li>만 포 : 김정부, 서정배, 신재용</li> <li>남 양 : 이용환, 김형석, 장영진</li> </ul> <p>〈해로수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명 : 밀가루, 탈지분유 (옥수수 기준6천6백톤)</li> <li>- 일자 : '97.8.27-9.1</li> <li>- 방법 : 우리측 선박</li> <li>- 인도지점 및 인도인원</li> <li>남포항 : 이상녕, 윤승일, 유석주</li> <li>- 선박 및 승무원</li> <li>선박명 : 동진나고야</li> <li>국 적 : 한국(동진상선)</li> <li>선 원 : 이승우(선장) 등15명(필리핀인 5명포함)</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측방문 우리 인원들은 8월27일 오후 심양주재 귀측 총영사관에서 방문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며, 수송선박은 8월 27일 오전 인천항을 출항하여 남포항 묘박지에는 8월28일 오전에 도착할 예정임.</li> </ul>		
8. 23	<p>통일원 대변인, 대북 추가지원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식량사정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UN기구를 통해 미화 1천만불 상당의 추가지원을 하기로 하였음.</li> </ul>	<p>중방, 북한내 태풍피해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19-21 사이 태풍 13호 영향으로 서해해상에 해일이 발생하여 논과 밭, 건물이 침수되었음.</li> </ul> <p>중방, 8.21~22간 북경 조·일 수교 예비회담개최 보도</p> <p>북한, 유엔 「인권협약」 탈퇴 선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방국가들이 제49차 유엔 인권소위원회에서 공화국을 반대하는 「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음.</li> <li>○ 이 비합리적인 결의안은 미국과 남조선이 군사위협을 중대시키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의 내부문제에 대한 도전과 간섭임.</li> <li>○ 이에 공화국 외교부장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발송하여, 8.23부로 “국제협약”에서 탈퇴</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23		하기로 통지하였음.	
8. 24			주이집트 북한대사 장승길 제3국 망명설
8. 25	<p>국방부, 북한군 1명 귀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25일 09:20분경 북한군 하전사 1명이 서부 전선 해안지역으로 귀순해 왔음.</li> <li>◦ 귀순자 강현(22세)은 발견당시 북한군 하전사 복장에 전상상태는 양호하였으며, 현재 군당국이 귀순경위를 조사중임.</li> </ul>	<p>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 「조평통」·「조국전선」중앙위, 김정일 「8·4 노작」 관련 합동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조국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는 연방제방식에 기초하여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방식으로 중립적인 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는 것임.</li> </ul>	
8. 26		<p>외교부 대변인, 미국의 대북정책 비난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북조선의 공격위협을 운운하면서 을지포커스렌즈 전쟁 연습, 열화우라늄탄 남조선이전 등 우리를 무력으로 압살하려는 정책에 조금도 변화가 없음.</li> <li>◦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협은 남으로부터 오고있으며, 그 근원은 남조선 주둔 미군이며, 조선반도의 실질적 평화와 안전의 보장은 남조선에서의 즉각적인 미군 철수임.</li> </ul>	<p>제임스 루빈 미국무부 대변인, 주이집트 주재 북한대사 장승길 등 가족일행 망명 허용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 브리핑</li> <li>◦ 장대사와 그의 형 장승호 파리주재 북한 경제참사관 그리고 장대사의 부인 등 3명이 현재 국무부를 통해 망명허가를 받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26		중앙인민위, '97년 9월 9일부터 주 체연호 사용규정 채택	미국에 머물고 있 음.
8. 27	국가안전기획부, 북한주민 일가족 3명 귀순 발표  ○ '97. 2 북한을 탈출하여 제3국에 체류했던 북한주 민 서창은(여, 68세, 무 직), 딸 김영숙(30세, 농 장원), 아들 김호림(33 세, 공장노동자) 등 일가 족 3명이 인천항으로 밀 입국(8.22), 귀순을 요청 해와 이들에 대한 자세한 신원과 귀순동기 등을 조 사중임.	외교부 대변인, 장대사 형제 실종 공식확인  ○ 전 이집트 주재 공화국대사 장승 길과 그의 형인 전 프랑스 주재 공화국 총대표부 무역참사 장승 호가 현지에서 실종됐음.  ○ 이들은 국가자금횡령, 부패타락, 주요 국가기밀 누설혐의로하여 지난 7월말에 철직되었으며 조 사를 받기위해 소환지시를 받은 상태에 있었음.	미, 북한의 장대사 일 행 송환요구 거부  • 제임스 루빈 미국 무부 대변인 브리 핑  ○ 북한외교부가 성 명을 통해 장대사 일행을 범죄자라 고 규정하면서 본 국에 송환을 촉구 하였으나, 장대사 일행은 보호적 지 위아래 미국에 머 물게 될 것임.  미국무부, 북한의 미 사일회담 연기 언급  ○ 유엔주재 북한대 표부가 이날 새벽 미국무부에 뉴욕 에서의 제3차 미 사일회담에 참석 하지 않겠다고 통 보해 왔음.
8. 28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장승길 대사	미워싱턴 포스트지,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28		<p>망명관련 미국에 경고서한 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를 저지른 장대사 일행의 본국송환을 거부하고 망명을 허용한다면 향후 북미간의 정상적인 관계가 어려울 것임.</li> </ul>	<p>북한의 미사일 수출 중단 대가 요구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지난해 4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1차 미-북 미사일회담에서 스커드 미사일과 관련장비의 수출 중단 조건으로 그에 상당하는 외화나 생필품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음.</li> <li>◦ 이러한 요구는 물물교환식 북한 대외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정부는 터무니없는 요구로 일축했음.</li> </ul>
8. 29	<p>정원식 한적총재, 대북구호물자 지원계획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전화통지문</li> <li>◦ 7월 25일 합의한 2차분 구호물자 옥수수 기준 5만톤중 4번째 물자의 수송계획을 통보하며, 대상 지역 주민과 단체들에 정확히 전달하여 주기 바람.</li> </ul>	<p>밀입북 오의제, 내외신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한에서는 통일운동이 탄압당하고 있으며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당국의 감시속에 놓여 있음.</li> </ul>	<p>미 뉴욕타임스지, 북한농업관계자 6명 미국방문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농업위원회의 종자생산 및 관리책임자 최광룡을 단장으로한 6명의 관리들이 이번주부터 6일동안 미국의 선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29	<p>〈수송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명 : 옥수수 9천톤</li> <li>- 일자 : '97.9.5~9.11</li> <li>- 방법 : 중국화차</li> <li>- 인도지점 및 인도인원</li> <li>  신의주 : 원용선, 강현식, 유광수</li> <li>  남 양 : 이초남, 최상열, 윤성봉</li> </ul> <p>○ 우리측 인도인원은 9월 3일 오후 심양주재 귀측 총영사관에서 방문사증을 발급받고자 함.</p>		<p>농업기술을 배우기 위해 미국을 여행중임.</p>
8. 30		<p>평방, 이석현 의원 명함 사건 비난 보도</p> <p>○ 국민회의 이석현의원이 “남조선”으로 표기된 명함을 사용하여 문민정부에 의하여 모든공직을 내놓은 것은 남조선이 미국의 철저한 식민지라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임.</p>	
8. 31		<p>홍성남, 정무원 총리대리 명의로 말레이시아 독립 40돌 즈음 수상에 축전</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1		<p>밀입북 오익제, 국기훈장 1급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성철 수여</li> </ul> <p>중 · 평방, 일북적십자회담 예정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일 적십자연락협의회 제1차 회의가 9.6부터 베이징에서 진행되며, 부위원장 이성호를 단장으로 하는 적십자회 대표단이 참가하게 됨.</li> </ul> <p>북한 사회과학원장 태형철 임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조선 최근호</li> <li>◦ 지난해 11월 병환으로 사망한 사회과학원장 김형석 후임에 태형철을 임명</li> </ul>	<p>가지야마 세이로쿠 일본 관방장관, 북 · 일간 적십자회담 6일 북경개최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에 살고있는 일본인처 고향방문 문제를 협의할 첫 북 · 일 적십자 연락협의회가 오는 6일 베이징에서 개최됨.</li> <li>◦ 이 협의회는 북한에서 이성호 적십자 부위원장, 일본에서 고노에 다다테루 적십자 부사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 일본인처 제1진의 고향방문일정, 인원, 귀국수속 등 실무적인 절차를 협의할 것임.</li> <li>◦ 양측은 그동안의 조정에서 제1진의 인원을 15~20명으로 하고 방문비용은 일본측이 부담하기로 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2		<p>조선천주교인협회 장재철 위원장 ·                      조선기독교도연맹 김영섭 위원장 ·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호 위원장, 김                      정일 「8·4 노작」 논문 지지담화</p>	<p>미 디펜스 뉴스지, 북                      한의 식량난 불구 무                      기양산에 주력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식량난과                          경제위기에도 불                          구하고, 신형전투                          기와 대포, 잠수함                          등의 각종 무기로                          군을 무장시키고                          있음.</li> <li>○ 북한은 신형 중 ·                          장거리 미사일 노                          동1호, 대포 동                          1·2호와, 크루즈                          미사일, 특별작전                          용 항공기, 생화                          학무기용 약품을                          개발 또는 생산중                          임.</li> </ul> <p>케네스 베이컨 미국                      방부 대변인, 북한농                      업대표단 미국내 농                      장방문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 브리핑</li> <li>○ 북한은 최근 미국                          에 농업기술 시찰                          을 위한 대표단을                          파견하여 미국내</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2			<p>옥수수 농장과 염소목장 등을 방문했음.</p>
9. 3	<p>권오기 통일부총리, 북한지원사업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 확대에 기여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클럽 주최 초청강연</li> <li>◦ 경수로 지원사업은 한반도의 평화를 확보할 수 있게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환통해 남북한의 소통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임.</li> <li>◦ 올해는 만주지방이 가뭄으로 내년 이곳의 옥수수를 싼값에 사 북한을 돕는데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보임.</li> </ul>	<p>북한 적십자회 대표단(단장 이성호), 중국항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베이징에서 9.6부터 개최되는 조·일 적십자 연락협의회 제1차 회의에 참가차 열차로 평양을 출발했음.</li> </ul>	<p>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지, 북한 산업 대다수 가동중 단상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르너 아담 FAZ 외신부장 북한방문기</li> <li>◦ 평양의 외국관계자들은 북한 사업의 90%가 가동 중단 상태에 빠져 있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대부분 공장들이 고철더미의 폐허로 전락한 것으로 보고 있음.</li> </ul> <p>북한 농업 대표단(단장 : 최강룡), 미조지 아주 조지아 농대방문</p>
9. 4			<p>미 뉴욕타임스, 미국적 민항기 북한비행 ·착륙 예정 보도</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에 지원된 의약품을 실은 항공기가 내주초 한국 전이후 처음으로 북한영공을 비행, 평양에 착륙할 예정이다.</li> <li>◦ 전세기에는 의료진이 동승하며, 일부는 북한에 남아 의약품의 전달과정을 지켜볼 것임.</li> </ul>
9. 6	<p>정원식 한적총재, 구호물자 수송계획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전화통지문</li> <li>◦ 지난 7.25 합의에 따라 2차분 구호물자 옥수수 기준 5만톤중 다섯 번째 물자의 수송계획을 통보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수송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명 : 수수 13,000톤, 감자 1,000톤</li> <li>- 일자 : '97.9.18~9.27</li> <li>- 방법 : 중국화차</li> <li>- 인도지점 및 인도인원</li> <li style="padding-left: 20px;">신의주 : 민병대, 홍양회, 김종환</li> </ul>	<p>『범청화련』북측본부 대변인, 한총련 조통위위원장 구속관련 비난성명</p> <p>외교부 대변인, 이스라엘 수상 방한 관련 중통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스라엘 수상은 남조선을 행차하여 우리의 그 무슨 대중동 미사일수출문제라는 것을 걸고 들면서 이를 봉쇄하는데 남조선이 군사적으로 결타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음.</li> </ul>	<p>크리스천 베르티움 WFP대변인, 북한 식량 지원방식 변화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FP는 지난해 수해로 봉쇄된 북한 지역의 제방을 북한 노동자들이 복구하는 대가로 1백만명 이상에게 식량을 제공할 것임.</li> <li>◦ 노동의 대가로 식량을 제공하는 계획은 WFP에 의해 공식 승인돼 수일내로 시작될 예정이다.</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6	<p>만 포 : 김진구, 김동기, 황용호</p> <p>남 양 : 오정희, 윤종우, 김형곤</p> <p>○ 귀측방문 우리측 인도인 원들은 9.18 오후 심양주 재 귀측 총영사관에서 방 문사증을 발급받고자하 며, 추후계획은 우리측 인도인원이 중국현지에서 귀측에 연락할 것임.</p>		
9. 7	<p>합동참모본부, 북한의 DMZ 수색정찰 아군에 사전통보 언급</p> <p>○ 북한군은 지난 8월 중부 · 동부전선 2곳에서 화성 기 방송을 통해 “0일 0시 00지역으로 수색정찰 환 동을 나가니 총을 쏘지말 라”고 알려왔음.</p>	<p>북한 정권창건 49돌 즈음 강택민 중국국가주석, 김정일에게 축전</p>	
9. 8		<p>북한 정권창건 49돌 즈음 중앙보고 대회 개최</p> <p>• 정무원 총리 대리 홍성남 보고</p> <p>○ 우리는 김정일의 강령적 노작을 받들고 조국통일 3대헌장에 기 초하여 최대의 민족적 과업인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p>	<p>일본 산케이 신문, 북 한의 최근 경제실태 보도</p> <p>• 미하원의교위원회 조사단 비공개보고 서 인용</p> <p>○ 식량위기가 계속</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8		<p>거족적 투쟁을 힘있게 벌여 온민족의 질절한 숙망을 기어이 성취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버리고 조·미사이의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길로 성근하게 나와야 함.</li> </ul> <p>『비전향장기수 구원대책조선위』, 비전향 장기수 송환촉구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전향장기수들이 송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남조선과 정전협정체결의 직접 당사자인 미국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음.</li> <li>○ 다른나라의 인권상황을 문제삼는 미국이 남조선과의 마찰을 구실로 포로송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내외여론의 규탄을 면치 못할 것임.</li> </ul>	<p>되고 있는 북한에서 쌀등 곡물을 매매하는 암시장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지역 및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정부는 암시장에 대한 통제를 완화했으며, 원시적 시장경제가 생겨나고 있고 현재의 산업활동은 80년대의 20~30%까지 떨어졌음.</li> </ul>
9. 9	<p>『한적』, 북한동포지원활동보고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원식 한적총재, 국적 아태지역부 차창 사이먼 미시리 참석</li> <li>○ 대한적십자사는 그동안 대북식량지원에 참여해온</li> </ul>	<p>중방, 정권창건 49돌 즈음 러시아 대통령 엘친이 김정일에 축전 보도</p> <p>북한 정권창건 49돌 경축연회 개최 (인민문화궁전)</p> <p>북·일 적십자 회의 개최(9.6~9)</p>	<p>북·일 적십자 대표단, 북송 일본인 배우자 1진 일본방문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6~9.9일간 북경 장부궁 호텔에서 이성호와 고노에 다다테무간 합의</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9	<p>26개 주요단체장들을 초청, 북한동포 지원활동 보고회를 갖고, 1·2차 대북식량지원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한 뒤 오는 10월 이후 계속해서 3차 대북식량지원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각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음.</p> <p>국방부, 동부전선 침투 북한군 1명 사살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군은 9일 오전 9시 33분쯤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강원도 양구군 동부전선 비무장지대 아군 초소 쪽으로 침투하던 북한군 1명을 사살했음.</li> <li>○ 군사정전위원회는 현재 사망지점 주변을 보존한 채 침투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일 적십자연타협의회 제1차 회의가 주체 86(1997)년 9월 6일부터 9월 9일 까지 베이징에서 진행되었음.</li> <li>○ 쌍방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본인의 희망과 의사에 따라 공화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 여성들이 가능한한 1개월 내에 제1차 고향방문단의 일본방문을 실현하며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기로 합의했음.</li> </ul>	<p>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과 일본은 앞으로 1개월 이내에 1차로 10~15명 규모의 북송 일본인 배우자 고향방문을 실현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서와 부속 문서에 서명, 제1차 협의 종료</li> <li>○ 방문단 명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 배우자 고향방문단」, 일본 체류기간은 1주일 정도, 출신지와 친인척 방문, 묘소참배 등</li> <li>○ 방문단의 북한내 필요경비(숙박비,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 등)는 북한측에서, 일본 왕복여비와 일본체재경비는 일본측이 전액 부담키로 함.</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9			<p>제임스 폴리 미국우부 부대변인, 미국적 민항기 북한도착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에 지원될 의약품을 실은 미국민항기가 금일 평양에 도착하며 미국내 구호단체인 "아메리케어스"가 제공하는 구호품을 전달할 것임.</li> </ul> <p>대만 중시안보, 북한의 대만 핵폐기물 이전절차 작업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만과 북한은 최근 싱가포르에서 비밀협상을 갖고 대만핵폐기물 북한 반출에 따른 수입면장을 북한이 발부했음.</li> </ul> <p>케네스 베이컨 미국 방부 대변인, 비무장 지대 북한군 사살은 자위조치 일한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 브리핑</li> <li>○ 이번 사건은 무기</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9			<p>를 소지한 북한병사가 군사분계선을 침범. 이를 적발한 한국군이 자위조치로 사살한 것임.</p>
9. 10		<p>김정일,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 : 조명록, 김영춘, 이하일, 현철해</li> </ul> <p>중방, 주체연호사용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화국 창건일인 9.9부터 전국의 기관, 기업소, 방송·통신, 공장, 농장 등 각계층의 인민들이 일제히 주체연호를 쓰기 시작했음.</li> </ul> <p>신임 주이집트 북한대사에 백용호 임명</p>	<p>제임스 폴리 미국무부 부대변인, 미·북간 북경 고위급회담에서 한반도 문제 논의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중미국대사관 비공개회의 브리핑</li> <li>◦ 회담에서 찰스 카트만 미국측 미국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는 장대사 망명사건을 4자에 비회담 개최와 연계시켜서는 안되며, 북한이 연계시킬 경우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미국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전달했음.</li> <li>◦ 10일의 첫날회담은 생산적이었으며, 11일 다시 만날 것이며, 북한에게서</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10			<p>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주에 열리기로 돼있는 4자 예비회담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전달 받지 못했음.</p>
9. 11	<p>북한주민 2명 최근남, 차송주 귀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주민 최근남(24세), 9일 제3국을 경유해 인천항으로 밀입국, 귀순을 요청</li> <li>◦ 북한주민 차송주(35세), 강화군 봉소리 초소를 통해 귀순</li> </ul> <p>국방부, 북한군 조강건 하사 대북 송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기관의 조사결과 단순표류로 판명돼 11일 10:30 판문점 「군정위」 통해 송환</li> </ul>	<p>중방, 북한군 조강건 하사 귀환보도</p> <p>노동당중앙위, 중국공산당 제15차 대회 축전</p>	<p>제임스 폴리 미국무부 부대변인, 4자 예비회담 개최합의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 브리핑</li> <li>◦ 미국과 북한은 남북한 및 미국·중국에 참여하는 4자 회담 개최를 위한 제2차 예비회담을 오는 18,19일 이틀간 뉴욕에서 개최하고, 이에앞서 양자 고위급회담을 열기로 했음.</li> <li>◦ 미·북 뉴욕 고위급 회담 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미국은 한국 및 중국과도 사전접촉을 가질 계획임.</li> </ul> <p>래리 그리어 미국방부 전쟁포로·실증</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11			<p>담당국 대변인, 실종 미군 백여명 확인 자료입수 언급</p> <p>○ 미국은 한국전 실종 미군 유해발굴 작업의 일환으로 평양의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의 전사기록들을 조사, 1백명 이상의 한국전 실종 미군(MIA)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얻어냈음.</p>
9. 12		<p>미군유해 1구 판문점통해 미국측에 인도</p>	<p>빌 클린턴 미대통령, 주한미대사에 스티븐 보스워스 KEDO 사무총장 지명</p>
9. 15		<p>UNDP, 북한 홍수피해복구 원조</p> <p>○ 유엔개발계획 아·태국장 비이 춘 마웅은 9월 1일 평양에서, 자연피해를 입은 지역의 농업복구를 위해 200만달러분의 협조를 제공한다고 발표하여, 유엔개발계획은 정기협조외에 총 400만달러분의 협조를 농업복구에 제공하게 되었음.</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15		<p>북한, 휴전협정 관련 유엔 안보리의 장 앞 편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전협정은 사실상 이념뿐이며 전쟁을 방지할 법적 담보를 결여하고 있고, 중감위도 아무런 위임사항없이 방치되고 있음.</li> <li>○ 휴전체제 무효화의 책임은 미국에 있으며, 위험한 상황이 야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미·북 군당국자간의 협상이 필요함.</li> </ul>	
9. 16			<p>제임스 폴리 미국무부 대변인, 한·중·북과 4자 예비회담 준비접촉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과 북한은 16일 뉴욕에서 4자 예비회담 준비접촉을 가졌으며, 미국대표단은 17일 한국 및 중국 대표단과도 사전 양자접촉을 가질 계획임.</li> </ul>
9. 18	<p>4자회담 제2차 예비회담 개최(뉴욕)</p> <p>정원식 한적총재, 2차분 구호물자 세번째 해로수송</p>	<p>「범민련」·「범청화련」북측본부 중앙위, 연합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인준(범민련 북측본부의장) 보고</li> </ul>	<p>지미 카터 전미국대통령, 김정일의 방북 초청장 접수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틀란타 저널</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18	<p>계획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전화통지문</li> <li>○ 7.25 합의한 2차분 구호물자 옥수수 기준 5만톤 중 최종분 구호물자 수송과 이와 별도로 우리측 기증단체가 기탁한 어린이 종합영양제 3만병을 추가로 이번 해로편에 보내고자 하는 수송계획을 아래와 같이 통보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수송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97.9.24~30</li> <li>- 인도지점 : 홍남</li> <li>- 방법 : 우리측 선박</li> <li>- 인도인원 : 전의구, 정인호, 이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정일의 「8.4노작」 관철을 위하여 첫째, 김정일의 사상, 이론을 해·내외동포들에게 선전하고 둘째, 해·내외 동포와 청년학생들을 민족자주의식으로 무장시키고 반외세자주투쟁을 벌이며 셋째,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을 고수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스티튜션紙 기자회견</li> <li>○ 김정일로부터 일정한 조건하의 북한 방문을 환영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지난주 받았으며, 다시 북한을 방문하기를 고대함.</li> <li>○ 북한을 재방문할 경우 단순한 관광객이 아닌 실질적인 방문목적을 가지고 갈 것임.</li> </ul>
9. 19	<p>4자회담 제2차 예비회담 개최(9.18~19 뉴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차 예비회담 개최 미합의</li> </ul> <p style="text-align: center;">〈각국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문제」와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문제」 등 이미 제시한 포괄적 의제를 묶어 「한반도 평화체제</li> </ul>	<p>김정일, 중국 공산당 당총서기 및 주석으로 재선된 김택민에 축전</p>	<p>스탠리 로스 미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미의 대북한 기본정책은 연착륙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대북한 기본정책은 연착륙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구현하는 것임.</li> <li>○ 북한에 대한 인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19	<p>구축 및 긴장완화 문제」라는 단일안으로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지위문제를 의제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종래의 입장과 「외부로부터 일체의 군사장비의 도입을 금지」하는 문제도 4자회담 의제로 추가할 것을 주장</li> <li>○ 미국 : 예비회담의 목적은 4국정부간 합의된 본회담 개최를 위한 절차문제를 협의·결정하는 것으로 의제문제를 구실로 예비회담을 지연시켜서는 안 될 것임.</li> <li>○ 중국 : 의제문제는 각측간 비교적 큰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어 어려운 문제이지만 다같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평화체제 수립을 최종목표로 한다는 공통점을 출발점으로 하여 협의해야함.</li> </ul>		<p>적 식량지원이나 KEDO를 통한 경수로 건설 등 미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북한 정책은 이러한 기본정책에 따른 것임.</p>
9. 20	<p>EU, KEDO 정식가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수로기획단 브리핑</li> <li>○ EU(구주연합)가 '97.9.</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20	<p>19부로 KEDO에 정식가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주연합은 향후 5년간 매년 1,500만 ECU의 기여금을 KEDO에 제공하며 그 기간동안 KEDO 집행이사국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KEDO집행이사국은 한·미·일·EU로 됨.</li> </ul>		
9. 21		<p>평안남도 당대표회, 김정일을 당총비서로 추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회는 동안의 전체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임원을 반영하여 김정일을 우리당의 총비서로 추대할 것을 결정함.</li> </ul> <p>외교부 대변인, 4자회담 결렬관련 KCNA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이 남한과 그 인접지역으로부터 미군철수라는 근본적인 제안을 거부하고 우리를 무장해제 시키려 의도하였으며, 식량지원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려 했음.</li> <li>○ 향후 회담진전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경제 제재조치를 완화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버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 어떻게 취하는가에 달려있음.</li> </ul>	<p>일본 NHK, 북한 노동1호 실전배치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군사위성이 지난달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 북서부지역에서 이동식 발사장치에 장착돼 있는 노동 1호 미사일의 모습이 포착됐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미국이 식량제공이라도 명백히 약속하면 그것을 미국의 신의로 간주하고 4자회담 문제에서 신축성을 보여주려고 했음.</li> </ul> <p>IPU참석 북한 대표단장 연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98차 총회(카이로)</li> <li>○ 김정일의 「8.4」노작은 조선의 통일문제 해결에 가장 정당한 원칙과 합리적인 방도를 설명한 것이며, 미국은 조·미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데 용해 나와야 할 것임.</li> </ul>	
9. 22		<p>조선인민군 당대표회, 김정일을 당 총비서로 추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민군대 안의 전체 당원들과 우리인민군 장병들의 한결같은 열망으로 김정일을 우리당의 총비서로 추대함.</li> </ul> <p>외교부장 김영남, 세계식량계획 대표 접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기타 칸그렌 평양주재 WFP 대표, 빌리 그래함 목사 부인 루스 빌 그래함</li> </ul>	<p>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 북한원자로 폐연료봉 봉인 11월 완료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이사회 기초 연설(제네바)</li> <li>○ 5MW급 실험용 원자로 폐연료의 밀폐용기내 봉인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금년 11월까지는 모두 끝날 것으로 보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22		조선기독교도연맹 중앙위 전원회의, 김정일 「8.4노작」 관련 회의 개최 • 남한 기독교인들에게 서기장 이 천민 명의 서한 발송	
9. 23	김영삼 대통령, 4자회담은 실질적이어야 한다고 언명 ◦ 한반도 4자회담은 회담을 위한 회담이 돼서는 안되 며 실질적인 회담이 되어 야함. ◦ 조기에 무엇인가 이루겠 다는 식으로 회담에 임해 서는 안됨. 한·미 외무장관 회담, 4자회 담 예비회담 결렬 유감표명 ◦ 4자회담 제2차 예비회담이 결렬된 것은 전적으로 북 한이 한·미 양국의 본뜻 을 이해하지 못하고 과도 한 요구를 했기때문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북한 측의 현상태도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음. ◦ 4자회담 성사여부는 북한 이 얼마나 진지한 자세를 취하느냐에 달려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이	김정일, 구월산유원지 시찰 • 참석 : 김영춘, 현철해, 김하규, 박재경, 계용태, 최태복 평양시당 대표회, 김정일 총비서 추 대 • 평양시당 책임비서 강현수 보고 ◦ 오늘 시당대표회는 시안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 사와 염원을 담아 김정일동지를 우리당의 총비서로 추대할 것을 결정하였음.	미·일, 신방위협력 지침 합의 ◦ 새로운 방위협력 지침은 방위협력 의 적용범위를 「일본주변지역 유 사시」로 확대하고 구체협력방안으로 ①후방지역 미군 에 대한 보급·수 송 ②자위대의 기 퇴소해 ③경제제 재시 자위대의 선 박입검 ④비전투 원 구출 등 40개 항목을 제시함. ◦ 「주변사태」의 정 의에 대해서는 지 리적 개념이 아닌 사태의 성질에 따 른 것이라고 언급 함으로써 대상지 역을 특정하지 않 음.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23	<p>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 논의에 성의를 보일 것을 촉구하기로 했음.</p> <p>황장엽, 북한에 개방촉구 기고문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통치자들은 오늘날 북한체제의 위기가 역사의 마지막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봉건적인 「주체연호」를 사용, 김일성 왕조를 유지하려 함으로써 온 겨레와 세계인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음.</li> <li>○ 북한은 무력통일 노선을 버리고 개혁·개방 및 남북 대화와 교류실현에 적극 나서야함.</li> </ul>		
9. 24	<p>유종하 외무장관, 한반도 유사시 한·일간 「협약체」구성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총회 참석 한·일 외무장관 회담</li> <li>○ 일본이 최근 북·일관계의 진전에 따라 북한에 대규모 식량지원을 추진</li> </ul>	<p>단군민족통일협의회 발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장 유미영(천도교청우당 위원장)</li> </ul>	<p>데사이 앤더슨 베트남 주재 미국대사대리, KEDO 총장 내정</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24	<p>중인 것과 관련해 양자차원의 식량지원은 한국 및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처리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와함께 미·일방위협력 지침(가이드라인) 최종 보고서 채택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전하며 구체적인 미·일 방위협력 계획을 수립할때 최대한 투명성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하고, 특히 한반도내 유사시에 대비한 한·일 협의체를 구축할 것을 일본측에 제의함.</li> </ul> <p>강경식 부총리겸 재경원 장관, 북한 IMF·세계은행가입 지원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2차 IMF 및 IBRD 총회 기조연설</li> <li>○ 북한을 세계경제의 틀속에 통합시키고 동아시아의 정치 및 경제적 안정을 위해 IMF 및 IBRD 가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한국은 이에 필요한 지원</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24	<p>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음.</p>		
9. 25	<p>KEDO 집행이사회, 북한 위 기사태시 파견인원 신변안 전 결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욕 KEDO 연례총회</li> <li>◦ 한·미·일·EU 등 4개 KEDO 집행이사국은 이 날 뉴욕에서 열린 KEDO 연차총회에 앞서 이사회를 갖고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없 는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 파견인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마 련토록 하는 내용의 결의 안을 채택했음.</li> </ul>	<p>중방, 중국의 무상제공 식량 8만톤 반입보도</p>	
9. 26	<p>KEDO 연례총회 개최(9. 24~26, 뉴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수로 기획단 브리핑</li> <li>◦ 금번 KEDO총회에는 한 ·미·일 및 EU 등 4개 집행이사국과 핀란드, 캐 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칠레, 인니, 뉴질랜드 등 7개 일반회원국이 참석하 며, 기타 KEDO활동에</li> </ul>	<p>농업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숙, 자연 재해 관련 식량문제 전망(중통 기 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많은 사람들이 올해 농사형편과 식량문제 전망에 대하여 큰 관 심을 가지고 있으나 유감스럽 게도 식량문제는 그 전망이 밝지 못함.</li> <li>◦ 예전에 없던 가뭄과 20년만에 나타난 해일로하여 10만 7천여 정보의 논·밭이 침수되어 알곡</li> </ul>	<p>조지프 프뤼어 미태 평양사령관, 북한 노 동미사일 실전배치 부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트릭과 부 대병력을 동원, 미 사일 무기의 관리 와 발사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했으 나 아직 실전배치 된 노동미사일은</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26	<p>관심있는 읍서비 자격의 국가를 포함한 총 30여개국이 참여하게 됨.</p>	<p>수확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식량 및 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공동조사단이 가뭄 및 해일지역을 돌아보고 강냉이는 120여만톤, 벼는 60여만톤의 수확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조기경보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p> <p>북적중앙위 위원장 대리 이성호, 비전향장기수 송환촉구</p> <p>•대남서한</p> <p>외교부 대변인, 중앙아시아 비핵지대선언 관련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아시아 인민들은 과거에 진행된 핵실험의 후과로 오늘도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이번 비핵지대 선언이 이 지역 인민들의 지향에 부합된다고 봄.</li> <li>◦ 미국은 우리의 비핵지대제안을 받아들이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모든 핵무기를 철거시켜야 함.</li> </ul> <p>조·러간 「소득과 재산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모스크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성필 주러대사, 러시아 재정성 부상 세르게이 블로또이게츠 서명</li> </ul>	<p>포착되지 않았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라서 훈련에 실제 미사일이 사용됐는지 아니면 모형이 사용됐는지는 확실치 않으며, 우리는 북한의 노동미사일사업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27		<p>외교부대변인, 미·일방위협력지침 최종보고(9.23) 관련 규탄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일방위협력지침은 본질에 있어서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국과 해외팽창야망의 길로 질주하려는 일본이 공동으로 고안해낸 침략전쟁 시나리오임.</li> </ul>	<p>일본 요미우리신문, 일정부 북에 식량원조 방침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은 유엔의 요청에 따른 형식으로 북한에 7만톤의 식량을 지원할 방침</li> </ul>
9. 29	<p>권오기 통일부총리, 한반도 점진적 통일단계 돌입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독학술회의</li> <li>○ 통일은 정지된 목표가 아니라 긴과정이며 그런 점에서 한반도 통일은 이미 시작된 것임.</li> </ul> <p>유증하 외무장관, 북에 4자 회담 재개등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li> <li>○ 4자회담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쪽은 북한이며, 북한이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 회담에 나와야함.</li> <li>○ 특히 우리는 북한의 굶주리는 어린이들을 위해 유엔 아동기금과 협조해 인</li> </ul>	<p>각 지방당 대표회, 김정일을 당총비서로 추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황해남도 당 대표회(9.27, 해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고 : 김윤기(황남도당 조직 대표)</li> <li>토론 : 박성철(해주시당 조직 대표)</li> </ul> </li> <li>○ 황해북도 당 대표회(9.28, 사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고 : 최문선(황북도당 조직 대표)</li> <li>토론 : 김국태(사리원시당 조직 대표)</li> </ul> </li> <li>○ 자강도 당 대표회(9.29, 강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고 : 연형묵(자강도당 조직 대표)</li> <li>토론 : 진병호(강계시당 조직 대표)</li> </ul> </li> </ul> <p>김정일, 「오중흡 7연대칭호 쟁취운</p>	<p>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 북한의 핵비밀 존재 가능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 40차 연차 총회</li> <li>○ 북한의 플루토늄 비축과 관련 그들이 제공한 재고품 비축목록의 완전성이 입증될 수 없음.</li> </ul> <p>(IAEA는 10월 1일 퇴임하는 블릭스 총장 후임에 이집트의 모하메드 엘바라테이를 주인)</p> <p>'97 미전략보고서, 북한은 세계3대 대미</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29	<p>도적 지원을 계속하겠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은 많은 야만적이고 비겁한 테러행위 피해를 입어왔으며 그러한 위협은 최근의 우리 민간인론에 대한 공개적 위협을 포함,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li> </ul> <p>권숙일 과학기술처장관, 북한 핵활동 투명성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1차 IAEA 정기총회 기조연설</li> <li>○ 국제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만핵폐기물의 북한이전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li> <li>○ 북한은 과거의 핵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입증해야 하며 북한이 IAEA에 제출한 보고서의 정확성을 입증하기 위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함.</li> </ul>	<p>동」판정검열을 받고 있는 제1576 군부대 방문</p>	<p>군사위협으로 존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란, 이라크 및 북한은 미국에 군사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수단과 의향을 가진 위협국이라고 지적</li> </ul>
9. 30	<p>권숙일 과학기술처장관, 한스 브릭스 IAEA사무총장·장심웅 중국 핵공업총공사 총경리와 대만 방사성 폐기물의 북한이전 철회문제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1차 국제 원자력기구 정기총회</li> </ul>		<p>러시아 외무부, 최덕근 전 블라디보스토크 영사사건 중간 수사발표</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1	<p>김영삼 대통령,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 고수 경계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9주년 국군의 날 기념 식연설</li> <li>◦ 심각한 식량난과 주민들의 연이은 탈북, 망명은 북한체제의 모순이 극한에 달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li> <li>◦ 북한은 이러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언제 어떠한 모험을 지지할 지 모르므로, 우리가 진정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함.</li> </ul>	<p>노동신문, 「미·일 방위협력지침」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아시아를 침략하고 지배하려는 미·일의 침략성과 지배주의 야망이 집약된 것이라고 비난</li> </ul>	<p>북한, 허치슨 텔레콤(홍콩)과 5.5억불 통신 현대화 사업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내에 실무 대표단을 평양과 홍콩에 상호 파견, 타당성 조사 실시한 뒤 내년초 정식계약 체결 예정</li> </ul> <p>미 유진벨 재단, 대북 결핵 퇴치사업 전개 언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최장식 보건부 부부장으로 부터 결핵퇴치 협조에 대한 공식요청 접수</li> <li>◦ 북한내 결핵 병원(11곳)과 요양소(60곳) 목록 및 결핵 치료시설 방문 허용 화약</li> </ul>
10. 2	<p>KNCC 방북목사 김동원 등, 김정일 10월 10일 총비서 취임 가능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북보고 기자회견</li> <li>◦ 김 총무 일행은 조선기독</li> </ul>	<p>외교부 부부장 최수현, 제52차 유엔총회 연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김정일을 당총비서로 추대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2	<p>교도연맹의 공식 초청으로 지난 23일부터 30일까지 북한을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정권수립일인 9월 9일부터 김정일의 총비서 추대 행사를 전국적으로 전개, 10월 10일경 총비서 취임이 확실시 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당국이 반민족·반통일 정책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면, 조국통일을 위하여 노력할 것임.</li> <li>○ 전쟁제거와 평화를 담보하기 위하여는 미군을 철수시키고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조선반도의 평화보장 체계를 세우는 것이 4자회담이 해결해야 할 기본과제임.</li> </ul>	
10. 4			<p>북한남치 일본인 구출기구 결성(1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70~80년대에 북한에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인들을 구출하기 위한 단체가 실종자 가족들에 의해 결성됐음.</li> </ul>
10. 5	<p>경수로공사 일시중단 사건 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수로 기획단 브리핑</li> <li>○ 우리근로자들이 9.30 임시숙소에서 새로지은 숙소로 이사를 한 뒤 북한 당국자들이 임시숙소 사무실의 휴지통에서 김정</li> </ul>	<p>평방, 남한문화방송의 아사자 보도 관련 비난 방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9.30 남조선의 문화방송은 홍콩신문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지의 자료를 인용하여 북이 기근으로 95년 이후 최소한 100만명 이상 굶주려 사망했다고 허위보도를 하였음.</li> </ul>	<p>일본 산케이신문, 북한의 미국 민간단체에 결핵진단장비 원조 요청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보건부는 지난 9.30 캘리포니아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정부조</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5	<p>일의 사진이 게재된 찢어진 노동신문을 발견하고 우리측에 이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청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은 이 사건을 북측지도부를 모독한 심각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일 30여명의 북측 근로자들을 철수시키고, 신변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우리 근로자들의 작업장이동을 통제함으로써 작업이 중단되었음.</li> <li>○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이러한 요구와 작업장의 통제제한은 KEDO와 북한간 체결된 의정서 등 합의사항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항의하고 사태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것은 남조선 당국이 남조자료를 홍콩신문에 넘겨주어 모략보도를 한 것으로, 우리공화국이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국제적 지위가 높아가는데 따른 우리공화국의 영상을 흐려보려는 망동에 지나지 않음.</li> </ul> <p>김정일 총비서 추대 각급당대표회 개최(9.27~10.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노동당 정무원 사무국, 사회안전부 교통위원회, 문화예술부, 국가과학원 수도건설지휘부</li> </ul> <p>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 "3대장군 현지교시 말씀판"제막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0.10.5, 김정일의 현지도 17 돌 즈음 판 건립(총길이 25.5미터, 높이 3.45미터)</li> </ul>	<p>직 「유진벨재단」 앞으로 최창식 부부장명의의 서한을 보내 북한내의 심각한 결핵유행을 설명한 후 진단장비와 치료약품을 입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한에서 최부부장은 "진단과 치료를 서두르지 않을 경우 한명의 환자가 1년동안 15~20명의 건강한 사람을 감염시키게 된다"며 결핵유행의 심각성을 강조했다.</li> </ul>
10. 6	<p>장선섭 경수로기획단장, 대북 경수로 공사 재개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회견</li> <li>○ 북한당국은 5일 신포 사무소에서 KEDO와 가진 회의에서 "KEDO측에서 우리(북한)의 입장을 궁</li> </ul>		

■ 10 月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6	<p>정적으로 호응할 것을 기대하면서 공사를 정상화 하겠다"고 통보해왔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에 따라 북한 근로자들은 오늘 오전 8시 공사장에 복귀, 인원점검 후 공사를 시작했으며, 철수됐던 북한측 단순노무자 30명, 운전요원 5명, 전기공10명, 관리인1명이 모두 공사장에 돌아와 작업을 벌이고 있음.</li> <li>○ 공사가 재개됨에 따라 7일로 예정됐던 제8차 부지조사단(환경-해양탐사반) 24명도 빠르면 금주 말까지 북한에 파견할 예정이다.</li> <li>○ 그러나 공사는 재개됐어도 북한이 김정일 사진 훼손에 따른 우리측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사태를 계속 지켜봐야 하며, 우리정부도 북한측에 우리 근로자 신변안전보장과 KEDO-북한간 체결된 의정서 준수를 촉구할 방침임.</li> </ul>		
10. 7	남북 관제직통전화 설치 합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 비행정보구역 (FIR) 통신통과 항공노선 개설을 위한 「대구·평양 비행정보구역 통과 국제항로 관련 남북한 당사자회의」(태국 방콕)</li> <li>◦ 이번 회담에서 쟁점이었던 대구-평양 관제소간 관제통신망 구성방식과 관련 직통전화틀 설치하는 우리측 요구를 북한측이 사실상 수용했음.</li> <li>◦ 북한여객기가 한국측 FIR를 통과해 일본지역으로 비행하는 문제가 남아 있으나 한·일간 합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임.</li> <li>◦ 남북한은 8일부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후속협의를 계속해 남북한간 비행정보구역 관제이양에 관한 양해각서에 가서명할 방침임.</li> </ul>	<p>17돌 즈음 평양시 보고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형섭 보고</li> <li>◦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위대한 통일헌장이며 유일한 통일방도임.</li> </ul>	
10. 8	<p>통일원 대변인, 김정일 노동당총비서 공식추대 관련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월 8일 북한에서 김정</li> </ul>	<p>김정일, 조선노동당 총비서 공식추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노동당 중앙위·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 특별보도</li> <li>◦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li> </ul>	<p>제임스 루빈 미국무부 대변인, 김정일 승계후 한반도 평화진전 기대 언급</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8	<p>일음 노동당 총비서로 공식추대한 사실에 주목하며, 우리는 북한이 이를 계기로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계를 구축하고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울러 북한이 화해협력의 세계사적 흐름에 합류하여 안정적 변화를 이루고 우리와 함께 평화통일의 큰길을 열어 나가기를 기대함.</li> </ul>	<p>양군사위원회는 김정일을 당의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었음을 엄숙히 선포함.</p> <p>강택민 중국공산당 중앙위 총서기, 김정일 당총비서 추대관련 축전 발송</p> <p>북한 유네스코 대표부, 외교문서에 주체연호 표기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동철 한국대표부대사 언급</li> <li>○ 북한 유네스코 대표부는 지난 6일 한국대표부를 제외한 각국대표부에 공한을 보내, 향후 북한 정부에 보낼 외교문서에 서양력과 함께 「주체연호」를 동시에 표기해 주도록 요청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김정일의 총비서 승계가 한반도 4자회담 과정의 새로운 참여로 연결되고, 남북관계와 미·북관계, 나아가 북한과 다른 국가들간의 관계개선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함.</li> </ul> <p>오부치 게이조 일본 외상, 대북식량 지원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민당본부 외교관계 합동회의</li> <li>○ 유엔과 국제적십자의 요청에 응하는 형식으로 북한에 34억엔 규모의 식량원조를 실시하겠음.</li> </ul>
10. 9	<p>고건총리, 남북언어이질화 극복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글날 기념식사</li> <li>○ 한글을 과학화·정보화하는데 힘써서 다가오는 고</li> </ul>	<p>이명철 전 짐바브웨 대사, 『중앙인민위』 서기장에 임명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조선(10.9자)에 동직함 사용</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9	<p>도정보사회에서 우리말이 세계속의 언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남북간의 언어 이질화를 극복하는데도 힘을 기울여야 함.</p>		
10. 10		<p>김정일, 당 창건일 즈음 금수산기념궁전 참배</p>	<p>한반도 지뢰금지에외 정책 불변 언급</p> <p>&lt;마이크 매커리 백악관 대변인&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경우 대규모 무장을 하고 있는 북한으로부터 한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12월 오타와에서 채택된 대인지뢰금지조약에 서명하지 않고 군축회의를 통한 지뢰금지에 역점을 둘 것임.</li> </ul> <p>&lt;제임스 루빈 미국무부 대변인&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클린턴 대통령이 약속한대로 2006년까지 한</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10			반도에서 대인지뢰 대체수단을 강구하며 2003년 후에는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대인지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의 일관된 정책임.
10. 11		<p>외교부 미주국장 이형철, 유엔대사 임명</p> <p>김정일 당총비서 추대축하 평양시 경축대회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현수 시당 책임비서 연설</li> <li>○ 총비서 추대는 우리 전체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이 실현된 역사적 사변임.</li> </ul> <p>이남옥씨, 김정일의 북한 근대화 준비중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남옥(김정일 전처의 조카, 김정일의 수양딸)</li> </ul> <p>〈미CNN인터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현재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김정일은 북한을 근대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정일은 개방적이며, 집무실에 20여대의 TV를 갖추고 세계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음.</li> </ul> <p>중방, 일본의 식량 및 의료품 제공 결정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정부가 10.9 식량과 의료품을 제공키로 결정한 것은 우리의 큰물피해와 일본 한신대지진 때 서로 인도주의 협력을 해온 좋은 전례의 계속이며 두나라 인민들 사이의 우호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임.</li> </ul>	
10. 12	<p>국방백서('97-'98), 북한 병력 9만명 증가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1년전에 비해 병력이 증가한 1백4만7천명을 보유하고 있음.</li> <li>○ 장거리 유도무기 관련, 현재 스킵드-C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관성유도시스템을 개량중이며, 노동 1호의 작전배치 및 대포동1·2호를 개발중인 것으로 보임.</li> </ul>		
10. 13	<p>경수로 건설현장(금호지구)에서 사망한 우리 근로자 1</p>	<p>만경대혁명학원 창립 50돌(10.12) 기념 김정일 서한 발표</p>	<p>북·대만, 올 연말이전 무역사무소 교환</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13	<p>명시신, 판문점 통해 운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경대혁명학원은 주체의 협동을 이어나갈 핵심골간 양성기지이다”</li> <li>◦ 만경대혁명학원이 우리당의 주체적인 혁명가 유자녀 교육정책을 높이 받들고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것을 굳게 믿음.</li> <li>• 학원장 김용연 기념보고 및 김정일에 드리는 맹세문 채택</li> </ul>	<p>보도&lt;대만工商時報&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만의 대북수출입협의회와 북한의 대외무역위원회의 협정초안에 서명</li> <li>◦ 북한은 대북주재 북한무역사무소에서 비자발급에 합의</li> </ul>
10. 14	<p>유증하 외무장관, 경수로 의정서 위반시 추가비용의 북측부담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통일외무위 국정감사답변</li> <li>◦ 향후 북한이 KEDO와 체결한 의정서 등을 위반, 사업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전적으로 북한이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허종 외교부순회대사에게 전달함.</li> </ul>	<p>토니 홀 미하원의원, 평양도착</p> <p>김정일 총비서 추대관련 미국무부 대변인의 발표(10.8) 내용 보도(중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정일의 총비서 추대를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미·조관계에서 새로운 개선을 희망함.”</li> </ul> <p>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원 조위원회제2차 회의 개최(모스크바러대외경제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축산분야 및 식품검역문제 등 관련, 1개 의정서와 3개 문서에 서명 예정</li> </ul>	<p>제임스 루빈 미국무부대변인, 대북식량조사단 파견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올해 수확으로 식량난이 일시 완화될 지 모르나 기아문제는 여전히 심각해 부족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됨.</li> <li>◦ 아직까지 지원식량의 심각한 전용사태는 없으며 WFP의 배급망은 건전하다고 믿음.</li> </ul> <p>토니 홀 미하원의원, 방북</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식량난 관련 의견교환 및 수해 지역 시찰</li> <li>• 에릭 존 국무부 북한담당관 등 동행</li> </ul>
10. 15	<p>권오기 통일부총리, 남북정상 회담 개최 당분간 곤란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통일외무위 국정감사</li> <li>○ 남북정상회담이 유보상태에 있으나 현재 시기와 조건을 감안할 때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추진할 이유도 없음.</li> </ul>	<p>김문성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부분적 시장개방 시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EF(World Economic Forum) 동아·태 경제정상회의 참석 발언</li> <li>○ 현재의 남북한 문제는 한국인 자신이 해결해야하며 우리는 해결 방법을 알고 있음.</li> <li>○ 북한은 인민들의 복지증진과 관련, 고유의 정책결정 방법과 목적을 잘알고 있으며 우리에게는 우리나라의 방법이 있음.</li> <li>○ 지난 96년말 원산과 남포를 보세 가공 수출지대로 지정하고, 사회간접시설을 건설하고 있으며 내년쯤 개방할 것이라고 언급</li> </ul> <p>북한-러시아, 농업협정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 가축과 식물 보호방안 및 경제기술협정 관련 문건 서명</li> </ul>	
10. 16			<p>러 이타르 타스통신, 북한의 중국원화통용</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16			<p>허용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중국 원화를 자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으며, 북한의 외국화폐 사용 상점들에 1원당 북한돈 0.25원이라는 공식 환율표가 등장했음.</li> </ul>
10. 17	<p>박수길 주유엔대사, 북한에 화학무기금지협약(CWC)가입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2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 기조연설</li> <li>○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협정 및 남북한 비핵화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고 화학무기금지협정에도 조속히 가입해야 함.</li> <li>○ 대인지뢰금지협약과 관련, 우리는 인도주의에 근거한 대인지뢰금지협약 제정의 정신을 존중하지만 지뢰금지에 있어서 한국의 정당한 안보적 관심이 고려되어야 함.</li> </ul>	<p>평방, 군사분계선에서 남한대성동 주민 2명 납북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늘(10.17) 10시 30분경 개성시 판문군 선적리앞 군사분계선 북쪽 우리측 지역에서 남조선 시민 2명을 단속했음.</li> </ul> <p>중방, 미국의 의료지원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정부가 인도주의적 조치로써 14일 우리나라에 5백만달러분의 긴급 의료상 지원을 주기로 결정했음.</li> <li>○ 미국의 지원에는 홍역예방 주사, 감기치료기구 등 100개분의 병원진료소들에 대한 기술지원이 포함되어 있음.</li> </ul> <p>북한군 총정치국장 조명록, 중국인</p>	<p>EU지원 북한구호식량 2만톤 북한 항발</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17	<p>국방부 대변인, 대성동 주민 2명 납북사건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7일 오전 11시 45분쯤 12명의 북한 무장군인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대성동마을 동북쪽 논밭에서 영농작업을 하던 2명의 주민을 납치해 갔음.</li> </ul>	<p>민해방군 친선참관단(단장:총후군부 정치위원 주곤인)과 담화</p> <p>북-우크라이나간 항공협정 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크라이나 국가항공국의장 언급</li> </ul>	
10. 18	<p>김영삼 대통령, 대성동 주민 납치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엔사의 조사에 의하면 이번 사건은 명백한 휴전협정 위반이며 중대한 도발임.</li> </ul> <p>경수로기획단, 8차 경수로 부지조사단 방북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8차 부지조사단은 10.21-11.1간 방북, 기상·해양·환경·생태계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임.</li> </ul> <p>외무부대변인, IAEA-북한간 북한핵관련 실무협의 개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AEA는 북한의 안전조</li> </ul>	<p>김일성의 노작 '사회주의 의학은 예방의학이다'발표기념일인 10.20을 면역의 날로 지정</p> <p>세계보건기구 대표단, 평양 도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장 : 동남아세아지역사무소 건강보호국 국장 네트 자담바</li> </ul>	<p>미국무부, 대성동 주민 2명 북한납치 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억류되고 있는 2명의 한국인이 즉각 석방되기를 희망</li> <li>동사건은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가 정착될 때까지 현행 군사정전위의 기능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임.</li> <li>최근 군사분계선의 사고들은 현행 정전협정을 대체할 유일한 실전방안이 한반도 4자</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18	<p>치협정이행 및 핵시설 동결감시 이행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북한과의 정례 실무협의를 10.20-23간 비엔나에서 개최할 예정이다.</p>		<p>회담이라는 것을 부각시켜 주고 있음.</p>
10. 20	<p>김영삼대통령, 북한 김정일 당 총비서 승계 계기 긍정적 변화 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85회 정기국회 시정연설(국무총리 대독)</li> <li>◦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은 당사자인 남북한이 주도해 나가야 할 과제임.</li> <li>◦ 4자회담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회담이 열린다면 북한의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할 것임.</li> <li>◦ 경수로 지원사업의 추진은 남북교류와 신뢰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임.</li> <li>◦ 김정일 당 총비서직의 승계를 계기로 북한이 화해와 협력의 세계사적 흐름에 합류하고, 대남자세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함.</li> </ul>	<p>민족면역의 날 개막식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일성과 김정일의 영도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질병 발생의 사회적 근원이 오래전에 청산되었음.</li> <li>◦ 민족면역의 날이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면역전문가들을 파견하여준 세계보건기구에 사의를 표함.</li> </ul>	<p>미국무부, 대북 식량조사단 파견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국제개발처(AID)와 국무부, 질병통제센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북조사단이 10.25-11.4간 방북하여,</li> <li>◦ 북한의 식량 수요량을 파악하고, 원조곡물 분배에 관한 투명성 보장문제를 협의하게 될 것임.</li> </ul> <p>미국무부, 북한잠수함 사건시의 미국제공 통조림 발견이 대북지원 식량의 본래 목적의 전용 증거는 될 수 없다고 발표</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21	<p>경수로기획단, 8차 경수로 부지조사단 방북</p> <p>국방부 대변인, 대성동 주민 2명 송환관련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군에 붙잡힌 대성동 주민이 비교적 조기에 돌아온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함.</li> <li>◦ 앞으로 이러한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임.</li> </ul>	<p>단군민족통일협의회회장 유미영, 남한 대중교 안호상 총선교에게 편지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24 조국통일 성업에 기여하고 단군관련 사업을 주관할 단군민족통일협의회가 발족되었음.</li> <li>◦ 10.3 개천절 행사에 단군을 숭배하는 남조선의 여러대표들이 참석하지 못한다 유감을 전함.</li> </ul> <p>김정일, 새로 건설된 송암 소목장 시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적관리와 수의방역 철저로 소고기·우유생산의 획기적 증대 강조</li> </ul> <p>중방, 남북 대성동 주민2명 판문점 통해 송환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기관의 조사결과, 남조선 주민과 경비임무를 담당한 남조선 인원들은 부주의로 군사분계선 북측지역을 넘어 섰다는 것을 인정하였음.</li> <li>◦ 19일과 20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유엔사와의 접촉에서 미군측이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쌍방의 합의에 따라 21일 남조선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미군측에 넘겨주었음.</li> </ul>	<p>유엔군사령부, 대성동 남북 주민 귀환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군 사령부와 북한군간의 공동조사에서 한국인 농부들은 자기들이 분명하게 표시되지 않은 지역의 군사분계선을 우연히 넘어갔다고 진술했음.</li> <li>◦ 그들의 진술에 따라 북한군측은 그들을 유엔군 사령부측에 넘겨주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22		<p>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일본인 처 일본방문 관련 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화국 적십자회는 10.8 제1진으로 일본을 방문하게 될 재조일본인 여성들의 명단을 일본측에 넘겼음.</li> <li>○ 이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광폭정치, 인덕정치가 가져다 준 배려임.</li> <li>○ 이것을 계기로 조·일사이의 인도주의적 문제들 비롯한 현안 문제들이 잘풀려 나가기를 기대함.</li> </ul> <p>북한대표, 남한의 유엔사 해체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2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 연설</li> <li>○ 핵군축과 핵무기 철폐가 이루어져야 하며, 조선반도의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가 수립되어야 하고, 남한의 유엔군 사령부는 해체되어야 함.</li> </ul>	<p>미국무부, 미·북 미사일협상 재개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핵동결협정 때와 마찬가지로 중·장거리 미사일 제한을 위한 회답에 응해 결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함.</li> </ul>
10. 24		<p>외교부 대변인, 조.일관계 개선 분위기 호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8월 인도주의적 협조문제와 함께 조·일국교정상화 회담을 조속히 진행할 데 대한 조·일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음.</li> <li>○ 우리는 일본측이 두나라 사이에</li> </ul>	<p>미군 유해 1구 판문점 통해 송환</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24		<p>합의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데 대해 주의를 돌리고 있음.</p>	
10. 25		<p>조평통 서기국, 한·미 독수리훈련 관련 보도 제746호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수리 합동군사 연습은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키려는 도발행위로 이를 규탄함.</li> </ul>	
10. 27	<p>정원식 한적 총재, 북적에 남북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적 창립 92주년 기념식사</li> <li>◦ 남북이산가족 개최를 위한 면회소를 판문점을 비롯해 남북이 합의하는 장소라면 한반도내 어디에든 설치할 것을 북한적십자회에 제의함.</li> </ul> <p>대구-평양 비행정보구역 통과 국제항로 개설 양해각서 서명(뉴델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순통 건설교통부 항공국장-Dr. Assad Kotait-e ICAO 이사회의장간 정식서명</li> <li>◦ 우리측 서명본 2부는 북</li> </ul>	<p>외교부 대변인, 한·미 독수리 훈련관련 규탄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우리공화국에 대한 침략적 공격훈련이며 실동훈련임.</li> </ul> <p>쿠바의 대북구호물품인 사탕가루 1만톤 남포항 도착</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27	<p>한민항 총국장 김요용이 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에따라 남·북양측은 판문점 경우 직통전화는 11월중에, 예비회선인 ASIASAT II 인공위성 통신망은 98.1월말까지 연결할 계획이며, 98.4.23부터는 이 항로의 이용이 시작되게 됨.</li> </ul>		
10. 28		<p>북한 대표단장, 제29차 유네스코 총회 연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역사 및 문화유적 보존, 관리 위한 적극적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li> <li>◦ 인권문제가 공화국의 자주권과 자결권 침해에 남용되고 있다고 주장</li> </ul>	
10. 29			<p>미·중 정상회담, 북 4자회담 참여 촉구 (백악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담후 클린턴 미 대통령 기자회견</li> <li>◦ 오늘 회담에서 북한에 한국과의 4자회담에 참여하도록 촉구하기로</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29			합의 했음.
10. 30	<p>정원식 한적 총재, 대북 2차분 구호물자 지원 종료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적 위원장 대리 이성호 앞 전화통지문</li> <li>◦ 10.29까지 귀축에 전달된 옥수수기준 52,888톤으로 2차분 지원을 종료함을 알림.</li> <li>◦ 2차분 구호물자에 대한 정확한 분배결과를 기한 내에 통보해 줄 것과,</li> <li>◦ 국제적십자사 연맹이 연맹의 구호대상지역 이외에 우리측이 지정기탁한 2차분 구호물자에 대해서도 분배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을 다시한번 요구함.</li> </ul> <p>외무부 대변인, 미·중 정상 회담 관련 논평(10.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10.29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시 양측이 4자회담을 통한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이를 발표한 것</li> </ul>		<p>일본 무라야마 가네조 관방장관, 일본인 처 고향방문단 제1진 15명 명단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단은 11월 8일 평양을 출발 일본에 도착하여 14일까지 머물게됨.</li> </ul> <p>유엔 인권위, 북한 국제인권협약 탈퇴불가 성명(제네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에 규정된 기본인권은 협약당사국 주민 모두에게 생래적으로 부여되는 것임.</li> <li>◦ 따라서 국제법리상 이 협약에 서명, 수용, 의무승계한 국가는 탈퇴할 수 없음.</li> </ul>

■ 10 月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30	<p>을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북한이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부응하여 조속히 4자회담 본회담 개최에 응해줌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바임.</li> <li>○ 또한, 정부는 금번 강태민 주석의 방미를 계기로 미·중 양국관계가 보다 발전되어 나감으로써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함.</li> </ul>		
10. 31	<p>정종욱 주중대사, 북한인민군 차수 김두의 망명설 관련 신변요청사실 부인</p>		<p>방북 일본 여3당, 북노동당과 새로운 '공동선언' 불교환 방침 &lt;공동통신&gt;</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1		<p>남한주민 정민(46세) 입북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북한 정민은 '경기도 안산시 체육회이사, 국민회의 안산시의원'이라고 주장</li> </ul> <p>「북적」중앙위, 일본인처 고향방문 단 제1진 방문일정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8일부터 일주일간 일인여성 15명 방문</li> </ul>	
11. 2		<p>김정일, 제233대연합부대 전방지휘소 시찰</p>	<p>일, 한반도 유사시 난민 수용시설 목록작성</p>
11. 3		<p>광주학생사건 68돌 기념 평양시 청년학생보고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동맹」 최용해 제1비서보고, 「조국전선」 엄태준 의장, 「조평통」 서기국 한시해 국장 참석</li> </ul>	<p>북한, OPCW(화학무기 금지기구) 사무총장 요청 북한, 리비아, 레바논 3개국 대표회담 거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PCW대 변인실 논평</li> </ul>
11. 4		<p>외교부 대변인, 4자회담 참가는 우리 자신이 결정할 문제라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중앙국의 북한4자회담 참가 촉구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li> <li>◦ 4자회담이 개최되지 않는 것은 미국이 회담의 의제문제와 관련</li> </ul>	<p>日 자민, 사민, 사키가케 興 3당대표단 방북결정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재개 준비를 위해, 모리 요시로 자민당 총무</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4		<p>한 우리의 우려감을 해소시켜주지 못하는데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와같은 여론은 좋게 조성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일 뿐임.</li> <li>◦ 4자회담 참가여부는 자신의 결심에 따라 결정할 문제임.</li> </ul> <p>미국 종교대표단, 평양도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장 : 컨네스 하케트</li> </ul> <p>평방, 황해북도 연산군 원진산에서 제4기 빙하흔적 발견 보도</p>	<p>회장을 단장으로 11.11~14간 방북</p>
11. 6		<p>북한, 서관회 노동당 농업 담당비서 공개처형&lt;공동통신&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관회 및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간부 3인 등 18명이 평양 시내에서 공개처형 되었다고 보도</li> </ul>	<p>日, 興 3당 방북대표 단장 모리 자민당 총무회장 방북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 오부치 게이조 외상과의 회동시</li> <li>◦ 북·일 국교 정상화 현상은 양국정부가 해결해야할 문제이며 대표단은 회담진전을 위해 노력할 것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7	<p>서울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 (한민족 복지재단 이사장), 한국제약협회 간사 이대회 (동재단 사무총장) 등 6명 11.4~11.7간 방북</p> <p>• 한민족 복지재단 : 한민족 의료선교회가 국내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공익법인체로 외무부에 등록 ('97.2)</p>	<p>북적중앙위 위원장대리 이성호, 제 4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남전화통지문 발송</li> <li>◦ 1997.8.12-10.29 사이에 2단계 지원분으로 강냉이 기준 52,888여톤의 식량을 인수하였다는 것을 알리면서 식량을 지원해 준 남조선의 여러 단체들과 개별적 인사들에게 사의를 표함.</li> <li>◦ 아울러 국제적십자연맹의 지원 대상지역 이외에 우리측이 맡아 분배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귀측의 요청에 유의하면서,</li> <li>◦ 제4차 북남적십자 대표들의 접촉을 베이징 같은데서 가지고 이런문제를 포함한 이미 진행한 사업의 총화와 금후 사업문제를 협의할 수 있기를 기대함.</li> </ul> <p>외교부대변인, 독수리훈련 관련 규탄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이 지금까지 태평양상에서 벌이던 훈련을 처음으로 동해상으로 옮긴 것에 유의함.</li> </ul> <p>조선의학협회 대변인, 남측의 말라리아문제 북측 무관 담화 발표</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8	<p>정원식 「한적」총재, 남북이산가족면회소 설치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전화통지문</li> <li>◦ 10.27 판문점을 비롯한 한반도내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에 대한 공개제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 문제 협의를 위한 대표접촉을 제의함.</li> <li>◦ 대표접촉은 사무총장급을 수석대표로하는 각각 3명의 대표가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판문점에서 만나면 될것임.</li> </ul> <p>정원식 「한적」총재, 분배결과 접수후 4차 적십자대표접촉에 대한 우리측 입장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전화통지문</li> <li>◦ 2차지원 전체의 정확한 분배결과를 통보하고 국적구호대상지역이외의 우리측 구호물자 전달지역에 대해 분배결과를 확인할수 있도록 보장할것.</li> <li>◦ 제4차 적십자 대표접촉은 2차분 지원에 대한 북측의 분배결과를 통보받고 난후 우리측 입장전달</li> </ul>	<p>농업위 부위원장 김영숙,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제29차 총회에서 연설&lt;로마&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2년간 김정일의 현명한 영도밑에 농업생산을 정상화하고 영양수준을 높이는 사업에 전진을 이룩</li> <li>◦ '95년, '96년 가뭄과 해일에 의한 피해를 빠른 시일안에 복구, 정비하여 피해지역 인민의 생활도 안정되고 있음.</li> </ul>	<p>북송 일본인처 고향방문단 제1진 15명 일본방문</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9		<p>김정일, 조선인민군 제5485부대 중대군인들의 예술소조공연 관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군 차수 조명록, 김영춘, 이하일, 대장 현철해, 김하규, 박재경 등 참석</li> </ul> <p>중방,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과학자들이 최근 상원군 노동리에서 약 10만년전의 구석기 시대 중기 사냥터 유적을 발굴 했다고 보도</p>	<p>세계식량계획(WFP) 로스 대변인 대북식량지원 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8년도 북한구호 식량에 대한 요청 규모를 '97년보다 확대할 계획임.</li> </ul> <p>日 요미우리 신문, 북한이 황해상에 2백억 배럴 이상의 유전 존재를 선전하고 있다고 보도</p> <p>세계제대군인연맹(WWF) 제22차 총회 (11.9-11.15, 서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전쟁 포로 송환', '대인지뢰 금지 한반도 예외지 지 결의안 채택</li> </ul>
11. 10	<p>4자회담을 위한 남북한과 미국·중국간 4자 실무접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무부당국자 인용</li> <li>◦ 정부는 추가예비회담없이 본회담을 개최하자는 입장</li> <li>◦ 북한은 3차예비회담을 열어 의제문제 등을 협의할</li> </ul>	<p>김정일, 동해안 앞섬방어대 시찰</p>	<p>유엔아동기금지원 대북구호물자 39t 평양 도착</p> <p>방북 일의원 그룹, 북의 일본인 납치확인 촉구 의사 연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카야마 마사아키</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10	것을 요구		• 중의원(자민당)
11. 11	정부,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 원 지속 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관계장관회의</li> <li>◦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지 원을 계속한다는 방침은 지키되, 북한측이 분배투 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함.</li> </ul>	「조평통」서기국, 미국방장관 방한 관련 규탄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반도의 정세를 격화시키기 위한 계획적인 도발책동임.</li> </ul> 조일우호친선협회, 일본연립3당 방 북관련 대남 규탄담화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이 조일관계 개선 움직임 에 제동을 거는 추악한 행위를 일삼고 있음.</li> </ul> 日 여3당 대표단 평양도착, 김용순 당비서 담화<만수대 의사당>	일, 무라오카 가네조 관방장관, 대북수교 교섭 사항은 정부권 한임을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당 대표단의 방 북은 국교정상화 교섭재개를 위한 환경조성이 목적 이며 양국정부간 합의사항은 정부 에 맡긴다는 것이 방북단의 입장임.</li> </ul>
11. 12	속초-나진·선봉 카페리항 로 개설 3국 실무협의 (11.13-11.14, 북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자                      남 : 민병성 해양부 해운 선원국장                      북 : 임태덕 대외경제협력 추진위 부위원장                      중 : 위소영 대외무역경제 합작부 외무화운협 조사장(국장)</li> <li>◦ 안전                      - 선박운항 및 입항절차 등</li> </ul>		유엔, 북한 핵관련 IAEA보고서 채택 결 의안 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총회는 길의 에서 북한의 안전 조치 불이행에 우 려를 표하고, 북한 에 대해 안전조치 이 행 을 위 해 IAEA와 적극 협 력하고 검증과 관 련되는 조치를 취 할 것을 촉구</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12	<p>기술적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객 및 선박의 안전과 신변보장 문제</li> <li>- 항로 개설후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처리 방안</li> </ul> <p>권오기 통일부총리, 북전력 공급 인프라 확충참여 시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려대 언론대학원 초청 강연</li> <li>◦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경수로 사업 성공시 전력 공급을 위한 인프라 시설 확충에 참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찬성 153국, 반대 1국(북한), 기권 5국</li> </ul>
11. 13		<p>노동당 대표단·일본 여3당 대표단 간 회담(11.11~13), 평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용순, 김양건, 송호경, 이종혁 등 참석</li> <li>◦ 북측은 일본이 적어도 남북한에 대해 균등정책을 실시할 것, 과거사를 반성하고 적대시 정책을 버릴 것을 요구하고,</li> <li>◦ 일본인 납치의혹과 적군파 송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조·일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주장</li> </ul>	<p>중국 이봉 총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위해 북·일 국교정상화 희망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HK 인터뷰</li> </ul> <p>중국 이봉 총리, 남북 대화 희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언론과의 회견</li> <li>◦ 중국은 남북한 쌍방이 대화를 재개 하길 희망</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13		<p>노동당 대표단·일본 여3당 대표단 회담결과 보도문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교정상화를 위한 제9차 정부간 회담이 열리도록 당적으로 추동할 것에 의견일치</li> <li>◦ 국교정상화 이전이라도 인도주의적 협력문제 실현</li> <li>◦ 재조 일본인 배우자들의 고향방문 지속, 일본이 말하는 행불자를 일반행불자와 함께 조사해볼 수 있음.</li> <li>◦ 향후 양국집권당 사이에 다무적 쌍무적 내용과 접촉을 강화</li> <li>◦ 쌍방은 조·일국교정상화 조기 실현과 조·일관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에 대해 의견을 같이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적 대화와 협상만이 한반도내 새로운 평화보장 체제를 수립할 수 있음은 물론 항구적인 평화안정을 보장할 수 있음.</li> </ul>
11. 15		<p>이동철,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장에 임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탈리아 국회대표단 평양출발 환송시 화인</li> </ul>	
11. 16		<p>평방, KBS 2TV가 기획중인 드라마, '진달래꽃 필때까지'의 제작 중단요구, 관련자 암살 위협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드라마는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와 정치체제를 힐뜯으려는 극히 악질적인 반북광대극으로써,</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16		<p>우리에 대한 위협천만한 정치적 선전 포고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는 KBS 2TV창작단을 가차없이 폭파해 버릴 것이며, 제작에 가담한 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릴 것임.</li> </ul>	
11. 17	<p>외무부, 4자회담 제3차 예비 회담 개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21 뉴욕 쿨롬비아 대학에서 개최될 예정이며,</li> <li>금번 3차 예비회담에서 본회담 의제문제를 합의 하고 이에 따라 본회담 개최일자를 확정, 발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함.</li> </ul> <p>통일원, 대북 수해복구장비 북송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가 북한의 수해농지 복구를 위해 유엔을 통해 지원하기로 한 국산건설 장비가 금일 북송되어 11.18 남포항에 도착할 예정임.</li> <li>금번지원은 지난 4월 UN 인도지원국의 대북추가 지원 계획에 호응, 수해복구장비를 포함한 1천만달</li> </ul>	<p>「북적」위원장 대리 이성호, 제2단계 지원물자 분배정형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남전화통지문</li> <li>8.12-10.29간 보내준 제2단계 지원물자 전량 분배정형에 대한 문건을 오늘 넘겨 주게됨을 알 린.</li> <li>이기회에 지난 11.7자 전통문에 서 밝힌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이에 대한 귀측의 긍정적인 회답을 기대함.</li> </ul> <p>개성시 당책임비서, 임수만 사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중앙위 위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중앙인민위 위원이며, 개성시장 책임비서겸 개성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인 임수만이 11. 17, 65세를 일기로 사망</li> </ul> <p>「한민전」대변인, 황장엽 남한국적 취득 비난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세가 지배하는 식민지 땅에서</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17	<p>러 상당의 구호물자츄 북 한에 추가 지원키로 한 결정(8.23)에 의한 것임.</p> <p>•지원내역</p> <p>- 사용지역 : 평남 문덕, 숙 천, 평산 등</p> <p>- 지원규모 : 불도저(2대), 굴착기(12대), 덤프트럭(2대), 트레일러(1대), 정비차량(1대), 연료탱크(1대), 예비부품(14상자) 등 1백 20만달러 상당</p> <p>KBS, '진달래꽃 필때까지' 제작관련 협박에 대해 북한 사과 요구</p> <p>○ 북한의 협박은 창작의 자유와 권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북한당국은 사과해야 함.</p> <p>○ 북한은 KBS의 방송내용을 문제삼기 전에 북한내의 참혹한 인권탄압을 중지하고 예술인들의 창작의 자유를 보장해야함.</p>	<p>국적이니 뭐니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음.</p>	
11. 18		<p>KEDO 신입사무총장 앤더슨 일행, 평양 도착</p>	<p>'두만강 경제개발지역 (TREDA) 및 동북아</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18			<p>발전을 위한 자문위원회' 연례회의와 '두만강지역개발 계획 (TRADP) 정부간 조정위원회' 제3차회의 개최(11.17-18, 북경)</p>
11. 19	<p>남북한 항로관제소간 직통전화 개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 항로회의('97.10.7~9, 방콕)의 합의에 따라 판문점을 경유하여 11.19개통되었으며, 평양 FIR통과 항로운영을 개시할 '98.4.23까지 매일 10시 시험통화</li> <li>◦ 향후 대구-평양 FIR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편명·기종·항로·고도 등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운항정보 상호 교환</li> </ul> <p>공보처, 북한의 KBS폭파위협 중단 촉구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BS의 방영도 안된 드라마 제작과 관련한 북한의 테러위협 중단을 촉구함.</li> </ul>	<p>범민련 북측본부 중앙위 총회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본부 의장 백인준 보고</li> <li>◦ 7.4공동성명 발표 25돌기념 통일토론회와 제8차 범민족대회를 비롯한 공동투쟁의 과정에서 일련의 성과를 이룩하였음.</li> <li>◦ 범민련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남조선에서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을 고수하고 범민련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투쟁을 계속하는 것임.</li> </ul>	<p>일 외상 오부치 게이조,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연내실현 기대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의원 행정개혁·세계특별위원회 출석 발언</li> </ul> <p>북·러, 러시아 북동부 야쿠츠크에서 한국과 일본으로 가는 가스관 통과 합의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상참여 아르카디 불스키 러시아 상공인 연합회장 발언 인용</li> </ul>

■ 11 月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하루빨리 이성을 되찾아 국제사회로부터 「테러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를 바랍.</li> </ul>		
11.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기부, 북한 직파 부부간첩 검거(10.27), 수사결과 발표</li> <li>○ 북한 사회안전부 소속 직파간첩 최정남(35)·강연정(28)부부와 이들에 포섭된 서울대 명예교수 고영복(69), 서울 지하철공사 동작설비분소장 심정웅(55) 등 6명을 검거, 5명을 검찰에 송치(강연정은 검거 익일 자살)</li> <li>○ 최·강부부는 '97.7.30 공작모선을 타고 남포항을 출발 '97.8.2 거제도 해금강에 침투</li> <li>○ 이들은 이미 포섭된 고영복과 접선 활동을 독려하고, 심정웅을 접선, 유사시 서울지하철을 마비시킬수 있는 방안 강구를 임무로 함.</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21	<p>통일원, 북한의 납치·테러 사건 관련 대북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기부의 부부간첩단 수사결과, 북한당국이 지난 78.8, 김영남, 이명우, 홍건표 등 당시 고교생인 우리국민을 납치한데 이어, 금년 2월에는 이한영씨에 대해 암살테러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확인</li> <li>○ 정부는 김영남씨 등 3명을 포함한 모든 납북억류자들을 송환할 것과, 테러행위, 체제전복기도 중단을 촉구함.</li> </ul> <p>4자회담 제3차예비회담 개최(뉴욕)</p>		<p>경수로기획단, KEDO 집행이사국 고위급회의 개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24-25 간 한국·미국·일본·유럽연합 등 KEDO 집행이사국들은 워싱턴에서 고위급회담 개최</li> <li>○ 경수로 예상사업비와 관련된 제반문제 협의</li> <li>○ 우리측은 예상사업비가 확정되면 곧바로 한·미·일 경수로분담금 논의에 착수할 예정</li> </ul>
11. 22	<p>4자회담 제3차 예비회담 개최(11.21-22, 뉴욕 콜롬비아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자</li> <li>남 : 송영식, 유명환, 권중탁, 이봉조, 이수혁</li> <li>북 : 김계관, 이근, 김명길</li> <li>미 : Kartman, Minton, Pritchard, John, Harrey</li> </ul>		<p>클린턴 미 대통령, 4자회담 본회담 개최 합의 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 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나 이번합의는 중요한 첫발을 내디딘 것이며 미국은 한국민이 평화로운 미래를 구축</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22	<p>중 : 陳建, 寧賦魁, 關華兵, 楊希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의사항</li> <li>- 4자회담 본회담 개략 : '97.12.9 스위스제네바</li> <li>- 의제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제반 문제</li> <li>- 대표단 구성 : 세부사항은 본회담 개시전 발표</li> </ul> <p>청와대, 4자회담 본회담 개최 타결 환영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자리 마련</li> <li>○ 한반도에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폭넓은 조치와 함께 공고한 평화체제를 이룩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도움을 주게 되길 기대</li> <li>○ 4자회담 진전이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민족화해를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앞당기게 되길 기대</li> </ul>		<p>하도록 돕기 위해 완전한 동반자가 될 태세를 갖춘.</p> <p>울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4자회담 본회담 개최 합의 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자회담이 지난 53년 체결된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첫 번째 국제적 회담으로, 이 회담은 긴여정의 시작</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23	<p>한·미 외무장관, 4자회담 각국대표 차관급 지명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 외무장관회담(23일 밴쿠버)</li> <li>◦ 12. 9 제네바 4자회담 본 회담에 앞서 한·미간 정책협의틀 위한 고위급 실무회의를 내달초에 개최하기로 함.</li> <li>◦ 본회담에서는 각국 장관들이 필요할 때 참석하도록 하되 우선은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급 인사를 교체 수석대표로하여 운영하기로 함.</li> </ul>	<p>외교부 대변인, 4자회담 관련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군철수와 북미평화협정 체결 문제 논의를 전제로 우리는 제네바 4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음.</li> </ul> <p>평방, 부부간첩사건은 안기부의 모략선전이라고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파부부 간첩사건은 독재권력이 정치적 위기에 처할 때마다 안기부가 만능의 처방처럼 조작하는 상투적인 모략선전임.</li> </ul>	<p>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 주한미군철수문제 4자회담 의제에서 제외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BC방송 대담</li> <li>◦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한반도 4자회담의 우선적인 의제가 아니며, 미군은 한반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계속 주둔할 것임.</li> </ul>
11. 24	<p>남·북한, 동아시아 군인권법 세미나 참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일 방콕에서 개막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주최 제2차 동아시아 군인권법 세미나에 한국과 북한 대표단이 함께 참가</li> </ul>		<p>전기침 중국외교부장, 4자회담서 건설적 역할수행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자회담과 관련 중국은 지금까지 이뤄진 진전을 환영하며 앞으로 모든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많은 성과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24			<p>미 뉴욕타임스지, 아 시아 경제변화로 미 국의 대북정책조정 불가피 보도</p> <p>◦ 지금까지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은 이들 국가의 지속 적인 경제성장을 전제로한 것이었으 나 이 지역의 경제 위기로 장래 북한 의 붕괴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 변화 를 가져올 것임.</p>
11. 25		<p>중방, 비전향장기수 송환 고려인대 책협의회 회의 개최 보도</p> <p>◦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위한 러 시아지역 고려인대책협의회 회의가 11.21 모스크바에서 개최</p> <p>◦ 회의에서는 유엔인권위, 인권에 관한 국제위원회, 남한내 민주인 권 단체에 보내는 호소문과 유 엔사무총장, 미국대통령, 미국국 회에 보내는 편지를 채택</p>	
11. 26			<p>미·북간 준고위급 회담 개최(미국무부)</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 찰스 카트만 국무부 동아태 부 차관보 북한 :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li> <li>◦ 양국은 양자 주요 현안인 대북경제 제재 완화, 연락사무소 개설, 미사일 회담 재개, 한국전 실종미군 유해송환 등을 논의</li> </ul>
11. 28			<p>그리고리 카라신 러시아 외무차관, 러-북간 동맹관계 반대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 외무부영빈관 한국외무부 출입기자단 인터뷰</li> <li>◦ 러시아는 러-북간 새 기본조약 체결 협상과 관련, 북한과 동맹자관계를 맺는데 반대입장임.</li> <li>◦ 내년초 평양에서 제3차 협상이 열릴 것이며, 새 조약은 유엔에서 존중되는 원칙에 따</li> </ul>

■ 11 月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28			<p>라 뺏어질 것이며, 동북아 안정에 긍정적 기여를 하게 될 것임.</p>
11. 29		<p>『조국전선』대변인, 일본우익단체들의 반조총련 시위관련 남한당국 개입 규탄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11.26 일본 민족청년동맹 등 10여개 우익단체 150여명의 깡패들이 “납치한 일본사람을 해방하라”, “총련을 해산하라”라는 폭언과 악담을 퍼부으면서 반공화국 반총련소동을 일으켰음.</li> <li>○ 일본땅에서 우리공화국과 총련을 헐뜯고 중상모해하는 적대행위가 벌어지는 것은 조·일관계 개선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고, 그것을 차단하려는 기도이며,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일본 우익깡패들이 감행한 이번 반공화국 반총련소동이 남조선당국의 책동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임.</li> </ul> <p>평방, 일본 산케이신문이 남한당국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있다고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케이신문은 모택의 총본산인</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29		<p>남조선 안기부의 정치적 주문에 따라 있지도 않은 공화국의 내부혼란설과 여당대표단 실패설을 내들림으로써 조·일관계 개선에 빗장을 질러보려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케이신문이 괴뢰 안기부의 정치적 시녀노릇을 계속한다면 쓰레기언론의 오명을 씻지못하게 될 것이며, 조·일 관계의 진전을 바라는 조·일 두나라 인민들의 저주와 규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임.</li> </ul> <p>김종태해주제1사범대, 인천교대에 자매결연 제의</p> <p>김정일, 제164대연합부대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정일은 모든지휘관과 전사들이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관병일치, 애병정신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할 것을 강조하고 쌍안경, 기관총, 자동보총 등의 기념품을 전달하였음.</li> <li>• 참석 : 조명록, 김영춘, 김하규, 현철해, 박재경</li> </ul>	
11. 30		<p>김정일, 김책공군대학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 : 조명록, 김영춘, 김하규, 현철해, 박재경, 오금철</li> </ul>	<p>스티븐 보스워스 신임 주한미국대사, 부임</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1		계응상사리원농대, 서울농대에 자매결연 제의	<p>스위스 외무부, 4자 회담 제네바 개최 성명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위스는 한반도 긴장완화의 첫 걸음이 될 4자회담이 9, 10일 이틀간 제네바에서 열리는 것을 환영함.</li> </ul> <p>일본 요미우리신문, 일본의 경수로 분담액 10억달러로 억제 방침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정부는 51억 8천여만 달러로 결정된 대북 경수로 건설비용중, 일본측의 분담총액을 10억달러 정도로 억제한다는 방침이며, 한국이 총 건설비의 70%, 일본이 20%, 다른 국가들이 나머지 10%를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제시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1			<p>나가노 올림픽 조직위(NAOC), 북한의 일본 동계올림픽 참가 신청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전선수 13명 참가등록</li> </ul>
12. 2		<p>「조평통」 서기국, 한총련 탄압 중지요구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총련에서 탈퇴하지 않았다는 구실밑에 서울대 학생회간부를 구속한 것은 남조선의 인권과 민주주의 불모지대로 전변시킨 전대미문의 폭압소동임.</li> </ul> <p>조선사회과학자협회, 새위원장에 최고인민회의장 양형섭 임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임위원장 황장엽</li> </ul> <p>중방, 평양개최 비행기 전시 및 시범비행 참가단 평양도착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러시아 IL-96N, TU204-100기 및 대표단 참가</li> </ul>	<p>당국강 중국외교부대변인, 4자회담서 건설적 역할수행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자회견</li> <li>4자회담의 시작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긍정적이고 중요한 단계를 상징하는 것임.</li> <li>중국은 상대국들과 밀접히 협력하며 회담을 계속하고 대화가 늘 진전되도록 촉진하는 건설적 역할을 맡을 것임.</li> <li>우리는 관련 당사국들이 동등한 참여정신과 참을성 있는 협상정신으로 견해차이는 무시하고 공통점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2			<p>추구, 회담 목적의 조기실현을 위해 긍정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를 희망함.</p> <p>북한, 러시아로부터 여객 및 화물용 비행기 5대 도입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 이타르 타스통신</li> </ul> <p>FIFA, 북한에 2002년 월드컵 참여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벨란제 회장명의 북한축구협회장 최용해앞 서신</li> <li>◦ 지난 91년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에 남북 단일팀이 참가하였듯이, 이번 2002년 대회에도 북한이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고 만약 북한측이 FIFA의 제의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나와 FIFA간부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북한을 방문할 것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3	<p>정부, 4자회담 대표단 명단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대표 : 이시영 주불대사</li> <li>○ 차석대표 : 문무홍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장</li> <li>○ 대표 : 유명환 외무부 북미국장, 이봉조 통일원 제1정책관, 권종락 청와대 외교비서관, 유진규 국방부 군비통제관, 이수혁 주미 정무참사관, 진옥현 총리실 심의관</li> </ul> <p>〈각국 수석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 스텐리 로스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li> <li>- 중국 : 당가선 외교부부부장</li> <li>- 북한 : 김계관 외교부부부장</li> </ul> <p>KEDO-북한간 경수로 발전소 품질보장 및 보증에 관한 의정서 협상 속개(뉴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대표</li> </ul> <p>KEDO측 : 메첼 리스 차 문관 북한측 : 원자력총국고문 이명식</p>		<p>일본시사통신, 북한 여자유도선수 배동숙 금지약물 양성반응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10월 파리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때 여자 48kg급에서 3위를 차지한 배동숙이 1, 2차 테스트에서 모두 약물 양성반응을 보였음.</li> </ul> <p>지미 카터 전미국대통령, 미국에 대북제재 해제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PI통신 회견</li> <li>○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하며, 한국·일본 그리고 인접국들이 아무 조건없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도록 협력해야 함.</li> <li>○ 이렇게 되지 못할 경우 북한이 전쟁</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3			<p>을 도발하는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p>
12. 4		<p>노동신문, 일본 마이니찌 신문의 조은 오사카 신용조합의 북한송금의 흑사건 보도는 남한당국의 사주에 의한 모략이라고 비난 논평</p>	<p>북경방송, 평양수원지 공사에 중국자재 지원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중국의 평양시 수도공장(수원지)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선 평양시에 냉간압연규소판 8톤과 에폭시수지 절연물 1톤을 보냈음.</li> <li>◦ 평양시 수도공장 확장공사가 준공되면 평양시 물공급 긴장이 풀리게 될 것임.</li> </ul> <p>더글러스 카우츠 WFP 북한담당이사, 북한기아사태 내년초 재현가능성 우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당국이 올해 추수 양곡을 풀고 있어서 배급량이 하루 4백g까지 읊</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4			<p>라 갔지만 내년 2-3월까지의 배급 물량이 바닥나 이전과 같은 식량부족사태가 또 빚어질 것임.</p>
12. 5		<p>노동신문, 미국이 4자회담과 관계 없이 북침전쟁 연습에 몰두하고 있다고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호전세력은 조선반도 유사시 공동대응으로 남조선과 일본 자위대를 들켜대로 내세워 우리공화국에 대하여 집단적 공격을 가하려 하고 있음.</li> <li>○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는 미국이 대조선정책을 시정하고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철수시켜야 함.</li> </ul> <p>민주조선, 미국에 자유아시아 방송 중단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이 자유아세아 방송을 통한 사상문화적 공세에 힘안이 되어 날뛰고 있으며, 조선인민과 아세아 인민들을 사상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키려는 어리석은 내정간섭 책동을 당장 걷어 치워야 할 것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5		<p>노동신문, 4자회담 관련 남한의 국제공조외교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일당이 4자회담의 개최와 때를 같이하여 주변 나라들을 돌아치며 공조체제와 영향력 행사를 통하여 조·미회담을 지연·파탄시키려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언동을 일삼았음.</li> <li>◦ 김○○일당은 최근 우리와 미국 사이의 관계개선과 재조 일본여성들의 고향방문, 일본연립 3여당 대표들의 공화국 방문의 실현으로 조·일 관계개선에서도 진전을 보이는 것을 역전시켜보려고 발을 벗고 나선 것임.</li> </ul>	
12. 6		<p>각종훈장수여 정령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일성 청년영예상, 공훈노력훈장, 국기훈장 제2급 및 전사의 명예훈장 수여자 총 4,241명</li> <li>◦ 시계표창자 5명</li> <li>◦ 김정일 표창 10명 등</li> </ul>	<p>국제인도주의 기구, 올해 총 1억 6백만불 대북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ICEF 한국위원회 자료</li> <li>◦ 국제아동보호기금, 세계식량계획, 유엔개발계획 등 유엔의 7개 인도주의 기구가 97년 4월부터 지난 10월 8일까지 각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6			<p>거나 지원을 약속 받은 북한 구호기금은 위와같이 집계됐음.</p>
12. 7		<p>중방, 미군의 야간훈련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제 호전광들이 해외기지들에서 날아든 전투폭격기 등을 투입하여 양양, 태백일대에서 북침을 노린 실전연습을 감행하였음.</li> <li>◦ 이것은 미제가 앞에서는 긴장완화요, 회담이요 하지만 우리를 무력으로 압살하려는 저의에 변화가 없음을 실증하는 것임.</li> </ul>	<p>에릭 괴매레 「국경없는 의사들(MSF)」 사무총장, 북한의 의료체제 붕괴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방문후 홍콩 기자 회견</li> <li>◦ 북한에는 의사와 병원은 있지만 아스피린이나 마취약 등 기본적인 의약품이 없어서 환자들도 없었으며, 거의 전인구가 전통약초를 제외하고는 전혀 가료방법이 없는 처지였음.</li> </ul> <p>데이비드 허즈번드, UNDP 신임사무국장 방한</p> <p>일본정부, 북경수로 건설비용 수출입은행 융자로 총당(아사히신문)</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8	<p>정원식 한직총재,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수락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전화통지문</li> <li>◦ 11월 17일 귀측의 2차분 분배내역 문건과 함께 제 4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제안 전화통지문을 받았음.</li> <li>◦ 남북적십자대표접촉은 남의 나라가 아닌 한반도 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정성어린 물자들을 귀측에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북경에서 만나자는 귀측의 사를 수락함.</li> <li>◦ 아울러 이번 제4차 대표접촉에서는 귀측에 전달된 물자의 분배결과의 투명성에 진일보한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기대함.</li> <li>◦ 접촉일자는 오는 12월 22일(월)이 좋겠으며, 지난번과 같이 사무총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그날 오전 10시 북경</li> </ul>	<p>『조평통』대변인, 금호지구내 남한측 경수로 건설자 부재자 투표불허 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은 경수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금호지구에서 일하고 있는 남조선측 인원들에 대한 대신 부재자 투표를 할 것이라는 것을 발표했다고 함.</li> <li>◦ 남조선 인원들의 부재자 투표는 금호지구에서의 정치행위를 할 수 없다는 우리와 KEDO사이의 협정자체를 위반하는 행위임.</li> <li>◦ 우리는 남조선이 부재자 투표행위로 공화국 북반부를 그들의 영토로 명기한 헌법을 합법화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보고, 추후도 이를 용납치 않을 것이며 합의사항에 배치되게 행동한다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li> </ul> <p>중방, 고건 총리 국방대학원 졸업식 치사(12.3) 비난</p>	<p>모하메드 알바라데이 IAEA사무총장, 북한 폐연료봉 내년초 봉인완료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연설</li> <li>◦ 91년 미·북 제네바 핵합의에 따라 북한 핵동결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영변 5메가와트 실험용 원자로의 폐연료봉 봉인이 내년 봄까지 완료될 것임.</li> </ul> <p>미국방부, 북한과 내년중 5차례 미군유해발굴 합의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일 뉴욕에서 이뤄진 합의에 따라 1950년 미제2보병사단이 후퇴하면서 1천 7백여명이 실종된 지역(구양군·개천시)에서 발굴작업이 이뤄질 것임.</li> </ul> <p>무라오카 가네조 일</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8	<p>의 「차이나월드」 호텔에서 만나면 될 것으로 봄.</p> <p>KEDO 집행이사협의회 개최 (뉴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번 집행이사 협의에서는 98년도 KEDO 행정 예산 및 재원분담등 여타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우리측에서는 장선섭 경수로기획단장이 참여함.</li> </ul>		<p>본 관방장관, 일·북간 일본인처 2진 고향방문협의 발표</p>
12. 9	<p>4자회담 제1차 본회담 개막 &lt;각국 기조연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틀 마련이 긴급함. 당사자인 남북이 중심이 되어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 남북간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 광범위한 긴장완화 조치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 조치, 현정전협정의 준수와 군정위 기능정상화,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천조치 필요</li> <li>○ 북한 : 조선반도의 공고한</li> </ul>	<p>노동신문,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대통령 후보들속에서 국가보안법을 존속시켜야 한다는 소리는 저들이 집권하면 선임자의 진철을 밟아 남조선 인민들의 통일지향을 탄압, 말살하고 조국통일의 앞길에 장애를 쌓겠다는 소리임.</li> </ul> <p>중방, 미군철수는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기본열쇠라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남조선 강점으로 민족적 자주권과 통일적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국토양단과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지 못하고 있음.</li> </ul> <p>신임 유엔주재 북한 상임대표 이형</p>	<p>래리 기어 미국방부 대변인, 북한에 미군 유해발굴 관련 67만 불 지불동의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년에 작업이 실시된 발굴지 1개소 마다 연료비와 용역비의 보상금 형태로 13만4천백 달러씩, 합계 67만2천 달러를 북한에 지불하기로 동의했음.</li> <li>○ 양측은 1차 발굴에 앞서 관련자료들을 서로 교환하는 등 발굴장소를</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9	<p>평화보장 체계를 위해 하루빨리 조·미사이에 정전협정을 대신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군철수 문제가 기본으로 해결되어야 함.</p> <p>미국은 조·미기본합의문에 따라 우리를 반대하는 정책을 그만두고 실제적인 제재완화 조치를 취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 중국은 4자회담 틀 내에서 관계개선, 신뢰구축 강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임. 남북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며 조·미관계 개선과 정상화가 실현되기를 희망함.</li> <li>○ 미국 : 미·북관계의 변화를 희망하며, 4자회담 과정을 통해 한반도의 기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함.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임.</li> </ul> <p>한·미연례 안보협의회</p>	<p>철, 12.4 유엔사무총장에게 신임장 증정</p>	<p>확정하기 위한 협의를 별도로 가질 예정임.</p> <p>일본 해상보안청, 북한화물선 백운산호선장 위조엔화 사용혐의로 체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운산호 선장 인필성이 선상거래에서 위조된 지폐 1만엔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음.</li> </ul> <p>잠비아 관광장관, 잠비아 주재 북한 외교관 물소뿔밀반출 혐의로 체포(12.7) 발표</p> <p>윌리엄 코언 미국방장관, 주한미군 협상대상불가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기자회견</li> <li>○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협이 현저하게 감소한 뒤 한·미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9	<p>(SCM) 개최(워싱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석자</li> <li>◦ 한국측 : 김동진 국방부장관</li> <li>◦ 미국측 : 윌리엄 코언 국방부 장관</li> <li>◦ 북한식량난과 군사위협 등 한반도 안보정세평가와 4자회담 대책, 양국 안보협력 강화방안 논의</li> </ul>		<p>에 협의되어야 할 문제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자회담에서의 북한측의 미군철수 주장은 협상대상이 아니며, 한·미양국의 군사력 규모에 관한 검토는 보다 심도있고 장기적으로 이뤄져야함.</li> </ul>
12. 10	<p>4자회담 제1차 본회담 폐막 (12.9-10, 제네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탠리 로스 미국무부 차관보 의장성명</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장국 추천결과 차기회의 의장국은 중국, 한국, 북한, 미국순으로 결정되었음.</li> <li>2. 차기 본회담은 내년 3월 16일 제네바에서 개최함.</li> <li>3. 1차 본회담 의장국은 2차 본회담 이전에 동회담 준비를 위해 2월 중순 북경에서 특별소위원회를 소집함.</li> <li>4. 동 특별소위원회에서는 2차 본회담에서 논의할 사</li> </ol>	<p>중방, 남한 대통령후보를 비난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한의 대통령선거 유세에서 후보로 나선 사람들은 이행도 하지 않을 공약남발에만 열을 올리고, 우리민족의 절박한 과제인 통일에 대한 말한마디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권력의 자리만을 노리고 있음.</li> </ul> <p>중방, 북·일 적십자회담 개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11-12 양일간 북경에서 북·일 적십자 연락협의회 제2차 회의가 개최되어 일본인 여성들의 제2차 고향방문 관련 실무적 문제들이 토의됨.</li> </ul>	<p>제임스 폴리 미국무부 부대변인, 4자회담 진전희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래 브리핑</li> <li>◦ 미국은 4자회담이 빠른 진전을 보이기를 바라며, 한반도는 유일하게 냉전체제로 남아있어, 4자회담이 한반도에 평화체제와 긴장완화를 가져오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이 될 것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10	<p>안들을 검토하여 이를 동 회담에서 심의하도록 건 의함.</p> <p>이시영 수석대표, 회담결과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자 대표단은 모두 금번 회의를 위한 스위스 정부 의 지원에 사의를 표함.</li> <li>○ 이번 본회담에 개최로 한 반도 평화를 위한 긴 여 정이 시작됐으며, 정부는 향후 서두르지 않고 문제 들을 풀어나갈 방침임.</li> <li>○ 특별소위원회는 차기회담 준비뿐만 아니라 본회담 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논 의할 것인 만큼 분과위 기능을 하기를 기대하며 국장급이 참여할 것임.</li> </ul>		
12. 11	<p>통일원 대변인, 북한경수로 근로자 부재자 투표 관련 성 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북한 금호지구의 경수로부지의 우리측 KEDO 인원의 부재자투 표 실시를 위해 필요한 제반노력을 기울여 왔음.</li> </ul>	<p>중방, 미국은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버리고 평화보장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p> <p>북적 위원장 대리 이성호, 제4차 남 북적십자 대표접촉 참석예정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남전화통지문</li> <li>○ 귀측이 제4차 북·남 적십자 대</li> </ul>	<p>러시아방송(이타르타 스 통신), 몽골주재 북한대사관 폐쇄 보 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외화난 때 문에 몽골대사관 을 폐쇄하기로 하 고 제3국의 대사</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러나 북한은 12월 8일자 「조평통」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를 비난하고, 12월 10일 KEDO 사무국에 거부입장을 통보해 오는 등 투표권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하였음.</li> <li>○ KEDO인원은 소속국가의 국내법 규정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북한이 이를 방해하는 것은 KEDO와의 합의사항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정부는 북한의 이번 조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함.</li> <li>○ 정부는 북한이 이들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향후 부당한 행위로 경수로사업에 난관을 조성하지 않기를 기대함.</li> </ul>	<p>표들이 실무접촉을 가질 데 대한 우리측 제의에 동의한 집에 유의하면서, 귀측과의 접촉을 위하여 오는 12월 22일 우리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서기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베이징에 내보낼 것임을 통지하는 바임.</p>	<p>관을 거쳐 몽골과의 외교접촉을 지속하기로 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울러 정상회담 북한대사는 오는 25일 북한으로 돌아갈 것임.</li> </ul> <p>진건 중국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 한반도 평화정착엔 인내심 필요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적 이유들과 4자간의 다양한 입장으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길고도 복잡한 과정이 될 것임.</li> <li>○ 그러나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4자회담의 최종적인 성과와 성공을 확신함.</li> </ul>
12. 12	<p>통일원 대변인, 기본합의서 채택 6주년(12.13) 즈음, 북에 합의서 이행촉구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사적으로 커다란 의</li> </ul>	<p>외교부 대변인, 4자회담 관련 중앙통신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반도에서 대결이 종식된다면 미군의 간섭을 종결시키는</li> </ul>	<p>강택민 중국국가주석, 한반도 평화위해 건설적 역할 언급(일본니혼게이자신문 기</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12	<p>의를 지난 「남북기본합의서」가 북한측의 외면으로 아직까지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에 평화를 이룩하고 남북간에 민족적 화해와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남북간의 모든 합의사항들이 조건없이 준수·이행되어야 함.</li> <li>○ 특히 4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된 만큼, 우리는 북한이 남북간 화해와 평화, 그리고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함.</li> </ul>	<p>것이 너무나 당연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미군이 남조선에서 철수하는 것이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담에서 미국과 남조선은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전부인양 주장하였음.</li> <li>○ 북남합의서에 관해서 말한다면 그것의 이행은 명백하게 조선민족의 내부문제이며,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에 달려있음.</li> <li>○ 우리의 군사적 위협 때문에 미군을 철수할 수 없다는 미국과 남조선의 주장은 불합리하고 대화 상대방에 대한 무례한 행동임.</li> </ul>	<p>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남북한 및 미국, 중국의 4자회담 본회담이 개최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중국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임.</li> </ul>
12. 13		<p>노동신문, 남북기본합의서 불이행은 남조선 당국의 대결책동때문이라고 비난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남합의서가 채택된지 6년이</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13		<p>되었지만 아무런 결실도 보지 못하고 있음. 그것은 전적으로 남조선의 배신적 책동에 기인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에서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제거하는 것은 북남합의서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필수적 조건임.</li> <li>○ 남조선 당국자들은 반민주, 반통일적인 국가보안법 철폐와 남북 폐쇄정책을 철회하는 데로 방향 전환해야 됨.</li> </ul> <p>「범청학련」 북측본부, 범청학련 남측본부 공동사무국(베를린) 폐쇄관련 남한당국 비난 성명</p>	
12. 15	<p>외무부 대변인, 탈북자일가족 4명 귀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지난 10월 제3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 귀순을 요청했던 탈북자 일행의 국내이송을 위해 관계국 정부와 교섭을 계속하여 왔으며, 이들중 김경환(가명)일가족 4명이 어제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였음.</li> </ul>	<p>중방, 비전향장기수 송환 러시아지역 고려인 대책회의에 참석한 북한 가족이 모스크바에서 남한의 김영태, 함세환 등과 전화통화했다고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소문 채택 및 서한발송</li> <li>정원식 한적총재</li> <li>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li> <li>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li> <li>빌 클린턴 미국대통령</li> <li>엘버트 고어 미상원의장</li> <li>뉴터 킹리치 하원의장</li> <li>지미 카터 전미대통령</li> </ul>	<p>자나르단 샤르마 네팔 세관장, 북한외교관 부부 금괴밀수혐의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팔 공항으로 1백kg의 금괴 밀반입(14일) 혐의</li> </ul> <p>나라얀 움스피어 타파 네팔 외무부 대변인, 금괴밀수 북한외교관 추방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라리 라지 샤르마 네팔 외무장관</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15			<p>은 15일 김태종 주네관 북한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북한외교관 조근하와 처 운승화에 대해 72시간내 출국을 명했음.</p>
12. 16	<p>권오기 통일부총리 주재 통일관계장관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자회담 1차 본회담 결과를 종합 검토하고, 향후 4자회담의 정신과 원칙을 견지하면서 장기적 구도 위에서 차분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함.</li> <li>○ 대북 경수로사업은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함.</li> <li>○ 「'98 통일기획요원 양성」 관련, 95~97년간 추진된 1단계 양성사업에 대해 종합평가하고, 향후 이튿토대로 2,000년까지의 2단계 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li> </ul>	<p>중방, KBS연속극 “진달래 필때까지”는 남한당국의 허위날조라고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반부 인민들은 남한당국이 개입된 반공모략극 제작놀음을 치솟는 분노로 단죄하며, KBS는 민족의 의지를 대변한 우리의 경고를 뚝뚝히 명심해야 함.</li> </ul> <p>미뉴욕타임지에 김정일 찬양 전면 광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16일자 미뉴욕타임지 21면</li> <li>○ 한국당국이 현재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대결정책을 포기할 경우 민족의 장래운명을 논의하고 통일달성을 위한 공동노력을 위해 언제든지 만나 협상할 용의가 있음.</li> </ul>	<p>러네 발린 미 연방교도국 공보관, 미국내 북한인 재소자 29명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연방 법무부산하 연방교도국 관련자료 인용</li> <li>○ 현재 미국내 각 주 연방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북한국적 소유자는 29명이며, 이들의 신원이나 죄명은 공개할 수 없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17		<p>중방, 소련인민대의원대회 상설상무위원회에서 “국제공산주의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김정일에게 「10월혁명훈장」을 수여했다고 보도</p> <p>백두산 3대장군(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교시(말씀)판 김정숙종합군관학교에 건립</p>	<p>대만연합보, 대만핵폐기물 북한이전계약 취소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만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북한과 체결한 핵폐기물 매립계약을 취소할 것임.</li> <li>○ 행정원 원자력위원회가 북한의 핵폐기물 처리시설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북한에 핵폐기물을 선적하려는 대만전력공사의 계획을 거부했음.</li> </ul> <p>북한거주 일본인처 2진 19명 내년 1월 방일예정(일본산케이신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처 고향방문단 제2진 19명이 내년 1월 20일께 일본에 도착할 예정임.</li> <li>○ 북한은 지난 12일 베이징에서 열린</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17			<p>북·일연합회의에서 일본인 체제2진 19명의 명단을 일본쪽에 제시했음.</p> <p>아카시 야스시 유엔 사무차장, 북한 식량위기 악화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FP보고서 인용</li> <li>◦ 북한의 식량위기가 올해말 더 악화될 것이며 북한에 대한 지원을 늘리지 않을 수 없음.</li> </ul> <p>러 방송, 러시아의 대북식량지원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는 북한에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을 주고 있으며, 최근 평양에 35억루블 어치에 달하는 3백70톤의 식량이 전달됐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18		<p>김정숙 칭송 글발제막식 거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강산 삼일포의 자연바위에 새겨지는 글발의 글자 한자의 높이가 4-6m, 넓이가 3-5m임.</li> </ul> <p>외교부 대변인, 이슬람 정상회의 지지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성에 기초하여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이슬람교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굳은 연대성을 보냄.</li> </ul>	
12. 19	<p>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남북 정상회담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 당선 기자회견</li> <li>◦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변 4대국 미·일·중·러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었으며, 4자회담을 앞으로도 성과있게 추진하겠음.</li> <li>◦ KEDO에 의한 북한 경수로 지원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임.</li> <li>◦ 남북한의 직접대화를 통해서 우리문제는 우리민족끼리 해결하는 길을 모색하겠으며, 여기에는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이 가</li> </ul>	<p>노동신문, 일본의 한반도정책 개선 촉구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일관계 개선의 장애물은 일본의 대북적대정책과 대남조선 편향정책임.</li> <li>◦ 일본의 우익세력들은 이른바 "납치의혹사건"을 제기하여 대북적대감을 선동하였음.</li> </ul> <p>노동신문, 남한 콘크리트 장벽 해체 주장</p> <p>중·평방, 남한대통령 선거 소식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 이타르타스 통신 인용</li> <li>◦ 괴뢰대통령 선거가 주민들의 무관심속에 시작되었으며, 그러한 무관심성은 온갖 추문과 부정부</li> </ul>	<p>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북한에 농업차관 공여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FAD는 북한의 식량부족현상을 해소시키기 위해 2천8백90만달러의 농업차관을 공여했음.</li> <li>◦ 이 차관은 신속한 식량 증산 방법과 북부 산악지대에 서의 목축업지도에 쓰여질 것임.</li> </ul> <p>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 북한의 한국대선</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19	<p>장 중요한 요건이 될 것임. 북한에 대해 남북합의서에 기초한 대화의 재개를 제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며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임. 통일은 그 이후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할 문제임. 남북한간 교류와 협력을 재개하고 필요하다면 북한의 김정일 총비서와 정상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함.</li> </ul> <p>법청학련 전 남측대표, 공동사무국(베를린) 폐쇄관련 북측본부 비난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월 13일자 법청학련 북측본부 성명에 대한 우리의 입장</li> <li>○ 북측본부는 시대착오적인 발상과 동지름 적으로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하며, 보다 성숙한 남·북·해외의 3자 연대가 이뤄지길 기대함.</li> <li>○ 법청학련 공동사무국을 한총련과의 합의하에 비밀리에 다른 곳으로 이전</li> </ul>	<p>패에 대한 비난전으로 옹근 한해를 망쳐놓은 정계에 대한 평민들의 환멸감과 금융경제 위기로 설명됨.</p>	<p>결과신중반응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대사관 논평 인용</li> <li>○ 한국의 대통령 당선자에게서 우리가 특별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추이를 지켜보겠음.</li> </ul> <p>한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한 주요국가 반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 “제임스 폴리” 미국무부 대변인은 생산적인 한·미관계가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논평. 한편 “마이크 맥커리” 백악관 대변인은 클린턴대통령이 한국민의 인상적인 민주주의 행사를 축하하였다고 언급</li> <li>○ 일본 : “하시모토” 총리는 양국간 상호신뢰를 강화해</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19	<p>했다는 북측본부의 주장은 음모적이고, 위협한 행위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본부는 수준이하의 소아적 반상으로 전 남측 대표들을 비난하여 남측 통일운동가들에게 문제의식을 안겨주었으며 비민주적, 상명하달식의 조직운동을 고집했음.</li> <li>○ 의견이 다르다고 상대를 남한당국의 마수로 단정하는 것은 과거 독재정권의 마녀재판과 다를 바 없음.</li> </ul>		<p>양국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4자회담 및 남북대화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 외교부 대변인은 한·중간 선린우호 협력관계의 지속발전, 남·북관계 및 4자회담의 진전을 희망한다고 언급</li> <li>○ 러시아 : 외무부 대변인은 세계평화와 발전을 위한 양국정치·경제협력 및 국제사회에서의 건설적 관계가 새롭게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논평</li> </ul>
12. 20		<p>김정숙에 대한 충성맹세 당·군·정 결의대회 개최(회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 : 박성철, 전병호, 양형섭, 최태복, 김철만, 김중린, 백학립, 이하일, 김일철, 김익헌, 김복신, 장 칠 등</li> </ul>	<p>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한국대선 관련 남북관계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스분석기사</li> <li>○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정이 이미</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20		<p>평방, KBS드라마 제작위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BS가 TV방송극을 당장 중지하지 않는다면 KBS단원과 이에 동조하는 정치인에 대해 보복하겠음.</li> </ul>	<p>시작됐고, 제1차 4자 회담이 열린 상태에서 항구적인 평화·안정의 실현과 남북관계 개선은 한국의 대외발전환경 조성여부는 물론 동북아 및 아·태지역의 평화와 발전에도 관계됨.</p>
12. 21		<p>중·평방, 내·외신인용 남한정권 교체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신들과 남조선 방송들은 정권 교체가 이뤄지게 됐으나 앞으로 대통령 당선자앞에는 난제들이 산적돼 있다고 전하고 있음.</li> </ul>	
12. 22	<p>권오기 통일부총리 주재 통일고문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자회담 제1차 본회담 진행경과 설명</li> <li>◦ 4자회담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긴여로의 시작임.</li> <li>◦ 정부는 4자회담의 정신과 원칙을 견지하면서 장기적인 구도속에 차분하게 추진할 방침임.</li> </ul>	<p>중방, 남한 전직대통령 사면 복권 비난</p> <p>유엔주재대사 이형철, 거스홀 미국 공산당 전국위원장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정일 인사장 전달</li> </ul>	<p>폴 닐슨 덴마크 해외 원조 장관, 북한의 EU쇠고기 지원 덴마크에 중재 요청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김영남 부총리는 닐슨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익현 농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위러 마누엘 마린 EU집행위 부의장에게 편</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22	<p>○ 정부는 4자회담이 본격적인 협상국면으로 진입했다는 점을 감안, 평화체제 구축, 긴장완화, 신뢰구축 등 세부대책을 강구하고 “한·미공조” “한·중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임.</p> <p>제3차 대북 구호물자지원 남북적십자 대표접촉</p> <p>• 베이징 차이나월드 호텔</p> <p>〈대표단〉</p> <p>한국 : 이병용, 조명균, 김장균 북한 : 최경민, 정영춘, 리천일</p>		<p>지름 보내 쇠고기 원조조건을 상기시킨바 있다”면서 “쇠고기 원조가 머지않아 실현될 수 있도록 바란다”고 말했음.</p>
12. 23	<p>제3차 대북구호물자지원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이틀째 회의개최</p> <p>• 북경 차이나월드 호텔</p>	<p>조평통 서기국, 통일민주세력 탄압 비난 보도</p> <p>○ 남한에서 애국적인 통일민주 세력을 탄압말살하는 책동이 연중 벌어지고 있음.</p> <p>중방,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6돌 즈음 가로 13m, 세로 5.5m의 명제 글발을 구월산 자연바위에 새겼다고 보도</p> <p>• 명제글발 : 「서해명승, 김정일, 1997년 5월 1일」</p>	<p>미재무국 해외자산통제국, 대북한 채권보유현황 조사착수</p> <p>•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자료</p> <p>○ 미 재무부 해외재산통제국은 최근 관보를 통해 북한 정부 또는 국영기업에 대해 미국인이 보유중인 채권을 오는 98년 3월 9일까지 신청하도록</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23		<p>김정숙출생 80돌 즈음 중앙보고대회 개최(평양체육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석 : 이종욱, 박성철, 김영남, 계용태, 전병호, 한성룡, 이을선, 백학립</li> <li>•사회 : 강현수(평양시당책임비서)</li> </ul> <p>노동신문,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6돌즈음 김정일을 결사 응위하자고 논평</p>	<p>특 공고했음.</p>
12. 24	<p>합참, 「주요지위관 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방부 제1회의실</li> <li>◦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분석하고 군사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98년도 군사대비 방향을 토의함.</li> <li>◦ 합참은 동북아지역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군사력에 의존한 통치체제를 강화하면서 대남적화 전략을 고수하고 있어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하였음.</li> <li>◦ 특히 북한이 한국의 정부 이양기, 경제적 어려움</li> </ul>	<p>중방, 밀입북 오익제를 「조평통」 부위원장으로 임명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평통」 부위원장이며, 조선천도교회중앙지도위원회 고문인 오익제가 23일 김정숙의 혁명화동자료 전시장을 참관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24	<p>등을 악용하여 사회혼란을 기도하는 한편 각종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p> <p>제4차 남북적십자 대표 접촉 제3일차 전체회의 개최(12. 24, 북경 차이나 월드호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측 : 대북구호물자 전달에 대한 분배결과 확인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분배결과 확인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li> <li>○ 북측 : 국제연맹 현지 대표들의 남측 구호물자 전달지역에 대한 분배결과 확인 보장에 대해 2차 합의서보다 후퇴된 입장을 노정</li> </ul> <p>•합의서 미채택</p> <p>북한주민 2명 서울도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10월 제3국에 있는 우리대사관에 귀순을 요청했다가 인접국으로 추방당한 탈북자 일행중 박천무(가명)와 또다른 제3국 우리대사관에 귀순을 요청한 최수영(가명)등 탈북자 2명이 12.24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였음.</li> </ul>	<p>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6돌 즈음 중앙보고 대회 개최(12.24, 4.25 문화회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석 : 이종욱, 박성철, 김영남, 계용태, 전병호, 한성룡, 이윤설, 조명록, 양형섭, 최태복, 김철만, 홍성남, 김국태, 김기남, 김중린, 김용순, 전문섭, 백하림, 이하일, 김일철, 김익현, 박기서, 장철 등</li> <li>○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위대한 수령의 유훈이며, 더 이상을 미룰 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임.</li> <li>○ 미국의 호전세력들과 남조선 괴뢰도당이 계속정세를 긴장 시킨다면 용당한 자위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후과는 그들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임.</li> </ul> <p>김정숙종합군관학교에 김일성·김정숙 동상건립(12.24, 중방)</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24	<p>북한탈출 한국전쟁 국군포로 입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전쟁중에 북한에 억류됐던 국군포로 양순용 씨는 지난 10월 식량을 구하기 위해 중국으로 탈출한 뒤 한국귀환을 모색한 끝에 지난 24일 입국했음.</li> <li>○ 북한억류 국군포로의 귀환은 지난 94년 조창호씨에 이어 두번째로 양씨는 한국전쟁때 북한군과 교전중 포로가 됐으며, 그동안 국군포로들이 집단 수용돼 있는 함경도에서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음.</li> </ul>		
12. 25		<p>중방, 김영삼 대통령의 전방부대 시찰(12.23) 비난</p>	
12. 26		<p>『조평통』 대변인, 전직대통령 사면복권 관련 비난 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사면복권은 남조선의 민주세력과 그리고 내외여론을 우롱하고 모독하는 반민족, 반민주적 죄행으로 인정함</li> <li>○ 진정으로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li> </ul>	<p>러시아 하원, 북한과 항공협정 비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협정은 러시아와 북한 양측 항공회사의 지정과 권리를 규정하고, 기술적·상업적 제반 문제점들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26		<p>면, 인민들의 원한이 사무친 광주관련자들을 풀어줄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갖혀있는 양심수들과 비전향장기수들을 지체없이 석방하기 위한 길에 나서야 할 것임.</p> <p>사회주의 헌법 발표 25돌 즈음 중앙보고회 개최(인민문화궁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절박한 요구는 남조선의 외세의존정책에서 벗어나 동족과 손을 잡고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정책전환을 하여야 함.</li> </ul>	<p>규명하는 한편, 협정항로를 통한 비행 및 여객과 화물·우편물의 교환을 허용함.</p>
12. 27		<p>노동신문, 주체의 사회주의제도 고수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주의 헌법은 당과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국가사회생활의 제원칙들과 중요과업들을 규제한 주체의 사회주의 헌장임.</li> <li>○ 혁명의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달라진다해도 사회주의의 본성에서는 사소한 변화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인민의 화고부동한 의지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28			<p>영국 선데이 타임스지, 남·북한 군사력 비교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왕립연합서비스 연구소 연례보고서</li> <li>◦ 각국의 국방예산과 군대, 규모, 군사력 배치상황 등을 토대로 순위를 매긴 결과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6위며, 북한은 7위로 평가됐음.</li> <li>◦ 한편,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 3위 러시아, 4위는 프랑스이며, 영국이 5위를 기록했음.</li> </ul> <p>미 워싱턴포스트지, 한국에 대한 구제금융지원은 북한도발 억제에 중요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미국무부, 국방부,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는 백악관상황실에서 대</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28			<p>책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한국의 혼란이 야기할지도 모름 북한의 도발에 따른 한국의 안보상황을 우려하는 한편, 김당선자가 IMF프로그램의 이행을 밝힘으로써 지원결정을 하게 되었음.</p> <p>북한, 대만과 투자보장 및 조세협정 추진(대만경제일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시 진출구사업 동업공회 회장 리 쉥량 인용</li> <li>◦ 북한은 대만과의 경제적인 유대관계를 보다 긴밀히 하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대만과 투자보장협정 및 조세협정을 체결하기를 바라고 있음.</li> </ul> <p>유엔, 내년 대북 식량 지원 70만톤 계획 발표</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은 내달초 유엔 인도지원국(D-HA) 주관으로 70만톤 규모의 제4차 대북 식량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국제사회의 동참을 호소할 것임.</li> </ul>
12. 30	<p>합참, 12월중 대남심리전 방송시간 절반이하 감소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루평균 방송시간이 4시간 30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시간 18분에 비해 절반이하로 감소</li> <li>○ 특히 중서부전선 일부지역에서는 2일부터 25일까지 전면중단 사례도 있었음</li> </ul> <p>북한탈북 일가족 9명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운(63)씨와 부인·아들 내외 등 지난 8월북한을 탈출, 10월 중순과 이달초 제3국 경유 입국</li> </ul>		

# 찾 아 보 기



ㄱ

경수로건설자 부자재무표 ..... 320, 324  
 경수로관련 남북한통신개통..... 224  
 경수로바지선 시험운항 ..... 205  
 경수로부지공사 착공식 ..... 239, 240  
 경수로사업관련 남북한우편물교환 ..... 211  
 국군포로 송환 ..... 148,150,338  
 국제사면위원회..... 170  
 권오기풍일부총리  
 - 국가안보태세 강화인급 ..... 160  
 - 민간부문 대북지원창구 단일화당부 ... 97  
 - 북한기아해결 자구노력촉구 ..... 87  
 - 북한을해식량위기극복가능 ..... 150  
 김광진사망 ..... 53  
 김대중대통령당선자 남북정상회담제의 ... 331  
 김영삼대통령  
 - 김정일총비서승계계기 변화촉구 ..... 286  
 - 북한에대남적화노선 포기촉구 ..... 196  
 - 북한에 4자회담수용촉구 ..... 92  
 - 신년사 ..... 1, 2  
 - 유엔환경특별총회  
 연설관련 ..... 177, 184, 186  
 - 한반도평화정착 4대방향제시 ..... 237  
 - 한·일 베틀루 정상회담 ..... 18  
 김정일  
 - 강택민 중국국가주석 취임축전..... 262  
 - 구월산유원지방문 ..... 266  
 - 군사칭호 올려줄데 대하여 ..... 98  
 - 김일성군사종합대학 방문 ..... 258

- 김책공군대학 방문..... 311  
 - 논문..... 173  
 - 당창건일즈음금수산기념궁전 방문 ... 285  
 - 동부전선 1211고지 시찰..... 98  
 - 동해안알섬방어대 시찰 ..... 297  
 - 모내기참여근로자에 서신 ..... 158  
 - 서해안최전방 제212군부대 시찰..... 56  
 - 송암소목장 방문..... 287  
 - 『오중흡7연대』칭호쟁취관련  
 제1576부대 방문 ..... 271  
 - 인민군전람회 참관 ..... 57  
 - 제969군부대 방문 ..... 108  
 - 제233대연합부대전방지휘소 방문..... 293  
 - 조선인민군청년기동선전대원들 집견 ... 2  
 - 『청년동맹』선포1돌즈음 서한발송 ..... 11  
 - 총련의장한덕수 집견 ..... 195  
 - 총비서 추대관련..... 264, 265, 266,  
 275, 280, 281, 282

ㄴ

남북 관계직통전화설치 합의 ..... 276  
 남북적십자회담 관련 ... 101, 102, 108, 112,  
 120, 144, 146, 203, 207,  
 213, 214, 295, 296 320,  
 324, 335, 337,  
 남북한 항공회담 ..... 80  
 남포해안 정치범수용소 ..... 179  
 노동법·안기부법 개정관련..... 3, 7, 8,  
 10, 24, 43, 64, 69

ㄷ

당보·군보·청년보 공동사설..... 1

대구~평양비행정보구역양해각서서명 ... 289

대만핵 폐기물 ..... 6, 8, 9, 11, 13, 15, 16,  
17, 19, 20, 22, 25, 27, 29,  
30, 31, 34, 38, 49, 56, 61,  
75, 76, 82, 93, 97, 113, 156,  
166, 167, 205, 221, 329

대북구호물자수송 ..... 158, 162, 168, 176,  
181, 183, 185, 202, 226,  
231, 243, 253, 291

대북지원관련 북적위원장 대남통지문 ... 102,  
112, 120, 136, 158, 159,  
166, 168, 175, 183, 201,  
231, 234, 295, 301, 324

대북지원관련 한적총재 대북통지문 101, 108  
115, 135, 136, 139, 140,  
152, 153, 158, 159, 162,  
168, 170, 175, 176, 178,  
181, 185, 202, 203, 210,  
226, 231, 243, 248, 253,  
291, 320

대성동주민 북한피납관련 ..... 284, 285, 287

등소평사망 ..... 45, 46

DMZ무장충돌관련 북한답화 210, 256, 257

ㄹ

미군유해 ..... 129, 133, 225, 260, 288, 320

미발견땅굴..... 214

미·북준고위급회담 ..... 61

미·일방위협력지침 ..... 164, 266, 271,  
273, 279

ㅂ

북송일본인처 고향방문 ..... 135, 144, 208,  
213, 218, 288, 293, 296, 321, 329

북·일 적십자 회담 ..... 250, 252, 255, 323

북한경수로공사 재개 ..... 275

북한경수로공사 중단 ..... 274

북한경수로 공사 착공식 ..... 238

북한군 DMZ수색정찰 사전통보 ..... 254

북한-라오스간투자장려협정 ..... 241

북한생화학무기관련 ..... 138, 142, 284, 293

북한 식량난 ..... 142, 144, 154, 209, 222

북한, 유엔인권협약 탈퇴  
관련 ..... 243, 245, 291

북한-이집트간 투자장려협정 ..... 239

북한 이탈리아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 16, 194

북한인 사체인양 관련 ..... 206, 211

북한주민귀순 ..... 14, 53, 111, 130,  
149, 178, 186, 246, 247,  
327, 337, 342

북한직파 간첩부부관련 ..... 304, 307

북한탈출 반정부 조직 ..... 143

북한파견 경수로 근로자 사망 ..... 281

비전향 장기수관련 ..... 27, 83, 133, 151,  
167, 177, 204, 255,  
270, 308, 327



ㄷ

4자회담

- 공동설명회..... 22, 58
- 본회담 ..... 306, 307, 312, 313, 315, 318, 321, 323, 325
- 3자설명회 후속회의 ..... 100, 105, 159
- 예비회담 184, 229, 261, 262, 264, 305
- 한·미·북 실무접촉..... 172
- 스리랑카 타밀반군 북한선원 납치... 195, 197

ㅇ

- IAEA-북한간실무협의 ..... 285
- 안승운목사납치관련 ..... 217, 219
- 오의제관련 ..... 248, 250, 336
- 유도황소구출 ..... 10
- 유엔사령부, 판문점군사정전위원회관련 성명
- 유종하의무장관
  - 경수로의정서위반시 추가 비용복측부담 통보..... 282
  - 대만핵 북한반출포기 촉구 ..... 167
  - 북한에 4자회담재개 촉구 ..... 271
  - 중국외교부장과 4자회담 및 대만핵협의 ..... 138
- 이남옥 CNN인터뷰 ..... 280
- 이명훈 ..... 140, 141
- 이산가족면회소설치 제의 ..... 236, 289, 296
- EU, KEDO가입..... 263
- 일본인납치관련 ..... 34, 111, 143, 156, 274

ㅈ

- 자유아시아방송 ..... 57, 63, 67, 317
- 잡수합사건 ..... 1, 286
- 조강진송환..... 259
- 조선일보사설 관련 ..... 180, 181, 183, 184, 188, 195, 196, 222
- 『조평통』대변인, 김일성사망
  - 원인보도관련 ..... 55
  - 장승길망명관련 ..... 246, 247
  - 주체연호 ..... 196, 198, 258
  - 중국의 탈북방조법 처벌새형법 ..... 69
  - G-8정상회담 ..... 174, 185

ㅊ

- 취광사망 ..... 48
- 취덕근영사..... 272
- 7.4공동성명 관련 ..... 70, 85, 187, 189

ㅋ

- KEDO-북한간실무협상 타결 ..... 187
- KEDO-북한간 경수로 의정서 서명 ..... 4
- KEDO-북한간 채무불이행시 조치의정서서명 · 발효 ..... 179
- KEDO-북한회담 ..... 98
- KEDO실무단 북한향반 ..... 89
- KEDO연례 총회 ..... 269
- KEDO집행이사회의회 개최 ..... 320
- KEDO현장사무소 개설 ..... 218
- KBS연속극「진달래꽃핀때까지」관련 ... 300,

302, 303, 328, 334

ㄷ

탈북자대책협의회 및 후원회장임명 ..... 207

통일관계장관회의..... 78, 235, 328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 41, 63, 67, 201

통일원대변인 담화

- 김정일노동당총비서  
공식추대 논평 ..... 277
-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촉구 ..... 325
- 남북적십자간 구호물자  
절차합의 환영논평..... 145
- 남북인사 송환촉구 ..... 217, 305
- 대북지원식량 투명성보장 촉구..... 237
- 유엔 인권 소위 대북결의안 채택 ..... 243
- 황장엽기자회견관련 북한에  
전쟁준비중단 촉구..... 200

ㅎ

한국대선관련 ..... 323, 331, 332, 333, 334

한반도지뢰사용관련 ..... 279

한총련관련 ..... 89, 90, 154

황장엽망명 관련 ..... 23, 31, 36, 37,  
39, 41, 42, 43, 44, 46  
62, 72, 79, 85, 88, 107,  
127, 200, 224

황장엽국적취득 비난 ..... 301

황장엽, 북한개방 촉구..... 267

황장엽 한국도착 성명 ..... 104

# 南北對話 年表

(1997. 1. 1~12. 31)

發行日：1997年 12月 31日

發行處：統一院 南北會談事務局

